

진정한 삶의 책

신성한 스승의 가르침

제9권

가르침 242 - 276

삶을 위한 도서 서비스

12권으로 구성된 『진정한 삶의 책』 (Libro de la Vida Verdadera)은 전 인류에게 남겨진 유산이며,
멕시코 시티(Mexico D.F.)의 “Dirección General del Derecho de Autor de la Secretaría de Educación
(Dirección General del Derecho de Autor de la Secretaría de Educación Pública)에 26002, 20111, 83848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어 원본판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아소시아시온 데 에스투디오스 에스피리투알레스 비다
베르다데라, A. C.
Apartado Postal 888, México, D.F., - C.P. 06000

독일어 번역, 독일어판 서문, 해설, 각주, 주석 및 작품에 대한
참고 사항을 담당한 자:
발터 마이어(Walter Maier)와 트라우고트 겔텐보트(Traugott Göltenboth).

2017년 1월 기준

편집 (새로운 철자법 및 레이아웃):
부흐디엔스트 줌 레벤
만프레드 베제
Kirchweg 5
D-88521 에르팅겐

전화: +49 (0) 7371 929 66 42
이메일: manfredbaese@gmx.de

『진정한 삶의 책』은 이 버전을 바탕으로 DeepL Translator를 통해 여러 다른 언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고트홀트 겔텐보트(Gotthold Göldenboth)가 번역하고 라이클 출판사(Reichl Verlag)에서 출간한, 저작권이 있는 진정한 원본 저작물입니다. 이 저작물은 본래의 순수성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어떠한 수정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죄가 되며, 신의 심판을 초래할 것입니다.

안나 마리아 호스타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2017년 3월 25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인)의 시대” ...

...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활용하라. 오늘 내가 너를 택하여 내 가르침을 받고
이를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리라.”*

이 사업을 주관하는 사람은 이 글들의 소유주이신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안나 마리아 호스타입니다.

(이메일: hoanna64@yahoo.com)

DeepL - 다운로드 링크: www.DeepL.com/Translator

(비즈니스 버전)

DeepL은 현재 1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가능하며, 데스크톱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번역을 위해서는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2026 년 9월 기준

목차

진정한 삶의 책	1
서문	6
서문	8
가르침 242	12
가르침 243	20
가르침 244	30
가르침 245	40
가르침 246	49
가르침 247	60
가르침 248	70
가르침 249	82
가르침 250	92
가르침 251	104
가르침 252	114
가르침 253	123
가르침 254	134
가르침 255	143
가르침 256	152
가르침 257	162
가르침 258	171

가르침 259	181
가르침 260	193
가르침 261	203
가르침 262	212
가르침 263	222
가르침 264	232
가르침 265	242
가르침 266	253
가르침 267	263
가르침 268	273
가르침 269	283
가르침 270	292
가르침 271	302
가르침 272	310
가르침 273	321
가르침 274	329
가르침 275	338
가르침 276	347
목차	357
1866-1950년 멕시코의 신성한 가르침	365

서문

모든 시대에 걸쳐,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순수하고 높은 형태의 소통은 영과 영 사이의 소통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적으로 이에 대비되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계시, 가르침의 형태로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드러내어 주실 중재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 시대에는 모세와 족장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두 번째 시대에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

제3의 시대, 즉 오늘날에는 1884년부터 1950년까지 멕시코에서 수많은 대변자들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그곳에서는 평범한 백성들이 소박한 모임 장소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1950년 이전의 지난 10~20년 동안, 이러한 신성한 계시들은 속기로 기록되었으며, 1950년대에 들어 각 모임 장소에서 수집되었습니다. 그중 366개의 가르침을 선별하여 1962년에 『Libro de la Vida Verdadera』 (독일어 제목: 『진정한 삶의 책』)라는 제목의 12권짜리 저서로 출판했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각각 신성한 교훈의 조화로운 통합체를 이루고 있으며, 당시에는 멕시코의 청중을 대상으로 했으나, 그 안에서 여러 차례 강조된 바와 같이 오늘날의 전 인류와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입니다.

신성한 말씀의 문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깊고 내재된 의미가 인간을 고양시키며, 굶주린 영혼에 양식과 치유제가 됩니다. 동시에 이는 일상생활에서 행동의 지침이 됩니다.

신성한 말씀을 듣는 것은 완전함을 향한 길의 첫걸음입니다. 이는 우리 안에 들은 바를 내면화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일깨워 주어,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계명, 즉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행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내면의 평화, 나아가 세상의 평화로 이끄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일반적으로 단 한 번의 지상 삶만으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처럼 온전해지는” 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환생의 법칙—신성한 사랑과 자비, 정의의 법칙—을 통해 우리 영혼을 단계적으로 발전시키고 과오를 속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신성한 영께서는 수많은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 마침내 영과 영으로 소통하고,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기기 위해 진정한 영적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제2시대에 신성한 영께서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제3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리 내어 말할 필요조차 없이, 마음 깊이 느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내면의 갈망으로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훨씬 더 짧은 기도를 권고하십니다. “주님, 주의 뜻이 제게 이루어지소서.”

제9권을 읽고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전능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격동의 시대에 우리 이웃을 위한 등대가 될 수 있는 힘과 영감을 얻기를 바랍니다.

서문

수년 동안 멕시코에서 열린 신성한 집회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며 참여해 온 직접적인 목격자만큼, 그 깊은 감정과 내적·외적 개인적 변화의 경험을 더 잘, 더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막 21세를 맞이한 참이었다. 수년 동안 나는 매우 괴로운 피부병의 희생자로서 집에만 갇혀 지내야 했으며, 그 병 때문에 단 몇 순간이라도 햇살이나 신선한 공기의 상쾌함을 누릴 수조차 없었다.

영원처럼 느껴졌던 그 고독의 세월 동안, 특히 가장 허황된 꿈에 젖어 있던 청춘의 여명기에 있었기에, 나는 상당한 조바심과 절망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이 시련 속에서 나에게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 준 것은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이 베풀어 준 따뜻한 보살핌뿐이었으며, 물론 언젠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도 함께 있었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이 내 증상을 진료했고, 나는 셀 수 없이 많은 치료법을 시도받았지만, 모두 소용이 없었다. 매번 실패할 때마다 내 절망감이 커져만 갔던 것만 기억난다.

고립과 침묵, 그리고 외로움이 날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지자, 나는 기도에 의지했고, 그 안에서 내 영혼이 형언할 수 없는 평화를 찾았으며, 머지않아 내가 이 갇힌 상태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예감이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기도는 점점 더 길어졌고, 정신적 집중은 점점 더 깊어졌다. 나는 가능한 한 자주 명상에 잠기려 애썼다. 기도가 지속되는 동안만큼은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그 황홀함이 지나가고, 고독하고 고요하며 단조로운 삶의 현실로 되돌아올 때면, 나는 마치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영감을 받은 다른 세계에서 돌아온 듯한 느낌을 항상 받았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나는 생각 없이 순간적인 영감에 따라 기도를 구성하곤 했다. 그런 황홀경에 빠져 시간 감각을 잃어버리곤 했던 것과,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어린 시절—대략 12살 무렵부터—나는 스스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거의 매일 몇 분 동안 지속되는 일종의 영혼의 분리 상태에 빠져 있었고, 그 시간 동안 나는 아마도 잠재의식에 이끌려 마치 자동인형처럼 행동해야만 했던 것을 기억한다. 이 기이한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조금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처음에는 이 상태가 저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현상은 더욱 심해지는 반면 저는 점차 그 상태에 익숙해졌습니다.

내 병은 절정에 달했다. 때로는 내 피부가 아무것도 진정시킬 수 없는 내면의 불길에 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동시에 내 외모는 점점 더 처참해져만 갔다.

어느 날, 아버지는 분명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일 한 평범한 사람의 입을 통해 신성한 스승의 말씀을 들었다는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곳은 멕시코의 외진 동네에 있는 초라한 모임 장소였습니다. 오랫동안 그 계시를 존경해 온 한 친한 친구가 아버지를 그곳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순간, 나는 그곳에 계신 분이 바로 그분, 스승이시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분은 인간의 지각 능력을 빌려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며, 빛을 갈망하고 정의를 목말라 하는 이들을 찾고 계셨던 것이다.

내가 매일매일 기다리던 기적이 내 앞에 서 있었다. 고통의 시간마다 수없이 대화를 나누었던 그분, 이제 내 곁에 아주 가까이 계셔서, 내 몸과 영혼의 치유를 베풀어 주시려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랐다! 1934년 2월 14일 일요일, 나는 신성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수많은 모임 장소 중 하나인 그 소박한 모임실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참석자들이 “신성한 광선”의 도래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모습에서 드러난 내면으로의 침잠과 깊은 집중력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신성한 광선”은 “말씀의 전달자”가 내면의 소리를 듣도록 영감을 주어, 그가 천상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할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말씀의 전달자” 혹은 “도구”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평범한 외모를 가진, 말하자면 소박한 여성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녀의 외모는 제게 그다지 좋은 인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녀의 입술이 열리며,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심오하고 경이로우며 지혜로운 설교가 흘러나왔을 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놀라움을 느꼈다. 게다가 놀랍도록 변화무쌍한 억양이 담긴 달콤한 목소리로 전해진 그 설교는, 메시지에 깊은 감동을 주는 강렬한 어조를 더해 주었다.

설교가 진행될수록 참석자들은 말씀의 전달자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영의 영역으로 승화하여 신성한 가르침을 온전히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선포 도중 우연히 눈을 뜨고 말씀의 전달자를 바라본 사람은, 그 본래는 초라하고 평범한 존재가 정신이 고양되면서 어떻게 변모했는지, 나아가 그러한 순간에 그에게서 얼마나 큰 아름다움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위엄이 뿜어져 나오는지 알아차릴 수 있었다.

신성한 말씀은 마르지 않는 거대한 파도처럼 그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왔는데,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그 이상 이어졌다. 이

모든 것은 주저함도, 중단도 없이, 흠잡을 데 없이, 조금의 피로감도 드러내지 않고, 목소리가 쉼 소리나 갈라지는 일 없이 이어졌다. 오히려 전도가 길어질수록 영감은 더욱 완벽해지는 듯했다.

그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순간, 신성한 스승의 임재가 너무나 강렬하게 느껴져, 그분의 가까움과 우정을 마치 손에 잡힐 듯이 실감할 수 있었다. 그분은 모든 이의 마음에 말씀하셨다! 그분은 참석자들의 가장 숨겨진 생각까지 읽어내시고, 청중들의 가장 깊은 심금을 울리셨는데, 그 누구도 상처 주거나 비난하지 않으셨다. 모든 사람은 마음속으로, 사랑과 지혜의 예리한 시선을 지닌 스승께서 바로 자신에게 건네신 말씀이 무엇인지 느꼈습니다.

신성한 말씀은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 다양한 뉘앙스와 색채를 띠게 되었다. 주님께서 아버지로서 말씀하실 때면 그 목소리에는 다정함과 용서, 그리고 어루만짐이 스며들었고, 스승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는 그 목소리가 심오하고 지혜로워졌으며, 그리고 그분이 심판자로 나타나실 때면, 말씀의 전달자의 목소리는 무한한 권위와 권능의 어조를 띠게 되었으며, 그 때 정의와 신성한 열정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전해져 청중들을 진정으로 압도하고, 그들에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며, 회개와 속죄를 위한 굳은 결심을 다지게 했다.

나는 그러한 위대함 앞에서 아주 작게 느껴졌고, 모인 사람들 중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무지한 나는 주님께서 분명 나의 하찮은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곧 나는 내 착각을 깨닫게 되었고, 스승님의 시선이 모든 이를 꿰뚫고 계셨음을 알게 되었다. 그 영적인 축제를 누리는 것 외에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수개월 동안 자주 방문하던 중, 잊을 수 없는 어느 오후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1934년 8월 9일, 나는 놀라움에서 헤어날 수 없는 채, 신성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섬기도록 표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지극히 고귀한 순간, 가장 깊은 감동과 가장 고상하고 심오한 감정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피조물들에 대한 무제한적인 권리를 지니신 분께, 그 숭고한 순간에 내가 무엇을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토록 무겁고도 섬세한 사명에 내 삶을 바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간의 준비 기간은 동시에 나의 완전한 육체적 회복을 가져다주었으며, 그 시간 동안 나는 신성한 스승의 말씀 전달자로서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 순간부터 1950년 12월 31일, 신성의 빛이 이 형태로 드러나는 것을 멈출 때까지 몸과 영혼을 다해 그분께 헌신했습니다.

말씀의 전달자였던 우리가, 인상과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면, 책 여러 권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여정은 가장 경이로운 사건들의 끊임없는 연속이었으며, 제가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이를 모두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 과정에서 우리 입에서 흘러나온 말씀 외에는 다른 어떤 책도 의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성한 메시지를 가능한 한 충실하게 받아들이 수 있도록, 어떤 영향도 우리 마음에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겸손함을 유지할 때면,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 앞에서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를 특별히 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이라도 허영이나 이기심에 사로잡히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잠시 동안 영감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1950년 말 스승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이후로, 저는 ‘말씀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던 시절 해마다 제 내면에 품고 있던 그 특이한 느낌들을 다시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많은 형제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행히도 기록되어 있던 가능한 한 많은 계시와 계시를 수집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일반 대중이 접할 수 있도록 한 권의 책이 편찬되었으며, 이 책은 지금까지도 인류가 스승께서 현재와 미래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빛, 정의, 평화의 선물로 남기신 진리의 물을 마실 수 있는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이 형태로 계시를 전하실 때, 제가 과분하게도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역할을 맡았기에, 저에게 증언을 요청받았으며, 이 글을 통해 그에 부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진심을 다해, 이 증언이 자극제가 되어, 신성한 스승께서 그 자비로움으로 이 시대의 인류에게, 비록 단순하고 보잘것없는 매개자들을 통해 계시하신 메시지를 담은 이 책을 손에 든 이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일깨워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동시에, 주님의 이름으로 독일의 형제자매들에게 영혼 깊은 곳에서 우애 어린 인사를 전합니다. 스승님께서 인간 종재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들의 놀라운 영적 각성을 기리며.”

가르침 242

1. 인류의 고통이 가혹하고 그 여정이 고달픈 이 시기에, 나는 너희가 너희의 유산을 발견하도록 돕기 위해 너희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뜻을 품어왔다.
2. 너희의 얼굴을 돌려, 너희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아라. 그 길은 어떤 이들에게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길이다. 바로 그 길을 내가 너희로 하여금 다시 걷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곳에서 더럽혀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길을 잃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3. 제자들아, 너희 가운데 계신 나의 현존을 활용하여 너희 영혼 속에 나의 평화를 간직하고, 그것을 이웃들이 느낄 수 있게 하라.
4. 이 제3의 시대에 대한 나의 가르침은 너희를 영적 정체 상태에서 끌어내어, 영적 길 위에서 크고 확고한 발걸음을 내딛게 할 것이다.
5. 나는 너희가 내 신성을 감당할 자격이 있다고 느끼게 하고, 너희가 내 말씀을 전할 능력을 부여받았으며, 그 말씀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내 계시가 너희 자신의 이성적 능력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었다. 내일, 이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더라도, 내 말씀이 너희 존재 속에 깊이 새겨져 있음을 알기에, 너희 마음이 그 투쟁 앞에서 낙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6.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맡긴 씨앗을 잘 간직하라. 내가 결코 자녀를 상속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라. 오히려 그 자녀가 자신의 악한 행실로 인해 점차 스스로 상속권을 잃게 되는 것이다.

7. 사람들이 설명과 증언을 갈망하며 너희의 문을 두드릴 때, 숨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을 대답해야 하나?”라고 묻지도 말라.

8. 너희는 평온한 마음과 단호한 목소리로 나에 대해 말해야 하며, 내가 너희에게 준 무기, 즉 자비와 사랑, 진실함으로 내 이름을 지켜내야 한다.

9. 그러므로 나는 너희와 함께 머물며 오랫동안 내 존재를 드러내어, 나의 다채로운 가르침이 너희를 깨우치고 나의 기적들이 너희의 믿음을 불태우게 하였노라. 내 말씀의 진리는 너희로 하여금 과거의 종교적 광신을 잊게 하였으며, 사람들이 너희를 탐구할 때, 그들은 너희에게서 오직 참된 영적 예배의 소박함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10. 내 말씀은 들을 수 있는 여러 모임 장소에 물줄기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으니, 이는 너희가 가장 큰 투쟁과 가장 무거운 시련의 시기에 가르침 없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미 내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가 다가오고 있다.

11. 이 은혜가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태초부터 너희가 영과 영이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왔음을 기억하라.

12. 모든 시대는 너희 영혼을 위한 새로운 교훈이었으며, 발전의 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13. 나는 많은 대변자들을 통해 내 목소리를 들려줌으로써 세상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나의 가르침은 너희 영혼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한다.

14. 만일 인간이 영혼이 없고 전적으로 물질적인 존재라면, 그의 사명과 운명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끝날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불멸하는 무언가가 있기에, 그는 투쟁하고, ‘깨어’ 있으며, 영원을 향해 시선을 고정할 것이다.

15. 나의 말씀은 너희가 내일 세상, 즉 나의 메시지가 점차 이해되는 그 시대에 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준다. 그때 너희는 내가 오래전에 너희에게 예고했던 사건들을 내가 미리 예견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16. 나의 가르침은 싸울 것이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전투를 일으킬 것이다. 그들이 이기적인 삶을 고집하는 동안, 나의 가르침은 그들에게 자비와 사랑이 없는 곳에는 평화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것이다.

17. 나의 영적 가르침은 가난과 굴욕 속에 억압받으며 사는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인류를 이끌고 통치하는 이들의 영혼과 이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임무도 지니고 있다. 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고귀한 감정에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너희는 각자 안에 내재된 더 높은 소명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8. 사람들은 마음속에 증오와 이기심, 비관주의를 품는 대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될 것이며, 정의의 승리에 대한 희망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영성화는 점점 더 널리 퍼질 것이며, 여러분은 형제자매처럼 서로를 사랑하게 되어, 그로 인해 강력한 힘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힘 앞에서 여러분을 전쟁으로 이끄는 모든 상황은 허무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19. 나는 너희를 벌하지는 않으나, 나는 정의 그 자체이며, 그 정의로서 내 계명을 어기는 모든 이에게 그 정의를 체감하게 한다. 영원하신 분께서 너희에게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의 율법을 알려 주셨기 때문이다.

20. 사람이 큰 시련을 겪을 때 —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심연으로 떨어질 때, 가족을 잃고 아내가 울고,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으며, 집안이 비참함과 슬픔에 잠겨 있을 때 — 불행을 마주하고 당황하며 절망에 빠지고,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식으로 벌하실 수 있단 말인가?”라고 말하며 나에게 반항하는 모습을 보라. 그 동안 신성한 영은 자녀들의 고통 때문에 마찬가지로 울고 계시며, 그 눈물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생명의 피이다.

21.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류가 도달한 발전 단계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것은 오로지 나의 자비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희생이지, 나의 형벌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의 법과 나의 빛은 모든 영혼 안에서 빛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공의는 모든 잡초를 뿌리째 뽑아내기 위해 내려오며, 심지어 자연의 힘들조차 이 공의를 집행하는 자로 드러냅니다. 그러면 마치 모든 것이 인간을 말살하기 위해 공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오직 인간의 정화를 위해서일 뿐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혼란에 빠져 “우리가 이토록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한다면, 도대체 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일까?”라고 말하곤 하는데, 고통과 죄가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정의가 무엇이며 속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무지한 채 머무르는 데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먼저 반항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신성모독이 뒤따른다. 오직 나의 가르침을 깊이 탐구하고 나의 율법을 따르는 자만이 더 이상 자신의 아버지께 비난을 퍼부을 수 없다.

22. 영적 영혼은 신성한 영에서 뿔어져 나온 불꽃으로, 다양한 육신을 통해 시험을 받습니다. 너희가 이미 이론 그 발전 덕분에, 이 시대에 나의 영적 메시지가 그들에게 직접 전달되어 이해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어 가므로, 여러분도 발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조상들이 그분을 이해했던 것처럼, 여전히 그토록 제한된 방식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따라야 할 의무가 있던 의식과 규율에 따라 행동했던 사람들처럼 살거나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처럼 영적인 것을 다루기에는 미성숙하다고 스스로를 여길 수는 없습니다.

23. 비록 과거의 사람들이 물질적인 교회를 세움으로써 영혼의 구원을 찾으려 했고, 외적인 예배 형식을 수행함으로써 영혼의 정화를 이루려 했으나, 너희는 더 이상 그러한 광신과 무지의 정체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본성 속에 있는, 너희 신의 위대함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쇠퇴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24. 내가 너희에게 말했노라. 너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집중하여,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무한하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을 바라보라. 그러면 너희는 나의 자비로부터 받은 그토록 큰 은총 앞에서, 더 이상 물질적인 제물로 감사를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25. 너희의 감정과 사랑의 행실이 바로 너희에게 있어 가장 훌륭하고 귀중한 헌물이 될 것이다.

26. 천국을 얻고 싶다면, 너희의 선한 행실로 가득 찬 책을 만들어라. 그러면 너희는 오직 스스로에게만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더 이상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게 될 것이다.

27. 내가 너희에게 과거에 제시했던 것과 동일한 길, 곧 너희의 미래를 위한 견고한 토대가 되는 그 길을 보여 주었으니, 너희는 새로운 교리로 보일 수 있는 새로운 법이나 계명을 제정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람들을 내 말씀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28. 나는 어떤 종교 공동체도 대적하지 않으며, 각 공동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나는 오직 완전함을 보여줄 뿐이다. 완전해지고자 하는 자는 나를 따르라.

29. 나는 너희가 영혼의 구원을 얻도록 가르치기 위해 내 피를 흘렸다. 시험의 시간이 다가오면, 너희도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옳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30. 나의 빛은 이 소박하고 보잘것없는 모임 장소들의 그늘 아래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 속에 드러나니, 이곳은 지친 여행자에게는 나무와 같고, 사막을 횡단하는 이에게는 오아시스와 같다. 그 빛은 그들을 비추고 위로해 준다.

31.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바로잡는 그 사랑 안에서, 나는 나 자신을 드러낸다. 너희가 자신의 뜻대로 살며 끊임없이 아버지를 상처 입혔을 때, 나는 그 죄악된 삶의 실타래를 끊지 않았고, 너희에게 숨 쉴 공기나 먹을 빵을 거두지도 않았으며, 고통 속에 너희를 내버려 두지도 않았고, 너희의 탄식을 외면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자연은 여전히 그 풍요로움과 빛, 그리고 축복으로 너희를 감싸 주었다. 이처럼 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나를 계시한다.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이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나처럼 너희를 용서할 수 없다.

32. 너희의 영혼은 내가 영원부터 가꾸고 완성시켜, 가장 아름다운 꽃과 가장 완벽한 열매를 맺게 하는 씨앗이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죽게 내버려 두거나 폭풍우의 힘에 내맡길 수 있겠느냐?

33. 내가 모든 피조물의 운명을 아는 유일한 분인데, 어떻게 너희의 여정에서 너희를 버릴 수 있겠느냐?

34. 내가 너희에게 많은 것을 계시하는 것은,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탄식을 듣고, 미소 뒤에 숨겨진 슬픔을 발견하며, 과학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배우게 하려는 것이다.

35. 오늘, 고통받는 이들이 너희의 길을 가로지르는 이 순간, 너희가 받은 것 중 일부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나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영적 계곡”으로 부르는 영원의 종소리가 너희를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니. 너희는 놓친 기회를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6. 지금부터 너희 영혼을 위한 평화를 쌓아가라.

37. 제자들아, 내 말씀은 종종 너희 가운데서 심판처럼 다가왔었다. 그러나 그 핵심 속에서 너희는 이 시기에 너희를 새롭게 일으켜 세운 열매의 달콤한 맛을 발견했다.

38. 너희가 고집스럽게 죄 속에 머물러 있을 때, 나는 너희에게 엄하게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곧 너희는 너희를 구원하려는 너희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육신”의 반항심은 점차 영성화로 바뀌어 갔다.

39.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랑에 대해, 사람들은 그 증거나 표징을 거의 보여주지 않는다. 모든 인간의 감정 중에서 신성한 사랑과 가장 닮은 것은 모성애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이타심과 자기 부정이 있으며, 비록 희생이 따르더라도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고자 하는 열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40.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킬 사랑이 다시금 마음에서 솟아날 것이다. 이 사랑은 나의 성령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것으로, 성령께서는 인류를 깊은 잠에서 깨우기 위해 그 광선을 내려 보내실 것이며, 그리하여 인류가 깨어 있는 마음으로 이 새로운 아침의 여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실 것이다.

41. 이 시대에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나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재산을 버리고, 다른 이들은 거짓된 사랑의 관계를 잊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높은 거처와 왕좌에서 내려올 것이며, 또 다른 이들은 제단을 떠날 것이다.

42. 남게 될 것은 정욕과 허영, 덧없고 무의미한 쾌락들뿐이다.

43. 나는 너희 영혼을 갈망하며 오나니, 내 사랑으로 너희 곁에 머물며 너희 영혼을 구원하리라. 내가 약속의 땅의 문을 연 것은 너희의 육신이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 눈부시게 빛나는 도시는 마치 가장 아름다운 축제 의상을 입은 새 옷처럼, 삶의 거대한 전투에서 자신의 공로와 승리를 통해 그곳을 쟁취한 ‘예고된 자’의 도착을 기다리는 고향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의 영이다.

44. 나는 너희가 영원한 고향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공로를 쌓는 법을 가르쳐 준다. 나는 꽃향기처럼 내게로 올라오는, 깊고 소박한 기도로 세상을 위해 기도하도록 너희에게 가르쳤다. 나는 너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능력과 영적 은사를 부여했다. 나는 너희가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며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영적·도덕적 힘을 부여해 주었다. 나는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자칭하는 행복과, 너희의 모범을 통해 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갱신과 개선에 대한 결심을 굳건히 해 주었다.

45. 너희의 영혼은 나의 임재를 받아들이기 준비를 마쳤다. 시간이 지날수록 너희는 세속적인 삶에 점점 덜 신경 쓰게 되고, 영적인 미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46. 너희가 가는 길에서 마주치는 고통과 불행들을, 이제는 발을 살짝 다치게 할 뿐인 작은 걸림돌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결정적인 장애물로 여기지 않는다. 오늘날 너희는 큰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를 위해 흐느낌과 눈물을 아껴두고 있다.

47. 나의 자비가 너희를 인도하니, 너희는 점점 더 분별력이 생겨날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내 말씀을 들을 때 그저 위안을 얻는 데 만족하고, 그 내용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며, 주님께 물질적인 것을 간구할 때만 주의를 기울이던 사람들이 아니다.

48. 이제 너희는 스승을 갈망하는 진정한 제자로서 나아오며, 그런 제자로서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내가 예전에 너희에게 “나는 길이다”라고 말했듯이, 오늘은 “나는 너희가 나를 향해 올라갈 하늘의 사다리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너희는 나의 빛 속에서 스스로를 고양시키고, 나에게 다가서며,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스승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다.

49. 이제 너희는 너희 자신 안에서, 너희가 존재해 온 이래로 내가 항상 머물러 온 그 곳에서 나를 찾게 되었다. 너희는 너희 내면을 들여다보았고, 사랑의 제단, 겸손의 제물, 그리고 가장 거센 폭풍우도 꺼뜨릴 수 없는 불꽃을 지닌 촛대, 곧 ‘믿음’을 품고 있는 성소를 발견했다.

50. 너희의 영혼은 영적 사명의 전령이자 전달자였다. 태초부터 너희의 영혼은 이웃을 구원하고 축복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51. 이제 그 영혼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고, 만지고, 바라보며, 그분과 대화하기 위해 그분의 형상을 만들어내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52. 너희는 오래전부터 그 형상들과 조각상들, 상징들에 등을 돌렸다. 너희는 생명, 사랑, 영, 의지, 이성, 힘, 영적 영원성과 같은 신성의 모든 능력과 속성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기에, 창조주의 진정한 형상을 너희 자신 안에 품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53. 이 시대에 나는 너희 영혼에게 이해받고 사랑받을 것이며, 또한 본보기로 삼아질 것이다. 이제 나의 빛은 사람들에게 불분명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다.

54. 나는 너희의 이성 능력을 통해 너희에게 말씀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나의 신성한 광채가 인간의 언어로 전달되었다. 그러나 말의 전달자와 듣는 무리가 나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을 때, 나는 신성한 본질로 드러났음을 알아두라. 그러나 내 자녀들이 자신을

고양하는 법을 알지 못하거나 나를 위한 성소를 준비하지 못했을 때, 신성한 광선은 영혼들 위에 머무르며 그들을 온전히 관통하지는 못했습니다.

55. 나는 이 마지막 시기에 너희에게 아직도 많은 것을 계시하고 가르칠 것이다. 나의 유산은 클 것이다. 아직 나의 비밀 보물창고에는 각자에게 정해진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 비록 너희가 '표식받은 자들'에 속한다 하더라도, 너희 모두가 동일한 수준의 이해를 얻지는 못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은 단계에 서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점을 이해했으니, 누구도 재촉하지 않도록 하라.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며, 모든 이가 자신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56. 너희는 현재 예상치 못한 형태로 닥칠 시련에 대비하고 있다. 그 시련이 어떤 것일지에 대한 힌트는 예언적인 꿈과 영적인 환상을 통해 상징적인 방식으로 이미 받은 바 있다. 깨어 있고 기도하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경고할 것이기 때문이다.

57. 너희는 나의 사역과 너희 자신의 소명을 마주할 때, 스스로를 합당하지 못하고 미성숙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불완전함의 모든 거친 부분은 내가 너희에게 예고한 그 시련이라는 끝에 의해 다듬어질 것이다.

58. 모든 것이 나를 말하게 될 것이며, 나는 자연의 모든 현상을 통해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예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외침들이 이제 들리고 이해될 것이다. 온 창조계는 소용돌이치며, 떨리고 뒤흔들려 우주에 신성한 정의가 임재함을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심판을 받은 후, 사람들은 익숙한 궤도로 돌아갈 것이나, 그들은 완전함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뎠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각성과 중생일 것이다.

59. 미덕의 빛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꺼뜨릴 수 없이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이성이 승리할 것이며, 사랑은 더 이상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이 될 것이다. 주인과 종의 구분이 점차 사라질 것이다. 온 땅에 내가 제자들을 두겠으며, 그들은 모든 민족에게 빛과 평화, 그리고 계시가 될 것이다.

60. 인간의 권력 추구와 이기심으로 인해 불화의 씨앗이 되어버린 이 세상은, 결국 누구의 소유도 아닌 채 모든 이가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창조주께서 모든 피조물을 너희에게서 거두어 가실 때, 너희는 기꺼이 모든 재물을 뒤로 남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61. 인류는 이제 이 빛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 너희가 힘든 시련에 처해 있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더구나

신성모독을 해서는 안 된다. 기도하고, ‘깨어’ 있으며, 인내하라. 신성모독과 저주, 악담은 무지한 자들의 입에서 나올 것이니, 너희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때 사람들의 절망 한가운데 고요함이 찾아오면, 너희가 말할 것이며 그 목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를 모독했던 자들이, 비유 속의 탕자와 같이 회개를 통해 용서를 받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너희는 그들에게 형벌 대신 용서와 사랑이 베풀어지는 것을 보고 놀라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세상에서 평화와 사랑의 축제를 목격할 때, 너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62. 인류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성전이 무한히 솟아오르면, 그 가운데 새로운 계시들이 나타날 것이며, 영혼들이 위쪽으로 발전할수록 그 계시들은 더욱 커질 것이다.

63. 지금 나는 여러 모임 장소에서 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를 하나로 모으고자 한다. 너희가 나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즉시, 너희는 서로를 사랑하게 될 것이며,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의 심장처럼 뛰게 될 것이다.

64. 이해가 부족한 이유는 너희의 이해력이 피상적이고 미약하며, 항상 세상의 재물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처음 얻은 것, 즉 마음의 약간의 평안, 튼튼한 지붕, 약간의 육체적 건강, 가족들의 따뜻한 정, 그리고 소량의 돈에 만족해 한다.

65. 내가 너희에게 세상의 재물을 경멸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를 그 재물보다 우선시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66. 내 길을 따라 너희 영혼의 고양을 추구하되, 세상의 아침과 영예는 피하라. 너희 가운데서는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백성 전체의 행적이 두드러져야 함을 알라. 선한 씨를 뿌린 자에 대한 기억은 존중받고 축복받아야 하며, 그의 본보기는 귀감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그에게 남을 유일한 기념비가 될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가르침 243

1. 나의 사랑의 불꽃이 너희에게 내려와 너희 마음에 온기를 주고, 너희 영혼 속에 타오르는 불꽃을 지피리라. 너희 내면을 비추는 등불은 어떤 이들에게는 꺼져 가던 중이었고, 다른

이들에게는 이미 꺼져 버렸으며, 그들은 나에게 오직 무지한 불확실함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순간, 나의 빛은 모든 이 안에서 빛나고 있다.

2. 이미 시작한 길에서 왜 물러서거나 주저하느냐? 앞으로 나아가라, 제자들아!

3. 인류는 이미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나의 사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제3시대에 나의 현존과 말씀을 증언하는 바로 너희가 그 사자들이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종교를 통해 나에게 도달할 수 있겠는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인류의 상향 발전을 위한 길은 오직 하나뿐이며, 이것이 바로 내가 제1시대에 나의 율법 안에서 너희에게 지시한 길이다. 이 길은 제2시대에 나의 피로 인봉되었고, 이 시대에는 나의 성령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4. 나의 모든 율법은 두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5. 종교들은 영혼들을 참된 길로 인도하는 작은 섯길들로서, 영혼들이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 마침내 나에게 이르게 하는 길이다. 사람들이 지상에서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 한, 그들은 분열되어 있다. 그러나 일단 그들이 사랑과 진리의 길에 들어서면, 그들은 하나가 될 것이며, 그 유일한 빛과 하나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는 오직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6. 그러나 이 땅의 순례자인 방랑자들은 멈춰 서서 잠들어 있다. 사랑과 진리가 마음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고, 자연의 힘이 풀려나기 전에, 그 위엄 있는 외침으로 영혼과 감정과 지성을 뒤흔들기 전에, 사랑과 자비로 길을 잃거나 지친 자들을 깨우고 일으켜 세울 사자들을 준비해 두었다.

7. 영적 가르침에 대항하여 그 적들이 일어나, 최상의 무기를 들고 온 힘을 다해 이 계시에 대한 반박 증거를 찾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에 떠오른 빛을 꺼버릴 수 있는 인간의 힘은 없을 것이다. 마치 그 당시 사람들이 골고다에서의 처형조차도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침묵시킬 수 없었던 것처럼, 그곳에서 그들이 흘린 피가 영원토록 계속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8. 사기꾼이나 마법사라고 불릴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모욕은 너희 스승께도 퍼부어졌으며, 불신자들과 타락한 자들이 나의 예언자와 사도들에게 붙였던 별명이기도 했다. 그러나 주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진리가 승리했을 때, 가장 심하게

모독했던 자들이 나중에는 바울처럼 가장 회개하고 열성적인 신자들이 되었다.

9. 제3시대의 사도 무리 속에는 고난의 길을 따라 스승님을 나무 십자가 밑까지 동행하며, 모욕을 무시하고 조롱을 견뎌낸 그 여인도 있습니다. 지금 제3시대에 그녀는 충실한 “일꾼”이자, 강인한 영혼이며, 투쟁의 전사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시대에 그녀에게 내 식탁의 자리를 주었습니다. 사도의 지위는 성별의 구분 없이 영혼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10. 함께 일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라. 약속의 땅에 도달할 때까지.

11.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자신의 사랑의 행실을 드러내지 않고 온전한 겸손으로 일에 임해야 할 때이다.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게 하라. 주님의 제자임을 자랑해서는 안 되며, 아침을 구해서도 안 된다. 이 원칙을 따를 때, 영적 군대들은 하나의 의지와 하나의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진정한 군대로 통합될 것이며, 그들의 투쟁은 무지와 죄, 그리고 종교적 광신을 물리치는 데 목적을 둘 것이다.

12. 이 백성, 즉 인간과 영적 존재들로 이루어진 이 군대는 다가올 시대에 이 사역의 수호자가 되어, 가르침과 율법이 왜곡되지 않게 하고, 인간이 진리를 대적하는 일을 그치게 할 것이다.

13. 내 가르침의 그늘 아래에서는, 거기서부터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 동료 인간들의 영혼을 지배할 수 있는 어떤 왕좌도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망으로 누구도 왕관을 쓰거나 자줏빛 망토를 두르지 않을 것이며, 심판하고, 용서하고, 정죄하거나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고해 신부들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나만이 의롭고 완전한 심판석에서 영혼을 심판할 수 있다.

14. 나는 사람들을 바로잡고 가르치며 인도할 사람들을 보낼 수는 있으나, 심판하고 처벌할 사람은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람들의 목자가 된 이들을 보냈으나, 주인이나 아버지가 된 이들은 보내지 않았다. 영적으로 유일한 아버지는 나뿐이다.

15. 영성화는 너희 영혼 속으로 스며들어 다가올 세대들에게 전해질 것이며, 그들은 자신의 몸 안에서 양심의 계명에 기꺼이 순종하는 도구를 발견하고, 신성한 영감을 받아들일 수 있는 큰 명료함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세대들에서는 영적 가르침을 전하는 위대한 스승들과, 명석한 지성과 높은 지능을 지닌 위대한 과학자들이 나올 것이다.

도덕과 미덕으로 모범이 되는 족장들이 있을 것이며, 진리의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나타날 것이다.

16. 내가 너희에게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자녀들에게 순종과 영성, 형제애,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행실이라는 본보기를 남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17. 그러면 너희의 이름은 후세 사람들에게 축복받으며, 너희의 투쟁의 흔적과 선행, 본받을 만한 모범을 보고 너희를 사랑하게 될 그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자녀들이 다치지 않도록 엉덩퀴와 가시밭길을 치우는 이들이 바로 너희인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발에 걸리는 장애물을 치우지 않은 채, 길의 장애물들을 무관심하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뒤를 따르는 이들은 장애물이나 가시를 마주할 때마다 여러분을 탓할 것이며, 어떤 이들은 여러분을 저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8. 너희는 내 가르침 안에서 너희의 행실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너희 뒤를 따르는 이들이, 많은 이들에게는 불가능해 보일 법한 일을 너희가 성취하고 실행해 낼 수 있었음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영성주의가 환상도 아니고 지나치게 진보적인 가르침도 아니며, 오히려 영혼들이 발전 단계에 따라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적절한 시기에 인류에게 드러났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19. 지금이야말로 엘리야의 영이 온 우주에 빛나며, 모든 세계와 모든 길, 모든 영혼을 비추고, 잠든 자들을 깨우며,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고, 거대한 군중 속에서 태초부터 인류를 위한 주님의 사명을 지닌 '14만 4천 명의 표를 받은 자들' 또는 "인침받은 자"에 속한 자들을 찾아내는 때입니다. 이들은 태초부터 인류를 위한 주님의 사명을 받아온 자들입니다.

20. 그리하여 나는 다른 시대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속했던 영혼들 중에서, 르우벤 지파에 속했던 자들이 그 식탁에 앉았던 바로 그 영혼들을 바탕으로, 레위 지파나 스불론 지파의 영혼들과 함께 이 백성의 새로운 가문을 형성하여, 경계와 구획, 분열을 없애고자 하였다. 그 안에 신성한 정의가 있다.

21. 어떤 모임 장소의 명성을 높이려고 애쓰지 말라. 심지어 너희 자신의 모임 장소라 할지라도 그러지 말라. 너희 동료들이 내 이름과 내 가르침을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노력하라. 1950년에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 이는 백성을 여러 그룹이나 모임 장소로 나누어 맞이하기 위함이 아니리라. 나는 어떤 모임 장소가 나의 가르침을 더 잘 실천했는지, 또 어떤 곳이

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나의 “일꾼” 전부를 맞이할 것이다.

22. 나는 각 모임 장소에 속한 “일꾼”의 수가 많아졌든 적든 세지 않을 것이다. 나는 각자의 마음에서 바치는 헌신을 받아들이고, 그 모든 마음을 하나로 합쳐 그 안에 나의 성소를 세울 것이다.

23. 엘리야는 너희의 길을 걸어왔으며, 그의 권능은 불신자들과 광신자들, 그리고 물질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 너희가 승리하게 하였다.

24. 그는 분열로 갈라져 있던 백성을 첫 번째 시대에 하나로 통합했다. 그리고 오늘날, 그는 사랑의 빛으로 너희를 영적으로 다시 하나로 통합했다.

25. 그 당시 백성이 두 왕국으로 나뉘어, 열 지파는 한 쪽에, 두 지파는 다른 쪽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더 큰 부분은 우상 숭배에 빠졌고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이 되어 있었다. 그때 엘리야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 이방인들 앞에서 나의 영광과 존재, 그리고 능력을 드러내려고 했으며,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 엘리야는 너희가 배척하고 대적하며, 그분의 눈앞에 거짓 신들과 우상들을 세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으로 왔노라. 나는 너희에게 그들의 능력을 시험해 보라고 말하러 왔으며, 나 또한 나의 주 여호와와 임재를 두고 맹세하리니, 응답을 받는 자가 참 하나님을 모시는 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26.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은 이에 동의하고 번제단을 쌓은 뒤, 그들의 신을 부르며 그 존재와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불을 내려 달라고 간구했다. 사제들과 수많은 무리가 밤낮으로 춤과 의식을 통해 그들의 거짓 신을 부르짖었으나, 번제단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대로였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돌로 쌓은 제단 위에 장작 더미를 쌓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씀했다. “주님, 주의 종인 제가 주님을 배반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시어, 그들이 다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폭풍우 한가운데서 나타나셨고, 번개가 치며 예언자의 번제단 위로 내려와 불을 붙이셨습니다.

그제야 우상 숭배자들과 미혹된 자들, 그리고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엘리야가 참 하나님의 사자이며, 모든 악을 소멸시키고 그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불의 선지자’임을 깨달았다.

27. 바로 그분이 내가 너희에게 오도록 길을 준비한 이이며, 이 시대에 열두 지파에 속한 영혼들을 하나로 모은 이이다. 오늘날 그 지파들은 마치 바위 덩어리처럼 되어, 너희가 다시 분열되고 갈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번제단에 내 신성의 보편적인 광선이 내려오게 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빛은 너희를 영원히 하나로 연합시키기 위해 다시 돌아왔다.

28.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첫 번째” 자나 “마지막” 자나, 제자나 어린 학생이나, 열성적인 자나 불신자나 모두 환영받으라.

29. 나는 너희 모두를 준비시키고 있다. 세상은 너희에게 나의 새로운 계시에 대한 증거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30. 이 땅에는 많은 종교 공동체가 있으나, 그중 어느 것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거나 서로 사랑하게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이 일을 이루어낼 것은 바로 나의 영적 가르침일 것이다. 세상은 이 빛의 진격을 헛되이 막으려 할 것이다.

내 제자들에 대한 박해가 가장 격렬해질 때, 자연의 힘이 거세게 휘몰아칠 것이나, 내 일꾼들의 기도를 통해 그 힘은 누그러질 것이며, 그리하여 세상은 내가 그들에게 준 권능의 증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31. 내가 너희를 이 모든 것 위로 들어 올렸으니, 세상의 고통과 혼돈 속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잠들지 말라.

32. 더 나은 다른 때가 올 것이라고 믿으며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정해진 순간이 오면, 너희는 “영적 계곡”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너희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생명의 연장을 간청한다 해도, 아버지의 공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 공의는 이 기회가 이미 지났다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33. 너희 가운데 있는 지친 여행자와 악덕으로 인해 기력을 잃은 죄인을 맞아들이는 것이 너희의 사명임을 깨달아라. 너희의 모범과 조언, 가르침을 통해 그들은 새롭게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34. 나는 심판자로 너희에게 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세상의 고통을 덜기 위해 위로받기를 갈망하며 내게로 오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 이웃에게 행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영적 유산을 여러분에게 맡겨 드렸을 때,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가족을 소홀히 해야 한다면, 내가 그들을 돌보겠습니다.”

35. 이 가르침은 살인적인 무기로 지켜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맡겨 준, 이를 위해 싸우게 할 유일한 무기는 빛으로 가득 찬 말과 사랑의 행실뿐이다.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자는 악한 의도와 견뎌온 공격들이 그것들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36. 죄인을 선한 길로 인도하려 할 때,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심판이나 자연의 힘, 혹은 고통을 내세워 위협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그에게 내 가르침에 대한 반감을 심어줄 뿐이다. 온전히 사랑과 자비와 용서이신 참된 하나님을 보여 주라.

37. 그러나 이 제3의 시대에 성령의 빛이 쏟아진 것은 너희뿐이 아니다. 이 빛은 모든 인간 피조물 안과 위에, 모든 영혼 속에 있다. 이 시대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로 드러났듯이, 모든 종교 공동체의 성직자, 사제, 목사들에게도 이 시대는 잘못을 바로잡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나타났습니다.

38. 나를 기쁘게 하려고 힘쓰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 너희가 진실한 사랑의 행실로 나의 진리를 증거할 때, 그들은 복음을 주의 깊게 들을 것이다.

39. 1950년 이후에는 더 이상 이런 형태로 내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미 너희가 영과 영의 대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가르쳐 주었다. 내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잘 실천함으로써 그 대화에 합당한 자가 되라. 너희는 나의 영감과 새로운 계시 없이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40. 너희가 모이는 장소는 장식으로 꾸며서는 안 된다. 그러한 장식으로 내 신성한 영을 기쁘게 하려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내 임재는 소박함과 단순함 속에서 더 잘 느껴질 것이다.

41. 나는 내 가르침을 순수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굳건한 사람들을 준비시켜,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그들 안의 자녀들이 좋은 본보기를 볼 수 있도록 하리라. 이는 이 백성이 형제애와 연합, 그리고 화합의 씨앗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42. 내가 나를 드러내는 이 시기가 끝날 무렵,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한 가족을 이루기를 내가 원했다. 마치 진정한 형제자매들처럼, 한 사람의 고통을 다른 이들이 함께 아파해 주는 그런 가족을 말이다. 너희가 모두 똑같은 한 분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너희가 이 이상을 이루게 된다면, 너희의 힘은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43. 너희 자신의 은사의 가치를 판단하지 말고, 형제자매들의 은사와 비교하지도 말라. 어떤 이에게는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주어졌다고 말하지 말라. 각자에게는 *각자의* 은사와 사명이 주어졌으므로, 모든 피조물은 사랑의 열매와 인내의 열매는 물론, 과오와 타락의 결과도 차츰 거두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사역 안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임무 속에는 정의와 속죄, 그리고 보상도 담겨 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이 자신의 공로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 진 빚으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

44. 나의 가르침은 지상에서든 “영적 계곡”에서든 너희 영혼에게 잇을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이제 너희 영혼은 발전의 길에서 다시는 반항하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와의 연결을 통해 언제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45. 나는 인간의 육체와 영혼의 결합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나는 첫 번째 인간을 창조하였고, 그에게 주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 태초부터 다양한 계시를 통해 나의 율법을 드러내 주었다.

46. 나의 가르침은 인류가 자신을 아버지의 딸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사람들 사이의 전쟁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창조주께서는 모든 이에게 생각하고,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며, 세속적인 정욕에 휩쓸리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더욱 적다. 인간은 자신이 나 자신의 일부이며,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자각해야 한다.

47. 머지않아 그는 이 행성에 한 번 이상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나, 그것은 이 세상에서 길을 잃거나 파멸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그는 자신이 소유하고 그토록 사랑하는 그 육체가, 영혼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와 결합되어 있는 단순한 도구일 뿐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48. 너희는 나의 이 도래를 목격했으며, 나의 계시와 가르침을 받았고, 나의 현현을 함께 경험했다.

49.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이 가르침들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 때가 되면 — 그들은 너희의 말과 행실을 통해 이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나의 말씀은 인간의 사고를 깨우칠 것이며, 그 빛은 모든 영혼에게 닿아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광신에서 벗어나게 하며, 깨우쳐 그들의 영혼의 목소리를 듣게 할 것이다.

50. 나는 시간이 흐르면서 너희에게 다가오기 위해 다양한 형태를 취해 왔으며, 마침내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되었다. 오늘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방식은 가장 높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깊이 스며드는 방식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영적 고양과 영감을 통해 나를 느끼고, 감동받으며, 듣기 때문이다.

51. 인간의 이성 능력을 통해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나는 내가 말하는 자와 내 말을 듣는 자들의 수용 능력에 따라 내 자신을 제한한다. 나를 듣는 이들 중 어떤 이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른 이들은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도 나를 이해한다. 오늘 내 말을 들은 너희는 이 제3의 시대에 영성화로 한 걸음 나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다.

과거 시대에도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상 숭배를 버리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까지 전통을 지켜온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본심 깊은 곳에서는, 내적 경배인 겸손과 자비와 사랑의 영성화를 위해 쓸모없는 전통과 무의미한 의식을 버리기 위해 나의 재림을 기다려 왔습니다.

52. 나는 너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며, 너희는 이를 바다 건너로 전파해야 한다. 나의 말씀은 구대륙을 가로질러, 영혼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한 채 작은 땅 한 조각을 놓고 형제끼리 살육하는 싸움에 빠져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닿아야 한다. 너희는 세상이 겪게 될 시련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모두가 평화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평화는 자연의 힘이 나를 증거한 후에야 비로소 실현될 것이다.

53. 사람들은 더 이상 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전쟁은 잔혹했으나, 인류는 새롭게 변하지 않는다. 내가 전쟁으로 인간의 죄를 벌하는 것은 아니다. 나의 공의가 전쟁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정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54.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하는 이들은 많으나, 진정으로 그분을 아는 이는 극소수니, 너희는 영으로 나의 신성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너희 가운데는 각성, 소생, 부활의 때가 도래했다.

파종 후에 수확이 올 것이나, 이는 단지 인간 발전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천상의 권능의 역사이기도 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를 준비하고, 새로운 세대가 꽃피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너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1950년 이후에는 너희가 내 가르침의 진리를 증언하고 예언자로서 선포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55. 나의 제자 요한은 앞으로 닥칠 사건들을 내다보았다. 신의 명에 따라 그는 미래를 보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것을 알렸다. 그는 표식을 받은 자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았다. 너희는

표식을 받은 자들에 속하며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
피난처로 너희에게 의지하는 자들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56. 너희의 입술은 인류에게 내 말씀을 전하는 전령이 되어야
한다.

57. 이스라엘 백성아, 나는 너희를 준비시켜 병든 자들을
어루만지고 ‘기름 부어’ 주며, 궁핍한 자들의 양식을 배가시키고,
너희 이웃에게 평화를 가져다주게 하리라.

58. 나는 오늘, 너희가 거둔 열매를 살피고, 너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길을 마련해
두었는지 묻기 위해 왔다.

59. 너희는 매 순간 내 발자취를 찾으며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러저러한 중대한 순간에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이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씀이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그것을 깊이 연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찾는 해답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60. 너희가 걷는 길은 험난하다. 그러나 내 율법 안에서 내딛는
모든 발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은 모든 영성인이 가진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

61. 너희의 속죄 의무는 크며, 그로 인해 너희의 고통도 크다.
그러나 일단 너희의 빛을 갠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면, 그
고통이 헛되지 않았으며 너희의 운명이 정의롭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62. 왜 너희는 종이 주인을 섬기듯 서로를 섬기지 않았느냐?
섬기는 자가 결코 천하지 않음을 깨달아라. 그의 겸손은 그를 높여
주고 존엄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맡긴 모든 임무,
너희는 이를 다 이룰 수 있다. 너희의 능력과 힘은 이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나는 너희에게 서로 사랑해야 하며, 어떤 사리사욕도 없이 선을
행해야 한다고, 이웃에게 대가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노라.
한 닢의 동전도 너희의 사랑이나 타인을 위한 희생의 대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63. 서로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 *자신과* 너희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 모두에게 위안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 영혼에 증오나 원한의
짐을 지고 다니지 말라. 마음이 순수하면 너희는 평화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내 진리의 사도로서 살아갈 것이다.

64. 오늘 너희는 지상에서 너희와 함께했던 사람들, 즉 너희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내가 그들을 “영적 계곡”으로 불러들였다는 이유로 깊은 슬픔

속에 나를 원망한다.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를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의 유대는 끊어지지 않았다. 너희 모두는 이 우주 안에서 살고 있으며,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너희는 모두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존재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있으며, 그들의 영혼에는 너희보다 더 큰 명료함이 있다. 그들은 깨달음을 얻었으며, 결코 너희에게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너희에게 지팡이와 위안이 되며, 중재자이자 수호자이다. 그들과 하나가 되어라. 그들은 사랑과 성령을 통해 나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고통받지 않고 만족해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게로 오기 위해 성장하고 완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65. 너희의 중재자이신 마리아께서 그분의 모성애와 영혼의 강인함, 그리고 평화를 세상에 내려주신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244

1. 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아, 나의 사랑과 자비가 너희 가운데 있도다.

2.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남녀 여러분: 오늘 다시 눈을 뜨고 나의 현존과 빛을 바라보는, 세 시대에 걸친 하느님의 선택된 백성의 영혼들이여,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축복받으라!

3. 내 말씀의 핵심을 깊이 파고들라: 그리스도는 바로 인간의 이성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어, 너희에게 가르침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이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여호와 아버지께서와 성령께서 함께하셨다. 나의 신성한 영 안에서 세 인격을 찾지 말고, 오직 한 분의 창조주 영, 세 가지 다른 시대와 계시의 단계에 걸쳐 너희에게 오신 한 분의 아버지를 찾으라.

4.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신학자들이 인류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했는지! 그러나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 구속하며, 고양시키기 위해 내 빛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이성이 영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인간의 이성에게 영적이며 신성한 깨달음을 계시한다는 사실을 진실로 너희에게 말함으로써 그러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학자들이 아니라, 영성가들, 곧 성령의 참된 제자들—신성한

영과 교감하며 내 음성을 듣고, 너희 주님의 어루만짐과 격려, 그리고 부르심을 느끼는 영혼들이 될 것이라고.

5. 그러므로 나는 이 순간, 단 하나의 빛줄기로 내 존재를 제한하여, 단 하나의 이성적 능력을 통해 너희에게 나를 드러내고자 한다. 나는 제2의 시대에 내 성령과 함께 육신이 되었던, 항상 내 안에 계셨던 나 자신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말씀한다. 너희 모두가 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단 하나의 영, 단 하나의 본질, 단 하나의 아버지의 사랑을 추구함으로써 참된 신성한 삼위일체를 깨달아라.

6. 너희는 성령의 발전과 계시, 그리고 드러남의 시대로 들어섰으며, 나의 모든 계시는 백성을 깨우고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아버지, 이성은 언제나 당신 안에 계시고, 진리는 바로 당신이며, 저는 당신의 면전에서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라고 말하게 될 혼란의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7. 나는 이 기념일에 너희를 맞이한다. 그러나 여전히 너희에게 남아 있는 전통은 장차 사라질 것이며, 신성과 영적 세계의 도래는 더 이상 단 하루에만 기념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항상 나와, 그리고 너희 형제자매들과 교감하기를 원한다.

8. 첫 번째 시대에 너희는 나에 대한 사랑이 아닌 두려움의 숭배를 나에게 바쳤는데, 그것은 오로지 너희의 세속적인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너희는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피조물에 대한 그분의 무한하고 완전한 사랑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 나 안에서 오직 무자비하고 엄격하며 정의를 요구하는 아버지만을 보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의 율법을 지니고 있었으나, 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따랐을 뿐이었고, 나는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로 인식하게 될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나의 사랑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다정함을 보여주는 큰 증거들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전히 여호와와의 공의를 두려워했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양심의 목소리를 여전히 두려워했다.

영혼을 위한 준비와 각성의 그 시절, 너희의 영을 나의 영으로 이끄는 길 위에서 첫 번째 확고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을 때, 나는 너희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 은혜를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할 것이기에, 너희가 죽은 자들의 영혼과 교감하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님을 너희가 깨닫게 했다. 영계도, 여러분도 서로 교감할 만큼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예감은 이미 존재했고, 가능성과 은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세상에는 영적 존재들과의 교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9. 그 금지는 영원히 유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을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떻게 그들 사이의 소통을 금지할 수 있겠습니까? 열정과 사랑으로 서로를 찾는 형제자매들 사이에, 나의 신성한 영이 어떻게 장벽과 넘을 수 없는 거리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단지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을 뿐이었기에, 나는 너희를 위해 그것을 유보해 두었다. 그러나 인간, 즉 너희 자신의 육신을 입은 영혼에 대한 나의 무한한 사랑으로, 나는 사람이 되었으며, 내 오심이 놀라움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너희가 나의 임재를 기대하며 깨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미리 예언적으로 이를 알리고 너희에게 알려 주었다.

10. 나는 나의 약속을 지키고 나의 영을 육신으로 나타내었다.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 너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 성장하고, 죽기 위해 왔으며, 너희의 아버지인 내가 사람으로 지내던 그 기간 동안, 나는 너희에게 영성으로 가득 찬 계시들과 교훈들, 가르침들을 주었다. 나는 너희의 영에게 많은 계시를 주었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빛을 채워 주었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혼란을 안겨 주기도 했다.

11. 나는 제2의 시대에 내 오심으로 너희를 준비시켰으니, 너희가 시선을 들어 내 왕국을 더 가까이 바라보게 하려 함이요 — 그 시절 너희 영혼이 천국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끼게 하려 함이었다.

그 당시 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의 영혼에게는 아직 접근할 수 없는 신비였던, 보이지 않고 너희가 만질 수도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만났다. 바로 너희 가운데서 움직이고 쉼여 가던 그 생명이었다. 나는 그것을 너희에게 계시하고, 그 현현들의 비밀을 밝혀주었으며, 신학자와 과학자에게 나의 계시가 그들의 발견과 말보다 우월함을 보여주었다.

12. 나는 과학이 포기한 병자들을 치유하였으니, 그들의 병은 초자연적이었고 영적인 본성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혼이 얽매인 자들을 혼란에 빠진 수많은 영혼들의 군단으로부터 해방시켰고, 나를 믿은 자들은 일어나 내 이름을 찬양하며 나의 능력을 인정했다. 나를 믿지 않은 자들은 나를 정죄하고, 그 능력의 증거들을 악마의 소행으로 돌리며, 나를 흑마술사로 취급했다.

나는 인류가 영혼에게는 거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빛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 주었으며, 인간으로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나의 영은 무덤 속에 머물던 영혼들을 깨웠다. 나는 그들을 나사로처럼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그들의 존재와 실재를 증언하도록 너희 가운데로 보냈다.

13. 너희의 눈은 그들을 보았고, 너희의 마음은 그들이 매우 가까이 있음을 느꼈으니, 이는 내가 그 시련의 순간에 그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깨워, 너희 모두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의 영광스러운 삶, 즉 내세에서의 영생을 증언하게 하려 했기 때문이다.

또한 내 뜻은, 내 육신이 땅속에 누워 있던 후, 예수님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돌아와 너희 눈앞에 나를 거듭 드러내고, “영적 계곡”과 너희가 현재 거주하는 곳을 연결하는 문을 영원히 열어 두어, 영혼들이 내 축복받고 약속된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함으로써, 그 문이 아버지께서와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모든 이에게 언제나 열려 있음을 보게 하려 했노라 — 너희 영혼들이 그 문턱을 넘을 능력이 없어 한동안 닫혀 있던 그 문이, 주님의 자비로 인해 열렸음을 알게 하려 했노라. 그 시점부터 인간의 영혼은 영적 교신을 위해 깨어났습니다.

14. 그러나 아직 영적 계시를 완전히 이해할 시기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성한 가르침에 대한 갈망이 인류를 감싸기 시작했고, 제2시대의 여러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잠재되어 있던 능력과 은사를 활용하여 열정적으로 저세상을 찾기 시작했으며, 그리하여 점차 ‘영적 계곡’으로 이끄는 길을 찾아냈습니다.

15.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많은 장애물과 실망을 겪었고, 나의 사역과 나의 영적 세계에서 수많은 모독이 자행되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땅을 채운 영혼들이 영적 형제자매들과 생각을 나누고자 하는 갈망을 보셨기에 모든 것을 용서하셨다. 그러나 인류의 일부는 이러한 계시를 발견하고 저 세상과의 교신을 간절히 바랐던 반면, 또 다른 일부는 영적 교신을 의심과 거부감으로 바라보았다.

16. 그러나 제3의 시대가 너희 가운데 도래하였다. 바로 나, 너희의 하나님 그분, 제1의 시대에 율법으로 오셨던 바로 그 아버지, 너희 가운데서 그분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인간이 되셨던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오신 시대이다. — 제1시대처럼 물질적으로 내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도, 제2시대처럼 인간이 되기 위해서도 아닌, 인간의 이성 능력을 통해 너희를 준비시키기 위함이다. 나는 짧은 시간 동안 내 존재를 드러냄으로써, 나중에 너희와 영과 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지금도 내가 성령으로서 말씀하실 때, 사람 자신을 통해 말씀하실 때는 내 뜻에 따라 정해진 정도까지 물질화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17. 머지않아 너희 앞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니, 바로 성령의 은혜의 시대이다. 그 시대에 너희는 나를 찾게 될 것이다. 의식을 통해서도, 교회의 예식을 통해서도, 이성을 통해서도 아닌, 너희 자신의 영혼 속에서 말이다.

18.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와 함께 시련과 투쟁, 너희 영혼의 성장이 지나갔으며, 이제 성령의 시대에 이르러 너희는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서 당당히 일어서는 중이다.

19. 이제는 저 세상과의 소통이 금지되던 시대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내가 너희를 준비시키고 약속만 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 약속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 너희가 이 땅에서 단지 육신만을 노예로 삼은 것이 아니라, 너희의 진정한 고향이 무한함이며, 우주이며, 내가 너희에게 선사하는 끝없는 영적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영혼마저 물질적 욕구에 묶어두었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말해줄 때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영혼이 현재 육신에 갇혀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곳에서부터 너희는 그 공간을 정복할 수 있으며, 영적 세계에서 집처럼 편안히 지내며 서로를 형제자매로서 포용할 수 있다.

20. 나의 빛이 경계를 없애기 전에, 너희가 나의 신성한 영과 ‘영적 계곡’에 있는 형제자매들 모두와 교감할 수 있도록 너희를 준비시켜 두었다. 나는 너희가 무지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삼위일체-마리아적 영적 사역의 제자로서 완전한 순결과 고양된 마음으로 이 교감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준비하는 법을 모르는 자만이 그 안에 머물 수 없을 것이다. 더러워진 자 역시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그 기쁨을 주는 교감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너희에게 불순한 것은 아무것도 내게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21. 단지 호기심 때문에 저 세상과의 교감을 추구한다면, 너희는 진리를 찾지 못할 것이다. 위대함에 대한 갈망이나 허영심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이끌게 된다면, 여러분은 참된 계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유혹이 거짓된 의도나 이기적인 이익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현혹시킨다면, 여러분은 나의 성령의 빛과의 교감 또한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너희의 경외심, 순수한 기도, 사랑, 자비, 영적 고양만이 기적을 일으켜, 너희 영혼이 날개를 펼치고 공간을 가로질러 영적 고향에 도달하게 할 것이다 — 내 뜻이 이끄는 한도 내에서 말이다.

22.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위로이니, 너희가 하나이자 동일한 고향을 바라보고, 죽음도 소외도 없으며, 내 피조물 중 그 누구도 영생에 있어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이 “제3의 시대”에, 너희는 이 지상 생활에서 떠났으나 너희가 알고 사랑했던, 이 세상에서는 잃었으나 영원에서는 잃지 않은 그 존재들을 영적인 포옹으로 감싸 안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3. 너희 중 많은 이들이 나의 “일꾼들”의 도움을 받아 그 존재들과 접촉해 왔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것이 완벽한 접촉 방식은 아니며, 육신을 가진 영혼과 육신을 벗은 영혼이 더 이상 어떤 물질적 또는 인간적인 수단도 사용하지 않고, 즉 영감, 영적 감수성의 은사, 계시 또는 예지력을 통해 영과 영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너희 영의 눈은 저 세상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후 너희 마음은 “영의 계곡”을 채우고 있는 존재들의 삶의 표현을 공감하게 될 것이며, 그때 너희 영의 환희와 깨달음, 그리고 아버지께 대한 사랑이 커질 것이다.

24. 그러면 너희는 너희 영혼의 삶이 무엇인지, 영혼이 누구이며 과거에 누구였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가 육체에 얽매인 좁은 한계 안에서만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스스로를 인식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비록 너희 육체의 물질은 실로 작을지라도, 너희의 영은 나의 신성한 영과 얼마나 닮았는가!”

25. 나는 현재와 미래를 위해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 계시를 통해 내 말씀으로 너희를 준비시키고 깨우치고 있다. 너희는 내 신성한 사역에 대해 — 단지 제3의 시대뿐만 아니라 — 이야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행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 시대에 너희에게 가르치고 계시한 것은 내 사역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제1시대와 제2시대에 너희에게 가르치고 계시한 것 또한 그 일부이므로, 너희가 진정한 삼위일체 신자가 되려면 세 시대의 가르침을 모두 알아야 한다. 너희는 세 시대에 걸쳐 아버지 곁에 있었으며, 세 계시 속에서 아버지의 세 가지 현현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26. 사랑하는 백성아, 내일 인류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과 이성과 영혼 속에 너희를 침묵하게 만들 단 하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이러한 방식으로 준비하라; 오히려 내 영의 빛으로 모든 것에 답하거나 밝힐 수 있게 하여, 단 한 영혼도 혼란 속에 남겨두지 말고, 인간이 신비나 어둠, 불확실성에

싸여 바라보았던 것들에 대한 해명을 모든 생명에게 전해 주도록 하라.

27. 나는 빛이며, 단순함이며, 진리이다. 모든 것이 명료한 곳에서 너희가 더 이상 비밀을 보아서 는 안 될 때가 되었다. 나는 영혼이 위쪽으로 발전해 나가는 만큼 내 지혜를 드러낸다. 영혼이 더 멀리 나아가고 영성화될수록,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계시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며, 이러한 길을 통해 너희 영혼은 나의 신성한 영이 보여주는 끊임없이 새로운 교훈들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28.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영혼의 환생을 믿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미 여러분이 지구에 여러 번 살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준 이 계시는 세상을 뒤흔들 것이며, 사람들 사이에 혁명을 일으킬 것이며, 이를 통해 그들은 수많은 신비에 대한 해답과 영혼에 대한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환생은 사랑의 법칙이며, 그 밑바탕에는 나의 빛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29. 오,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번에 걸쳐 다양한 육신을 입고 살아왔는지 아직 알지 못한다. 비록 ‘육신’이 스스로를 탐구하고 자신의 영혼에게 묻기는 하지만, 너희는 너희의 과거, 즉 전생을 들여다보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아버지인 내가 이 지식을 금했고, 인간 생애 동안 너희 영혼이 과거의 지상 삶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이다. 이는 여전히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금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현재, 영적 발전 수준이 매우 높은 영혼을 지닌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 아직 저 세상에서 살고 있으며, 그곳에서 정화되고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여 이 행성에 오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성령을 통해 분명히 전생을 기억하고 과거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질 것이니, 이는 그들 자신의 영혼에 유익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너희 영혼 속에, 더 나아가 너희의 육신적 본성 속에 여전히 연약함이 남아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며, 너희가 과거를 돌아보면 낙담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그로 인해 아버지를 모욕한 사람은, 양심의 회개와 질책을 견뎌낼 충분한 힘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한때 중요했던 사람은 허영심에 사로잡힐 것이며, 하찮았던 사람은 굴욕감을 느끼고 마음속에 복수심에 불타오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지혜이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너희 영혼의 과거를 드러내지 않으려 하신 이유이다.

30. 이 은총은 과거에 대한 지식이 해가 되지 않을 미래 세대들에게만 주어질 것이다. 너희는 그들에게 마치 눈앞에 펼쳐진 책과 같을 것이다. 그 영혼들은 수많은 비밀을 밝혀내는 자들이 될 것이며, 자신의 지상 삶을 통해 영혼의 삶을 밝히 비추는 자들이 될 것이며, 다른 세계들과 영적 여정이라는 그 광활한 길에 대해 이 세상에 전할 자들이 될 것이다.

31. 백성아, 너희가 이 준비를 너희에게서 태어날 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이 은총이 너희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도록, 너희가 낳고 잉태하는 육신이 다가올 세대의 영혼들을 위한 기꺼이 쓰임받는 도구가 되도록 준비하라. 왜냐하면 나는 현재 너희를 통해 이 인류를 위한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이 시대에 가꾸고, 내 가르침의 수정처럼 맑은 물로 적시는 밑이다.

32. 육신을 입은 영혼들과 “영적 계곡”에 거하는 이들이 바로 이 순간 나를 경배하고 있다. 온 창조물이 나에게 사랑의 헌사를 바치고 있다.

33. 오늘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은 자는 마음속에 슬픔을 품고 있다. 그러나 나에게 닫혀 있던 그 문은, 내가 사랑의 열쇠로 열어 주리라. 나는 모든 이를 찾아다니며, 내 발자취로 나의 완전한 가르침을 남기는 이 땅의 순례자이기 때문이다.

34. 나의 목소리는 잠든 자를 깨우고, 지친 자를 복돋아 주며,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으니 이를 잘 활용해야 함을 깨닫게 한다.

35. 나의 말씀은 학식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모두를 위한 것이다. 나는 모든 이에게 똑같이 소박하고 단순하게 —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신성한 스승의 — 영적 가르침 앞에서 너희는 모두 어린 제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소박한 말씀 속에서, 아직 완전히 이해하고 파헤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생명과 진리, 그리고 계시를 발견했는가.

36. 이 시대에 나를 들은 자들의 책임은 크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갱신의 씨앗이 되어야 하며, 사람들이 변화하도록 이끄는 계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의 새로운 사도들과 “일꾼들”은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지만 은총의 삶에는 죽은 자들에게 부활을 가져다주어야 한다. 그들은 나사로가 들었던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 말씀처럼, 나의 사자들이 전하는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37.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은사를 꽃피우고 나의 신성한 가르침을 따르며, 열정과 희망으로 가득 차 싸움을 준비해 왔다. 반면 다른 이들은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아직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담한 모습을 보인다. 나는 모든 이에게 말하며 모든 이를 깨우쳐, 각자가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리라.

38. 나는 어떤 이들은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 풍성한 황금빛 밀을 선보이는 반면, 다른 이들은 부끄러워하며 빈 손을 숨기는 모습을 보고 만족하고 싶지 않다. 그럴 때 나의 기쁨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임무를 완수한 이의 기쁨을 깎아내리려는 것은 아니다. 그에게서 수확물을 보여주기 위해 그는 일하고, 고생하며, 때로는 눈물까지 흘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임무에는 두려움에 떠는 자들, 냉담해진 자들, 지쳐버린 자들을 다시 활기차게 하고 격려하여, 주님께서 너희의 일의 결과를 묻기 위해 나타나실 때 온 백성 가운데 축제가 열리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39. 나는 너희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꾸어, 그곳에서 자비와 형제애의 행실이 솟아나도록 하리라.

40.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이미 약속의 땅을 정복했다고 믿어, 자신이 한 일로 만족해 버린 자들처럼 생각하지 말라.

41. 너희는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신 영혼의 길 위에 있다.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속적인 길이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가나안의 풍경이 여전히 목표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영혼들을 그곳에서 데려와 온 지구상에 흠여 놓았다. 마치 과거에 동쪽에서 살다가 영적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지금 서쪽에 나타난 너희들처럼 말이다.

42. 어떤 이들에게는 물질적 형태로 표현된 상징이 여전히 필수적이지만, 다른 이들은 상상력 속에서 영혼의 힘을 나타내는 형상들을 그려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영성화에 도달하게 되면, 신의 현존을 믿거나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더 이상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이미지나 형상을 갈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43. 여러분은 선구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으로부터 새로운 세대가 탄생할 것이며, 그들 안에는 새로운 영적 군대가 환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44. 너희는 현재 그들이 종교 활동을 더 깊이 실천하고, 예배 의식을 더 충실히 행하며, 나와 더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고 있다.

45. 확고한 발걸음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너희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것이다. 그릇되고 물질주의적인 종교 실천을 버리면,

너희는 매일 너희 영혼에 더 큰 고양과 자유를 선사하게 될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245

1. 너희가 나를 갈망하며 다가오니 내 영은 기뻐하노라. 영혼에게는 날도 날짜도 없는데, 어찌하여 오늘 이 날에 너희는 저 세상으로 건너간 사람들을 유난히 많이 기억하는가? ‘죽은 자’들을 애도하는 ‘죽은 자들’에게 현혹되지 말라. 너희는 ‘죽은 자’가 아니며, 너희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친척 또는 친구였던 이들도 마찬가지다. 너희에게 해를 끼쳤던 자들 중에서도 속죄했다면, 그들도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2. 여러분은 빛을 갈망하고 있으며, 나의 사역은 여러분의 영혼이 가진 그 갈망을 진정으로 충족시켜 줍니다. 영혼은 빛을 더 많이 받을수록 겉으로 보이는 “죽음”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집니다.

3. 희망도 위로도 없이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는 이웃들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슬퍼집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는 법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4. 사람들이 이 가르침의 진실을 한 번 깨닫게 되면, 더 이상 몇 가지 유해만을 간직하고 있는 무덤 앞에서 울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눈물을 육신의 안식처로 정해진 장소에 대한 경의로, 그리고 ‘영적 계곡’에 거하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로 바꿀 것입니다. 그 기도는 포옹이자, 인사가 되며, 입맞춤, 그리고 애무가 되는 기도로 바뀔 것이다.

5. 너희는 이미 “제3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인류는 여전히 영적으로 뒤쳐져 있다.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과 신학자들, 그리고 영적 목자들은 영생에 대해 그들에게 아주 적게, 때로는 전혀 아무것도 계시하지 않는다. 나도 그들에게 내 지혜의 책에 담긴 비밀을 드러내 주었거늘, 그러니 너희에게 묻노라: 그들은 왜 침묵하는가? 왜 사람들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6. 지금 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는 이미 이곳에서 너희 영혼의 미래를 위한 발전과 진보를 이루어 나가야 함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하거나 잊어버려, 준비되지 않은 채 죽음에 휩싸이는가.

7. 나는 순수한 생각이 영의 세계에 거하는 너희 형제자매들과 소통하는 언어가 되기를 원하며, 너희가 이런 방식으로 서로 이해하기를 원한다. 진실로, 너희의 공로와 선행은 그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며, 마찬가지로 내 자녀들의 영향력과 영감, 그리고

보호는 너희의 삶의 여정에서 강력한 도움이 되어, 너희가 함께 내게로 올 수 있게 할 것이다.

8. 영적으로 깨어나라. 그러면 너희 삶 속에서 그 존재들의 자비로운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상에 자녀를 남겨두고 떠난 어머니의 다정한 어루만짐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떠나야만 했던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과 조언을 말이다.

9. 내가 너희에게 이 가르침을 전한 후, 너희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 즉 이웃을 죽이는 자들과 살인적인 전쟁을 부추기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가인부터 마지막 살인자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를 위해 “깨어 있으라”고 기도하여, 그들의 심판이 완화되도록 하라.

10. 폭풍우를 예고하는 먹구름처럼, 혼란에 빠진 존재들의 무리가 너희 위에 떠돌고 있다. 너희가 그들의 영향력에 희생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어두운 세력들이 빛이 되도록 기도하라.

11. 이 삶을 싫증 내지 말고, 고통 속에서 반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전생에서 지은 어떤 빚을 갚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2. 가족과 사회의 품 안에서 조화와 평화 속에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빛을 발하는 존재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끌려 오는 많은 동료 인간들이 여러분의 본보기를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13. 이 제3의 시대에 기쁜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 말씀이 여러분에게 찬란한 빛으로 임했으니 말입니다.

14. 이는 모든 영혼을 위한 평화의 순간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빛을 쏟아 부으실 때, 세상들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이 신성한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된 모든 인간에게 이는 영광의 순간들입니다. 이 은총이 너희 세상에 임했으며, 나는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매장하는 것을 보았고, 세상의 재물에 경배와 숭배를 바치며, 헛된 의식을 통해 하나님께 물질적인 제물을 바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15. 이 시기에 내 성령의 빛이 모든 사람에게 쏟아지며, 이를 통해 그들은 주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영혼은 제물로 자신을 준비할 것이며, 육신을 벗어날 때 창조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육신, 즉 땅속으로 가라앉으면 썩어 형태를 잃고, 결국 작은 원자 덩어리에 불과해질 그 물질 말이다. 인간 존재의 끝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삶이 시작된다.

16.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을 굳게 지키고 있다. 그들이 무덤에 안장한 사람들의 몸에 대한 지울 수 없는 기억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들의 유해를 묻었던 그 장소에 끌리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들이 물질적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탐구한다면, 그 육체가 분해되면서 원자 하나하나가 그것이 형성되었던 자연의 영역으로 되돌아가고, 삶은 계속해서 펼쳐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17.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것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탓에, 모든 시대에 걸쳐 육체를 숭배하는 일련의 광신적인 숭배 관습을 만들어 왔습니다. 인간은 물질적 삶을 불멸의 것으로 만들려고 애쓰면서,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지닌 존재인 영혼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이 영적인 삶을 이해하기까지는 아직 얼마나 먼 길을 가야 하는가!

18. 이제 너희는 “죽음”을 나타내는 묘비가 “소멸과 생명”을 표현해야 할 그곳에 예물을 바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곳에는 자연이 만개해 있고, 피조물과 생명체의 비옥하고 무궁무진한 자궁인 흙이 있기 때문이다.

19. 이러한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면, 인류는 물질적인 것에 그 적절한 위치를, 신성한 것에 그 적절한 위치를 부여하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선조들에 대한 우상 숭배는 사라질 것이다.

20. 인간은 영과 영이 서로 소통하며 자신의 창조주를 알아보고 사랑해야 한다.

21. 제단은 애도의 상징이며, 묘비는 무지와 우상 숭배의 증거이다. 나는 너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겠지만, 진정으로 너희를 깨우쳐야만 한다. 나의 가르침은 이해될 것이며, 사람들이 물질적인 선물들을 고상한 생각으로 대체하는 때가 올 것이다.

22. 제자여: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시련을 겪은 후, 너희 입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가 저절로 흘러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주님, 이 세상을 떠난 그분이 주님 곁에 계시며, 단지 우리보다 먼저 여정을 떠났을 뿐이며,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같은 고향에서 하나가 되도록 허락해 주실 순간이 올 것임을 저는 압니다. 우리 눈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죽은 이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남아 있는 우리야말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영적 계곡’에는 진정한 평등과 형제애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미 빛을 충만히 얻은 이들은 상향 발전의 길을 나아가고, 자신의 길을 비추는 희미한 불꽃 하나만을 가진 다른 이들은 전자의 도움을 받으며, 그들 사이에는 완전한 조화와 상호 지원, 자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23. 그러니 왜 세상을 떠난 이들에 대한 기억을 그들의 지상 생활에만 국한시키겠는가? 그들을 영적인 방식으로 기억하여,

그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라. 그들이 일단 모든 인간적인 정을 벗어던지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며, 비록 너희가 어떤 방식으로 인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너희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영적 삶에는 오직 하나의 갈망, 하나의 소망만이 있습니다. 바로 신성한 완전함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당시 너희에게 말했듯이, “사람은 나와 같아지지 않는 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4. 누군가 내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가르침을 연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가르침은 모든 이에게 빛이기 때문이다. 온 인류가 일어나 “나는 주님을 믿으며, 영생으로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올 것이다.

25. 제자들아: 너희가 경험한 이 평화의 분위기는, 너희에게 마치 열린 하늘과도 같았는데, 이는 실로 제2의 예루살렘의 품이며, 그 창공에는 평화와 진리를 갈망하며 다가오는 사람들을 인도할 별이 빛나고 있다.

26. 내 영은 너희에게 말씀하실 때 기뻐하며, 회개한 죄인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 하늘에서의 나의 기쁨은 의인이 올 때와 마찬가지로 크다. 의인은 항상 온전했으나, 죄인은 길을 잃었다가 다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27. 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길을 잃었으나 다시 발견되었고, 천국은 우리에게 확실하다”라고 말하지 마라. 아니, 너희는 내가 오직 너희를 내 왕국으로 이끄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 왔으며, 너희는 이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 영원한 고향이자 영혼의 요람이며 진정한 조국이 있는 문에 도달할 때까지 노력해야 한다. 너희는 모두 그곳에 이르러 다시는 길을 잃지 않고, 삶의 투쟁 속에서 거둔 열매를 누리며, 믿음과 사랑 안에서 끈기 있게 견디는 모든 이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상을 누리야 한다.

28. 너희는 ‘육신’과 세상, 그리고 고통에 얽매어 있다고 느낀다. 그러나 그것들이 너희의 상향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여 낙담하기보다는, 이 장애물들이 실은 너희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선을 향한 인내심을 시험하는 수단임을 깨달았으면 한다.

29. 나는 너희의 구세주이자 해방자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 사랑을 베풀 때, 너희도 나에게 너희의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라. 내가 너희에게 나게로 나아가

공덕을 쌓을 기회를 줌으로써, 너희는 너희의 몫을 다하게 될 것이며, 너희는 너희의 행실을 자각하고, 누구에게로, 왜 가는지를 분명히 알면서 나개로 나아갈 것이다.

30. 만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 이 세상과 고통에서 건져내어 천상의 영역으로 데려간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공로가 되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곳에 거할 자격이 없다고 느낄 것이며, 그 삶을 소중히 여기지도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너희는 심지어 자신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그곳에 도달할 때, 그것이 너희의 공로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너희를 둘러싼 모든 것과 너희가 소유한 모든 것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31. 너희의 모든 발걸음과 시련이나 어려움, 그리고 너희의 노력과 행실, 생각 속에 내가 함께 있음을 알라. 나는 너희에게 내 사랑을 베풀고, 너희에게 말하며, 너희의 의지를 굳건히 하고, 너희의 믿음을 복돋아 준다. 내 도움 없이는 누가 완전함에 가까워질 수 있겠느냐?

32. 깨어나라! 몸을 일으켜라! 빛을 향해 일어나서 싸움을 시작하라! 너희가 포로처럼 느껴지느냐? 그렇다면 물질주의라는 감옥을 부수어 버려라. 고통과 비참함이 너희를 짓누르고 있느냐? 그렇다면 인간의 궁핍을 초월하는 법을 배워라.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자신이 하찮게 느껴지느냐? 영혼이 선을 통해 꽃피울 때, 너희 안에는 위대한 존재가 있다. 나는 영원히 하찮게 살거나, 영원히 숨어 지내도록 운명 지어진 영혼들을 창조하지 않았다. 높은 천국에 위대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그들이 사랑의 길을 통해 승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래 그들도 마찬가지로 작았다.

33. 내 영이 아직 미약한 이들—어둠 속에 거하거나 고통과 비참함에 얽매어 사는 이들—과 대화할 때 왜 기뻐하는지 깨달으라. 나는 너희의 영혼이 나의 사랑을 통해 빛으로 깨어나고, 희망으로 가득 차며, 상향 발전이라는 이상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34. 나는 너희 모두가 평화와 빛 가운데 거하며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래야 너희가 점차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니, 이는 단지 나의 사랑 때문만이 아니라 너희의 공로 때문이기도 하다. 그때야말로 너희의 만족과 행복이 완전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35. 너희가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나의 신성한 광선이 너희에게 내려와 가르침의 말씀으로 변모한다. 그리고 나는 제2시대 때와 같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길 위에서 나를 드러내고, 너희를 더러움에서 끌어내어 진리와 도덕, 그리고 완전한 영성화의 길로 인도하였다. 나는 너희가 나를 따를 수 있도록 너희의 죄사슬을 끊어 주었다.

36. 나사렛 예수께서는 제2시대에 사람들 가운데 계셔서, 너희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께 섬기는 법,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에 대한 살아있는 본보기를 남기셨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가 단지 너희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왔다고 믿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는 또한 너희가 이웃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내가 내 삶의 여정과 인간으로서의 수난을 너희에게 상기시키는 것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길이 예수께서 너희에게 제시하신 길과 동일하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은 옛날부터 이어져 온 길이며, 유일하고 영원한 길이다.

37. 너희 중 많은 이에게, 내가 인간의 이성 능력을 통해 나를 드러낸다는 것이 환상이나 불가능한 일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의심에 대해 나는, 인류의 태초부터 모든 시대에 걸쳐 사람들을 통해 나를 드러내 왔으며, 그들을 매개로 하여 세상에 나의 계명과 영감, 그리고 계시를 전해 왔다고 대답한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인류가 물질에 사로잡혀 세상에 얽매어 있으며, 종교적 광신에 휩싸여 있다는 것이다.

38. 나는 현재 모든 이에게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 중 누구도 편애하지 않기 때문이다. 태초에 나는 지각을 거처로 삼을 동등한 영혼들만을 보내었기 때문이다.

39. 나는 모든 이의 운명을 아는 유일한 분이며, 너희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야 할 길을 아는 유일한 분이다. 너희의 고통과 기쁨을 이해하는 분은 바로 나다. 나는 너희가 진리와 정의를 찾기 위해 얼마나 멀리 걸어왔는지 알고 있다. 내 자비로움은, 마음속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간구하는 이의 두려움에 찬 외침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40. 그리고 아버지로서 나는 모든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고, 너희의 눈물을 닦아 주며, 너희의 병을 고쳐 주고, 너희가 용서받았으며 죄의 오명을 벗었음을 느끼게 하여, 너희가 삶을 새롭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한다.

41. 또한 나는 내 자녀인 너희가 나에게 가한 모욕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42. 너희는 내가 준비한 씨앗이다. 너희가 과거에 나를 거절했더라도, 나는 너희를 용서하였고, 오늘 너희를 내 식탁에 앉혀 내 제자로 변화시키고 있다.

43. 나는 너희 영혼이 세상에서 겪은 피로로 지쳐 있는 것을 보며, 그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이끌어 줄 길을 찾아 헤매고 있음을 안다. 고통이 너희 안에 남긴 깊은 상처의 흔적은, 너희 영혼이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이 길을 걸어갈수록 점차 지워질 것이다. 이 노력 속에서 너희 영혼은 결코 지치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이 현재의 삶에서 지상 사명의 최종 목표에 도달하면, 더 이상 이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니, 그때 그들의 고향은 영원히 영적 우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44. 너희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지만, 깊은 교훈을 배우고, 공덕을 쌓고, 죄를 속죄하며, 영적 완성을 향한 길에서 전진하고, 선을 뿌리며, 나를 증거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느니라.

45. 이 시대에 나를 들은 자들은 자신의 행실과 책임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한다. 반면, 나를 듣지 못한 자들은 무지한 자로 여겨질 수 있다. 전자는 배운 것, 행한 것, 그리고 행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46. 너희가 스스로를 성찰해 본다면, 나를 섬기고 산 정상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것이 너희에게 결여된 것이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섬기든 그렇지 않든, 너희는 여전히 그 사명과 은사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은사와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면, 그것을 왜 원하겠느냐? 부유하긴 하지만 그 부가 무용지물인 인색한 부자와 같지 말라.

47. 영혼이 이 땅에 올 때,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아버지께 바치고,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에게 유익이 되겠다는 가장 훌륭한 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갇혀 있음을 깨닫고, 삶의 여정에서 수천 가지 방식으로 유혹을 받고 시련을 겪게 되자마자, 영혼은 약해지고, “육신”의 충동에 굴복하며, 유혹에 넘어가고, 이기적이 되어 결국 자기 자신을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며, 자신의 소명과 서약이 기록된 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단 몇 순간뿐이다.

48. 나의 말씀은 너희가 영적 언약을 기억하고 유혹과 장애물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된다. 누구도 자신이 내가 정해 놓은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웃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도록 너희를 용서한다.

49.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직 나만이 그것을 안다. 어떤 이들은 나를 사랑하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어떤 이들은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며 심지어 자랑까지 하지만, 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50.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는 혼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 남겨 둘 것이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한 씨앗도 허영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 안에는 사랑과 자비와 겸손이 있을 것이다.

51. 어떤 이들은 나를 더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큰 은사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아니, 나는 지금 모든 이에게 참된 삶으로 깨어나, 나의 고귀한 뜻의 도구가 될 기회를 주고 있다.

52. 이 시기에 나는 많은 이들에게 부름을 보냈으나, 모두가 서둘러 달려오지는 않았다. 사람들 가운데 내가 계신다는 소식은 많은 곳과 많은 이에게 전해졌으나, 인류는 이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너희에게 말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언젠가 큰 시련이 닥치고 자연의 힘이 정의를 외칠 때, 인류는 긴 잠에서 깨어나 내가 진정으로 너희와 함께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53. 나는 단지 특정 민족이나 특정 국가만을 구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모든 이가 창조주와 진정한 영적 교제를 맺게 해주는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 왔다.

54. 어떤 이들은 내 목소리를 듣고는 나에게 묻습니다. “주님, 앞으로는 주님의 신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더 이상 부르지 말아야 합니까?” 이에 나는 대답합니다. “자녀들아, 새들은 새벽이 밝아오자마자 지저귀는 소리로 내 이름을 찬양하느니라. 너희 영혼을 고양시키는 데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라. 그렇지 않다면, 영혼에서 솟아나오는 또 다른 찬양이 있는데, 그 소리는 너희 귀에는 들리지 않으나 그 메아리는 무한한 공간에 울려 퍼진다. 바로 기도이다.

55. 누구도 자신의 영성화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 누가 이미 육체보다 영이 더 많다고, 가라앉지 않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상승하는 것은 너희의 물질적 본성이 아니며, 그 집중은 오직 영혼이 거리를 극복하도록 돕는 것뿐이다.

56. 너희 마음속에 거하시는 나의 신성한 영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57. 사랑하는 백성아, 만일 땅 위에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세상은 그 의인을 통해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이 보편적인 광선은, 태초()부터 아버지께서 인류를 위해 정해 놓으신 길을 비추기 위해 내려오고 있다. 바로 그 길은 예절과

미덕, 영성화의 길로서, 너희가 약함으로 인해 거짓 신들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너희를 일으켜 세운 길이다.

58. 태초부터 나는 나의 자비로 선택된 사람들을 통해 인류에게 나를 드러내어 왔다. 그들은 예언자들과 영감을 받은 자들, 의인들, 족장들이었으며, 너희에게 나의 계명과 뜻을 알려 주었다. 그들이 처음부터 어떻게 너희를 영성의 길로 인도하고, 보이지 않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며,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도록 — 밤에 잠자는 침상의 구석에서든, 산 위든, 길 위든, 강가에서든 — 너희 마음을 성소로 준비하도록 가르쳤는지 깨달아라.

59. 너희는 잠시 동안 물질주의의 길로 인해 길을 잃고,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졌으며, 참된 하나님 섬김을 왜곡하여 광신과 우상 숭배로 대체했고, 결국 많은 이들이 불신에 빠지게 되었다.

60. 그러나 너희는 그 시기에 주님의 발걸음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고, 마치 멀리서 울리는 종소리처럼 그 소리를 들었으며, 너희에게 전해진 신비로운 부름을 따라야만 했다. 너희 육신의 눈은 무엇을 보았는가? 내 새로운 제자들과 몇몇 보잘것없는 피조물들이 모인 소박한 모임 장소들이었는데, 그곳에서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진심 어린 사랑과 지혜, 설득력이 가득한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이 말씀은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었고, 갈증을 해소해 주는 물이 되었으며, 고통을 달래주는 치유제가 되었습니다.

61. 사람들 가운데 다시 임하신 나의 기적 앞에서, 귀머거리는 듣고, 눈먼 자는 보았으며, 굳어진 마음은 감수성을 되찾았고, 은혜의 삶에서 죽었던 영혼은 부활하였다.

62. 그리고 남녀들은 부지런한 ‘일꾼’이 되었고, 진리에 대해 전할 지식이 풍부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다시는 나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며, 나를 오해하지도 않을 것이며, 다시는 나의 능력을 의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63. 그들은 길을 잃은 자들에게 빛나는 등대처럼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시대의 영혼들은 창조주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진리의 길을 찾게 될 것이다.

64. 너희에게 생명의 숨결이 남아 있는 한, 길을 잃은 자들을 찾아라. 삶의 투쟁 속에서 비틀거리는 형제자매들을 일으켜 세우고, 병든 자의 영혼과 마음, 그리고 몸을 치유하라. 선을 행하고, 그리하여 나를 증거하라. 선행을 받은 자들이 나의 사역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뿌린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내일이나 영원 속에서 싹을 틔울 것이다.

65. 아무리 학식이 깊거나 권세 있는 사람이라도 너희에게 줄 수 없었던 너희 은사의 힘을 깨달아, 너희가 진정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246

1.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이 시대에 영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부름받았다. 너희 영혼이 이 사명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큰 시련을 겪고 매우 쓰라린 잔을 비워야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은 너희에게 굳건함과 성장, 그리고 경험을 주었다.

2. 너희는 내가 다른 시대에 가르치기 위해 찾았던 이들과 다름없다. 그러나 너희가 이루고 있는 이 작은 공동체는 지구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나는 그들도 너희만큼이나 사랑한다.

3. 너희는 모두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성령의 은사를 지니고 있고, 같은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라 부른 것은, 너희가 사람들 가운데서 마치 맏형제자매처럼, 모든 영혼에게 사랑의 씨앗을 전하는 사명을 지녔기 때문이다. 순결한 씨앗으로서 너희는 나에게서 나왔으며, 무한히 증식되었으나 원래의 씨앗만큼이나 순수해야 하는 씨앗으로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4. 이렇게 하여 영혼들은 내 품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들의 은사가 꽃피어 위대해지고, 그들의 행실이 순수하여 깨끗해질 때 말이다.

5. 나는 너희에게 내 사역의 일부를 맡겼다. 만일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직접 행하신다면, 너희가 온전해질 기회를 주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6. 시대를 거치며 나는 너희에게 가르침을 주었고, 그 가르침을 점점 더 확장해 왔으니, 이는 그것이 너희의 인간 삶을 법으로 다스리고, 영원한 빛으로 이끄는 길 위에서 너희 영혼을 굳건히 하려 함이라.

7. 나무와 같은 나의 율법에서 사람들은 가지를 잘라냈는데, 그것이 바로 종파와 교회들이다. 이들은 나무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수액을 잃어버렸다. 그들의 그늘은 희미했고, 그들의 잎사귀 사이에는 사랑의 보금자리도, 맛 좋은 열매도 없다.

8. 내가 너희에게 나의 가르침을 계시한 것은 단지 너희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게 하려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을 높은 곳, 곧 사랑과 지혜, 그리고 모든 존재와의 조화가 깃든 높은 영역으로 이끄는 길이다.

9. 교회들은 영혼들을 영원의 문턱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영혼들이 이 세상에서 떠날 때, 그들은 죽음의 갈림길에서 길을 잃고, 한 길을 알지 못하며, 빛이 부족하여 비틀거리다가, 뒤로 남긴 삶을 갈망하며 물질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10. 이것이 내가 제시한 길이 아니다. 나의 길은 빛과 계시, 모든 이를 위한 깊은 지혜, 자비와 사랑으로 특징지어진다.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나의 율법을 이행하는 데 있어 희생과 포기, 그리고 끈기가 필요하다.

11. 그러나 너희를 사랑하시는 나의 영은 나의 모든 자녀들의 길에 함께하시며, 그들을 진리의 빛으로 깨우시고, 자비로운 그늘을 드리우고 그 수액이 온전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를 찾게 해 줄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12. 이를 통해 너희는, 내 빛이 비추는 너희 자신의 영 외에는 다른 목자도, 다른 인도자도 없을 때가 올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13. 이 세상에는 참된 영적 지식의 근원이 없다. 너희는 겸손함으로 인해, 아버지와의 영적 교감을 통해, 내 안에서 은혜와 지혜의 근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14.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기뻐하기 위해 들어가는 이 소박하고 작은 모임 장소들은, 너희를 혹독한 날씨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부터 보호해 준다. 그러나 이곳은 결코 내 신성의 성전이 될 수 없으니, 나는 내가 창조한 우주 속에서 그 성전을 찾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모든 존재가 제물이며, 모든 생명이 성소이고, 모든 마음이 등대이기 때문이다.

15.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보든지, 너희는 나의 현존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영은 신성, 영적 요소, 물질적 요소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성소를 이루는 그 성전에 영원히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16. 그러나 이 성전에는 나 혼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안에 있으며, 각자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17.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땅에는 이 길보다 더 짧고, 너희를 더 멀리 이끄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스승도, 영원을 바라보게 하는 빛이 비치는 그토록 넓은 지평을 보여 줄 수 있는 스승도 없다.

18. 인간은 과학을 대단히 발전시켰으나, 이제 한계에 다다랐음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과학에 한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과학자의 무분별한 행보를 막아서 그가 자신의 업적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하고, 양심의 목소리를 듣게 하며, 진로를 바로잡기를 기대하게 하기 위함이다.

인간이 자신의 과학을 동료 인간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면, 자연은 그 비밀들로 그를 풍성하게 채워 줄 것이며, 그의 발치에 시녀처럼 엎드려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인간을 지구로 보낸 것은 그가 이 땅을 다스리고 그 주인이 되게 하려 함이기 때문이다.

19. 정화는 모든 것을 아우른다. 갓 태어난 갓난아기부터 노년에 이른 이까지, 그들 모두는 고통의 잔을 비우고 있다. 모든 원소와 힘들이 한판 싸움에 휘말려 있다.

20. 온갖 종류의 영혼 군단이 서로 싸우고 있으며, — 어디를 가나 전쟁과 고통, 슬픔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강해져라. 이 전투가 끝나고 쓰라린 포도주가 다 마셔지면, 비워진 잔은 생명의 포도주로 채워질 것이며, 지상의 모든 영혼에게 그것은 마치 새로운 탄생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21. 이 시기에 나를 경청하며 나의 교훈을 배운 이들 중에는,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지 않는 자들도 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다른 민족과 나라로 떠나야 할 것이다. 오늘

나는 너희가 인내하며 나의 마지막 가르침을 경청하기를 원할 뿐이다. 그래야 너희 스스로가 나의 마지막 말씀을 유산으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2. 이 시기에 입을 다물고 있는 말의 전달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준비 부족이나 영감의 결여로 인해 나의 계시를 숨기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 후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가차 없이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23. 1950년 이후에는 내가 더 이상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겠지만, 너희의 사명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갈등으로 가득 찬 삶의 시작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소통의 방식을 보여 줄 것이며, 너희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너희의 영혼과 대화를 나누며, 너희의 이성애 영감을 줄 것이니, 그리하여 너희는 계속해서 신성한 스승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 매번 더 완전하고, 더 고상하며, 더 영적인 음성으로 말이다.

24. 내가 너희 가운데서 내 말씀을 마친 후에는, 누구도 다시 내 말씀을 듣기 위해 내 광선을 끌어들이려는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이나 조국에서 사람들이 영적 세계와 교감하며,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통해 내 신성한 영을 청할 때, 나는 그들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므로 그들을 용서하리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혼돈이 닥치기 전에 내 빛이 그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서둘러라. 학자조차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게 될 혼란의 시대가 올 것이며, 그 때 많은 신념이 무너지고 수많은 등불이 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회오리바람 한가운데서 내 이름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것이다. 인류는 예언과 믿음을 갈망하며 성경을 주목할 것이다. 신학자들과 성직자들, 과학자들에게 질문이 쏟아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예고하고 준비시키고 있는 바로 그 시기는, 너희가 새로운 세대를 준비시켜야 할 때이다. 그들은 너희의 사명을 이어받아, 내 백성이 너희 곁에서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성장하며, 순수한 영성 속에서 그 수와 지식, 덕을 더하게 할 것이다.

25. 내가 너희를 스승이자, 본보기이자, “책”으로서 남겨두고 떠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왜냐하면 내 가르침이 인류 가운데서 반향을 일으킬 때, 나의 시선이 너희를 뚫어지게 살필 것이기 때문이다.

26. 너희가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내 말씀을 듣던 시절, 내 식탁에서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고 과일과 빵을 먹던 시절,

원할 만큼 포도주를 마셔 넘칠 때까지 마시던 시절, 그리고 너희의 병을 치유할 연고를 찾게 되어 기뻐하던 시절은 이제 지났다.

27. 이제 너희는 깨어난 영혼을 품고 내게로 나아오며, 이제 너희는 너희의 책임을 느끼고 있다. 너희는 사람들을 돌보고, 병든 자들을 위해 아파하며, 나의 대의를 위해 헌신한다. 그리고 현재 너희가 나의 마지막 계시를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나를 듣기 위해 서둘러 오고, 나의 말씀을 너희 영 안에 간직한다. 너희는 이 계시의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준비를 잘 하고 있다.

28. 세상은 “이스라엘”이 재에서 새롭게 부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탐욕스럽고 육신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영에 따른 이스라엘을 말이다. 그것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날 때, 영혼의 환생을 증언할 것이며, 사랑과 정의의 법칙으로 기초와 관념, 신앙적 신념들을 뒤흔들 것이다.처음에는 여러분이 투쟁을 불러일으키고 세계관 간의 전쟁을 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여러분이 평화를 실감하게 될 것이며, 그 평화는 가장 격렬한 대립의 순간에도 여러분을 평온하고 흔들리지 않게 해 줄 것입니다. 혼란은 지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동요는 결코 영원히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며,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빛의 불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29. 그 후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바를 설명하라는 부름을 받게 될 것이며, 그때 너희는 동료 인간들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빛을 비취야 할 것이다. 그러면 세상이 평화를 얻었을 때, 나의 자비가 일곱 번째 인을 풀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므로, 나의 왕국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30. 너희가 나의 사도라고 대대적으로 선포하지 말고, 그저 사도가 되어야 한다. 비록 스승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제자라고 말해야 한다. 너희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옷을 입지 말며, 손에 책을 들고 다니지 말며, 집회소를 짓지 말아야 한다. 또한 땅 위에 내 사역의 중심지나 기초를 두지 말아야 하며, 내 자리를 대신하여 누구도 사람들 위에서 서서는 안 된다.

31. 너희가 지금까지 가졌던 지도자들은 마지막 세대이다. 기도와 영성 수양, 그리고 내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빛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

32. 내 말씀의 의미가 너희 마음에 닿아 빛의 흔적을 남기는 그 순간은 경건한 순간이다. 그것은 내가 다른 때에 사랑의 피로 너희에게 그려 놓았던 것과 같은 것이다.

33. 구원을 갈망하는 영혼은 이 시대에 그 길을 찾고, 그 길 위에서 정화시키는 용서이자 고양시키는 사랑이신 나를

만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랑은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힘이며, 생명을 주고 모든 존재를 강하게 하는 신성한 숨결입니다. 너희가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너희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점점 더 완전함을 향해 변화해 왔으니, 비록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너희 존재의 본질은 영혼이며, 육체는 단지 영혼이 펼쳐지는 겹질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34. 비록 세월이 흐르는 동안 육신의 욕망에 따라 길을 잃기도 했으나, 이제 너희는 올바른 길을 찾았음을, 아버지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어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깨달음에 이르렀음을 깨달아야 한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에 때로는 자기 희생까지 감수해 왔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조만간, 그러나 피할 수 없이 영적인 삶으로 들어갈 것임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35. 아름다움과 기적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훌륭한지 분명히 인정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인간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에 진보를 가져다준 업적을 이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해 눈을 돌리고, 너희를 둘러싼 모든 것의 창조주이자 소유주가 바로 나이며, 사람들에게 과학을 계시하는 빛 이 바로 나임을 말해야 할 때가 왔다. 너희 모두가 이 발전 단계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살았던 삶에 대한 지식도 없기 때문이다.

36. 종교적 광신에 휩싸여 영혼의 모든 자유를 박탈하고, 영혼이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빼앗는 자들이 어떻게 이 시대의 은총을 짐작할 수 있겠는가?

모든 영혼은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이미 존재해 왔기 때문에 그 안에 위대한 능력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속박되어 내면에 품고 있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게 되면, 오해를 받으며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혼은 영적인 것에 대한 예감과 자신의 과거에 대한 기억에 의지해 살아가야 하며, 영적인 것에 대한 광신적인 신앙 교리가 심어준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숨기고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영혼’이라는 단어조차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에 나의 현존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영혼의 부활, 즉 환생을 믿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오늘날 그녀가 목격하고 있는 현현들을 믿을 수 있겠는가?

37. 내가 이 모습으로 너희에게 말할 마지막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지만, 인류는 아직 내 존재를 느낀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38. 이 시대에 나의 계시를 접한 이들은 얼마나 적은가! 인간의 이성을 통한 나의 계시만을 믿는 데 그치지 않고, 신성이 무한한 형태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이들은 얼마나 적은가. 그러나 내가 너희를 나의 증인이 되도록 준비시키고 있음에도, 너희가 이 시대의 나의 계시에 대해 증언하지 않는다면, 자연과 그 요소들이 ‘말할’ 것이며, 새로운 세대들은 비록 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더라도 나의 사역을 알게 될 것이다.

39. 너희의 책임을 깊이 생각하고, 여전히 시간이 남아 있음을 깨달아라. 너희가 알고 있듯이, 내 가르침은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너희의 완성을 위한 성장의 길을 밝혀준다. 내 말씀의 본질이 너희 마음에 남기는 인상을 간직하고, 단지 입술로만 내 음성을 전했을 뿐인 한 사람을 통해 그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은 잊어버리라.

40. 너희가 먼저 실천해 보지 않은 가르침은 전하지 말라. 아무도 너희를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너희에게 증거를 요구할 것이며, 나는 너희에게 그 증거를 제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오늘까지 영혼에 대해 너희가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해 주었다. 내가 계시한 것에 아무것도 덧붙여서는 안 된다. 너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강인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늘날까지 너희 가운데 질병이 존재하는 것은, 영성 함양과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 이 생의 비참함과 고통 위로 올라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

41. 나의 가르침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진정한 영성가는 매 순간 자신의 이성적 능력을 통해 주님에 대한 순수한 인식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분께 합당한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너희에게 말하노니, 깨어 기도하라. 그리하여 기도를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올려진 너희 생각의 힘이, 이 인류의 고통 위에 치유의 연고처럼 내려와 퍼져 나가게 하라.

42.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신성한 임재가 여기 너희 곁에 있다 – 제2시대에처럼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방식으로 말이다.

43. 나는 내 말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스승이 각자의 마음 하나하나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44. 내 말씀에 익숙해지지 마라. 지금 이 말씀이 너희 영혼을 다듬어, 그 길이에서 너희의 발걸음이 확고해지도록 하고 있음을 명심하라.

45. 엘리야는 양들을 안전한 우리로 인도하는 보이지 않는 목자이니, 마치 모세가 첫 시대에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것과 같다.

46. 이 길을 잃은 인류는 언제 비로소 목자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까? 내가 그들을 깨우쳐 올바른 길을 찾게 하리라.

47. 내가 말하는 길은 갱신과 영성화, 자비의 실천의 길이다. 병자의 두려움에 찬 목소리와, 지치고 위로를 받지 못한 이의 간청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이 사랑과 연민으로 벅차오르는 것을 느껴야 한다.

48. 너희가 내 사역의 사도로 인정받기 위해, 너희 영혼이 그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기를 나는 바란다.

49. 나는 지금 한 걸음 더 나아갈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 너희는 그들을 위해 길을 닦아라.

50. 이 시대에 나의 신성한 가르침을 듣게 된 것은 너희에게 정해진 운명이었으니, 이는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기 때문이다. 시계는 모두가 도착해야 할 시간을 가리켰으니, 거기서는 아버지께서 “탕자”의 귀환을 기다리며 머무시는 거대한 나무 그늘 아래서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언제나 용서의 눈빛과 환영의 포옹, 그리고 사랑 어린 미소를 보내십니다.

51. 내 신성한 영의 빛은 너희의 뇌를 거쳐 너희 마음 깊은 곳까지 닿는다. 그리고 너희 입술에 내 말씀을 얹어, 내가 너희에게 맡긴 사명을 완수하게 하리라.

52. 이 말씀은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영혼이 이론 고양이, 바로 그것이 영혼을 이러한 방식으로 나에게 더 가까이 이끌어 준 것이다. 너희는 점차 나의 법을 이해하게 되며, 그 법 안에서 성장해 나갈수록 더 큰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53. 누군가 나를 들었음에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가 나의 가르침을 세속적인 이론과 이념과 뒤섞기 때문이며, 조상들로부터 주입받은 독단적인 신조와 교회 관습으로 영성을 혼합하기 때문이다.

54. 나의 가르침은 너희에게 어떠한 교리도 강요하지 않는다. 너희의 영적 수용력만이 너희로 하여금 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해 줄 것이다. 너희는 영혼이 완전함에 도달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이 성장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55. 나의 법과 가르침에 드러나 있는 나의 소망은, 사람들이 형제자매가 되고, 서로 사랑하며, 세상에 평화가 깃들고, 지상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미덕과 모범을 통해 나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56. 나는 이 제3의 시대에 혼란에 빠진 인류를 마주했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이 신성한 영감을 그들에게 보냈다.

57. 그러나 나는 그들이 나를 숭배하는 옛 관습과 형식을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에 맞서 싸워야만 했으며, 내 것이 아닌 이 유산을 지키려는 자들과의 싸움은 컸다.

58.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리고 내가 ‘영성주의’라고 부른 이 가르침은, 내가 예전부터 너희에게 가르쳐 온 영원한 진리이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를 한 번도 마음으로 느껴본 적이 없는 자는 이를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59. 너희는 기뻐할 수 있다. 내 오심이 너희에게 영적 진보의 길에서 한 걸음 전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60. 너희는 아직 미성숙하고 연약하므로, 내 계시에 담긴 온전한 위대함을 깨달을 능력이 없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통해 성장할 것이며, 결국 너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적 길을 분명히 보여 주기를 기대하는 이들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들에게 말만 하고 본보기가 되지 못한 채 다가간다면, 그들을 희망 없이 내버려 두거나 실망시키지 마라. 그렇게 되면 그들은 너희를 나의 제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의 행실로 나의 가르침을 증거해야 한다.

61. 사람들이 세상에 임해야 할 영적 평화를 이해하기까지는 아직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들은 폭력과 위협을 통해, 그리고 자랑하는 과학의 성과를 통해 그것을 강제로 얻으려 한다.

62. 나는 결코 사람들의 진보를 폄하하거나 반대하지 않으니, 그것 또한 그들의 영적 발전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사용과 세속적인 권력에 대한 너희의 자만심은 내 앞에서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너희에게 말하노라.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의 십자가를 더 가볍게 만들어 주기보다는, 가장 신성한 원칙들을 모독하고,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은 생명들을 침해하며, 평화와 건강, 안녕 대신 고통과 눈물, 슬픔과 피를 뿌리기 때문이다. 그들이 지식을 얻는 샘이 사랑과

지혜, 건강, 생명에 있어 고갈될 줄 모르는 나의 창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행위는 정반대를 드러내는 것일까?

63. 나는 “제2의 시대”에 이미 설교했던 것처럼, 내 자녀들 사이에 평등을 원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단지 물질적인 평등만이 아니다. 나는 사랑에서 우러나는 평등을 너희에게 영감을 주며, 이를 통해 너희 모두가 형제자매이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한다.

64. 인류에게 이 계시들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비록 너희가 조사 대상이 되겠지만,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으므로 너희는 순교를 겪지 않을 것이다.

65. 이와 같이 나는 인간의 이성 능력을 통해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다. 나의 말씀은 모든 전도자에게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만일 너희가 각자에게 다르게 전달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희가 겉모습에만 집착하고 그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66. 나는 너희의 이웃을 위한 선행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으며,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자 한다. 너희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기적을 얼마나 많이 행할 수 있는가!

67. 너희의 사명을 완수하고, 너희의 공로에 따라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 그 약속은 너희에게 영원한 현실이 될 것이다.

68. 아이는 온기를 갈망하며 아버지께로 나아가, 그분을 가장 가까운 친구로 삼아 그분께 자신의 근심과 고통, 두려움을 털어놓는다. 그리고 내가 너희 마음속 가장 깊은 고통 소리를 직접 들을 때, 나는 진정으로 기뻐한다. 나는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가 내 가르침의 빛을 주어, 너희가 다시 일어서게 하려 한다.

비록 내가 너희 손에 세상의 부를 쏟아 붓지는 않겠지만, 너희가 비참하게 살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너희는 미래 세대에게 흠잡을 데 없는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가 이기적인 이익을 좇지도 않고, 세속적인 의무에서 광신적으로 등을 돌리지도 않으면서 나를 따르고 새롭게 변모했음을 알게 될 때 말이다.

69. 견고한 땅 위에 기초를 다져라. 그래야 내가 너희 안에 세워 놓은 영성과 갱신이 불신자들에 의해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여 이 진리를 숨겨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를 대낮의 밝은 빛 아래에서 세상에 보여 주어야 한다. 이 시대에 너희는 기도하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 카타콤을 찾아가서는 안 된다. 어떤 방식으로든 나에 대해 말하거나 증언할 때 주저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를 드러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수많은 병자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치유받고 고통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의심할 것이며, 너희의 믿음을 불태우기 위해 내가 행한 기적들을 부정할 것이다.

70. 나는 너희에게 나의 가르침이 담긴 책을 남겨 주리니, 너희가 세상에 이렇게 말하게 하려 함이라. “보라, 이것이 스승께서 유산으로 남기신 것이다.” 참으로, 내 말씀을 듣는 자들 중 얼마나 많은 이가 믿게 될 것이며,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새롭게 될 것인가! 너희 삶의 시련이 너희를 준비되지 않은 채 덮치지 않도록 이 모든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라.

71. 너희는 이 땅에서의 온 생애 동안 계속해서 치유의 연고를 베풀 것이며, 너희의 말은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들에게 사랑이 담긴 조언이 될 것이니, 그러므로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너희를 갈망하고 계속해서 너희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다. 너희는 도움을 구하는 임종하는 이들의 부름을 받게 될 것이며, 너희의 말은 인간 영혼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길잡이이자 등대처럼 될 것이다.

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가르침 247

1. 매일 그 수가 늘어나며 내게 다가오는 백성들아, 환영하노라. 여기 모든 시대의 스승이 계시니, 선한 뜻으로 그분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사랑의 가르침을 베풀고 계시도다.

2. 나는 제2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너희 모두를 맞이하며, 내가 여전히 같은 스승이므로 같은 뜻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에는 내 말씀을 들었던 이들, 즉 지상에서 나의 발자취를 목격하고도 내 행적을 무관심하게 바라보았던 이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나를 경건하게 경청하고, 내 말씀을 간절히 받아들이며, 내 가르침의 빛을 통해 열광에 빠진 이들도 많았으니, 그 빛은 그들에게 영혼을 위한 낙원과 알지 못했던 영원한 행복의 세계를 선사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랑에 굶주리고 목마른 이들, 병든 자들, 슬퍼하는 자들, 억압받는 자들이 나를 맞이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나를 찾아, 긴 여정을 거쳐 내게로 왔는가? 그들은 곧 치유를 얻을 것임을, 내가 그들을 치유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영혼을 위한 생명이자 부활이기 때문이다.

3. 이 시대에도 나는 믿음으로 가득 찬 마음들을 발견했는데, 그들은 즉시 달려와 내 신성한 말씀을 그들의 영혼에 받아들이는 법을 알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4.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도록, 나는 너희에게 아직 가르쳐야 할 것이 많이 있다. 너희가 준비가 되면, 내가 너희를 사람들에게 보내리라. 너희가 나의 씨를 뿌리고, 나를 사랑하며 영적으로 찾는 모든 이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 주리라. 그러나 아직 영성화의 길을 걷지 않은 이들을 손잡고 이끌어, 너희 모두가 같은 길을 걸으며 하나가 될 때까지 이끌어 주라.

5. 항상 앞으로 나아가라, 내 자녀들아. 삶의 본질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추구하라.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는 나의 비밀 보물창고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며, 더 이상 비밀은 없을 것이다. 너희가 참된 사랑의 정점에 오르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드러날 것이다.

6. 오늘의 자녀들은 내일의 사도들이 될 것이며, 너희는 지금 당장 그렇게 될 수 있다. 허영심에서 형제단 안에 너희 이름을 남기려고 애쓰지 마라. 선한 사도들을 본보기로 삼고, 원한다면 그들을 뛰어넘어도 좋으나, 오직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만

그렇게 하라. 선을 추구하고, 평화를 위해 헌신하며, 언제나 완전함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라.

7. 나는 너희가 명상 중에 영감을 받아, 내 이름으로 병자들을 위로하고, 너희 이웃들이 조화, 건강, 평화 를 추구함으로써 내게로 돌아오도록 가르치기를 바란다. 이토록 사랑받는 인류에게 건강의 비밀을 전하고, 그들에게 단순함과 진실함, 기도와 자비로운 행실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라. 그 안에서 그들은 바라는 모든 것을 찾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사명을 완수하는 그 순간에 너희 곁에 있어 주겠다. 나는 여러분이 서로를 인정하고, 포용하며, 하나의 가족을 이루게 될 그 길을 따르도록 격려합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려고 손을 뻗을 때마다, 나의 광채가 쏟아져 내릴 것이며, 여러분의 선행에서 흘러나오는 향기로운 향기가 주변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8. 인류를 위해 길을 닦고, 그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은혜의 시기를, 동료 인간들의 의식에 깊이 각인될 행실로 빛내십시오. 이러한 행실들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내딛는 선구적인 발걸음이 될 것이며, 그들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호소이자, 틀림없이 영원히 남을 유산이 될 것입니다.

9. 그들에게 고통을 덜어주고, 좋은 본보기를 통해 경고하고 가르쳐, 인류가 조속히 올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라. 나는 그들이 울거나 계속해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인류는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딸이다.

10. 지상의 순례자들아: 너희는 거대한 나무의 그늘 아래에 있으며 그 열매를 즐기고 있다. 바로 이곳에 너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맑고 수정처럼 투명한 물이 솟아나는 샘이 있다.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1. 너희는 아직 그 나무와 샘을 찾고 있는 수많은 남녀들을 뒤로 남겨두었다.

12. 나는 너희가 강인한 모습을 보았다. 굶주림과 피로, 갈증이 너희에게서 사라졌을 때,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부족함으로 인해 망해가는 이들에게 시선을 돌리라.”

13.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는 별이 모든 이 위에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가 그 별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며, 그들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14. 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영혼을 이렇게 봅니다. 빵이 숨겨져 있어 굶주리고, 세상의 정욕 앞에서 약해져서 그들에게 뺏어 오는 구원의 손을 찾지 못해 표류하고 있습니다.

15. 나는 너희가 이웃을 사랑으로 구원할 수 있도록, 이미 지금부터 너희를 영혼을 낚는 어부로 준비시키고 있다.

16. 병든 자와 지친 자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라. 이제 너희는 강해졌으니. 영혼의 상처이든 육체의 상처이든, 내 치유의 향유를 그 위에 부어 치유하라. 목마른 자가 내게로 올 힘이 더 이상 없다면, 너희가 그의 입술에 물을 가져다주라.

17.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영원한 사랑의 법이다. 너희의 마음이 이 법을 간직할 새로운 언약궤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 내면의 빛이 너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너희를 따르는 이들에게 길을 밝혀 줄 것이다.

18. 이 시대에 나의 말씀은, 마치 광야를 건널 때와 같이, 불화, 고통, 그리고 투쟁으로 가득 찬 삶의 여정에서 너희 영혼을 양육하는 만나이다. 그러나 이 만나(manna)는 영생의 만나입니다. 사막을 건너는 동안만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렸던 그 만나와는 다릅니다. 그 백성의 자손들은 한 줌의 만나를 유물로 간직하며 그 기억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19. 남성과 여성 여러분, 내 가르침에 충실하여, 너희가 동료 인간들 사이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태양과 같게 되라.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 주어, 그들이 가족의 품 안에서 꺼지지 않는 빛을 내는 등불과 같게 하라.

20. 내가 사랑하는 피조물들이여, 너희 안에서 열렬한 노력과 동시에 고통, 깊은 고통을 보노니, 너희는 이 시대가 곧 끝날 것임을 알고 있으며, 내 가르침 중에서 너희가 유익하게 삼은 것이 매우 적음을 알기에, 너희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은총의 시간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 곁에 머물며 너희의 발걸음을 지켜 주리라. 선지자들의 눈은 내가 선택받은 백성 앞에 서서 앞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21. 나는 무한한 사랑이자 숭고한 자비이며, 내 자녀들을 결코 보호받지 못한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나의 영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나의 애정을 베풀어 주기 위해 너희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다. 너희는 결코 고아가 된 적이 없으며, 잠시 홀로 남겨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오직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일 뿐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너희가 나의 은총의 효과를 느끼고자 하는 것을 본다.

22. 나를 부르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그의 마음속으로 내려와 그 안에 머물기 때문이다. 내 영의 빛을 갈망하는 자는 빛을 받게 될 것이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나를 아버지로서 만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의사로서 필요로 할 때, 나는 너희 곁에 있을 것이며, 너희는 나의 치유의 향유를 느낄 것이다. 나를 형제라고 부르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인도하고 위로하기 위해 자비로운 손을 내밀 것이며, 나를 스승이라고 부르는 자는 마음속에서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23. 나에게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나는 전능자이며, 나의 피조물들에게 느끼는 무한한 사랑으로 인해 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자비와 용서를 베푼다. 이들은 너희의 약점을 보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영혼을 고양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영혼은 나의 영의 일부이며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들 위에는 내가 모든 인간 피조물 안에 심어 놓은 신성한 불꽃인 영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기둥으로 삼고자 하니, 이는 내가 지금 평화와 빛의 새로운 세상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24. 그리고 제2시대의 제자들처럼 내 말씀을 듣는 너희는, 내 사역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되게 해 달라고 나에게 청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그 힘을 주고 빛을 주리라. 너희가 가는 모든 길에서 너희는 나를 느낄 것이다.

25. 나는 너희가 이 시대의 내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이 너희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며, 또한 제2시대에 내가 오신 의미를 이해하기를 원한다. 그 시대에 일어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었기 때문이다.

26. 나는 완전함에서 구원자로서 내려와, 이 땅에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아담 이래 불순종으로 인해 죄에 빠진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는 사명을 완수하였다.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들의 영혼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적절한 때에, 나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 나의 가르침을 전하고 영혼의 족쇄를 풀어주며 그들에게 부활을 주었다.

27. 너희 모두는 성찬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다. 내가 제자들에게 건네준 빵과 포도주는 온 우주를 위한 양식이었다. 그것들은 나의 본질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막론하고 나의 모든 자녀 위에 임하는 나의 사랑을 상징했다. 모든 이에게 내 영의 빛이 내려졌다.

28. 나는 사도들의 발을 씻어 주며 나의 검손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세상의 길로 나아가 모든 마음을 나의 사랑으로

준비시키라고 촉구했다. 바로 내가 모든 이를 향해 품고 있는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내게로 오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행위는 너희가 사명을 완수하고자 할 때, 모든 죄에서 스스로를 정화해야 함을 가르쳐 준다.

29.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다. 사람들이 나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내가 미리 알지 못했던 일이 있었겠는가? 모든 것은 나의 뜻대로 준비되어 있었고, 에서 일어난 일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기 위해 내가 미리 정해 둔 과정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십자가로 끌고 가, 내 몸을 벗기고 내 손과 발을 나무에 못박았다. — 십자가의 상징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30. 가로대(수평대)는 세상의 죄를 상징하며, 이는 세로대(수직대)와 대립한다. 세로대는 높은 곳으로 뻗어 올라가며 그 높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죄는 언제나 신성한 차원으로의 승천을 가로막는 장벽이다.

31. 나는 그 나무에 못 박혔고, 내 영혼이 사람들의 차가운 마음과 악의를 보았을 때, 그리고 그들이 그 몸을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고통으로 인해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때 내 입술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내뿜었다. “주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제 오늘날, 너희가 여전히 나를 이해하지 못했기에 나는 다시 한 번 너희를 용서한다. 얼마나 많은 나의 피조물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나를 섬긴다고 믿으면서도 정작 유혹을 섬기고 있는가!

32. 다시 한번 내 눈은 수많은 군중을 바라보며, 그 당시 나를 둘러싸고 있던 이들 중 몇몇을 알아본다 — 얼마 전까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아보지 못했던 바로 그 사람들 말이다.

33. 나는 그 얼굴들에서 자비도 사랑도 보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했다. 그것은 육체의 갈증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이 그 말을 하게 한 것이었다. 나는 사람들의 사랑을 갈망하고 계셨다. 그러나 사랑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나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받게 한 것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그들로부터 보았다. 그때 땅이 흔들리고 해가 어두워졌으며, 내 영이 예수님의 몸에서 떠나게 되었다.

34. 내 자녀들은 세상의 모든 죄의 짐과 수치가 쏟아진 그 몸을 보았고, 고문당한 그 몸이 외쳤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35. 그 후, 나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마리아의 얼굴과 나의 사도 요한, 그리고 마리아를 따르던 그 여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증명하고자, 마리아에게 내 모든 자녀들의 보살핌과 보호를 맡기며 그녀에게 “여인아, 저기가 네 아이다”라고 말했고, 요한에게는 “아들아, 저기가 네 어머니다”라고 말했다. 그것이 바로 그 순간 내가 인류에게 물려준 유산이었다. 요한은 그 아이, 즉 인류를 상징했다. 너희는 마리아에게 맡겨졌으니, 그녀가 영원히 모든 피조물을 위해 중보하고 위로하며 보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36. 그 후, 나는 두려움에 떨며 비명을 지르며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디마스에게로 몸을 돌렸다. 나는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의 깊은 회개를 보았다. 그는 나에게 말하였다. “완전하신 당신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이 가련한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며 위로해 주었다. “진실로, 진실로, 잠시 후면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37. 육신의 죽음이 예수께 다가오자, 나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나는 너희에게 그분의 계명을 다 이행한 후 아버지께로 돌아가라고 가르쳤다. 나의 영은 그분의 영과 하나 되기 위해 그분께로 돌아갔다.

38. 나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발전의 여정에서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마음은 복이 있나니, 내가 그를 영접할 것이며, 그는 은혜와 완전함으로 충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39. 이것이 바로 세상이 해마다 듣고 있으면서도 그 영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곱 마디 말이다.

40. 나의 제자들과 친구들아,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그들은 관습대로 그 육신을 수습하여 방부 처리를 하고, 지하 묘실에 안치하였다. 그 후 사흘 동안, 나의 영은 영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던 세계들로 내려가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길을 안내해 주었다. 구원은 어두운 영역에 머물며 구세주를 기다리던 피조물들에게도 미쳤다.

41. 그 후, 나는 모습을 드러내어 어머니와 마리아 막달레나,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갔다. 승천하기 전,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며, 모든 영혼을 새로운 생명으로 깨우기 위해 나의

무한한 지혜와 완전한 가르침을 전할 때,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보여주었다.

42. 그리고 오늘, 내가 너희와 작별할 때가 다가왔으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제한된 가르침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염려하지 말라. 영혼들은 성장하였으며, 너희는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볼 필요가 없다. 또한 너희가 육신의 입에서 나오는 나의 말씀을 들을 필요도 더 이상 없다. 영혼은 성장하였고, 고양되었으며, 영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앞으로도 모든 제자들에게 길을 보여 줄 것이다.

43. 나는 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지침을 내린다. 스승이 너희에게 말씀하노니, 너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이 열매를 맺는 비옥한 들판으로 변화시켰을 때, 너희 가운데는 화합과 형제애가 지배할 것이다. 그때 비로소 너희는 스스로를 나의 제자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44. 때로는 너희가 내 말씀이 너희의 상상력에 깊이 각인되어 심오한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하기도 하고, 너희가 거슬리거나 혼란스러워할 만한 것이 없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기도 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는 이미 제자들과 학습자들 사이, 너희 모임 속의 '첫 번째'와 '마지막' 사이에서 계급 표식, 등급, 분류를 만들어 냈을 것이며, 축제 분위기 속에서 허구의 월계관을 스스로 머리에 씌웠을 것이다. 사람들은 허영과 허세를 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45. 그 당시 내 사도들이 가꾸었던 형제애의 씨앗을 너희 가운데 뿌려라. 그 씨앗은 그들이 교회와 마을, 도시를 세우는 데 본보기가 되었다.

46. 내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너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바로 사랑이다. 너희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선교사가 될 수 없다. 너희 모두는 내게로 올 것이며, 그것은 사랑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어떤 이들은 더 일찍, 어떤 이들은 더 늦게 도착할 것이다. 스스로의 잘못으로 가장 많이 늦어진 이들은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이다. 너희 모두는 새로운 날의 빛을 맞이하기 위해 동시에 피어나지 않는 꽃과 같다. 너희 마음이 신성한 사랑에 단혀 있었다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과거는 지나갔으니, 이제 영원이 너희를 다시 불러모으고 있다. 나는 내 손에 너희 과거 삶의 책을 쥐고 있는데, 그 안에는 분명 많은 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는 너희 미래의 삶과 변모에 대한 빈 페이지들도 있다. 나는 모든 것을 보고 알고 있다.

47. 다시 한 번 말하노니, 너희는 모두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각자는 스스로 천국을 '정복'해야만 한다. 이 '정복'은 사랑을 통해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고통을 통해 고통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나는 너희를 돕고, 위로하며, 인도하겠지만, 나머지는 너희 스스로 해야 한다. 나는 너희에게 힘을 주며, 이 힘은 사랑, 즉 우주와 모든 피조물을 움직이는 진정한 에너지이며, 이 없이는 너희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너희의 과거를 담은 책을 너희에게 숨겨 둔다. 왜냐하면 그 페이지들을 보게 된다면, 너희는 비통함에 울고 슬픔으로 병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에게 그 공포와 고통은 너무나 커서, 스스로를 용서와 구원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길 것입니다. 이러한 어두운 일들 속에서도 나의 사랑은 빛을 발하며, 끔찍하고 끝없는 고통을 면하게 해 주고, 순수한 행실을 통해 너희 영혼을 조금씩 새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인생의 책에 기록된 미래의 페이지들을 알게 된다면 — 얼마나 행복하게 미소 지을 것인가!

48. 너희가 언젠가 고양되었을 때, 너희는 과거의 고통을 기쁨으로 회상하며 아버지께 감사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고통들은 너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이다.

49. 이것이 인간의 이성 능력을 통해 전해진 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너희가 바라는 대로 온전해지려면, 너희는 영적으로 승화되어야 하며,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매개체인 형제자매들에게도 이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들에게 이상주의와 영혼의 평안, 그리고 그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라. 그들의 일은 영혼에게는 수행하기 어렵고, 육신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 된다. 나의 사역에는 강력한 대변자들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불신하는 세상, 즉 토마스처럼 의심에 사로잡혀 — 보고만져보아야만 확신할 수 있는 —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적을 이룰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도 토마스처럼 행동하기보다,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스승을 더 본보기로 삼는다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50. 내 말씀을 전하는 너희들아: 너희의 노력이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고, 너희가 하는 일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과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며, 친절함을 잃지 말라. 그러나 내 빛이 너희의 지성을 비추고, 그 빛이 너희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영적인 감동을 느낄 때 — 나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내 사랑에 몸을 맡기고, 무한한 기쁨으로 나를 섬기라. 그것이 곧 너희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것임을 너희는 알고 있으니까. 나는 그 순간들에 너희를 은총으로 채워줌으로써 너희의 준비를 보상해 주리라.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가 사랑이 넘치게 되고, 마음속에 진정한 이웃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51. 내 계시를 준비하는 순간에는 세속적인 “지혜”나 철학을 생각하지 마라. 내 지혜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황홀함에 빠졌을 때 영감을 주고, 어려운 임무를 완수할 힘을 주는 분은 바로 나이다. 너희가 나에게 맡긴다면 —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52. 기도하되, 너희의 기도는 매일의 계획과 행실로 채워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가장 훌륭한 기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청을 전하고자 하는 생각을 품고 싶다면, 그저 이렇게 말하라. “아버지, 당신의 뜻이 제게 이루어지소서.” 그러면 너희는 이해하고 바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구하게 될 것이며, 이 단순한 문장, 이 생각은 너희가 예전에 나에게 청했던 그 ‘주님의 기도’를 더욱 단순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53. 이로써 너희는 모든 것을 구하며, 너희를 위해 가장 잘 말해 줄 기도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너희 입술로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그것을 느껴야 한다. 말하는 것과 느끼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느낀다면, 나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분의 언어를 이해한다.

54. 이것을 아는 것보다 너희에게 더 큰 기쁨이 있겠느냐?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너희가 말해 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장소와 특별한 옷차림, 심지어 정해진 행동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에 확신을 두지 말라. 언젠가 내 영감이 어떤 장소에서든, 어떤 시간이든 너희와 함께할 날이 올 것이며, 다양한 무리의 사람들 앞에서 너희는 내 생각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말과 언어로 표현하게 될 것이다.

55. 이 말씀이 울려 퍼져야 할 유일한 교회는 너희 형제의 마음이어야 한다. 너희가 말하는 언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언어를 배우는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빛인 나의 생각을 표현해야 하며, 모든 사람은 각자의 언어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마치 나의 사도들이 다양한 방언이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내 왕국에 대해 말했을 때와 같이 말이다. 이 놀라운 사건들을 사실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를 기적이라 부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 부인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진정으로 내 사랑의 제자라면, 이는 별것 아닌 일로, 노력 없이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오, 나의 목소리를 전하는 자들아, 누구도 흉내 내지 말고 너희 마음의 이끌림을 따르라. 각자에게는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명심하라.

56. 백성아, 변성하라. 내 도구들이 되는 이들에게 마음으로 함께 하라. 그들은 황홀경 속에서 너에게 영적인 빛과, 너를 강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양식을 준다. 그들은 네가 배우도록 섬긴다. 내일 다른 이들은 오늘 네가 그들을 위해 하는 일을 너를 위해 해 줄 것이다. 너희는 내가 “제2의 시대”에 사용했던 언어의 외형과 지금 내가 사용하는 것이 다르다고 말할 수도 있겠고, 부분적으로는 너희 말이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그 당시 그분이 사시던 민족들의 표현 방식과 관용구를 사용하여 너희에게 말씀하셨고, 오늘날 나 또한 내 말씀을 듣는 이들의 정신적 성향을 고려하여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당시와 오늘날 전해진 그 말씀이 전달하는 영적 내용은 동일하며, 하나이며, 변함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마음이 굳어지고 이성이 닫혀 있는 많은 이들에게 간과되어 왔습니다.

57. 언제나 뿌리에서 멀어져 걸모습에만 매달리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릇된 길로 빠져 길을 잃곤 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 위해 내 자녀들 각자를 통해 드러내는 말씀은 지극히 단순하고 순수하며, 사랑을 드러내고 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너희 귀에는 아주 좋게 들리지만 너희 마음에는 아무 말도 전하지 않는, 듣기 좋은 표현들에 현혹되지 말라.

58. 너희의 머리보다 마음을 더 움직이게 하라. 마음은 머리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높을수록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겸손하며, 더 건강해진다.

59. 너희 믿음과 사랑, 그리고 관념 속에서 가장 순수하고 고귀한 곳에서 나의 일을 찾으라. 불필요한 지식으로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겉치레적인 숭배 형식으로 이 가르침의 광채를 가리지 말라. 너희가 이러한 것들과 나중에 내가 너희에게 말해 줄 다른 것들로 인해 참된 길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60. 너희는 무엇을 더 선호하느냐? 나를 표현하기 위해 너희가 만들어 낸 사물들을 통해 나를 찾는 것, 아니면 너희 마음속에서 직접 내 사랑의 감촉이나 내 목소리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것? 영적으로 깨어나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를 이룬 자는

모든 세속적인 칭호와 직함보다 더 귀중한 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61. 이것이 이루어지면 너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이전에도 믿기 힘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라, 제자들아! 빛이 없는 영혼들, 그들이 육신을 입고 있든 이미 육신을 벗었든 간에, 그들에게 겁먹지 말라.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라. 그들도 너희가 나를 찾았던 것처럼, 아직 나를 찾게 될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그때 내가 그들을 맞이하여, ‘탕자’처럼 내 품에 안아 줄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가르침 248

1. 나의 평화가 모든 영혼에 함께하기를. 이 평화를 깊이 느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참된 길을 보여 주는 빛이 비추어, 너희가 수세기 동안 걸어오며 가시덤불에 걸려 넘어지던 어두운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맡겨 준 이 아름다운 행성을, 너희가 영원한 생명의 한 순간 동안 거할 수 있도록, 너희는 얼마나 많은 비통함으로 뒤덮었는가.

2. 오직 영혼에 평화가 깃들었을 때만 너희는 나를 따르고 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가르침은 강인한 영혼들, 즉 고통과 사랑 속에서 강해져 나중에 인류의 본보기가 되어 빛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3. 예수님의 모범을 떠올릴 때,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류가 가꾼 쓴 열매를 고집하여 먹으려 한다면, 너희는 스승의 가르침을 거의 또는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겉으로는 달콤함을 약속하지만 속에는 독을 숨기고 있는 위험하고 위선적인 열매들이 많기 때문이다.

4. 다시 한 번 말하노니, 너희 영혼을 평온하게 하고, 세상이 속죄의 시기를 겪고 있으니 너희의 문제들이 온 인류의 문제라는 생각으로 잠시 그 문제들을 잊으라.

5. 너희는 마치 때때로 너무 메마르고 병든 가지를 가진 관목과 같아서,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병든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나의 사랑의 정의가 인간의 나무에서 그 마음을 해치는 병든 가지를 잘라낼 때,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사람의 신체 일부를 절단해야 할 때, 그 사람은 병들고 죽어가는 것, 그리고 아직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을 위협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함임을 알면서도 한숨을 쉬고, 떨며, 겁을 먹습니다. 장미 또한 가지치기를 당할 때 고통의 눈물처럼 생명의 수액을 흘리지만, 그 후에는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자신을 덮습니다. 나의 사랑은 내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을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잘라내며, 때로는 나 자신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나는 나의 선함과 용서로 나를 처형한 자들을 감싸 안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나의 말씀과 침묵으로 나는 그들을 빛으로 채워 주었고, 그들을 보호하며 구원해 주었다. 이와 같이 나는 악을 잘라내고, 나의 사랑으로 그것을 물리치며, 악을 행한 자를 보호하고 구원한다. 그 용서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영원토록 구원의 원천이 될 것이다.

6. 예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나는 너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세우고, 길을 잃을 때 개입한다. 너희는 나를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깨달아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두려워하라!

7. 나는 내 자녀들에게 언제나 가볍고 아름답고 안전한 길을 보여준다. 나는 너희가 너희의 행실로 인해 스스로 만들어내는 길고 힘들며 고통스러운 여정을 피하게 해준다. 너희가 길을 잃거나 나태하여 빛의 길에 도달하는 것이 늦어지는 것은, 오직 너희가 고집을 부리기 때문이다.

8. 나는 너희가 새로운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새로운 계시를 준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나의 가르침이 글의 형태로 영혼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나의 말씀은 인간 삶에 쌓여 온 모든 거짓을 파괴할 것이다.

9. 나는 이것으로 사소한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영감을 받은 자들이 빛을 발할 거대한 세계관 간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올바른 말씀을 심어 주겠다.

10. 스승께 나아가 그분께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가 과거의 경전에 대해 배워 온 잘못된 해석들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마치 눈먼 거울과 같았던 그 잘못된 해석들은 너희로 하여금 진리를 보지 못하게 했다.

11. 사람들은 내 제자 요한의 계시를 인용하며 너희에게 적그리스도에 대해 말해 왔다. 너희는 이 인물을 과거와 현재의 많은 동료 인간들에게 잘못 적용해 왔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류가 이해해 온 그 적그리스도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의 사랑이시므로, 사랑하지 않는 자라면 누구나 적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너희 세상은 물질주의에 눈이 멀어 있는 적그리스도들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달아라.

12.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진실로 여기는 거짓된 확신이나 거짓말들로 가득 차 있는 것보다, 불확실성과 부정으로 가득 차 있는 편이 너희에게 더 낫다. 의심이나 무지에서 비롯된 정직한 부정은, 거짓에 대한 그릇된 확신보다 너희에게 덜 해롭다. 이해를 갈망하는 정직한 의심은 어떤 신화에 대한 확고한 믿음보다 낫다. 빛을 간절히 갈구하는 절망적인 불확실성은 광신적이거나 우상 숭배적인 확신보다 낫다. 오늘날 어디를 가나 불신자들과 실망한 이들, 그리고 원한에 찬 이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반항자들로서, 종종 다른 이들보다 더 명확하게 보며, 의례적인 허세를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자들로부터 들은 확신에 설득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그 모든 복잡한 이론들은 그들의 두려움을 달래줄 맑은 물을 갈망하는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반역자라고 여기는 이들은, 스스로를 학식 있거나 중요하다고 여기는 답변자들보다 그들의 질문을 통해 종종 더 큰 통찰력을 보여준다. 그들은 신성한 가르침의 대가라고 자칭하는 많은 이들보다 더 큰 명료함으로 느끼고, 보고, 감지하고, 듣고, 이해한다.

13. 너희는 또한 전쟁이 발발할 때마다 곧 닥칠 것이라고 여기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인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논쟁한다. 이에 대해서도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대하는 그 종말은 오지 않을 것이다. 제2시대의 나의 말씀은

나를 공경하지도, 사랑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물질화되고 과학화된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14. 너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칭할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문자 그대로 믿었으나, 결국 그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될 것임을 믿고 깨달았다.

15. 너희는 비유들을 굳이 잘못 해석하려 드며, 그 비유들에 너무 몰두하여 오류에 빠지고, 결국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모르게 된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과 마음을 정화하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빛을 주며, 너희의 물질적 향상과 영적 승화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계시해 주리라.

16. 거짓 그리스도들은 누구인가? 우월함과 덕을 떠벌리며 선을 전파하는 자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정반대의 일을 하는 모든 자들이다.

17.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무서운 정의와 여호와의 진노, 심판의 날에 내가 복수하는 재판관이 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나 너희는 평생 동안 몇 번이나 심판의 날을 겪어 보았느냐? 너희 영혼에게 슬픈 그 순간들에서 나는 너희의 재판관이 아니라 너희의 변호인이었다. 나의 영 안에는 분노가 존재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그 분노를 드러낼 수 있겠는가? 나 안에는 오직 조화만이 있을 뿐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자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나의 공의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며, 정화될 기회를 간청하는 것은 바로 너희 자신들이다. 나는 너희를 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18. 그릇된 길을 걷고 있는 너희를, 너희가 나를 부르면 곧 받아들이고 내 힘과 빛을 주리라. 너희의 몸과 영혼에 큰 죄인들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는 너희가 너희를 모욕한 자들을 축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이 기적을 가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를 축복하게 하리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큰 죄인들이 공로로 얻은 의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은총을 받을 수 있겠는가?’ 오, 눈앞만 보는 사람들아! 나는 너희가 그럴 자격을 갖추기도 전에, 언제나 은총으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왔노라!

19. 나는 순수한 생각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여 더럽혀진 채 내게 다가오는 이의 슬픈 탄원에도 응답하노니, 그에게서 겸손이나 통찰의 불꽃 하나라도 솟아날 때마다 말이다.

20. 나는 큰 무능함과 무지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약한 자들의 수호자이다. 나는 우는 자들을 부르시고 위로하시는 신성한

희망이며, 고통과 속죄 속에서 신음하는 자를 부드럽게
어루만지시는 사랑이 넘치는 예수이다.

21. 나는 너희의 구세주이자 구속자이다. 나는 인간이 접할 수
있는 진리이다.

22. 이제 제자들의여, 나의 또 다른 가르침을 들어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강하고 위대하며 우월하다고 느낄 때,
너희는 나로부터 멀어진다. 너희의 교만이 겸손의 감정을
질식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를 작게 느끼고,
너희가 내 창조물 한가운데 있는 원자처럼 미미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너희는 내게로 다가온다. 너희의 겸손함으로 인해
너희는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가 너희 곁에 계심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때 너희는 하나님께서 내면에 간직하고
계시며, 너희가 기꺼이 알고 경험하고 싶어 하는 그 위대하고
헤아릴 수 없는 모든 것을 떠올리게 된다. 마치 너희 영혼 속에서
신성한 속삭임의 메아리를 듣는 듯한 느낌이 들 것이다.

23. 나는 너희 영혼의 주인이자 구세주이다. 너희의 육체는
너희에게 주어진 수많은 도구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대다수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올 때 나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으며,
지상에서 너희를 둘러싼 삶의 영향으로 인해 길을 잃곤 한다. 이는
영혼에 아직 진정한 위대함과 고양의 결여되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내가 그들의 주님이시며 아버지이심을 잊지 않는 다른 이들은,
구할 때는 끝이 없으나 줄 때는 인색함을 보인다. 그들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부족하다. 그들은 구하는 법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주는 법은 모른다. 그들은 구하는 법을 배우려
애쓰지 않으며, 주는 법을 배우려는 노력은 더욱 하지 않는다.
그들이 나에게 청해야 할 유일한 것은, 내가 그들에게 내 뜻을
이루게 해 달라는 것뿐이다. 너희는 이미 내 뜻이 의롭고,
완전하며,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24.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25. 너희는 이 말씀이나 이 간구를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는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를 나에게 드리고 그 의미를 깊이
느끼는 자는 기적의 원천을 발견한 것이다. — 베품에 관해서는,
사랑이 너희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베풀어라.

26. 너희는 이 세상에서 올바른 쾌락의 감정을 통해 영혼의 가장
순수한 감정을 잠재우려 한다. 그러나 신성한 영이 너희 본성에

숨겨져 있으므로, 너희는 모두 그분께 복종해야 할 것이니, 어떤 이는 일찍, 어떤 이는 늦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27. 사람들은 너희를 불완전한 존재의 상태에서 완전함의 경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인 하나님께 영원히 대항할 수는 없을 것이다.

28. 나는 나의 가르침을 통해 너희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 주고, 이 시대의 나의 말씀뿐만 아니라 과거의 말씀도 올바르게 해석하도록 가르쳐 주겠다. 너희는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나의 말씀을 근거로 광신적인 숭배 행위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은 사라지겠지만, 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할 때, 너희의 물질주의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생각한다. “하늘도 땅과 마찬가지로 사라질 수 있을까?” 이는 너희에게 깊은 이해가 부족함을 보여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너희가 보는 하늘과 너희가 사는 땅은 시간이 초 단위로 그 위에 흔적을 남기므로 사라지겠지만, 내 말씀의 본질과 실체는 — 신성하기 때문에 — 영원하며, 신성한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러나 너희의 땅과 하늘은 사람들에게는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서서히 변하고 사라지지만, 나의 사랑은 변함없이 남아 있습니다. 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으니, 온 우주가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29. 예수께서는 너희에게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 오셨지, 너희의 헛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법을 아는 이는 얼마나 적은가. 너희는 선한 일을 할 때마다 “나는 고귀하고, 관대하며, 자비롭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행했다면, 너희는 겸손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내가 너희 영혼에 그것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선한 행위를 인간적인 마음에 돌리는 자는 자신의 영혼과, 그 영혼에 이러한 미덕을 부여하신 분을 부인하는 것이다. 반대로 너희가 악한 일을 저지르면, 빌라도처럼 손을 씻으며 그 행위를 아버지께 떠넘기며 말하곤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기록된 바였으며, 하나님이 원하셨고, 운명이다.”

30. 너희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잘못 알고 있다. 너희의 잘못과

비참함은 하나님의 뜻 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전능하신 분께서 결코 강제로, 그분의 권능을 통해 너희를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런 일은 *너희*가 더 약한 형제자매들에게 행하고 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과 불의, 조화의 결여는 *너희*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사랑과 인내, 영혼의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너희가 사랑할 때마다, 너희 영혼의 창조주께서 너희에게 영감을 주시는 것이다. 반면 너희가 미워할 때는, 바로 너희 자신, 즉 너희의 연약함이 너희를 부추겨 파멸로 이끄는 것이다.

31. 너희 삶에서 악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너희의* 소행임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 너희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왜 하느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시는가? 그분도 우리의 죄로 인해 고통받지 않으시는가? 우리를 울고 있는 것을 보시면 그분도 울지 않으시는가?’ 우리에게 이러한 좌절을 겪지 않게 해 주시는 데 그분께 무슨 대가가 들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사랑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남을 것이니, 이는 너희 창조주의 너그러움이 너희의 이해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32. 강해지고, 위대해지고, 지혜로워지며,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너희가 사랑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파헤치려는 어린아이 같은 욕망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그분을 뵈고 그분을 느끼게 될 것이며, 그것으로 너희에게는 충분할 것이다.

33. 나의 사랑은 너희가 고통 속에서 때때로 스스로에게 던지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준다. 나는 너희가 직접 가꾼 열매의 맛을 알게 할 뿐이다. 그래야만 너희가 다른 이들에게 느끼게 했던 그 감정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또 이 말을 하노니, 너희가 고통의 잔을 넘치도록 채울 때, 비록 내가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고통과 심지어 죽음까지 너희 안에 있게 허락하리라. 왜냐하면 영혼은 육체를 통해 시험하는 이 모든 하찮은 감각적 지각들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34. 예수께서는 높은 차원의 영혼이 채찍질과 모욕, 가시관을 어떻게 견뎌내는지 너희에게 가르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으니, 이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처형자나 비방하는 자에게 당당히 맞서고, 그들을 사랑하며 축복할 용기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35. 너희는 이와 같이 세상과 육신을 뒤로 남겨 두어야 한다.

36. 그러나 오늘, 내 말씀이 인간의 이성을 통해 너희에게 돌아오는 이 은혜의 아침에, 내가 너희를 환영한다.

37. 인류여, 너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38. 기쁨과 기억의 축제, 바로 성탄절이다.

39. 부자와 권력자들에게는 세속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태어나신 그날 밤 침대도 집도 없었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결핍이 따르지만 영적인 기쁨이 있는 축제입니다.

40. 제단을 장식하고 축제를 준비하며 분주한 기독교인들아,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마음은 비어 있다. 너희가 세우는 그 제단들과 나를 형상화한 그 상들이 단지 너희 눈의 즐거움일 뿐이며, 실재와는 매우 동떨어진 신성의 모방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느냐? 나는 언제나 참된 겸손의 성전에 거해 왔다. 마찬가지로 나는 너희에게 모든 사랑과 자기 부정을 다해 너희의 사명을 다하라고 가르쳤다.

41. 오늘 나는 그 가르침이 그 힘을 잃어버렸고, 그 의미가 이 기독교 세계에 의해 잊혀졌음을 본다. 왜냐하면 가족을 곤경에 빠뜨리는 자들조차도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칭하기 때문이다. 화려함과 권력을 과시하는 자들과 전쟁을 부추기는 자들 또한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칭한다. 그러나 모든 이가 그 본보기와 그 길을 따르지는 않을 것이니, 많은 이들이 영혼의 위대함이 마음에 어떤 성품을 지니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깨달음 속에서 깨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순수한 감정들이 깃들어 있다.

42. 내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온 지 약 2,000년이 지났다. 나는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 이 사실을 상기시켜 줄 뿐이다.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나의 본보기는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시작되어, 어린 시절과 청년기를 거쳐,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나의 피로 쓰여진 이 역사는 생명의 책이며, 인류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43. 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며, 아버지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크셔서, 결국 나 자신을 제한하여 인간으로서 그들과 함께 살게 되셨음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려 했다. 이는 모세가 그들에게 남긴 율법을 따르던 지도자들이 신성에 대해 품고 있던 모든 관념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들이 풍요 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가난한 모습의 하느님의 아들을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 그들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목수의 아들 예수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었겠는가?

사랑과 겸손에 대한 나의 가르침은 그들에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요람은 너무나 초라하여 그들 중 그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으니, 나를 어루만지거나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기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연은 인간으로서의 나의 존재에 깊이 감동하여, 그 다양한 영역에서 나에게 팔을 뻗어 나를 환영해 주었으며, 별에 상징된 영원의 빛은 세상에 메시아의 도래를 알렸다.

44. 이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박해를 받기 위해 육신을 입어야 했던 그 시절과는 달리, 너희에게 비추는 내 영의 빛은 인류에게 드러날 것이며, 인류는 내 말씀이 현재 어디에서 흘러내리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45. 오늘 나는 빛으로서, 본질로서, 이 날을 영성과 기쁨으로 기념하는 법을 알고 내게 마음을 선물로 바친 선의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채워 주기 위해 온다.

46. 너희 주님께 바치는 것은 고통과 궁핍입니다. 너희 스승께서도 고통을 겪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음을 기억하며 바치는 것입니다.

47. 나는 이 제물을 받아들이고, 너희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불꽃을 지핀다. 내가 너희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를 제물로 바쳤으니 —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언제나 자비로운 손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잊지 말라.

48. 너희의 영적 유년기는 끝났으니, 이제 너희의 성장을 이해해야 한다.

49. 내가 너희에게 나의 대리권을 맡긴 것은, “제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자는 스승과 같아질 것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사랑을 뿌리고, 마음에 평화를 심으며, 기적을 행하라. 은총의 삶으로 부활하고, “죽은 자들”을 진리로 깨우라.

50. 영성가들아, 내 말씀의 해석자이자 전령이 되어라. 오늘 나는 받은 가르침에 따라 나의 오심을 기념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어루만진다.

51. 대변자가 황홀경에 빠질 때, 너희가 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나의 신성한 광선, 나의 영감이 너희에게 내려올 것이다. 나는 너희가 단 하나의 소망, 즉 인류 간의 평화로 하나가 되는 것을 보고자 한다.

52. 나를 갈망하며 다가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내 신성한 영의 빛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찾는 자는 자신의

내면에서 상향 발전의 시기가 도래했음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53. 인간의 이성은 자신을 묶어 두었던 속박의 사슬을 끊어내려고 애쓴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지금이야말로 이성과 영혼이 자유를 찾아야 할 때이다. 그들 앞에는 끝없이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어, 그들의 한 마음이 보여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은 완성되어 더 큰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모든 인간의 생각 속에 진리가 담겨 있을 것이다.

54. 오늘 나는 수많은 대변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말하며, 그들을 통해 너희 영혼을 위한 교과서를 남기노라. 마치 내가 이 인류의 제2시대에 지혜와 사랑의 유산을 남겼던 것처럼 말이다. 내 가르침의 기초는 사랑, 즉 모든 존재를 하나의 가족으로 하나로 묶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 보편적이고 지극히 높은 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55. 너희는 이 신성한 성품을 지녀야 한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자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였으니, 자비를 베풀 기회가 나타날 때마다, 그것이 특정 형태에 얽매이거나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이를 위해 필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나는 내 자신의 일부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 안에 살아가게 하였다. 그것은 영에 의해 깨달음을 얻은 너희의 영혼으로, 너희가 나로부터 나왔음을 깨닫게 해 주는 것이다.

56. 그러므로 너희는 신성한 힘이 생명인 모든 것 안에서 드러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생명은 너희를 둘러싼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의 하나님을 단 하나의 형상으로만 제한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나는 창조주이기에 모든 형상을 취할 수도 있고, 어떤 형상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57. 너희의 지성이 너희를 생명의 원리로 이끌고, 그 안에서 피조물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변화하는지 발견하게 된다면, 너희는 나의 많은 가르침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게 될 때 놀라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너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부터 가장 거대한 세계와 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 계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58. 이러한 방식으로 너희는 인간이 생명과 자연의 힘을 창조하는 존재가 아니며, 단지 이미 창조된 것을 활용하고 변형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내가

인간을 창조 속에 두었으며, 내가 그에게 부여한 모든 은사와 능력을 펼치도록 한 것이다.

59. 창조는 하나님 그 자체이며, 창조주와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신성한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올 것이다.

60. 인간은 창조를 이루는 모든 것이 그러하듯 발전 과정을 거친다. 그는 태초에 미성숙했다. 그의 지성은 그가 영위하던 원시적인 삶에 걸맞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게 하시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셔서, 자신의 내면에서 영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이는 태초에 그의 영혼이 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인간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며, 자신을 완전함으로 이끄는 능력을 깨닫는 가운데 서서히 발전해 나갔다. 그렇게 하여 그는 내가 영혼의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 한 번의 지상 생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계시해 준 이 시점에 이르렀다.

61. 오늘날 인간의 경험이 과거 사람들의 경험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면, 너희는 이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영혼은 이전의 삶의 여정에서 얻은 빛을 함께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인간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이 시대를 ‘빛의 세기’라고 불렀으니, 이는 신성한 빛이 모든 이성의 마음속에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62.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이는 바로 나, 아버지이다. 의심하는 자를 위해, 나는 내 말씀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한다. 이 말씀은 전달자의 능력에 따라 드러난다. 그의 뇌는 내 지혜의 전달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능력에 맞춰 그것을 표현한다. 그러나 그 의미는 모든 전달자에게서 동일하다.

63. 나는 너희 모두를 받아들이며 너희에게 축복을 내린다.

64. 여기 너희 가운데 계신 완전한 심판자가 계시니, 그분은 너희 감수성의 문을 두드리시며, 너희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그분의 전능과 정의, 진리 앞에서 가질 수 있는 미미한 의미를 너희가 깨닫게 하시려 하십니다. 너희 영혼은 그러한 방식으로 발전해 왔기에, 너희의 영은 현재 삶의 과오를 심판할 뿐만 아니라, 나의 신성한 정의에 대한 오래된 빛을 너희에게 드러내기도 한다.

65. 너희의 감정이 한 번 더 높은 영적 경지에 이르면, 과거에 대한 기억과 직관이 너희 안에서 더 선명해질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이 모든 것에 대해 단지 막연한 예감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희가 순종과 확신을 가지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너희의 영혼이 정화되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말이다.

66. 예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혈떡거리며 가시는 모습을 보고 조롱했던 이들은, 오늘날 그 산을 오르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진 바로 그 사람들이다. 당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치던 이들은 이제 나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67. 그 외침들은 내 마음을 꿰뚫었고, 그 증오와 모독은 나를 상처 입혔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죽음을 내리지 않았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고 새로운 생명을 주었다.

68. 너희가 내 육신을 십자가 나무에서 내려놓았지만, 영적으로는 나는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너희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적대감과 전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 옆구리에서는 여전히 피와 물이 흘러나오고 모든 상처는 여전히 생생하다.

69. 진실로,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양심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너희 영의 눈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가르침 249

1. 사랑하는 백성들아, 여기 너희 가운데 ‘그 말씀’이 계시니, 바로 제2시대에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며, 오늘날 인간의 이성을 통해 영적으로 드러나시는 그 말씀이다.

2.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께서 사람들 가운데 계셨던 삶은 쉽지 않았느니라. 내 어린 시절부터 내 입술에는 괴로움의 잔이 닿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온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을 겪으며,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생명과 평화와 행복의 주님이신 내가 내 영광을 포기하고 너희를 통해 이 땅에서 고통을 겪었다면, 너희에게는 무엇이 닥칠지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너희는 이 세상의 행복과 즐거움, 성공에서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3. 기독교 세계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념의 날들조차도 전쟁의 소란이 들리고 사람들은 서로를 죽이고 있다. 여성들은 보호받지 못한 채 남겨지고, 아이들은 고아가 되어 남습니다. 그 동안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사랑의 망토를 지구 전역에 펼쳐 놓으십니다. 그분은 따뜻함과 포근함, 영원한 품, 그리고 안식처이십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가장 완벽한 어머니이신 그분 또한 마구간의 구유에서 시작되어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끝난 신성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4. 사랑하고, 축복하며, 인류를 위해 기도하는 선의의 사람들에게 평화와 있기를.

5. 나를 찾되 나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내 뜻이 너희에게 허락하는 것만을 기대하는 나의 피조물들아: 너희가 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때, 깊은 사랑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너희의 생각을 맡기며, 너희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고 내게 말하라.

6. 너희는 보호를 찾기 위해 동지를 찾는 새들과 같다. 너희는 온기를 갈망하며 서로에게 다가갔고, 나의 말씀이 너희를 양육하고 너희 마음을 채워 주었다.

7. 오늘 너희는 나에게 너희의 행실을 보여 준다. 너희는 눈물과 고통을 뒤로 하고, 새해가 인류에게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가져다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8. 여러분은 이해받지 못함과 실망을 겪은 끝에 나를 찾게 된 것에 대해 나에게 감사하며,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음을 느낄 때면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9. 이제 너희는 찾던 보물, 곧 유산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너희 영혼 깊숙이 들어갔을 때, 숨겨져 있고 잊혀졌던 재능과 능력을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10. 너희는 나 안에서 너희가 찾던 사랑, 참된 스승, 충실한 친구를 발견했다. 너희 영혼의 모든 고귀한 현들이 깨어났으며, 너희는 인류에게 내 영이 모든 존재 위에 진동하고 있음을, 내 빛이 모든 이가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이 되었음을, 그리고 내가 선택한 도구는 내 뜻을 통해 내 가르침의 대변자가 된 사람임을 전하고 싶은 갈망을 느낀다. 이 기쁜 소식이 너희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져 귀를 기울여 준다면,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 말을 듣지 않더라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인간의 완고함을 이겨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11. 제2의 시대에 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이 죄가 절정에 달했을 때, 내가 다시 와서 그 사람의 영혼에게 말하리라.”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내가 어떤 방식으로 다시 올 것인지, 즉 영적으로 올 것임을 알려 주었으며, 이제 나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여기에 와 있다. 그 제자들은 나에게 물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재림의 징조를 알려 주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비록 그 사도들이 이 땅에 없더라도, 내가 이 시대에 너희에게 내 가르침을 전하도록 택한 이들을 통해 너희 아버지의 음성을 알아차렸음을 보게 된다.

12. 내가 골고다에 이르러 고난의 잔을 비웠을 때, 오늘날 한 사람을 통해 내 말씀을 듣는 이들 중 많은 이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했는데, 바로 여러분이 그분입니다. 여러분은 내

가르침을 무시하고 오늘 내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우리는 스승님을 사랑합니다.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시절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더라도 —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곧바로 따르게 해주십시오.”

13.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 마음을 열고 내 말씀이 결실 있는 씨앗처럼 싹트고 자라 열매를 맺게 허락한 제자들아 — 이 가르침이 너희 안에 모든 은혜를 남기게 하고, 이것이 너희 이웃을 위한 유익이 되게 하라.

14. 인간의 영혼이 진리를 찾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때면 내 씨앗이 온 땅 위에 뿌려질 것이며, 곳곳에 사도들이 나타날 것이다.

15. 오늘부터 준비하라. 투쟁 속에서 인내하라. 너희의 모든 고통은 보상받을 것이다. 너희의 고통을 달래주는 나의 어루만짐과 용서를 느껴라. 그리하여 너희는 나를 향해 순수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정화하라. —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말할 때, 너희는 평화를 느끼고 너희 마음은 고요해질 것이다.

16. 너희의 근심을 뒤로 하고, 고통의 길에서 나를 찾지 마라. 사랑 그 자체이신 나에게로 오라.

17. 나는 너희가 강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인내로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너희의 길에서 은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싶다. 너희의 모든 행실을 주의 깊게 살피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평화를 언제나 받을 자격이 있을 것이다.

18. 빛을 갈망하며 이곳으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의 고통을 잊을 수 있도록 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을 기다리고 있다.

19. 너희는 이곳에 모여 내 가르침의 진리 속에서 나의 빛을 발견하였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너희가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찾게 된 것이 바로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음을, 그리고 그 이유가 진리에 대한 갈망, 사랑에 대한 갈망이었음을 깨달았다.

20. 내가 너희에게 주어야 할 것은 실로 적다, 백성아. 너희가 내게 구한 모든 것은 이미 너희 영혼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너희가 너희 존재의 영원함을 바라보도록 가르쳐, 그곳에서 너희의 유산과 풍요를 발견하게 하기만 하면 되었다.

21. 오직 나의 빛만이 영혼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며, 오직 이 빛만이 참된 지혜로 향하는 끝없는 길, 곧 너희의 구원으로 향하는 길을 밝혀 준다.

22. 이 길에서 더 많이 찾을수록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며,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 큰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보물들은 숨겨져 있었으나, 너희의 영혼과 그 영혼에 속한 삶 속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다.

23. 이 길에서 너희가 잊고 있던 얼마나 많은 부와 기적을 발견하게 될지!

24. 너희는 나의 영감과 부르심에 민감해지기 위해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 너희는 누가 너희를 부르는지 깨닫지 못한 채 영적인 진동을 얼마나 자주 감지했는가! 그 “언어”는 너희에게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이해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영적인 현상을 환각이나 물질적인 원인으로 돌리게 된다.

25. 너희의 마음은 굳어 있고, 너희의 이성은 어리석어 영혼이 진정한 고향의 영향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옛날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았다. 영성화는 신성한 율법을 성취하고 지상의 법을 따르려고 노력했던, 마음이 순수하고 영혼이 고양된 사람들이 실천했던 것이다.

26. 나는 그 시절처럼 다시 느껴지고 사랑받기를 원하나, 더 영적인 방식으로 말이다.

27. 이는 선지자들을 통해, 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나의 사도 중 한 사람을 통해 예고된 바이다. 만일 너희가 진정으로 그 모든 계시를 하나로 통합할 수만 있다면, 너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시대와 너희가 목격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 그 계시들이 얼마나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지에 놀라게 될 것이다.

28. 인간의 이해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의 계시는 짧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길어지면, 너희는 제자리에 머물게 될 것이며, 단지 나의 말씀을 즐기는 데만 익숙해질 것이고, 결국에는 나의 임재에 무감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형태의 나의 계시는 곧 끝날 것이며, 그때 여러분은 들은 바를 깊이 연구하고, 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 기도를 온전하게 하며, 나의 기적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더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29. 나는 너희가 두 가지 실수를 피하기를 바란다. 하나는 예배 행위의 관성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너무 서둘러 나아가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시한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 그러면 너희는 점차적으로 성장하며, 영혼의 얼룩을 씻어내고 빛을 갠게 될 것이다. 모든 영혼이 완전함의 경지에 도달했을 때 고향으로 정해진 영원한 생명에 점점 더 가까워질 것이다.

30. 오, 나의 작은 자녀들아, 너희가 나를 들을 때, 어떤 이들은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고, 다른 이들은 울고 있다. 나는 사랑과 회개, 두려움의 눈물을 보노라 — 나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노라. 모든 ‘언어’를 해석할 줄 아시는 너희 스승께서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너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지 깨달아라.

31. 너희가 나를 들을 때,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지 않는다. “얼마나 큰 평화인가, 얼마나 큰 평온인가, 얼마나 끝없는 기쁨인가!” 너희 영혼이 내게 말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노니, 이 평화와 기쁨, 느끼고 사랑하고 알고 행하는 이 행복은 너희가 영적인 삶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단 한 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말이다.

32. 나는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를 기다릴 것이며, 너희가 내게 도달할 때까지 내 빛이 너희의 길을 함께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길을 비추기 위해 내려쬐는 빛이기 때문이다.

33. 나는 내 말씀을 통해 너희에게 예언을 하였으니, 너희는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으며, 이는 너희의 증언을 듣는 이들이 너희의 믿음에 동참하게 하려 함이다. 지금까지 믿음 없이 살아오다가 갑자기 눈을 뜨고, 자신 위에 영생을 발견하며, 내면에서 신성 과 닮은 모습을 발견하는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 것인가! 그 순간, 그 존재들의 삶은 변화될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구하는 자는 자신이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며, 감사하는 자는 자신이 마땅히 받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34. 너희가 자연의 기적을 바라보며, 너희가 신성한 사랑과 자비의 대상이었음을 깨닫게 될 때 — 너희 마음에서 감사가 솟아나지 않느냐? 이 순간, 너희가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감사의 더 큰 증거가 너희의 경외심과 겸손, 그리고 나의 위대함에 대한 고백보다 무엇이 있겠느냐? 그때 너희 마음을 나를 향해 불타오르게 한 것은 고통도, 궁핍도, 이기심도 아니었을 것이다.

35. 감사의 기도를 속삭일 때마다, 그 감정을 뒷받침하는 행실로 함께 하라.

36. 나는 너희에게서 모든 오류를 제거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이 형태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기간은 이미 매우 짧으며, 1950년이 끝날 때쯤이면 너희는 나의 영적 세계가 주는 현명한 조언의 도움을 받아 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연구함으로써, 나의 사역에 대해 더 큰 이해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성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대변자들은 자신의 책임에 대해 더 깊은 인식을 가지고 준비할 것입니다.

37. 내가 내 말씀을 철회할 때까지, 너희 가운데 예배 행위와 관습에 대한 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진리의 깃발 아래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길을 떠나 나를 따를 것이며, 이기심과 사리사욕으로 인해 순수한 것을 왜곡하려는 자는 자신의 불순종과 경각심 부족으로 인한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38. 그 아이를 벌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 아이가 스스로 그 심판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모든 잡초는 뿌리째 뽑힐 것이다.

39. 나는 이 영적 백성을 해방시켰고, 그들의 “발”을 밝게 비추었으며, 그들을 가로막는 장벽과 장애물을 제거해 주었다. 그러나 이토록 많은 은혜에 대해 그들도 큰 책임을 지고 있다. “깨어 있으라. 그래야 너희 양심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을 것이니, 그 목소리는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 주고, 언제나 경계하도록 독려할 것이다.”

40. 너희가 영적 성장을 방해하던 광신주의에 묶여 있던 사슬을 끊기 위해 노력했던, 준비의 해였던 올해, 너희는 수많은 편견을 떨쳐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졌었다. 그 시점부터 너희는 더 자유로워지고 진리에 더 가까워진 것을 느꼈다. 이제 너희는 투쟁을 위해 더 강해졌음을 느낄 것이다.

41.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가! 인간이 만들어 낸 얼마나 많은 작은 세계들이 파괴될 것인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허위의 위대함과 이기적인 행위는 헛된 것이 될 것이다.

42. 너희 가운데 내 가르침을 이해한 이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내가 떠날 순간이 오면, 나는 제자들에게 싸움에 맞설 수 있는 지식과 필요한 힘을 남겨줄 것이다. 스승은 너희에게 관대하기 때문이다. 비록 미미하지만 귀중한 너희의 노력을 내가 보고 있으며,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영혼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오늘 눈물로 뿌린 것이 내일 달콤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를 아는 자가 감히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겠는가?

43. 머지않아 너희는 내 가르침이 여러 언어로 출판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때 내 말씀과 가르침이 너희를 먼 나라의 사람들과 연결해 줄 것이며, 비록 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더라도 서로를 알아볼 것이다. 비록 너희 사이에 나라와 바다가 가로놓여 있더라도, 너희는 연합될 것이며 내 사역을 통해 하나가 될 것이다.

44. 1950년이 저물어 갈 때, 너희 중 많은 이에게 불확실성과 의심이 생길 것이다. 왜 어떤 이들은 내 계시를 의심할까요? 그 계시는 내 계시를 믿는 이들보다 더 뛰어난 지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지식도, 이성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모든 새로운 것, 자신에게 낯선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약하고, 교육받지 못하여 지성을 통해 인정받는 사람들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바로 여러분이 믿는 자들이며, 영적 세계의 신비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일까요? 영이 바로 이성에 영생과 그 기적들을 드러내 주기 때문입니다.

45. 인간의 지성은 이제 너희가 맞서 싸워야 할 힘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지성을 통해 영으로부터 계시받지 않은 영적 개념과 관념들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46. 이 싸움을 위해 너희는 강해져야 한다 — 그 힘 또한 영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힘으로 말이다. 너희의 힘은 결코 너희의 육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며, 돈의 힘이나 세속적인 수단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다. 오직 너희 안에 살아 있는 진리에 대한 믿음만이 이 대립 속에서 너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것이다.

47. 내 말씀이 여러 나라에서 들리게 되면 세상은 소란스러워질 것이니, 이 계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의 영혼은 기쁨과 두려움에 동시에 휩싸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는 물질주의적 사고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시야에 펼쳐지는 빛나는 지평선에서 위안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영적 어둠 속에 머물며 이 빛에 맞서 싸우는 자는 여전히 그렇게 할 자유가 있다.

48. 영성으로의 마음가짐의 변화는 국가들 사이에 우정과 형제애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준비해야 한다. 왜냐하면 갈등이 거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전쟁에서 서로 맞서게 되는 것은 나의 뜻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49. 영적 성장은 공정한 법칙에 따르기 때문에, 인간은 그 여정에서 정화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스스로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다.

50. 오늘날 인류는 올바른 길에서 매우 멀리 벗어난 상태에 놓여 있다. 전쟁, 기근, 전염병, 슬픔, 그리고 파괴는 세상에 만연한 자비, 영성, 정의의 결핍을 말해 주는 목소리들이다.

51.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불어넣고 있음을 깨달아라. 나는 결코 너희를 전쟁으로 부추긴 적이 없다.

52. 이 혼돈 한가운데서 나는 너희를 가르쳤고, 정욕의 회오리바람에서 너희를 끌어내어, 다른 시절에 너희에게 약속했던 것을 계시해 주었으니, 비록 너희가 작고 겸손할지라도, 너희의 영적 준비와 믿음이 너희를 나의 사역을 위한 용감한 전사들과 이타적인 사도들로 변화시킬 것임을 말하기 위함이었다.

53. 세상은 너희 안에서 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것이며, 오늘날 잊혀진 나의 율법을 기억하고 새로운 계시와 가르침을 알게 될 것이다. 인류는 너희의 사랑의 행위에 대한 증언을 접할 때, 나의 모든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54. 큰 시련 앞에서 너희의 믿음이 약해지면, 너희는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없게 될 것이며, 병자를 고치지도, 죄인의 마음을 뒤흔들지도, 슬퍼하는 이를 위로할 수도 없을 것이다. 너희는 잠시 동안 길을 밝히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문을 열어줄 그 힘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낄 것이다. 여러분은 눈먼 이의 손을 잡고 인도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될 것이며,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쓰라린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이 온전히 나를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만, 내가 여러분을 받아들이고, 기도를 들어주며, 여러분의 영혼에 평화를 주며, 내 사랑의 꺼지지 않는 빛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등불을 밝혀 줄 것입니다.

55. 나는 너희를 하나의 백성, 내 율법으로 하나 된 가족으로 만들고자 하였으니, 서로 사랑하고 악의가 없는 그 가족이 너희 이웃에게 본보기가 되고 내 성소의 기초가 되게 하려 함이라.

56. 나는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직 너희의 말과 행실에 진실함이 담겨 있기를 바랄 뿐이다. 너희가 겸손과 이해심으로 나의 가르침을 따르고, 삶 속에서 덕과 소박함을 드러낸다면, 이웃의 영혼을 일깨우기 위해 말을 하거나 애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때는 너희의 실천적인 이웃 사랑이 증언이 되어 충분할 것이다.

57. 이 책임이 오직 너희에게만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너희와 마찬가지로, 혹은 그보다 더 큰 열정과 사랑을 지닌 새로운 무리들, 새로운 “일꾼들”과 새로운 “전사들”이 합류하여, 발전의 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58. 내가 제2시대의 열두 사도들에게 병자를 고치고, 이웃을 사랑하며, 모욕을 용서하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며, 사랑의 말과 행실로 ‘죽은 자’를 새로운 생명으로 깨우도록 가르쳤던

것처럼, 너희도 나의 가르침을 전하는 참된 사도가 되도록 너희에게 가르쳤다.

59. 너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이성을 단련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준비한 만큼 나로부터 받을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할 수 있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내가 여기 있노라.

60. 너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내게 말하라. 내가 너희의 영적인 언어를 듣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에게 너희의 불행을 호소하지만, 나는 또한 너희가 인류가 이 시대에 쓴맛의 잔을 비우듯 겪고 있는 고통을 볼 때, 너희가 고통받는 것을 보노라. 이는 세상이 나를 거부하고 유혹의 덫에 빠졌으며, 무지와 고통 속에서 주위를 마구 휘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겸손함으로 다가와 모든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위한 양식을 주려 한다. 그러나 사람은 나를 잊었고, 나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멀리 내쫓는다. 인간은 자신의 과거를 두고 울고 있습니다. 나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믿기 때문이며,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인류 가운데서 수행해야 할 숭고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61. 나는 너희가 영혼들을 깨우고, 나의 평화를 전하며, 기도하는 법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들의 고통을 느끼며 그들을 위해 간구할 수 있도록 내 능력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했다.

너희는 내가 깨우치고 은총을 베풀어, 사랑과 형제애, 용서로 첫걸음을 내딛게 한 백성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고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어라.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나의 제자로 남겨둘 것이기 때문이다.

62. 백성아: 너희 가운데는 내 말씀의 진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영적 계시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느끼지 못하며, 물질주의 속에서, 찬송과 기도문 속에서, 의식과 예식 속에서 나를 찾는 불신자들이 있다. 그들의 영혼이 아직 진리 안에서 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그들은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

63. 나는 너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다. 나는 너희가 마음속에 나를 위해 마련한 성소에 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물질화된 숭배를 행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내게 기쁨을 드리고 사명을 더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에게 내 가르침을 분명히 전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는 여전히 잠들어 있는가?

나는 너희에게 많은 말을 했으나, 너희는 아주 조금밖에 배우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위대한 계시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에 반발하며 말하였다. “아버지를 경배하는 이런 방식은 우리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경배 형식을 굳건히 고수할 것이다. 왜냐하면 영과 영으로 아버지를 경배하는 방식은 우리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시간이 흘러가도 너희는 계속 잠들어 있을 것이며, 너희 영혼을 고양시키는 찬란한 각성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내일 너희는 나로부터 버림받은 고아처럼 느껴질 것이며, 비록 내가 너희 곁에 아주 가까이 있더라도, 너희는 나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를 느끼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64. 오,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 아버지께서 모든 시대에 걸쳐 너희에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하라. 제2의 시대에 신성한 스승께서는 너희가 참된 조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상향 발전의 길을 보여 주시고 그 길에 그분의 발자취를 남기셨다. 오늘날, 나는 너희의 영혼을 깨우치고, 내 말씀과 은총으로 너희를 준비시켜, 너희가 엘리야처럼 일하러 나아갈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너희는 인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65. 지금이 바로 내가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통합하고 모아, 그들이 다시금 신성한 “말씀”의 가르침을 받도록 한 때이다. 스승으로서 나는 너희 가운데서 나의 가르침을 들려주었다. 나는 나의 말씀을 통해 너희를 준비시키고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그러나 너희와의 이러한 소통 방식은 곧 끝날 것이다.

66. “이스라엘아, 인류의 지도자가 되어라. 그들에게 이 영생의 양식을 주고, 이 영적 사역을 보여 주어, 다양한 종교들이 나의 가르침 안에서 영성화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하라.”

67.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을 주는 것은, 너희가 어려운 사명을 완수해야 할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 사명은 너희 어깨에 무거운 십자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나를 다시 한 번 알아본 백성이며, 온전히 영성화된 상태로 인류 앞에 너희의 깃발을 내걸기 위해 나아가고자 하는 백성이다.

68. 나는 너희가 나와 조화를 이루며 살며, 모든 행동과 생각에서 겸손하고 소박하게 행동하도록 가르쳤다. 나는 너희에게,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기 위해 전쟁을 부추기는 동안,

너희는 세상의 증오와 무지를 물리치기 위해 빛의 무기를 손에 든 나의 신성의 군사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69. 내 백성아, 너희 주변에서 사람들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음을 깨달아라. 너희는 그들에게 내 신성한 영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사랑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다.

70. 보라, 너희가 이처럼 너희의 사명을 다했을 때, 너희는 나의 평화를 느낄 것이며, 이 평화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모든 세속적인 야망을 버리고 나의 사랑을 입으라. 그리하여 나의 자비가 너희를 통해 온 땅에 드러나게 하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가르침 250

1. 약속의 땅에 대해 내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영혼 중, 그곳에서 살고 싶은 갈망을 느끼지 않는 자가 누구이겠느냐? 너희

가운데 내 계시를 전하는 목적은, 너희 영혼이 빛과 영원한 평화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돕기 위함이며, 그곳에서 너희 창조주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모든 시대에 걸쳐, 너희 영혼이 기다리는 그 영원, 그 생명의 문에 도달할 수 있도록 너희를 위한 길이 이미 제시되어 왔다.

2. 나는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의 속죄의 짐을 덜어주었으니, 이는 너희가 더 빨리 나아가 죄를 씻고, 다시 여정을 시작할 힘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지상에서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사명과 투쟁은 크나, 전쟁과 재앙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는 그 무게가 더욱 무겁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은 타인에게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여러분의 영혼이 전쟁의 확산을 막고, 모든 민족 위에 평화의 망토를 펼칠 수 있을 만큼 헌신적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3.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새 예루살렘이 아니다. 그 도시는 영적인 차원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나라는 이 시대에 나의 계시를 전하기 위해 선택되었으며, 나의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보았던 눈부시게 빛나는 도시로 너희를 인도할 문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4. 이방인들이 너희 도시에 들어올 것이니, 너희는 그들을 다른 인종이라는 이유로 멸시하지 말고 영적인 형제로 여겨야 한다.

5. 잠시 동안 너희의 생각을 높이 들어 보라. 그러면 내가 너희 마음에 전쟁의 소음과 사람들의 탄식, 어머니들의 고통,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닿도록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금은 심판의 때로, 너희는 부유한 탐욕꾼들과 강대하면서도 중독된 나라들이 그들의 권력을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주인의 허락 없이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부를 늘린 자도 마찬가지로이다. 그에게도 다른 손들이 그가 부당하게 소유한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날이 왔다.

6. 물질적으로 가난한 너희는 내 심판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착각하고 있다.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맡긴 영적 부의 탐욕스러운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7. 오늘 나는 너희에게 생각을 높여, 여러 나라가 겪고 있는 고통을 느껴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숨 쉬는 공기조차 그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웃의 고통을 공감할 수 없음을 보았다. 인류를 짓누르는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너희도 그 시련을 겪고 그 잔을 비워야만 하는

것일까? 너희의 마음은 여전히 굳어져 있으며, 사랑의 맑고 투명한 물이 그곳에서 흘러나오지 않고 있다.

8. 이웃을 괴롭히는 궁핍을 보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 나서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는 그가 일을 마친 후 내 품에 안아 주리라. 기억하라: 삶이 너희에게 미소를 지어 주었을 때, 너희는 고통받는 이들을 무관심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비참함을 경험하고 화려한 삶을 얻은 후, 문 두드리는 이들을 돕기는커녕 쫓아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네 길을 가라. 내가 고통받고 투쟁했던 것처럼 너희도 고통받고 투쟁하라. 그러면 너희도 내가 그토록 고생하며 얻은 것을 갖게 될 것이다.”

9. 나의 가르침은 이렇다. 비록 너희가 영혼의 빛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 큰 시련과 고통을 통해 얻은 것이더라도, 너희는 그 보석들을 동료 인간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며, 그들이 그것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보려 해서는 안 된다.

10. 나의 말씀은 당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너희에게도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 죽음의 기운이 너희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끊임없이 너희의 평화를 위협하던 전쟁을 견뎌내기 위해 품고 있던 모든 희망을 무너뜨렸었다. 그러나 전쟁 소식이 전해지던 바로 그 순간, 너희는 소박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모인 자리에서 스승의 음성이 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사실인지, 그런 기적이 가능한지 자세히 따져보지도 않은 채, 내가 곧 평화 그 자체임을 알기에 나를 갈망하며 이곳으로 달려왔다.

11. 그 음성을 듣자마자, 너희 영혼의 모든 현이 울려 퍼졌고, 너희는 “주님,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라고 외쳤다. 그러나 너희의 믿음은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다. 비록 너희가 내 곁에 있지만, 나와 함께 배를 타고 항해하던 그 제자들처럼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다의 파도가 거세지는 것을 보고 소리쳐 외쳤다. “주님,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12. 오 백성아, 내가 내 자비의 보호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하느냐? 왜 내 능력을 의심하느냐? 나를 듣기 위한 네 노력이 헛되고 결실 없이 끝나지 않도록 하라. 먼 곳에서 내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오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명심하라. 어떤 이들은 가족의 회의론을 극복해야 한다. 또 다른 이들은 세속적인 일과 의무를 내려놓아야만 하는데, 이러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3. 명심하라: 너희가 의심과 불신 대신 내 말씀에 온전한 믿음을 둘 수 있다면, 그 말씀이 너희 사랑의 불꽃으로 너희 영혼에 새겨질 때, 매 순간 너희를 비추고 너희가 겪는 모든 시련 속에서 너희에게 용기를 줄 것이다.

14. 너희 영혼은 이미 그 고통의 잔을 맛보았기에, 속박의 사슬로부터 오는 많은 것을 두려워한다.

15. 너희는 무엇보다 평화를 사랑하며, 오 백성아, 바로 그 너희 영혼의 갈망이 나를 너희에게로 이끌었다. 너희는 평화가 온전히 내 안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다양한 인간 제도 속에서, 권력자들 사이에서, 혹은 현대 과학의 가장 진보된 이론들 속에서 평화를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헛된 일일 것입니다. 인류는 이미 그 보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버려버린 이 선물을 되찾고자 한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반드시 나에게서 찾아야만 합니다.

16. 내가 너희에게 준 가르침은 분명하며, 나의 모든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내가 너희를 준비시켜, 인류가 평화를 찾기 위해 나를 찾는 최선의 방법을 보여주는 이 기쁜 소식의 전령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17. 여기에서, ‘두 번째 시대’에 예수께서 아버지께, 지혜를 학자들과 교양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주시고 드러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렸을 때,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렇다, 나의 백성아, 너희가 학자라고 부르는 자들은 자만하며, 그들이 나로부터 받은 빵 부스러기라고 여기는 것만을 가르침으로써 평범한 백성을 억누르려 한다. 반면 가난한 이들, 즉 “소시민”들은 삶이 안겨주는 고난과 그에 따른 결핍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무언가를 자신의 것으로 가질 수 있게 되면, 그것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 나누어 줍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이겠다. 탐욕스러운 자가 관대한 사람이 되고, 교만한 자가 겸손한 사람이 된다면, 그들은 내가 덕을 실천하며 사는 자를 위해 마련해 둔 모든 것을 즉시 누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사랑은 편파적이지 않고, 모든 것을 포용하며, 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18.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 누구든지 내 가르침 안에서 지혜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이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왕으로 세우고 지혜롭게 만든 솔로몬처럼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는 그 시대의 세상에서 그의 조언과 판단의 지혜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여, 그 이름이 유명하고 높이

존경받았다. 그러나 그가 내 계명을 어겼을 때, 그의 모든 권세와 통찰력, 그리고 영광은 내 공의의 권세 아래서 무너져 버렸다.

19. 백성아, 이스라엘이 겪어야 하고 극복해야 했던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 끝에 약속의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너희도 평화를 위해 싸우고 노력하라. 내가 너희 영혼에게 이스라엘에 대해 말할 때, 너희가 나를 잘 이해한다는 것을 나는 안다. 너희는 그 씨앗을 너희 존재 속에 품고 있으며, 그 역사는 너희 영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20. 그곳에 그의 경험과 성장, 깨달음이 있으며, 그곳에서 그의 영혼 속에 있는 책이 펼쳐져 그에게 법을 보여주고, 그가 오류에 빠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나는 이 시대에 너희의 영혼이 환생하도록 이끌었으니, 다른 인종과 민족들에게서 그랬던 것처럼 너희를 물질주의자로 만들었을 옛 세상의 소유물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너희의 유일한 열정이 인류에게 영적인 돌파구를 마련해 주고, 그들이 발걸음을 어디로 향해야 할지 보여주며, 정의와 사랑의 내 왕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되게 하려 함이다.

21. 오늘 너희는 자비를 갈망하며 왔는데, 누가 자비를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병든 자들은 건강해졌고, 지친 여행자들은 평안을 찾았으며, 영성을 갈망하던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그들의 굶주림과 갈증을 해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나를 따르는 이들 중에는 깨어나지 못한 자들이 있으며, 의심하며 믿기 위해 증거를 요구하는 자들도 있다. 나는 내 뜻에 따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주는 것은 세상의 재물이 아니다. 나는 내 자녀들을 위해 영혼의 선물을 마련해 두었으며, 이웃을 향한 자비와 사랑의 행실로 이를 구하는 자에게는 그 선물을 아낌없이 베풀 것이다.

22. 나는 내 본성의 일부인 영적 영혼을 찾아 가르치고 인도하며, 그들을 높여 내게로 오게 하고자 하나, 모든 이가 나를 알아보는 것도, 나를 받아들이길 줄 아는 것도 아니다. 세상과 그 무수한 시련들이 너희 마음을 쓰라리게 만들었고, 너희는 더 이상 영적인 삶을 생각할 힘이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상이 너희에게 적대적으로 돌아선 오늘, 너희는 더욱 간절한 열정으로 나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피난처를 찾아야 한다.

23. 나의 가르침은 맑고 투명한 물방울이 끊임없이 떨어지듯 천천히 너희에게 스며든다. 그것은 내가 각 영혼에게 권고한 사역에 대한 믿음, 희망, 신뢰라는 “의 기초를 차츰 차츰 다져 나간다.

24. 자연의 힘들이 인간을 향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악을 물리치고 이웃을 보호할 권한을 주었음을 너희는 알고 있으니 말이다. 너희는 그 파괴의 세력들에게 멈추라고 명령할 수 있으며, 그들은 순종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며 깨어 있다면, 기적을 행하고 세상을 경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25. 진심으로 기도하고, 내 영과 교제하라. 이를 위해 특별한 장소를 찾지 말라. 나무 아래에서, 길을 가면서, 산 정상에서, 혹은 잠자리의 구석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내려와 너희와 대화하고, 너희를 깨우치며, 힘을 주리라.

26.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그 빛이 너희를 소생하게 하라. 그리고 나중에 너희가 깨끗해지고 준비가 되면, 세상으로 나가 너희가 받은 것을 증거하라.

많은 이들이 기쁨으로 첫 열매를 나에게 바치지만, 어떤 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씨앗을 숨기기도 한다. 이들은 온 힘을 다했으나, 여전히 갈망하던 열매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열정과 사랑을 보고 그들에게 말한다. “희망을 품고 인내하라. 그러면 너희는 수확하게 될 것이다.”

27. 악한 씨앗이 자라나 땅에서 싹트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파종하기에 좋은 이 시기에 오늘 일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가꾸는 일을 도울 것이다.

28. 나는 너희 나라를 제2의 예루살렘의 형상으로 정하였다. 머지않아 여러 인종의 형제자매들이 그곳으로 모여들 것이며, 그들이 그 나라가 꽃피는 것을 보게 되면 권력에 대한 탐욕이 깨어나 너희를 약탈하려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며 말하노니, 나는 너희 나라가 지친 나그네들에게는 평화를, 굶주린 자들에게는 양식을, 영혼들에게는 빛을 베풀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 나는 이방인들이 주인이 되고 너희가 노예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너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사랑과 정의, 의로움을 불어넣는다.

29. 시간을 잘 활용하여 나의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라. 이미 1950년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 해가 되면 나는 이 수단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그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바로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완전함으로 이끌어 가도록 허락하라.

30. 마리아께서 너희를 위해 간구하시니, 비록 너희가 그녀를 보지 못하더라도, 그녀의 사랑과 위로가 은총의 이슬처럼 너희 존재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러면 슬퍼하던 자들은 희망으로 가득 차고, 죄인들은 정화되며, 너희 모두는 그녀로부터

축복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신성한 어머니 안에서 너희 고통에 대한 위로를 찾으라. 사랑으로 그분께 다가간다면, 그분이 자녀들에게 도움과 보호를 거절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백성들아, 그분의 신성한 영 안에서 여러분은 오직 사랑과 진심, 그리고 자비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31. 세상의 여성들이여, 마리아를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그녀가 덕망 있는 여인이자 희생적인 어머니로서 여러분 곁에서 살아가셨던 시절을 떠올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운 용기로 가득 차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32. 그리고 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시련의 길을 걷고 신성한 공의를 느끼고 있는 너희 남자들아, 용기를 내어 너희의 은사를 활용하고 사랑과 지혜로 너희 삶을 다스려라.

33. 너희를 격려하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빵을 먹으라. 그러면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수정처럼 맑은 물을 마시라. 그러면 너희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34. 이 시대에 내가 이 모습으로 너희에게 나타난 것은, 너희 영혼이 영과 영의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이다. 내가 너희에게 자세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말씀의 신성한 의미를 깨닫고 다른 가르침들에 의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35. 나는 너희가 내 면전에 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나를 경청할 자격이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너희를 갱신의 길로 인도하였다.

36. 나는 너희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본다. 너희가 앞으로 저지를 일들까지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실수를 저지르기도 전에 내가 때때로 너희를 바로잡는다고 해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

37.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곳을 속죄의 장소로 정하셨을 때, 이미 그분의 자녀들이 그 여정에서 약점과 과오에 빠질 것임을, 그리고 갱신과 완전함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안식처가 필요할 것임을 아셨습니다.

38. 최초의 인간들이 지구에 거주하기 시작했을 때, 창조주께서는 그들에게 사랑을 담아 영혼을 주시고, 그들의 영에 당신의 빛을 밝혀 주셨으며, 동시에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셨습니다.

39. 그러나 어떤 이들은 순결을 지키고, 주님께 합당하며 양심에 따라 살기 위해 모든 유혹과 싸우며 선함 속에 굳건히 서려고

애쓰는 동안, 다른 이들은 죄에서 죄로, 잘못에서 잘못으로 하나하나 연결된 죄의 사슬을 만들어 냈으니, 오직 감각의 목소리에 이끌리고 정욕에 지배당하여, 그로 인해 동료 인간들 사이에 오류와 유혹을 퍼뜨렸다. 그러나 이 혼란에 빠진 영혼들 곁에는, 인류를 깨우고 위험으로부터 경고하며 나의 오심을 알리기 위해, 나의 신성을 전하는 천사 사자로서 나의 예언자들도 찾아왔다.

40. 인류의 길을 가로막는 어둠의 영혼들은 그들을 우상 숭배와 이교, 광신으로 유인함으로써 혼란에 빠뜨린다.

41. 나의 예언자들, 나의 사자들, 나의 종들은 타락과 거짓과 싸웠으며, 고통을 겪고 동료 인간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고, 그들의 손가락으로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길을 가리켰다.

42. 선지자들의 말씀을 찾아보라.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이 이미 그 당시부터 너희를 준비시켰으며, 성취될 사건들에 대해 말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요엘이 이 영적 계시의 시대에 대해 너희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보라. 모든 선지자들이 영과 영의 대화를 가르치기 위해 우상 숭배와 싸웠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43.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인류는 이미 많은 죄를 지었고, 대홍수는 이미 지표면을 정화해 버린 후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에 휩싸여 소멸되었고, 바빌론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과 선지자들의 피에 대해 책임을 물으셨으나, 그분 또한 정죄를 받고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 바로 자신의 자녀들에 의해 말입니다!

44. “말씀”은 사람이 되어 동정녀의 태에서 육신을 입으셨다. 그분은 겸손과 용서, 사랑, 영적 고양에 대해 말씀하셨으나 박해받고 정죄당하셨다. 비록 그분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고통받으시고 죽으셨으며, 사람으로서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셨다.

45. 그 계시들의 신비를 꿰뚫어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진리를 발견하였고, 오늘날 그들은 그 진리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46. 그러나 이 시대에 혼란이 다시 나타나고 있으며, 거짓된 위대함에 대한 자만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가르침을 인간의 마음에서 몰아내려 하고 있다 — 이것이 바로 어둠이다 — 반면, 아버지는 요엘의 예언을 성취하시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시고, 모든 육체와 모든 영혼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시고 계신다. 그분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며,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분의 존재를 느끼게 하시며, 눈에 보이게 하신다.

47. 자연은 그 품을 열고, 사람들을 경탄하게 만든 비밀들을 드러내며 세상과 과학계를 놀라게 하는데, 이는 모든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지혜와 권능을 증언하는 목소리들이다. 무덤은 죽은 육신을 간직하지만, 영혼들은 빠져나와 그 존재를 알리며 영혼의 불멸을 증언한다.

48. 사람들의 눈—아이든, 청소년이든, 성인이든—은 물질 세계를 꿰뚫고 저 너머로 깊이 들어가 영적인 삶을 바라본다.

49. 신성한 가르침을 전하는 이 서툰고 소박한 대변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 그러면 이 계시가 이미 수 세기 전에 예고되었던,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계시 중 하나임을 알게 될 것이다.

50. 누가 한 번쯤은 실제 예언이 되어 나중에 그 성취를 목격했던 꿈을 꾸지 않았겠는가? 지금은 빛의 시대이며, 물질적 발견에 매료되어 과학으로 인해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는 때이다.

51. 사람들은 과학 때문에 이 시대를 ‘빛의 시대’라고도 불렀다. 보라, 그들이 새처럼 하늘 높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그들이 바다와 땅을 지배하는 모습과, 밤을 밝히기 위해 빛을 발견한 모습을 보라. 그들은 매일 새로운 힘과 원소를 발견하여 이를 결합함으로써 인류에게 새로운 놀라움을 선사하지만, 이 빛은 오히려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 물질주의와 허영심은 그들이 마음과 양심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었다.

52. 오늘 성령의 빛이 세상에 쏟아져 내려, 사람들이 얼굴을 들어 올리고 오직 한 분의 하나님만이 계시며 그분의 법도 하나뿐임을 깨닫게 하려 한다. 인류의 업적이 위대하고 창조주께 합당하게 되려면, 그들은 모두 그 법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53. 착각하지 마라. “여섯 번째 봉인”이 끝나기 전에 큰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별들은 의미심장한 징조를 보일 것이며, 지상의 민족들은 신음할 것이며, 이 행성의 삼 분의 이가 사라지고 오직 한 부분만이 남을 것이니, 그곳에서 성령의 씨앗이 새로운 생명으로 싹트게 될 것이다. 그때 인류는 하나의 가르침, 하나의 언어, 그리고 평화와 형제애라는 하나의 유대로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54. 너희가 자연법 아래서 살며, 너희 영혼 속에서 첫 번째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시절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55. 이제 영성화는 여러분을 단순함과 자연스러움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긴 발전의 여정에서 거두어 온 빛이 있습니다.

56. 인간의 첫걸음을 비추고, 길과 오솔길, 산정과 심연에서 그를 동반했던 영의 빛은 그를 그 여정의 시작점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영은 결코 길을 잃지 않으니, 그것은 바로 나의 빛이기 때문이다. 혹시 그분이 여러분에게 “동료 인간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까? 여러분을 낳아 주신 아버지를, 혹은 여러분을 품에 안아 주신 어머니를 배척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금기된 것을 이용하라고 조언하신 적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나의 자녀들아, 영은 훌륭한 인도자이자 조언자, 심판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영 안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57.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항상 말해 왔다. 내가 전능한데도, 왜 너희는 너희 손으로 만든 사물 속에서 나를 찾으려 하는가? 내가 우주적 존재임을 알면서도, 굳이 특정 모임 장소에 가서 “여기가 주님의 집이니 주님께서 여기 계신다”라고 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자연의 영광과 너희 영혼의 내적 성소에 거하며 나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면서도, 왜 너희는 의식과 장식물에 현혹되는가?

58. 훌륭한 제자답게 나의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라. 그러면 너희 영혼에 더 많은 빛이 비칠 것이다.

59. 나의 말씀이 날마다 너희에게 내려오는 동안, 어떤 이에게는 믿음이 타오르고, 다른 이에게는 의심이 솟아오른다. 어떤 이들은 더 나아지겠다는 결심을 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 말씀 속에 제한되어 계신 분이 과연 나인지 의심하며 믿고 새롭게 되기를 주저한다. 이들은 나를 보고, 나를 믿으며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없기에, 믿음을 불태우기 위해 영적이며 초자연적인 현상을 찾는다.

60. 또 다른 이들은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 내 얼굴을 보려고 애쓰다가, 그 노력으로 지쳐 버렸다. 그러나 지친 그들의 이성이 잠에 빠지고, 고양된 영혼이 영적인 공간에 머무르는 동안, 나는 그들과 대화하고, 내 가르침을 전하며, 그들의 믿음을 불태우기 위해 내려왔다.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영혼과 육체 모두 새로워진 기분을 느끼며, 새로운 빛으로 비추어진 삶을 보게 된다. 그러면 너희는 꿈의 내용을 희미하게 떠올리며 이렇게 말한다. “나는 예수님을 꿈꿨다. 스승님께서 정말 내 곁에 계셨던 것일까?”

61.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영혼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많은 눈을 가지고 있다. 이 은사를 깨닫고 그것을 쫓피우라. 이는 이를 통해 사람들이 예언적인 환상과 꿈을 꾸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한 그 예언자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다.

62.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르침을 잘 연구하여 이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찾거나 그들을 믿지 않도록 하라.

63. 나는 모든 시대에 너희 영혼이 나와 직접 연결되도록 준비해 왔으며, 이 제3의 시대에는 이미 큰 고양에 도달했어야 했다. 만일 내가 영으로 왔을 때 그랬더라면, 너희는 의심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너희 손으로 나를 만지려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64. 내가 너희에게 옛날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너희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65. 나는 1866년부터 세 번째 가르침을 선포해 왔으나, 모든 것이 예언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 많은 이들이 의심했다. 어떤 이들은 무지 때문이었고, 다른 이들은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인한 혼란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너희가 영생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식당과 식탁을 준비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타났고, 나는 너희가 깨달음을 얻고 깨어날 것을 기대하며 끝없는 인내로 내 존재를 드러내야만 했다.

66. 스스로를 새롭게 하고, 종교적 광신을 버리며, 위선자와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을 그만두면, 너희는 새로운 사람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러면 더 이상 내게서 내려오는 이가 과연 나인지 의문을 품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너희 마음의 순수함이 너희 영혼으로 하여금 나의 현존을 느끼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가장 위대한 미덕 중 하나이니, 그것을 얻으라.

67. 너희는 끊임없이 눈먼 자, 절름발이, 희망이 없는 병자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믿음을 통해 그들을 치유하고, 이웃들의 마음에 빛을 밝혀야 한다.

68. 너희 가운데에는 이미 나를 믿음으로써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본보기가 있다. 믿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적에 대한 많은 증언들이 있다.

69. 1950년이 찾아왔을 때, 너희의 믿음이 약해진 상태로 맞이하지 않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고아처럼 느껴질 것이기에 큰 슬픔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70. 오늘 나는 “방랑자들” 앞에 나타나 그들에게 참된 길을 보여 주려 한다. 나는 그들의 옷차림이 위엄 있는지 초라한지 판단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성소를 찾는다.

71. 피로에 짓눌려 땅에 쓰러진 자를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가 하나님을 모독했다면 곧 나의 힘과 빛을 거부한 것임을 깨닫게 해 주리라.

72. 시련 속에서 너희 마음이 동요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폭력을 휘두르는 순간, 너희는 ‘눈이 멀어’ 영혼 속에 간직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73. 이제 너희는 인류가 영적으로 위대하고 고귀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을 왜 점점 더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74. 나는 너희가 심연으로 추락할 위기에 처해 있고, 심지어 너희의 생명이 단축되기를 간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기에 너희를 향해 나아갔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으니, 이는 너희가 나의 신성이 정한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75. 너희에게 영적 은사가 다시 주어졌음을 증명해 주기 위해,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자연의 힘이 거세게 몰아칠 때, 내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보라. 그러면 그 힘이 너희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76. 이러한 기적들은 너희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할 것이며, 너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너희는 나의 “일꾼”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스승으로부터 더 심오한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큰 준비를 갖추게 되어, 너희를 시험하러 올 자들과 너희를 멸망시키려는 자들을 맞이할 줄 알게 될 것이다.

77. 너희가 진정으로 내 말씀을 증거하는 법을 알게 된다면, 많은 동료 인간들이 나를 찬양하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가르침 251

1. 이 시대에 너희는 너희의 은사를 통해 행할 수 있는 기적들을 볼 때 놀라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더 이상 가난하거나 버림받은 자라고 느끼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시선을 두고 있다는 증거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그 은사들은 너희가 창조된 바로 그 순간에 이미 너희 영혼 속에 심겨져 있었다. 그러나 그 은사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와서 너희를 가르쳐야 했고, 너희가 긴 여정을 걸으며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야만 했다.

3. 특히 오늘날, 인간의 영혼은 자신이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으며, 새로운 날의 빛이 비추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영혼은 자신의 은사와 능력이 잠들어 있던 깊은 무기력함에서 깨어나게 한 격변과 동요를 경험했습니다.

4. 현재 인간은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으며, 단지 짐작만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가 확신에 차서 “저기가 바로 길이다”라고 외치며, 믿음으로 그 길을 따르게 될 때가 올 것이다.

5. 이 인류의 영혼들이 일단 길을 나서게 된다면, 누가 그들의 전진을 막을 수 있겠으며, 누가 내 빛이 제시한 경로를 바꿀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제3의 시대가 가져다준 유산과 메시지를 갈망하며 일어설 때,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인류의 영적 각성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6. 나는 이미 오래전에 너희를 깨울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빠져든 깊은 잠에 지쳐 있을 때, 그리고 너희의 죄와 끊임없는 전쟁에 대한 공포가 너희를 물질적 본성의 정욕에서 해방시켜 줄 때, 바로 그 적절한 시기에 너희에게 오고자 했다.

7. 오늘은 한 민족이, 내일은 또 다른 민족이, 그 다음에는 더 많은 민족들이 내면의 빛에 비추어 깨어날 것이며, 그 빛은 그들 모두에게 영성화에 대해 말해 줄 것이다.

8. 그 민족들이 깨어날 때, 나는 그들에게 나를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아버지의 목소리일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모든 이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나를 드러내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인간의 이성을 통해 너희에게 전한 이 계시는 오직 너희에게만 허락된 것이며, 너희는 이 시대의 여명기에 가장 먼저 깨어난 민족으로 여길 수 있다.

9. 내가 이 형태로 너희에게 나를 드러내는 시기는 이미 예고되었으며, 이 기간이 끝나는 해와 날을 모르는 영성가는 아무도 없다.

10. 내가 너희 가운데서 내 가르침을 마무리할 때, 너희는 이 씨앗을 세계 각국의 민족들에게 뿌릴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너희는 깨어남의 중대한 순간을 맞이한 동료 인간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예감에 대한 확신과 내 메시지의 실재를 마주하며, 영적인 형태로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내가 각 모임과 대변자의 준비 상태에 따라 너희에게 나를 드러냈던 것처럼, 나는 각 공동체의 영성화 수준과 모임에 스며든 경건함에 따라 그들에게도 나를 드러낼 것이다.

11. 내 말씀을 기록하고 간직하여, 때가 되면 이를 널리 알리도록 하라. 이는 세상에서 영적인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공동체들의 기초이자 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12. 나를 위해 도구로 봉사해 온 자들의 물질화된 관념과 오류들이 나의 메시지와 뒤섞이게 두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맡긴 열매를 변질되지 않은 채로 전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모든 인간적인 편애에서

벗어나 나의 신성한 본질을 알 수 있도록 오랫동안 너희를 가르쳐 왔다.

13. 내 영의 빛은 나를 이해하고, 내일 출발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성실하게 내 계명을 해석하려는 이들의 발걸음을 따를 것이다. 그들은 그 여정에서 자신들의 투쟁과 희생,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일하는 중에 그들을 깜짝 찾아가, 곧 다른 공동체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씨앗이 익었으므로 곧 파종하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 줄 것이다.

14. 내 제자들은 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할 때, 영혼 깊은 곳에서 감정이 솟구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15. 너희는 너희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를 찾고 부르는 이들이 바로 너희의 이웃들임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준비하기만 하면 나에게 충분하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길을 안내하고,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 주며, 사랑과 영성, 자비의 증거를 갈망하여 내 백성에게 다가올 사람들을 너희에게 인도해 주리라.

16. 너희가 조화를 통해 내가 너희에게 기대하는 공동체를 이룬다면, 너희는 스스로를 알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때는 다른 이들이 그 임무를 수행하며, 모든 사람에게 영적 생명의 양식이 되는 신성한 메시지의 빛이 비추는 공동체가 있다는 소식을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파할 것이기 때문이다.

17.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백성아, 나를 신뢰하라. 너희가 사회에서 쫓겨나고, 너희가 사는 도시에서 쫓겨나게 될 때, 나는 너희를 박해자들로부터 멀리 데려가 사막과 산악 지대, 먼 계곡이나 바다 기슭으로 인도할 것이며,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 먹이셨던 것처럼, 너희를 먹여 주리라.

18. 이제 나는 내 백성을 위해 새로운 만나를 준비하고 있으니, 시련이 나의 택한 자들을 압도하는 즉시 곧 내려올 것이다.

19. 시련은 내 말씀이 언제나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닥칠 것이다. 이 시련들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 생활 아래 단결했던 것처럼, 내 백성을 하나로 모으는 데 기여할 것이다.

20. 시련이 닥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자들만이 이 길에 남을 것이다. 거짓된 자들, 위선자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 사랑으로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떠나갈 것이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로 연합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할 것이며, 그때 세상에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들이 내 백성이요, 이들이 내 자손이다.”

21. 내가 너희에게 장담하노니, 영혼의 온전한 믿음으로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물도 빵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니, 이는 믿음 안에서 배신당한 사람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22. 이미 어떤 이들이 마음속으로 나에게 묻는 소리가 들린다. “스승님,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시련을 예고할 때, 너희가 두려움을 느끼고 떨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두려워하는 자는 광야로 가지 않고, 도시 안에 머무르며, 노예 생활과 굴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억압을 더 쉽게 견뎌낸다. 그러나 그가 진리를 향해 눈을 뜨면, 그의 마음은 용기와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니, 광야로 나아가라. 영혼의 자유와 마음의 평화를 갈망하며 길을 떠나라.

23. 너희는 나에게 이 시련이 언제 올지 묻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어떤 이들에게는 이미 왔으며, 나중에는 다른 이들에게도 닥칠 것이니, 너희 모두가 준비되고 강해질 때까지 그러할 것이다.

24. 시련은 너무나 미묘한 방식으로 닥치기 때문에, 너희는 종종 그것이 언제 시작되었고 언제 끝났는지조차 깨닫지 못한다. 만일 내가 너희가 그것을 예상할 수 있도록 날짜와 날, 그리고 시간을 미리 알려준다면,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25.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광야에서 이미 살고 있으며, 새로운 만나로 양식을 삼고 있는 너희가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사회의 품에서 쫓겨나, 가족과 친구들에게 오해를 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인사조차 거절당하고 일자리를 얻을 문이 닫혀버린 이들입니다. 또한 이단자, 배신자, 이탈자로 낙인찍혀 교회의 품에서 쫓겨난 이들입니다.

26. 그들은 비방과 악의적인 시선, 모욕, 조롱, 경멸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으며, 나를 들을 수 있는 은총을 얻었다는 것을 알기에 이 모든 것을 인내로 견뎌냈습니다.

27. 그들은 “광야”로 물러나야만 했으나, 그것은 물질적인 광야가 아니라 영적인 피난처였으며, 비록 육체적으로는 여전히 예전과 같은 곳에서 살았더라도 말이다.

28. 그곳, 바로 그 영적 피난처에서 그들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평화를 찾았고, 그 누구도 그들에게 주지 못했던 만족을 누렸으며, 처음에는 나의 현존을 감지하지 못해 외로움을

느꼈지만, 오늘날에는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고, 그 누구에게도 패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감사하고 있다.

29. 그들이 이전에 살았던 쾌락의 삶은 뒤로 남았고, 모든 거짓과 모든 피상적인 것들은 사라졌다. 그들에게는 진리를 발견하고, 온 존재의 힘을 다해 그 진리에 매달릴 때가 왔기 때문이다.

30. 선한 뜻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원수들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권능은 그들을 은밀히 살해하려는 손을 막아 주며, 나의 빛은 그들의 행로를 노리고 있는 자를 기습하여,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며 아무런 방해 없이 전진할 수 있게 한다. 그곳에는 너희 모두가 그곳에 들어갈 그 순간을 위해 잔치가 준비되어 있다.

31. 나의 말씀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으며, 그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주님처럼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이래로, 우리는 이집트에서 해방되던 밤에 주님의 백성이 먹었던 쓴 풀과도 같은 주변 사람들의 비난을 견뎌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32. 오, 사랑하는 백성아, 너희의 믿음을 생각하라. 그러면 너희를 거부했던 자들조차도 너희의 대열을 넓히기 위해 다가올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도 부름이 전해질 것이며, 그들에게도 물질주의적이고 거짓된 삶에서 벗어나, 이 사역이 풍성하게 베푸는 신성한 본질로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기회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33. 그 부름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울려 퍼질 수 있으나, 모든 사람이 동시에 그 부름에 응답할 수는 없다. 어떤 이들은 서둘러 달려올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나, 다른 이들은 자신의 영혼이 사명을 수행하기에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34.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부름받은 자’와 ‘선택받은 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너희가 모든 시대에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받은 자는 적다는 것을 알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나는 준비된 자들만을 선택하기 때문이며, 부름받았으나 선택받은 자에 속하지 못한 모든 이들은 다시 부름받기 위해 한동안 기다려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35. 내가 이미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 마음의 문을 한 번, 두 번, 세 번 두드렸으나, 너희가 깨어 있고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내 부르심에 달려왔다는

것을. 그러니 내 메시지를 접하고도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절망하지 말라.

36. 내 말씀을 널리 알리는 너희의 사명을 다하고, 너희 일의 즉각적이든 나중이든 그 결과에 만족하라.

37. 너희는 내 말씀 속에서, 너희 삶에 존재하는 악과 결별하기 위해 부족하다고 느꼈던 힘을 찾고 있다. 이는 너희 마음속에 조상들의 관습, 습관, 전통, 그리고 악덕이 뿌리내리게 했기 때문이다.

38. 이제 양심의 목소리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오기 때문에, 너희 내면에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너희 마음은 여전히 그 목소리에 저항하고 있는데, 이는 감각에 얽매여 영혼보다 육체에 더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39. 나는 너희의 내적 투쟁을 축복한다. 이는 너희가 나를 향한 사랑을 느끼고, 내 말씀에 담긴 진리와 정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40. 유혹에 맞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내면에서 '육신'이 승리할까 두려워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죄와 어둠에 맞서 싸울 데 필요한 무기를 내 말씀 속에서 찾기를 바라며, 서둘러 내게로 와서 내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슬픔에 잠겨, 내 시선이 너희를 발견하지 못하기를 바라며 다가오지만, 사실 너희는 내 시선에서 단 한 순간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중에, 너희 마음속에 내 말씀의 다정함을 받아들였을 때, 너희는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은 거침없이 흘러나와 영혼의 짐을 점점 더 가볍게 해준다. 그러면 너희는 마침내, 내가 너희를 그토록 큰 사랑으로 맞아주었으니, 이는 내가 너희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았고, 내 앞에서 너희를 부끄럽게 하는 모든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41. 아, 아직 스승을 알지 못하는 작고 연약한 자녀들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나에게서 힘을 구하는 너희에게, 내가 용서와 격려, 사랑과 지혜의 말씀 대신에 정죄와 심판, 비난과 위협, 그리고 별로 너희를 맞이한다면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느 날 결국 너희는 이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그 후 제멋대로 물질주의의 품으로 뛰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대변자를 통해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내 시선이 너희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하지 마라.

42. 이 '일꾼'들의 무리를 보라, 이 사역의 종들을 보라: 그들도 너희와 마찬가지로 고통으로 가득 찬 마음과 제멋대로 휘둘리는

정욕을 안고 왔으며, 그들도 내 말씀에 심히 흔들렸고 영혼과 육체 사이의 내적 투쟁을 알게 되었으며, 그들도 내가 내 말씀 속에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 시선이 그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들은 이곳, 나의 발에 있으며, 내가 그들에게 맡긴 사명을 평화롭게 수행하고 있다.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싹튼 것은, 투쟁이 끝난 후 그들의 영혼에 평안이 찾아왔고,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니는 나의 신성한 시선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43.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유혹하고 육신의 유혹도 계속되는데, 이는 그들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충성을 시험하고, 그들이 잠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떤 이들은 영적 힘이 아직 모든 넘어짐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줄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은데도 세상을 거스르려 한다. 이들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이들, 오늘은 떠나고 내일은 다시 돌아오는 이들로서, 더 이상 약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그러할 것이다.

44. 오늘 자신의 약점을 다스리지 못해 슬픔에 잠겨 이곳에 온 너희 중에서, 비록 현재로서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워 보일지라도, 내가 새로운 “일꾼”들을 만들어 내리라. 그때 너희는 자신의 내면에서 기적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니, 이는 너희가 영혼의 변화를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약한 자는 강함을 느끼게 될 것이며, 믿지 않던 자는 열렬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45. 죄를 지었을 때, 나를 모욕했다는 사실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그들을 격려하고, 세상과 죄, 물질주의, 그리고 악덕을 이기게 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46. 내일 여러분은 자신의 회심과 갱신의 기적을 증언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 여러분은 이웃들에게 열린 책이 될 것이며, 그 책의 페이지들, 즉 여러분의 과거에서, 여러분이 나의 사역 속에서 얻은 모든 경험과 지혜의 빛을 끌어내어, 여러분의 투쟁과 준비, 그리고 승리의 성숙한 열매로서 이웃들에게 바치게 될 것입니다.

47. 사람들이 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내 말씀의 임재를 예감하는 나라들과 지방, 마을들에서, 나의 “일꾼들”의 증언은 마치 진정한 하늘의 이슬처럼 목마른 사람들의 영혼 위에 내려올 것이다.

48. 나는 이미 너희에게 내 증인들과 제자들이 배척받고, 조롱당하며, 박해받을 것이라고 말했노라. 그러나 다른 이들은 그들을 믿고 축복할 것이니라. 그것은 또 다른 투쟁이 될 것이며, 나도 그것을 축복하리라. 왜냐하면 투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승리도 따르기 때문이니라.

49. 땅 위의 모든 사람이 이 메시지의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나는 옛날에 예언되었던 표징들—내 재림을 예고했던 예언들—이 온 지구상에 뚜렷이 드러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열방에 전해질 때, 사람들은 그 시대에 그들에게 전해졌던 모든 것을 탐구하고 조사하게 될 것이며, 놀라움과 기쁨 속에서 나의 재림에 관해 예고되고 약속되었던 모든 것이, 오직 *하나의* 뜻과 *하나의* 말씀, 하나의 율법만을 가지신 분께 합당하게 충실히 성취되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50. 나는 너희에게 가르침을 통해, 삶이 영혼의 비아 돌로로사(고난의 길)이며, 이것이 지상에서의 존재의 끝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것은 영혼의 갈바리아 산이며, 너희는 그곳에서 나의 본보기를 따라 나의 모범을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해야 한다.

51. 믿음과 덕으로 정점에 이르는 영혼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의 겹질에서 벗어나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의 용기와 사랑에 대한 보상으로 아버지의 어루만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비틀거림 없이 영원으로 들어갈 자들이다.

52. 이 시대에 내 말씀은 사람들이 내 율법과 가르침의 온전한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며, 그 말씀이 주는 충족감은 그들에게 행복—마음의 기쁨과 영혼의 평화—을 안겨줄 것이다. 왜냐하면 영혼은 오직 자신이 속한 고향에서만 완전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53. 너희에게는 선을 행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줄 기회가 끊임없이 주어진다. 모든 가정은 내 씨앗을 뿌리기에 적합한 밭이다. 모든 도시와 모든 민족은 자비와 사랑을 갈망하는 땅과 같으며, 나는 너희를 씨 뿌리는 자로 삼아 사람들에게 위로를 베풀고 평화를 심게 하리라.

54. 행실과 말, 기도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야 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고, 또한 사용할 수 있는 수단들이다.

55. 나는 너희에게 영혼의 진정한 언어이며, 사람을 나와 직접 연결해 주는 완전한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

56. 나는 너희에게 ‘말씀’이라는 은사를 주었으니, 이는 영혼 속에 있는 빛과 마음이 품고 있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57. 내 말씀을 듣는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지 말라.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너희 자신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으니.

58. 오늘 너희는 스스로를 약하고, 서툴며, 무능하고, 합당하지 못하다고 느낀다. 이는 너희 내면을 살피다가, 타인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약점과 부족함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먼저 너희를 치유하고, 내 평화를 느끼게 하며, 너희 마음을 북돋우고, 너희의 길을 깨끗하게 해 주겠다. 그러면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움도, 의심도, 무능력함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59.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아직 지방으로 보내지 않고, 내 말씀을 통해 너희를 조금씩 용기 내게 하기 위해 한동안 내 말을 듣게 했다. 그러나 너희 영혼이 나의 본질로 충만해지면, 더 이상 시험이나 표적을 기다리며 출발하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영감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60. 기도하라, 백성들아. 너희가 기도하는 동안, 나는 땅의 모든 민족에게 나의 평화를 부어 주겠고, 너희 가정을 축복하며 너희 길을 밝게 비추리라.

61.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리라. 그 증거는 무엇이겠느냐? 바로 너희가 오랫동안 희망해 온 것, 어떤 이들에게는 얻기 불가능한 것이 너희 삶 속에서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어떤 이들에게는 내가 제안한 것이 곧 닿을 것이요, 다른 이들은 기다리게 할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사랑의 증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이 은총이 너희 각자에게 임할 때, 너희는 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이며, 그때 너희의 믿음은 더욱 커질 것이다.

62. 절망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나의 가르침을 따르고, 기도하며 깨어 있음으로써 이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63. 너희가 영혼을 하늘로 향하는 이 순간들 속에서, 너희의 고통을 잊고 나의 평화로 충만해지는 것을 보느냐? 나의 가르침을 온전히 실천함으로써 항상 나와 함께 있도록 힘쓰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불행과 재앙을 이겨내는 나의 평화와 빛을 보게 될 것이다.

64. 너희의 고통이 헛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강인해져서 내 씨 뿌리는 자들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희의 사명임을 깨달아라.

65. 사람들에게 위로로 전하고자 하는 자,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자, 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려는 자들은 경험의 빛으로 깨우침을 받아야 하며, 투쟁과 시련 속에서 단련되어야 한다. 어떤 고통의 모습도 그들을 낙담하게 해서는 안 되며, 이웃의 어떤 원망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자비를 갈망하며 손을 내미는 이들이 있다면 어떤 고통 앞에서도 도망쳐서는 안 된다.

66. 그곳에서, 악과 고통 속에 굳어진 이들 가운데서, 너희는 많은 이들이 갱신과 영성을 추구하며 빛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영감이 그들에게 닿기 위해서는, 너희가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형제애의 증거를 심어주어야 한다. 바로 그 행동이야말로 고통받는 이의 어둠을 걷어내는 빛의 광선이다.

67. 그러므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을 따라다녔던 그 고통이, 어려운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내면적으로 다듬어 준 조각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252

1. 백성아, 너희는 이 시대에 내 계시를 목격해 왔다. 너희는 그것을 해석하고 “마지막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 너희는 내가 온 이유를 알고 있으며, 내가 정한 때가 왔을 때 내가 떠나는 이유도 알고 있다.

2. 너희는 나의 제자이므로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 너희가 겸손하다고 해서 궁핍해지는 것은 아니다. 영혼의 겸손을 육체의 가난과 혼동하지 말라. 너희가 영적 존재라고 해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영성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의 주인이 되며, 오직 물질적인 것만 보고 이해하는 사람보다 더 강렬한 열정으로 살고 누린다.

3. 영성화된 사람들은 제3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칭호를 당당히 지니는 이들입니다. 영혼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 물질에 속한 것은 세상에 바치는 법을 아는 사람들, 모든 법을 ‘창조주를 사랑하고 이웃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단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는 사람들입니다.

4. 나의 가르침을 통해 준비된 사람은 초인적인 업적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5. 그의 영혼과 몸에서 빛이 흘러나올 것이며, 그 힘과 기력은 지성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실현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6.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 뜻대로 너희는 이러한 고양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의 모든 행위가 내 진리의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말과 기도, 그리고 너희의 손에서 신성한 치유의 향유가 흘러나올 것이며, 이는 육체적 또는 영적으로 병든 이들에게 기쁨과 해방이 될 것이다. 너희의 말에서 영혼에게 믿음을 가져다주는 빛이 솟아날 것이며, 너희의 기도는 영혼이 그 여정에서 선을 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수단이 될 것이다.

7. 이것이 바로 나를 따르며, 나의 가르침을 해석하고 따르는 법을 아는 자들의 미래이다.

8. 이제부터 “깨어 있으라.” 그래야 너희의 이성이 결코 어두워지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겪어야 할 시련 속에서 오늘 너희의 믿음인 것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9. 이 백성이 자신의 불완전함에서 벗어나 내 뜻대로 내 말씀을 실천하게 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 것인가.
10. 지금 여러분에게는 영성화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장애물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그 장애물들이 바로 단합 부족, 겉치레에 치우친 예배 행위, 그리고 진정한 이웃 사랑이 결여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11. 아직 여러분 가운데서는 강하고 이상주의적이며 투지 넘치는 백성—인류가 조연자, 의사, 형제, 지도자를 찾을 수 있는 백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 가운데서는 그 단합과 형제애로 인해 평화와 존중, 사랑이 넘치는 헤아릴 수 없는 고향과도 같으며, 한 사람의 빵이 다른 모든 사람의 빵이 되고, 한 사람의 지붕이 모두의 지붕이 되는 그런 백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12. 그 본보기는 어디에 있는가? 너희는 언제 그런 이상을 위해 분투해 본 적이 있는가?
13.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비난이 아니다, 백성아. 이는 오직 자녀들의 행복만을 바라는 아버지의 말씀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 자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하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14. 나는 한동안 더 머물며 너희에게 내 말씀을 전할 것이다. 나는 그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계시를 주며, 이 시기를 위해 간직해 두었던 것들을 드러낼 것이며, 인류가 다가오는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 가르침을 통해 필요한 빛을 계속해서 비출 것이다.
15. 나는 너희에게 많은 ‘영성주의’가 등장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으며, 그때 너희는 어떤 것이 진리에 근거하고 어떤 것이 속임수에 근거하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한다고 했다.
16. 너희는 나에게 귀속되는 거짓 선언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세상에 메시지를 전하는 신성한 사자들에게 대한 소문들, ‘일곱 봉인’이라는 이름을 내건 종파들, 그리고 수많은 혼란스럽고 모호한 가르침들을 보게 될 것이다.
17. 이 모든 것은 인류가 자초한 거대한 영적 혼란의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대신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하라. 그러면 너희는 영적 혼란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니,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내 말씀이 빛이 되어, 너희로 하여금 내 맑고 영원한 진리를 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18. 지금이 바로 연구와 가르침, 그리고 계시의 시기임을 깨달으라. 게으르거나 소홀히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훗날 잃어버린 시간을 두고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9. 너희의 직관을 일깨워, 너희 영혼이 맡은 사명을 너희에게 드러내게 하라. 그녀가 내 사역 안에서 활동하게 하라. 그녀가 내게 한 약속, 곧 그녀의 영에 기록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라. 너희의 스승인 내가 이 시기에 와서 내 말씀으로 너희의 삶을 비추겠다고 약속했거늘, 제자들이 내게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20. 나는 이 시기에 나의 현존으로 너희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내 말씀은 기록되어 있었고, 세상은 나의 귀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에게 내 가르침을 듣도록 부를 때, 그것이 내가 그를 땅에 보낼 때 그의 영혼에 심어 둔 은사와 사명을 확인해 주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아무도 놀라지 말라.

21.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을 지키심으로써, 내 말씀이 모든 피조물 위에 이루어짐을 너희에게 증명해 주었으니, 이는 그 시간이 와서 너희 가운데서 이 일을 끝낼 때, 아무도 이를 몰랐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아무도 이에 놀랐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며,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말로 대답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22. 지금부터 내 지시를 따르고 내가 예정하신 모든 것을 사랑함으로써 내 뜻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라. 나를 사랑하고 내 뜻을 행하는 자는 나의 자녀이자 나의 제자이다. 내 뜻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뜻을 행하는 자는 비록 나의 자녀이긴 하지만,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본보기로 삼지도 않으므로 나의 제자는 아니다.

23. 내 가르침 안에서 나는 너희가 이 사역의 제자로서 승리하고, 나중에 쓰라린 눈물을 흘리게 할 실수나 넘어짐을 범하지 않도록 기준을 제시해 준다.

24.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이 씨앗을 진정으로 내가 맡긴 그 진심 어린 마음으로 뿌리는 자들은 평안 가운데 길을 갈 것이다. 그들의 노크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문들이 그들에게 열릴 것이며, 비록 그들이 박해를 받을지라도 결코 싸움에서 패하지 않을 것이니, 그들의 덕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25. 반면, 양심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나를 배반하는 자들은 항상 적들에게 내버려질 것이며, 평안 없이 살게 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26. 내가 제자들에게 묻노니, 내가 너희에게 계시해 준 것과 같은 완전한 가르침을 인류에게, 마치 그릇된 길로 여겨지거나, 이 시대에 만연한 영적 혼란의 산물로서 생겨난 수많은 교리나 이론 중 하나로 간주되도록 제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27. 내가 너희의 증언이 순수하도록 그토록 깊이 사랑하고 내 말씀으로 가르쳤던 너희가, 너희의 오류의 희생양이 되어 세속적 사법 당국의 손에 넘겨지거나, 이웃들이 너희를 해로운 존재로 여겨 박해받고 흠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옳은 일인가? 너희는 내 가르침이 — 올바르게 따를 때 — 그런 일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요, 제자들아. 내가 이런 식으로 너희에게 말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내가 더 이상 이런 형태로 너희에게 말하지 않을 때, 너희는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게 될 것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스승님께서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약점에 시달리게 될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지혜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8. 나는 나의 계시가 끝난 후, 너희가 이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올바른 방식으로 이를 따르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오늘까지 내 말씀을 들은 무리들 가운데서 진정한 영성가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너희가 실천해 온 것은 영성이 아니라, 단지 내 사역에 대한 *너희/나름의* 상상일 뿐이었으며, 이는 진정한 영성과는 거리가 멀다.

29. 너희는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큼 강해져야 하며, 습관을 고치기 위해 마음을 다잡고, 너희 가운데 이 가르침의 진리와 순수함이 빛나도록 열정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30. 내 가르침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는 한, 너희의 예배 형식과 의식의 외형적인 부분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31. 나는 너희에게 상을 주겠으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길 위에서 너희의 행실을 개선하기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과 희생에 대해 보상해 주리라.

32. 너희 중 많은 이들이 내 계시가 진실인지 아닌지 확신하기 위해 그것을 탐구한다. 그러나 종종 너희는 그 본질을 탐구하기보다는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여, 결국 그 이유로 인해 오류를 범하게 된다.

33. 나는 너희가 나의 대변자들을 아주 사소한 움직임 하나까지 지켜보는 것을 보았으며, 그들이 울거나 너희 자신만큼이나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때 너희가 놀라는 것을 보았다. 그때 너희 마음은 신성모독의 말로 분출하며, 나의 계시의 진실을 부정했다.

나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그들을 약하고, 초라하며, 그 어떤 필멸자와 다를 바 없는 인간으로 보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발받침’이라거나 예수의 대변자라고 자칭할 수 있단 말인가?” 아, 오직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에서만 진리를 찾는, 감각에 얽매인 영혼들이여!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나를 정죄했고, 십자가 위에서 내 몸이 피를 흘리고 내 입술이 탄식하는 것을 보고는 거슬러 했습니다. 나의 모든 행위의 신비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던 가련한 인간들이여.

34. 자신의 영혼 속에서 나의 현존을 느끼는 이들에게는, 내 말씀의 의미, 내 가르침의 빛, 내 사랑의 광채, 내 영적 자비의 위로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들은 모든 외적인 것에서 눈을 감고 영혼으로 나를 찾는 자들이니, 바로 이들이 항상 나를 따르는 자들이다.

35.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이들에게는, 스승의 희생적 죽음의 본질이 사랑의 신성한 인장으로 남아 있었으니, 마치 이 시대에 나를 영으로 찾은 이들에게 내 말씀의 본질이 남아 있는 것과 같다.

36.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너희에게 거듭거듭 반복해야만 하겠느냐?

37. 이 시대의 내 말씀은 너희에게 과거를 상기시키고, 비밀을 드러내며, 다가올 일을 예고해 준다. 그것은 사람들이 왜곡하고 무력화시킨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의 수호자인 내가 나의 열정과 정의의 칼을 들고 와서 모든 거짓을 무너뜨리고, 위선과 거짓말을 산산조각 내며, 진리의 성전에서 상인들을 다시 쫓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38. 너희는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 책이나 *사람들의* 조언, 또는 계명 속에서 진리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39. 너희 모두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미 굳건한 땅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다. 너희는 폭풍우 치는 밤 한 가운데 표류하는 난파선 승객들과 같다. 각자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처해 있어 이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40.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의 유일한 구원자이며, 율법이라는 항로를 벗어나 길을 잃은 자들을 다시 찾아오는 자이다. 내가 너희의 길을 비추어, 너희가 육지에, 곧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축복받은 땅에 도달하게 하리라. 그곳은 그 품속에 영을 위한 무한한 보물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41. 오, 백성들아, 내 말씀이 너희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도록 허락하라. 그리하여 내일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이 시련의 시간 동안 너희 곁에 있었듯이, 그들의 고통 속에 그들과 함께 하도록 하라.

42. 이 가르침인 나무의 가지들이 자라나 온 세상에 퍼져, 땅 위를 걷는 굶주리고 지친 모든 사람에게 열매와 그늘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43. 내가 그 나무요, 너희는 인류가 나를 알아볼 수 있게 해 줄 열매들이다.

44. 너희의 행실 속에 달콤함과 생명이 깃들어 있다면, 너희는 너희를 가르치시고 사랑과 진리의 생명수를 베풀어 주신 분에 대한 충실한 증언을 한 것이 될 것이다.

45. 내가 이 제3의 시대에 너희에게 준 가르침은 과거 시대의 가르침들과 하나로 통합되어야 할 새로운 성약이니, 이 세 가지는 하나의 계시를 이루기 때문이다.

46. 나의 빛은 나의 모든 가르침을 한 권의 책으로 통합하도록 예정된 사람들의 이성을 비출 것이다.

47. 나의 영적 종들은 이 책에 어떠한 흠도 없도록 나의 선택받은 자들의 손을 이끌어 줄 것이다.

48. 너희가 이 책에 깊이 몰입하여 마침내 내 사역의 진리를 이해하게 되면, 지금까지 이 백성 사이에 존재해 온 차이점과 논쟁, 그리고 불화는 사라질 것이다.

49. 오늘 너희는 너희의 불화가 가져오는 결과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일 너희는 그 결과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생각과 예배 행위, 영혼의 일치 얼마나 많이 간청했는가. 너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나의 신성한 권고를 듣지 않았는가!

50. 나는 너희가 한 민족을 이루도록 영감을 주었고, 너희에게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다. 나는 너희가 여정과 노력 속에서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추도록, 마치 약속의 땅을 갈망하며 광야를 건너던 초기 이스라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희에게 다양한 사명과 임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너희는 나의 명령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이 글로 남긴 — 지워질 수 없는 본보기인 — 화합의 모범을 돌아보려 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정에서 마주한 운명의 시련을 극복하게 한 것은 바로 그들의 조화와 단결이었기 때문이다.

51. 새로운 약속의 땅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나, 너희는 아직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너희는 현재 광활한 사막을 건너고 있으며, 파라오의 속박을 뒤로 하고 이미 율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우상 숭배를 아직 완전히 버리지 못했으며,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때때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다.

52. 너희는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 시련과 저항, 박해를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분명 내 명령을 이행할 준비가 될 것이며, 그 정신으로 내가 너희에게 계시한 사역을 지키게 될 것이다.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성막과 언약궤를 지었던 것처럼 말이다. 시련이 그들을 빛으로 깨우쳤기 때문이다.

53. 이제 너희의 성막은 너희의 영이 될 것이며, 너희의 언약궤는 양심이 될 것이다. 그곳에 나의 율법이 있어 주님의 백성의 길을 비추게 될 것이다.

54. 오늘날에는 모세를 따라 이 백성 앞에 나서서 기적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줄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약간의 준비만 있다면, 너희는 이 여정에서 너희를 인도하고 격려하며 영감을 주는 엘리야의 영적 임재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55. 내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눈물이 흐릅니다. 오직 나만이 그들의 흐느낌의 이유를 알고 있으며, 오직 나만이 그들이 가는 길에서 마주치고 발목을 잡았던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56. 인파여, 인내하며 충실하라. 그러면 그 장애물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기도하고 일할 때, 점점 더 큰 진실함과 순수함, 그리고 완전함을 갖추어, 너희의 사명 속에서 삶의 우여곡절을 인내로 견뎌낼 수 있는 위로와 필요한 힘을 얻으라. 너희가 이렇게 길을 간다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길이 평탄해지고 걸림돌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57. 너희는 당분간 밀과 잡초가 함께 자라는 나의 밭이다. 아직 수확할 때가 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 때가 오면, 너희 각자의 행적이 심판받을 것이다. 그때 나는 땅 위에 선한 제자들을 남겨 두고, 화합과 영성화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을 이 세상에서 제거할 것이다.

58.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내 말을 기억하라. 너희가 나로부터 매우 큰 사명과 임무를 받았다고 해서 지나치게 자만하지 말라. 마치 내 정의가 결코 너희에게 닿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다. 다윗과 솔로몬을 기억하라.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위대했으나, 그 위대함 속에서 잠들고 율법을 어겼으며, 아버지께서 그들을 그토록 사랑하시기에 결코 그분께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순간, 무자비하고도 지혜로운 나의 신성한 정의가 그들에게 닥치는 것을 목격했다.

59. 오, 백성아, 새로운 세대를 생각하라. 너희 자녀들을 생각하라. 마치 조상들이 그들의 백성을 준비시켜 메시아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게 했던 것처럼 말이다.

60. 아직 오지 않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 자선과 사랑으로 그들을 위한 길을 마련하라. 그들이 너희보다 더 높은 사명을 갖게 될 것이며, 그들이 따를 수 있는 영성의 흔적을 발견한다면 그것이 좋으리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 흔적이 무엇이겠느냐? 바로 너희의 삶과 너희의 행실일 것이다.

61. 왜 너희는 항상 내가 책망하러 오게 만드는가?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온다. 너희가 마음속에 고통을 품고 있는 것을 보고 너희를 위로하고 싶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너희 영혼 속에 나의 평화를 간직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62. 때로는 내가 너희에게 심판자로서 나타나고, 때로는 아버지로서 나타나지만, 언제나 스승으로서 나타난다. 이 세 가지 현현 형태 속에 너희는 하나뿐인 신성한 본질을 발견할 수 있다. 곧 법, 사랑, 지혜이다. 이것이 바로 내 영 안에 존재하는 삼위일체이다.

63. 눈을 감고 영혼을 자유롭게 하여, 스승과 함께하는 이 순간들을 깊이 체험하게 하라. 제2시대에 스승을 따르던 이들이, 그분의 가르침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육로와 계곡, 마을, 강가, 사막을 지나며 그분 곁에 머물렀던 것처럼, 영혼이 내 곁에 머물게 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때때로 지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사용하여 영적인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너희의 영적 이해 범위 안으로 끌어들이는 비유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말씀이 너희 영혼에게 천국을 어떻게 가까이 가져다주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64. 오라, 인류여, 내가 너희를 가르치리라. 아니면 너희가 평생 동안 고통이 계속해서 너희를 가르치기를 원하느냐?

65. 내 농장으로 와서 형제애의 씨앗을 밭에 뿌리십시오. 내가 장담하건대, 내 농장은 세상이 그러하듯 너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66. 여기, 너희 영혼 바로 앞에 길이 놓여 있으며, 너희가 그 길을 따라가며 다시는 멈추지 않도록 초대하고 있다. 너희가 그 길 위에서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완전한 고향으로 너희 영혼을 한 걸음 더 가까이 이끄는 발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67. 내가 여전히 너희 가운데 머물며 이 모습으로 너희에게 말씀하실 시간은 매우 짧으니, 나는 너희가 공덕을 쌓는 법을 배우기를 원한다. 그래야 이 마지막 몇 년 동안 내 말씀이 이 대변자들을 통해 풍성하게 쏟아져 나올 수 있을 것이다.

68. 신성한 계시가 어떻게 너희의 공덕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겠느냐? 바로 너희의 믿음과 헌신, 그리고 영성화를 통해서이다. 즉, 백성들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자비가 실천되며, 진리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이다.

69.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내 뜻대로 단합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너희를 흠어 버릴 것이며, 너희의 삶이 너희가 설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면 너희를 그들 가운데서 쫓아낼 것이다.

70. 만일 사람들이 각 교회에서 서로 다른 예배 형식과 내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은 너희를 가르치신 분이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71. 나는 너희에게 나의 계시 활동의 마지막 3년을 맡기니, 이 백성의 통합을 위해 힘쓰라. 영적인 면과 외적인 면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을 통해, 조화와 일치를 가득 담은 너희의 활동이, 각기 다른 모임 장소와 각기 다른 지역에서 너희 모두를 가르치신 분은 오직 한 분의 스승, 곧 하나님이라는 가장 큰 증거가 되게 하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가르침 253

1. 오늘 나의 임재는 심판자로서의 임재이다. 나의 빛이 너희 존재의 성소에 스며든다.
2. 나는 받아들이고 또한 주기 위해, 선한 씨앗의 열매를 거두고 너희에게 심을 새로운 씨앗을 주기 위해 온다.
3. 너희는 받은 은혜와 영적 여정에서 너희 행위의 좋은 결실을 위해 나에게 감사드리기 위해 내 면전으로 온다. 어떤 이들은 회개의 마음을 품고 내게로 온다. 그들은 어떤 회개의 짐을 지고 오며, 나의 공의의 음성을 듣고 떨며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모두 나의 용서를 구하며, 앞으로 다가올 시절에 생계가 부족하지 않도록 기도한다.
4. 오늘 너희에게 한 해가 시작되는데, 이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 전해진 나의 계시 중 바로 그 전전 마지막 해이며, 오랫동안 이

가르침을 받아온 백성들에게 나의 말씀이 정의를 요구하며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5. 사랑과 정의의 불로, 나는 너희에게 태초부터 너희 영에 새겨져 있는 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게 전해 주리니, 너희가 내일 이 진리를 증언할 수 있도록 하리라.

6. 나의 모든 행적은 ‘생명’이라 불리는 한 권의 책에 나에 의해 기록되어 있다. 그 책의 페이지 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으며, 그 무한한 지혜는 저자이신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책의 모든 페이지에는 아버지께서 각 행적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두신 간결한 요약이 담겨 있어, 어떤 이해력이라도 이를 파악할 수 있게 하셨다.

7. 너희 또한 끊임없이 너희 삶의 책에 기록하고 있으며, 그 책에는 너희의 모든 행적과 발전의 전 과정에서 내딛은 모든 발자취가 기록되어 남을 것이다. 그 책은 너희 영혼 속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며, 내일 너희가 어린 형제자매들의 길을 비추어야 할 지식과 경험의 빛이 될 것이다.

8. 아직은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그 책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여러분의 존재 안에서 빛이 비칠 것이며, 여러분은 동료 인간들에게 여러분의 성장과 속죄, 그리고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페이지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열린 책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사다리를 오르고 있음을 느낄 것이며, 그 사다리는 존재들을 창조주의 임재까지 이끄는 영적인 길입니다.

9. 인생의 모든 시련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이 아직 걸어가야 할 먼 길을 헤쳐 나가기 위해 영혼을 깨우치고 강하게 해주는 교훈임을 알고 계십시오. 여러분의 이해가 깊어질수록, 여러분을 완전함을 향해 투쟁의 길로 보내시고, 시련을 이겨내는 동안 항상 곁에서 도와주신 그분께 대한 사랑도 그만큼 커져야 합니다.

10. 비록 내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심판하며, 너희를 바로잡지만, 동시에 나는 너희를 지지하고, 용서하며, 다시 일으켜 세운다. 내 안에는 불의가 없으므로, 어떤 영혼도 나의 현존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11. 침묵 속에서 나를 듣고, 길 위의 가시들이 뜯어내는 흐느낌을 참아내는 법을 배운 너희, 수많은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너희 입술은 탄식을 내뿜지 않기 위해 침묵하고, 대신

너희 마음이 나를 축복하노라.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이토록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는 아버지가, 어찌 너희를 축복하지 않겠느냐?

12. 이제 빛이 너희 영혼 속에 퍼져 나가고 있다. 지금이 바로 내가 현재 찾고 하나로 모으고 있는 백성에게서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나는 때이다.

13. 수많은 세대가 이 백성을 이루고 있으며, 오늘 나는 각 세대로부터 그들의 공헌, 즉 그들의 수고의 열매를 받아, 각자가 자신의 행실과 노력, 목표에 따라 상을 받게 하리라.

14. 세상의 명예와 찬사를 갈망하는 자는 여기서 그것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것들은 잠시뿐이며 그가 영적 세계로 들어갈 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돈을 탐하는 자는 *여기서* 보상을 받을지 모르나, 그것이 바로 그가 추구하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이곳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내세에 들어갈 시간이 오면, 비록 자선 활동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자신의 영혼을 위한 그 어떤 보상도 요구할 권리는 조금도 없을 것이다.

반면, 항상 아침과 특혜를 거부하고, 순수한 마음과 이타적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물질적 보상을 거절하고, 선을 뿌리는 일에 전념하며, 사랑의 행위를 실천하는 데 기쁨을 느꼈던 사람 — 그는 보상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만족을 위해 살기 때문이다. 그가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그의 평화와 행복은 얼마나 클 것인가!

15.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자라게 해야 그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때가 바로 심판의 시간이 될 것이니, 사람들에게 유독한 열매를 준 자들은 모두 나의 사랑의 정의의 불길 속에서 소멸될 것이며, 오직 생명과 건강의 열매를 맺은 자들만이 높이 존중받을 것이다.

16. 마찬가지로,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공동체와 종파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 진리를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만이 남고, 거짓과 허위, 위선의 장막 뒤에 진리를 숨긴 자들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

17. 법은 오직 하나뿐이며, 따라서 그것을 이행하는 방법도 단 하나뿐이다. 그것은 너희 모두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 추구해야 할 길이다.

18. 내 목소리를 듣는 너희는 지금 이 순간 내면적으로 스스로를 판단하라. 너희는 너희의 이상이 고귀한지, 너희의 행실이 순수한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다. 너희는 내가 떠난 후에도 사람들

가운데서 족장, 예언자, 사도들처럼 남을 수 있도록 이미 충분히 준비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다. 너희는 이미 영적으로 성숙해졌는지, 내가 너희를 구별하기 위해 부여한 ‘영성주의자’라는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다.

19. 1948년에 이 민족은 큰 지진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깨우게 한 나의 정의의 충격이었으며, 여러분이 광신이나 관성의 무감각에 빠졌을 때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20. 내가 이 시기에 집회를 시작한 이래로, 너희가 내 새로운 메시지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더라면 — 얼마나 많은 고통과 논쟁, 그리고 내적 갈등을 피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영혼의 자유와 고양을 가로막는 걸치레적인 숭배에 치우쳐 있었다. 그리하여 너희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할 시기가 오게 된 것이다. 여러분은 영성주의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예배와 삶, 그리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21. 어떤 이들은 깨어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영성화를 위해 나섰지만, 다른 이들은 자신들의 관습에 집착하며 상징과 예배 형식, 습관에 매달려,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상징들을 보여주었으므로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22. 분쟁이 일어났으나,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태초에, 하나님께서 시나이 산 정상에서 선포하신 계명 중 하나에서, 나는 사람들에게 신성을 나타내는 어떤 형상도 사용하지 말라고 명하셨으며, 동시에 진정한 예배란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만 제한되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임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다.

23.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무수히 많은 전통을 만들어 냈고, 날마다 광신과 우상 숭배를 더해 갔다. 이제 그 상징은 더 이상 더 높은 차원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비유가 아니라, 우상 숭배와 경배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24. 너희가 점점 더 멀어져 가던 그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해 내가 세상에 오셔야만 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내가 전통을 설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 나를 고발하며 백성들에게 내 말씀이 모세의 율법에 반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위선적인 율법 대표자들에게 대답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에 대항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내 생명으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왔다고 — 내가 사람들의 마음에서 지워내고자 했던 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잊게 만든 쓸모없는 전통과 의식들이었으며,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25. 너희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내가 너희가 ‘영성주의’라고 알고 있는 이 사역에 도입한 모든 전통과 외형적인 예배 형식을 너희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26.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세 번의 계시 각각이 시작될 때, 너희가 신성한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돕기 위해 몇 가지 상징과 예배 행위가 허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들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함은 아니었고, 더구나 그것들을 숭배하기 위함은 더욱 아니었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영적 정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며, 내가 모든 시대에 걸쳐 너희를 그 위험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빛의 참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 찾아온 이유이기도 하다.

27. 오늘 나는 과거에 내가 명한 것들을 결코 폐기하지 않으며, 오히려 너희가 삶과 행실에 더 높은 차원의 영성을 부여함으로써, 곧 진실성을 실천함으로써 그것들을 따르도록 가르친다.

28. 그러므로 내가 이 형태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치면, 너희는 더 이상 물질적인 사물이나 의식과 형식에 대한 갈망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우상 숭배와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마찬가지로 영이신 아버지의 임재를 영으로 찾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9. 너희는 머지않아 겉치레적인 숭배에 지치고 종교적 광신에 싫증을 낸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그들에게 전할 영성화의 메시지는 신선하고 상쾌한 이슬처럼 그들의 마음에 스며들 것이다.

30. 만일 너희가 광신적인 의식과 영성화와 상반되는 행동 방식으로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세상이 너희를 신성한 메시지의 전령으로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들은 너희를 새로운 종파의 광신자로 여길 것이다!

31. 내가 너희에게 이토록 명확하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내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로케 로하스가 유산으로 남긴 많은 종교 의식을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제2의 시대’에 있었던 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었노라. 그때 나는 백성들에게 의식과 형식, 전통, 명절을 따르는 데만 몰두하느라 본질인 율법을 잊어버렸음을 깨닫게 하였노라. 나는 너희가

오늘날에도, 비록 로케 로하스로부터 배웠다고 하더라도, 마치 당시 모세의 백성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처럼, 전통과 의식을 잊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너희 스승의 그 행적을 상기시켜 주었다.

32. 자, 내가 이 말을 통해 그들이 너희에게 나쁜 것을 가르쳤다는 뜻은 아니다 — 결코 아니다. 그들은 단지 백성이 신성한 계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상징과 행동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목적이 달성되자마자, 진리의 빛이 비추게 하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쓸모없어진 모든 숭배 형식이나 상징성을 제거해야만 했다.

33.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진실함이다. 내 말씀을 전하는 대변인부터 ‘어린 제자’ 중 가장 마지막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말이다.

34. 가장 큰 책임은 대변자들에게 지워져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을 통해 내가 율법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책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깨어나라! 너희 양심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 백성을 보라 — 무지하지만 내 말씀을 갈망하는 이 백성이, 너희가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지 보라. 만약 백성이 일어나서 너희에게 준비와 영성화를 요구한다면, 너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믿음과 영혼, 지상의 평화, 그리고 영원으로 향하는 길에 관한 문제인 만큼, 백성에게는 그에 대한 얼마나 큰 근거와 권리가 있겠는가.

35. 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제3시대의 예언자들아: 너희의 서툰 점이나 미성숙함, 혹은 가난함이 내가 너희를 통해 인류 앞에 나를 드러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의 죄와 준비 부족이 내 말씀의 의미를 제한하고, 내가 내 백성에게 가져온 진리를 가리고 있는 것이다.

36.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영적으로 성숙해질 능력이 없다고 느끼는 자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진리에 거짓을 섞지 말라. 왜냐하면 이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 거와 밀을, 즉 거짓과 진리를, 불필요한 것과 필수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37. 나의 말씀은 엄격하고 모호함이 없다. 그러나 보라, 이 선포 또한 언젠가는 끝이 나며, 너희가 내가 맡긴 영적 수고의 정점이 되는 최고의 업적을 이루어야 한다.

38. 너희 입술에서 나온 이 말씀이 왕국과 제국, 왕좌를 무너뜨리는 영적 메시지임을 알라. 이는 사랑과 평화, 정의의 왕국인 천국이 사람들의 영혼 속에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다.

39. 나는 다른 나라들에 내 말씀의 사자들을 보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너희의 생각으로 그들에게 힘을 주라. 그들은 씨앗을 키워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것이며, 그들이 일단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게 되면 형제애와 이해의 유대로 너희와 하나가 될 것이다.

40. 나는 현재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조국들에게도 전할 나의 말씀의 새로운 사자들을 준비하고 있다. 모든 이에게 나의 평화의 망토를 펼쳐 주리라.

41.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도기이자 발전, 시련, 변화, 그리고 놀라움이 가득한 시기이다.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며, 깨어 기도하고, 내 율법을 굳건히 지키라.

42. 오늘은 투쟁이 요구되는 날이며, 오늘은 공로를 쌓는 날이며, 오늘은 고통받고, 싸우고, 고생하는 날이다. 내일, 너희 모두가 내 곁에 있을 때, 영혼의 완전함에 도달했을 때, 너희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고향을 갖게 될 것이다. 그곳은 모든 것이 도달하는 곳이며, 완전함을 이룬 모든 것이 보존되는 곳이다. 그곳은 너희가 이곳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혜와 완전함, 그리고 영광을 품고 있는 “품”이다.

43. 나의 말씀은 너희 영혼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다. 그분께로 오라, 길을 잃지 말라, 사랑하는 백성아.

44. 나의 빛줄기가 산 위에 내려앉으니,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묻노라. 어찌하여 너희는 아직도 그 산 기슭에 머물러 있는가? 어찌하여 아직 그 산을 오르지 못했는가?

45. 많은 이들이 마음속 깊은 기쁨으로 내 목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내 말씀을 들을 때 큰 슬픔에 사로잡힌다. 이들은 마치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노예로 느껴지는 자들이다. 그들은 여전히 채찍질로 인한 상처를 안고 있으며, 그들의 갈망은 자유와 빛을 향한 것이다.

46. 내가 온 것은 바로 너희를 위함임을 알라. 내가 너희가 정의와 자유, 사랑을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47. 와서 이 목소리를 들어라. 이 목소리는 너희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힘을 채워 주며, 너희를 깨우쳐, 너희가 파라오에게 등을 돌리고, 너희가 포로로 잡혀 상처 입고 모욕당했던 그의 땅을 떠나게 할 것이다.

48. 시선을 들어 신성한 산이 너희를 향해 올라오라고 손짓하는 모습을 바라보라. 그 산으로 나아가라. 정상에 도달할 것임을 믿고, 첫발을 내디디며 올라가라. 그러면 너희를 묶고 있던 사슬과 너희를 짓누르던 멍에가 뒤에 남겨졌음을 느낄 때, 곧 너희의 기쁨은 커질 것이다.

49. 오, 모든 시대의 백성들아! 너희 마음에서 배은망덕함을 떨쳐내어, 진정으로 너희 아버지의 평화를 체험하라.

50. 이 길을 통해 눈먼 자들은 보게 되고, 지친 자들은 힘을 되찾으며, 절름발이들은 걸을 수 있게 되고, 병든 자들은 치유되며, 슬퍼하던 자들은 기쁨으로 노래할 것이다.

51. 나는 내 백성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 인류에 대한 그들의 영적 사명을 확고히 한다. 나는 천민들을 이웃에게 유익한 사람들로, 스스로를 상속권에서 배제된 자로 여겼던 자들을 예언자이자 영혼의 치유자로 만든다.

52. 이 제3의 시대에 나의 오심을 증언해야 할 이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나는 열방과 각 지방이 너희의 증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너희가 길을 떠날 때, 그것은 너희가 빛의 자녀임을 증명하기 위함이어야 함을 알아두라.

53. 나는 너희가 먼저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맡기는 사명의 영적 위대함을 깨닫기를 원한다. 그래야만 너희 영혼이 그 사명의 책임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54.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이 빛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너희 마음대로 될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한다고 믿는다면, 너희는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이는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단지 길을 닦는 자, 선포자, 예언자, 섬기는 자일 뿐이다.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것이다.

55. 나는 각 제자의 마음에 한 가지 본질을 심어 두었다. 이 본질은 너희의 생각과 기도, 말과 사랑의 행실 속에 드러날 것이다.

56. 너희가 사람들 가운데서 영적인 기쁨이 되어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57. 이 땅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조언자, 인도자, 영혼의 치유자가 되는 것보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58. 자비는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꽃 중 하나이며, 바로 내 뜻에 따라 너희 안에서 피어나 너희 이웃들에게 그 향기를 퍼뜨려야 할 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영혼에 위대함을 부여하고자 하는 이상이나 열망을 품고 있다면, 나는 너희에게

자비의 길을 제시하노라. 나는 너희가 이 길을 따라 나에게로 올라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거의 걷지 않는 이 길을 너희에게 제시한다.

59. 나는 너희가 이 여정의 끝까지 내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다는 만족감을 안고 도달하기를 원한다. 내 말씀은 너희가 여정의 끝까지 확고한 발걸음으로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준다.

60. 내 계시의 마지막 날들에 너희 길에 많은 유혹과 장애물이 나타날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며 깨어 있으라고 촉구하노니, 너희가 깨어 기도하기를 바란다.

61. 오, 백성들아, 강인해져라. 그러면 시련은 지나갈 것이다. 만일 너희가 순종하고 충실함을 지키지 못하고 유혹에 빠진다면, 너희는 끝없는 시련의 사슬을 스스로 만들어 내게 될 것이며, 이는 많은 이들의 이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많은 이들의 마음속 믿음을 무너뜨릴 것이다.

62. 너희 사명을 위한 계획은 이미 세워졌으니, 너희는 그 계획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63.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내가 내 말씀을 마치면, 너희가 준비하고, 공부하고, 숙고하며, 너희 가운데서 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줄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이 영적으로 성숙해졌음을 알게 되면, 너희가 나가서 내가 인류에게 알리라고 너희에게 맡긴 빛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길을 열어 주리라.

64. 내가 너희를 위해 세운 계획은 분명하고 단순하니, 너희가 영성주의자라고 자칭하고자 한다면 이 계획을 조금도 변경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된다.

65. 동료 인간들을 개종시킬 권한을 원하고, 너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방식으로 병자를 치유할 능력과 기적을 행할 힘을 원하는 자는, 나의 법에 충실하고 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사랑과 지혜로 가득 찬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 위한 영감과 능력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66. 내 가르침을 순수하게 실천함으로써 얻게 되는 영적 은사와 열매를 경시하고, 오히려 칭찬과 물질적 보상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져 영혼을 양육하지 못하는 허영과 거짓된 만족에 탐닉하는 자는, 그것이 바로 그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것이며, 나의 사역에서 추구해 온 것이니, 나는 그가 그것을 얻도록 허락하리라.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예정하신 바를 이루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며, 광신과 허영, 물질적 욕망을

버리지 않는 자들은, 나의 명령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따르려는 이들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67. 내가 그들에게 광신주의와 무익한 전통에 얽매어 정체된 채 머물러 있는 백성을 눈앞에 보여 줄 때, 내가 그들에게 여전히 제3시대의 사도들의 도래를 기다려야만 하는 민족들을 보여 줄 때, 나의 명령을 무시하는 자들은 어떤 말이나 핑계로 나에게 대답하겠느냐?

68.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사랑이며, 너희를 끊임없이 지켜보며, 너희가 영적 진보 대신 고통의 잔을 자초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은 나의 빛이다.

69. 나는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그 날을 위해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그 시점부터 이 백성에게 있어 영적인 모든 것이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오래전부터 너희에게, 전통주의자가 되거나 겉모습만을 고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너희의 예배 행위를 마음에서 떼어낼 수 없는 관습이나 습관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왔다.

70. 너희는 모든 것이 무기한으로 같은 형태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너희는 평생 동안 이 모임 장소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 백성아, 너희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이 너희 시야에서 사라져야만, 너희가 진정한 영성화의 빛을 드러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내 메시지의 의미도, 이 사역의 목적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71. 비록 “첫 번째 사람들”은 가르침과 지도가 부족하여 그들을 놀라게 한 계시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사람들’—이 시대의 끝을 증언해야 할 자들—에 속한 여러분은, ‘첫 번째 사람들’의 오류를 고수하고, 제3시대의 여명만을 목격했던 자들이 그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이 메시지의 진의를 여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72. 아니, 너희 마음이 내게 말하리라. 나는 너희 모두에게 말하노니, 이 순간 너희가 품고 있는 이 확신이 너희가 시련을 겪을 때에도 너희를 떠나서는 안 된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순종과 진실함으로 인해 너희 가정에 평화가 깃들 것이며, 너희가 걷는 모든 길에서도 평화를 누릴 것임을 잊지 말라.

73. 다가오는 혼란의 시기를 준비된 마음과 굳건한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라. 모든 이가

진리를 서로 부정하는 때가 왔을 때, 종파와 교회, 철학과 교리가
야기하는 혼란에 너희의 혼란까지 더해서는 안 된다.

74. 내가 영적인 형태로 가르친 이 백성이 평온하고, 자각하며,
경각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 시대로 들어서기를 원하며, 그들의
존재가 그 폭풍우 속에서 빛의 광선이자 위안의 숨결이 되기를
바란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254

1. 나는 받아들이고 주기 위해 오며, 너희의 말을 듣고 너희가 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 온다.

2. 나는 수없이 많은 번에 걸쳐 아버지이자 스승으로서 나를 드러내었다. 오늘 나는 심판자로서 나를 드러내고자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해를 맡겼으니, 이제 그 해의 열매를 너희에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영원 속에서 이 기간은 단지 한 순간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너희가 이룬 행적들은, 너희가 삶의 역사를 기록하는 한 권의 책에 남게 될 것이다. 너희 영 안에 기록된 이 책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치른 투쟁의 흔적을 간직할 것이며, 바로 이 책이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심판자 앞에 바칠 것이 될 것이다.

3. 오늘 너희는 나에게 단지 한 페이지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발전의 길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아주 짧은 기간을 나타내는 것이다.

4. 너희가 위로 올라갈수록 너희의 행위는 더 큰 완전함에 이르게 될 것이며, 너희는 나의 사역을 더 크고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너희에게 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불어넣고, 너희를 일으키며, 깨우치고, 치유해 준다.

5. 나는 너희가 사랑의 이상과 노력, 그리고 너희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얻은 열매를 받아들이고자 한다. 너희는 힘든 시련 속에서 싸웠고, 자갈밭을 헤쳐 나갔다. 너희 육신의 눈은 눈물을 흘렸고, 너희 영혼 또한 흐느꼈다.

6. 지금 이 순간, 너희의 입술은 침묵하고 영혼도 탄식하지 않으며, 너희는 겪은 모든 괴로움을 나를 향한 희망과 이웃에 대한 용서로 바꾸고 있다. 나는 너희의 순종을 축복한다.

7. 너희는 새로운 날을 맞이하여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느끼며, 그 이후로 너희의 영은 더욱 밝아지고 나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너희는 아버지께 그리고 세상에 대해 지고 있는 너희의 책임을 올바르게 깨닫게 되었다.

8. 오늘 너희는 시간이 낭비해서는 안 될 귀중한 보물이며, 너희의 은사는 숨겨져서는 안 될 보석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다.

9. 어둠과 무지의 시대는 여러분에게 끝났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사도로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행하며,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고 있으며, 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공로를 쌓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빛 가운데 살고 있으며, 누군가 그 빛에 눈이 부신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시야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0. 나는 모든 이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내 은총을 쏟아내지만, 각자는 자신의 영적 준비와 성숙도에 따라 그것을 받아들인다.

11. 나는 이제 육신을 입은 존재들의 행실의 결과를 받아들이는데, 이는 지상의 삶이 시간으로 측정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영적인 삶으로 들어갈 때, 시간은 영적인 영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영원이 시간, 날, 또는 해로 측정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12. 나는 온 인류에게 보이지 않는 채로 현존하고 있으며, 그들의 삶은 내 안에서 뛰고 있다. 나는 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 그들의 삶과 행실을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나는 사람들이 혼돈 속에서 방황하며, 마음속과 심지어 영혼 속까지 전쟁을 품고, 살인과 파괴의 무기를 손뿐만 아니라 마음속에도 지니고, 말을 참으로 양날의 칼처럼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이들은 공격하고, 다른 이들은 방어합니다. 어떤 이들은 죽음을 뿌리는 반면, 다른 이들은 생명에 매달린다. 그리고 그림자처럼 새로운 가르침의 망토가 퍼져 나가며, 마음에서 마음으로, 영혼에서 영혼으로 전파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직면하여 사람들과 민족들은 떨며, 전능하신 분이 왜 이 파멸적인 가르침의 확산을 막지 않으시는지 자문한다. 이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신다. “나는 그것들이 싹트고, 자라고, 꽃피고, 퍼져 나가며 열매를 맺도록 허락하노니, 이는 인류가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들을 알아볼 수 있게 하려 함이라.”

13. 이 가르침들과 이론들, 그리고 세계관들은 세상에 퍼져 나갈 것이니, 이는 사람들이 모든 열매를 맛본 후에 생명의 나무로 눈을 돌리고, 진정한 열매—맛에는 단맛이 있고 본질에는 생명이 담긴 그 열매—가 바로 내가 태초부터 사랑의 법칙을 통해 너희에게 베풀어 온 것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14. 사람들의 평화는 덧없는 것이다. 오직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만이 영원하다.

15. 나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 너희에게 말하며, 나의 말씀은 내가 예로부터 너희 안에 뿌려 온 그 사랑의 씨앗과 같다.

16. 나는 너희에게 힘을 주었으나, 그 힘을 통해 이웃에게 내 뜻을 강요하기 위함이 아니다. 나는 너희 영혼을 해방시켰으나, 그 자유를 악용하기 위함이 아니다. 나의 무기는 진리, 사랑, 자비, 평화, 용서이다.

17. 너희가 나를 합당하게 대변하고 나의 충실한 증인이 되려면, 나의 가르침을 활용하고 나의 말씀에 깊이 몰입하여, 너희를 분열시키고 — 어떤 이들은 외적인 예배 형식과 전통을 옹호하고 보존하려 애쓰는 반면, 다른 이들은 내 가르침의 본질과 영성을 위해 투쟁하게 만드는 —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내가 모세를 통해 인류에게 준 율법의 첫 번째 계명에서 “너희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음을 기억하라. 그때부터 인간을 위한 길과 영혼을 위한 길은 분명히 제시되어 왔다.

18. 모세는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 생활을 위한 부차적인 법들도 제정하였으며, 영적 예배 안에서 전통과 의례, 상징들을 도입했는데, 이 모든 것은 당시 인간 정신이 밟아가던 발전 단계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전통과 의례, 상징, 제사를 없애시고 오직 율법만은 그대로 남겨 두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반대한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들에게 내가 율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나의 가르침이 전통들을 없애게 된다면, 그것은 백성들이 그 전통들을 지키느라 율법을 따르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19. 백성들아, 그 사건이 이 시대에 다시 반복되었다. 1866년에 로케 로하스의 인간적 이성을 통해 나의 현존이 계시되었고, 그가 그것을 너희에게 알렸다. 그러나 그 역시 너희가 계시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전통과 예배 형식, 상징들을 만들어 냈다.

20. 이제 내가 더 이상 이러한 형태로 너희에게 말씀하지 않을 때가 가까워졌으니, 너희가 “성령의 제자”라는 칭호를 당당히 지닐 수 있도록, 너희 예배와 행동 방식 속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물질주의와 광신주의를 너희 마음에서 지워버리고자 한다. 그러나 명심하라. 내가 불필요한 전통과 관습을 제거한다고 해서, 내가 내 법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제2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너희는 전통을 따르기 위해 진정한 영적 하나님 숭배와 인류에 대한 너희의 의무를 저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21. 너희가 아버지를 경배함에 있어 이미 모든 물질주의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영성화의 정점에 도달했다고 자만하여, 종파나

교회를 따르는 모든 이들을 미성숙한 자들로 여기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이웃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지만, 너희가 스스로 짙어지고 다니는 들보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2. 사람들은 전통과 형식, 의식에 지쳐 있다. 나는 그들에게 빛을 찾아 해마다 지친 영혼을 위한 안식처로서, 내 가르침의 빛을 보여주고자 한다.

23. 백성아, 나를 너희의 재판관으로 삼아라. 너희 양심 속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음성을 들어라. 나에게서 보답이나 찬양을 구하지 말고, 상을 바라는 마음을 품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그러한 만족을 허락한다면, 너희는 그것을 잘못 사용하여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할 것이다. 내 자녀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자처럼 겸손하게 나를 찾으라. 무언가를 후회한다면 내 앞에 머리를 숙여라. 내가 너희의 재판관이 되어 지극한 진실함으로 너희에게 말하며, 자비로 너희를 바로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말씀 뒤에서, 결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것, 모든 갈망 위에 있는 것에 대한 신성한 약속을 깨닫게 될 것이다.

24. 나는 너희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노니, 그것이 종소리처럼 잠든 자들을 깨우고, 힘과 치유와 생명을 베풀게 하려 함이라.

25. 불길한 사건들이 인류를 나개로 돌아오게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깨어 있고, 기도하며, 씨를 뿌려라. 그러면 내 영의 빛과 평화가 마음에서 마음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26. 내 말씀은 사람의 뇌와 입술을 거치지만, 빛과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 너희 무리여, 준비하라. 그리고 내가 나의 대변자들을 통해 나를 드러내게 하라. 그리고 이 높고도 섬세한 임무를 위해 선택받은 너희는 — 더욱더 준비하라. 내 말씀을 순수하게 전할 능력이 없다고 느끼는 자는 준비해야 한다. 만약 그럴 능력이 없다면, 차라리 침묵하고 입을 다물어야 한다. 그러나 너희의 보잘것없음, 서툰, 혹은 겸손함이 나의 계시에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나는 서툰 자와 무식한 자를 사용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내가 비난하는 것은 불의와 죄이다.

27. 나는 너희가 합당한 자들이 되어, 내 말씀의 마지막 몇 년 동안 나의 계시가 잇달아 이루어지고, 모임 장소에서 어떤 불만도 들리지 않기를 원한다.

28. 나는 가장 거대한 별들부터 너희 눈에는 간신히 보일 정도의 존재들에 이르기까지, 온 창조물의 경의를 받았다. 모든 것은

발전의 법칙에 따르며, 모든 것은 그 길을 가고, 모든 것은 전진하며, 모든 것은 변화하고,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며, 완전해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완전함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 나의 영적인 미소는 마치 끝없는 새벽빛처럼 온 우주에 퍼질 것이며, 그곳에서는 모든 흠과 모든 비참함, 고통, 그리고 모든 불완전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29. 내 말씀의 핵심에서 나의 공의를 깨달아라.

30. 오, 무리들아, 나의 말씀은 내가 너희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니, 바로 나를 위해 거의 뛰지 않았던 그 마음을 말이다.

31. 오늘 너희는 너희를 준비시키기 위해 맡겨진 마지막 세 해 중 두 번째 해를 시작한다.

32. 오늘까지 너희는 무엇을 성취했느냐?

결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양심의 빛 속에서 스스로를 성찰해 본 결과, 너희는 연합과 영성화를 향해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33. 너희는 나의 질책에 익숙해져서, 나태하게 뒤로 기대어만 있다. 그러나 너무 자만하지 말고, 내가 너희 가운데서 내 계시를 드러내는 시간을 더 연장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만일 너희가 이 오류에 빠진다면, 너희는 속임수를 당하며 속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34. 내가 이미 허락해 준 기회들 외에 또 다른 기회를 감히 요구할 자가 누구겠느냐? 오직 어리석은 자나 무지한 자뿐이다. 그러나 너희는 무지하지 않다. 내가 해마다 끊임없이 너희에게 말해 왔기 때문이다.

35. 내가 왜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가? 몇몇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이러한 소망과 은밀한 의도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 소망과 의도는 실행에 옮기지 않았음에도 이미 내 사역의 진실성과 순수성을 더럽히고 있다.

36. 내 말씀이 끝없이 이어지기를, 모든 것이 지금까지와 같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이 소망은, 그들에게 맡겨진 귀중한 시간을 활용하지 못했고, 이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을 원한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그 누구도 신의 결정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의 완전함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7. 오, 백성들아, 내 명령을 무시하지 말라! 만일 누군가 그렇게 한다면, 그는 내 공의를 목격하게 될 것이며, 이 나라에 거침없이 쏟아지는 자연의 힘을 보게 될 것이다. 그 힘은 그가 내 사랑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게 순종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할 것이다.

38. 그들이 그릇된 길에서 깨어나 영적 퇴보를 깨닫게 될 때, 고대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여전히 자연의 힘을 통해 그들을 일깨우고 징벌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될 때, 그 영혼들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과 후회가 닥칠 것인가!

39. 나는 이 백성 가운데서 모든 불순한 씨앗을 제거하고, 내일 인류가 나를 알아볼 수 있게 해 줄 선한 씨앗만을 남겨 둘 것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혼란스럽고 불순종하며 광신적인 백성을 통해 내 진리의 광채를 볼 수 있겠는가?

40. 이 준비의 날들은 너희, 백성아, 깊은 성찰로 가득 차 있으니, 이 자기 성찰과 양심 점검을 거친 후 너희가 따르고자 하는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내 뜻을 행하는 자는 평안히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며, 자기 뜻을 행하는 자는 때가 되면 무자비하게 닥칠 시련을 감수하기로 결심해야 할 것임을 명심하라.

41. 내 명령을 따르는 자 안에는 참된 평화가 있을 것이니, 그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뜻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 지시를 무시하는 자 안에는 단 한 순간도 평화가 없을 것이다. 그는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을 듣고,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42. 나는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며, 오직 너희의 행실로부터 자연스럽게 따를 수 있는 결과를 적시에 너희에게 알려주는 데 그칠 뿐이다. 내가 이를 적시에 말하는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며, 너희가 이를 피하고, 진실을 직시하며,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43. 불순종하는 자는 언제나 교만하다. 그러나 누가 *자신의* 뜻을 행하거나 아버지의 뜻을 바꾸게 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가? 누가 자신 안에 있는 은사를 진정한 공로로 인해 받았다고 믿는가? 누가 이 백성이 나의 신성한 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믿는가?

44. 너희의 이성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고, 양심의 목소리를 잠재우지 말며, 육신의 유혹이 너희 영혼을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매우 비통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45. 너희에게 힘이 결코 부족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를 엄격히 판단하라. 그러면 너희의 영이 너희의 이성과 마음에 빛을 쏟아 부어, 너희 가운데 평화가 깃들게 할 것이다.

46. 나의 가르침은 너희 영혼에게 계속해서 한 장 한 장 ‘생명의 책’을 보여주고 있으니, 이 가르침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너희 영혼은 강하고 준비된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47. 너희가 진정으로 초기의 선지자들처럼 활동하고, 그들처럼 인류의 길 위에 등대 역할을 하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있다면, 영성화를 향해 나아가라. 이 가르침들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영성화의 교훈이 되므로, 영성화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48. 내가 너희에게 예고했던 그 영성화된 영혼들의 세대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 메시지가 여러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 널리 퍼져야 함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야만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은 백성과, 그 백성의 증언을 믿고 그들에게 합류한 이들을 통해 이미 평탄해진 길을 만나게 될 것이다.

49.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상생을 의미하는 이 길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을 것을 촉구한다. 멈춰 서지 말아라. 만약 멈춘다면, 그것은 어떤 계획을 성숙시키거나, 믿음을 굳건히 하거나, 깊이 생각해야 했기 때문이어야 하며, 그로 인해 유익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후에는 다시 앞으로 나아가라.

50. 얼마나 많은 이들이 마음속으로 나에게 말하느냐? “스승님, 왜 이 시대에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셔서, 우리가 당신의 현존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나는 또 다른 질문으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이러한 형태로 나의 현존을 원한다면, 그것이 곧 다시 내 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를 이렇게 받아들이라. 영 안에서,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너희 영혼의 모든 감각으로는 감지할 수 있는 존재로.

그 당시 나는 내 가르침에서 설교했던 사랑을 그 피로 확증하기 위해 내 피를 흘렸다. 오늘 나는 모든 이에게 신성한 본질을 쏟아붓고 있다. 이는 사람들이 배은망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증명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그들에게 빛나는 길을 보여 주기 위해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길은 그들이 영원히 나의 왕국에서 나와 함께 거하게 할 것이다.

51. 다른 이들은 영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그토록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적어도 결코 우리에게서 빼앗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들이 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활용하고 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말씀을 끝냈다고 선언할 때가 오더라도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니, 너희의 영혼은 나의 본질로 스며들고 나의 빛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가르침 중 일부나 많은 부분을 기억에 간직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나는 이 시대의 나의 말씀을 담은 책을 만들도록 명했다. 나의 신성한 가르침으로 만들어진 이 책 속에서, 너희는 초기 영성주의자들이 이해하지 못해 물건이나 상징으로 표현해야만 했던 진정한 언약궤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52. 참된 언약궤는 나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열고 경외심과 영성, 그리고 사랑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 바닥에서 지혜와 깊은 계시, 예언, 그리고 모든 영적 은사를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의 말씀이 더 이상 불완전한 인간의 대변자들을 통해 들리지 않을 때 이 언약궤를 찾게 될 것이며, 그때 너희는 명상 중에, 공부하는 순간에, 혹은 기도하는 순간에, 너희 존재의 가장 섬세한 부분으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더 높은 빛이 스며드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너희를 감싸는 아버지 같은 영향력이며, 인간의 것이 아닌, 그 자체의 완전한 방식으로 너희에게 말하는 목소리이다. 그것은 영혼과 영혼 사이의 진정한 대화를 통해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나의 영감의 빛이 될 것입니다.

53. 축복받으소서 — ‘선구자들’이 유산으로 남긴 예배의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의식들을 많이 제거하고 오직 본질적인 것만 간직할 수 있었던 여러분. 그러나 아직 정화해야 할 것이 남아 있고 영성화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54. 너희 영혼이 이 땅에서 내가 기대하는 바를 따라 나에게 경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그러나 만약 너희 영혼이 이곳을 떠나 영적인 계곡으로 갈 때, 내 사업에 합당하지 않은 무언가를 남겨둔다면, 너희가 남긴 유산을 검토할 새로운 세대들은 너희가 남긴 불순한 것들을 모두 제거할 줄 알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너희가 감히 내딛지 못했던 그 한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다.

55.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예배 의식을 더욱 정화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완성할수록, 너희 뒤를 이을 자들이 겪어야 할 고통은 줄어든 것이며, 너희의 공로가 내 앞에서 더욱 커질 것이다. 이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그들에 대한 이웃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다.

56. 너희는 너희보다 앞서간 형제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바로잡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해야 했는지 직접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 고통스러운 일을 너희의 발자취를 따르는 이들에게 떠넘기지 말라.

57. 제2의 시대에, 나의 떠남이 이미 매우 가까워졌을 때, 나의 가르침은 절정에 달했다.

58. 제자들은 — 스승과 함께 보내는 마지막 순간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 그 말씀의 마지막 한 마디까지 놓치지 않고 듣고 마음속에 간직하기 위해 온전히 주의를 기울였다.

59. 예수님의 신성한 소망은 제자들이 그분의 구원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즉 아버지와 자녀들 간의 마지막 대화가 절정에 달했을 때, 그분은 사랑 어린 어조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분은 그 지극히 높은 계명의 빛으로 인류에게 가장 큰 희망을 불어넣으셨습니다.

60. 내가 너희 가운데서 나의 계시를 곧 마칠 이 시기에조차, 나는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경청하는 경건함과 주의를 보고 있다. 그것들은 나의 새로운 제자들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게 새겨질 것이다.

61. 내가 당시 사도들에게, 그들이 세상에서 마치 늑대들 사이의 양과 같을 것이니 항상 깨어 살아가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 나는 너희에게 준비해야 하며, 깨어 있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많은 이들이 너희를 대적하여 일어나, 비방이라는 무기를 사용하고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62. 지금은 투쟁의 시기이니, 너희 모두 이를 알고 있어 누구도 놀라지 않도록 하라.

63. 나는 너희가 내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갈망하며 깊이 탐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최대한 단순화해 두었다. 때가 되면, 너희는 사람들이 던지는 어떤 질문에도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설득하기 위해 많은 말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너희가 진정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너희의 말은 단순할 뿐만 아니라 간결할 것이다. 과학자에게 대답하기 위해 과학을 알 필요도, 신학자에게 대답하기 위해 신학을 알 필요도 없을 것이다. 빛의 한 마디가 모든 것을 밝히며, 나는 너희 입술에서 빛의 말씀이 나오기를 원한다.

64. 이 시대에 나를 들은 모든 사람이 일어나 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이들, 즉 자신의 이웃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 자비와 위로를 베푸는 이들이 나설 것이다.

65. 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깊이 느끼는 이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바로 그들이 모든 반대에 맞서야 하며, 진리와 사랑과 정의의 무기를 들어야 할 자들이다. 고난을 겪으며, 이미 오래전부터 그 정의와 진리에서 멀어진 이 세상 속에서, 이 씨 뿌리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평화와 신뢰로 가득 차서 제3시대의 영적 메시지를 세상에 전파할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255

1. 너희는 투쟁과 기도, 그리고 공덕을 쌓아야 할 시기에 접어들었다. 너희는 이제 즐거움의 시간이 끝났음을 느끼며, 인류가 절망에 빠져 있고, 너희에게는 말과 행동으로 그들에게 기쁜 소식과 내 오심에 대한 증언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발걸음을 서둘러야 함을 깨닫고 있다.

2. 보라, 모든 교파와 종파에 속한 사람들이 내 오심을 예고하는 징조를 발견하길 바라며 시간과 삶, 그리고 사건들을 살살이 뒤지고 있다. 그들은 내가 이미 오랫동안 나를 드러내 왔으며, 머지않아 이러한 방식의 계시가 끝날 것임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또 말하노니, 나를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내가 나를 드러내는 방식을 직접

목격한다면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단호히 나를 거부할 것이다.

3. 그들에게는 오직 증언들만이 전해질 것이며, 이를 통해 그들은 내가 내 자녀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결국 믿게 될 것이다.

4. 너희 또한 마음속으로 조바심을 내며 나를 기다렸으나, 나는 너희가 나를 알아보고 이 시대의 나의 일꾼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5. 세상이 내가 드러난 방식을 비웃을지라도, 그들은 나를 비웃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비웃는 것이다. 그들은 모든 피조물이 신성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6. 내게 있어 내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옳은 일은, 그들이 죄인이며 부정한 존재라는 핑계를 대지 않고, 내가 그들에게 베푼 재능을 통해 그들에게 나를 드러내는 것이다. 자녀가 아버지를 알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느끼며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보다 더 좋은 동기가 어디 있겠는가?

7. 옛 예언에 따르면, 죄인이든 아니든 모든 눈이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해졌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의인을 통해 나를 드러내고자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시련 속에서 그리고 회개의 순간에 정화된 죄인을 갈망하며 온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음을 알 때, 온전히 갱신과 덕의 길을 걷는 자녀이기 때문이다.

8.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변자들 중, 누가 내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자신이 지닌 은사와 자신이 맡게 될 사명을 짐작했느냐?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평생 마치 용광로 속에서 단련되듯 정화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은사는 그것을 드러낼 때가 올 때까지 비밀로 남아 있었다.

9.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영혼이 아버지와의 더 높은 교감을 경험하게 되는 시작이자 준비 과정인데, 너희는 놀라워했다. 내가 적절한 때에 너희에게 드러내려고 준비해 둔 모든 것을 미리 안다면, 너희는 내가 왜 너희를 그토록 사랑하는지, 또 그토록 큰 은총을 얻기 위해 너희가 쌓아야 할 공로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10. 1866년에 이 사역의 제자인 최초의 영성주의자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내 영의 빛 아래서 엘리야의 가르침을 받은* 그 첫 제자들은, 이제 그 메시지가 마무리되기 직전에 여러분이

풍성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 메시지의 광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11. 그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로케 로하스가 세운 그 “나무 줄기”에서 뻗어 나온 많은 공동체가 가지처럼 형성되었습니다.

12. 이 백성을 이루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단 하나의 빛이 비추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 각 교회들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가! 오랫동안 너희는 단순하고 명확하며 이해하기 쉬운 가르침을 통해 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기뻐해 왔다. 그러나 영적 가르침의 진의를 설명할 수 있었던 이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13. 내 계시가 이러한 형태로 끝나는 데는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백성의 대다수는 여전히 진리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 “첫 번째” 사람들부터 “마지막”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나는 그들이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신성한 계시를 물질화해 버린 사실을 용서해 주었다. 그러나 영적 가르침이 수년에 걸쳐 널리 퍼지고, 나의 말씀이 이 사역을 조금씩 더 자세히 설명해 온 지금, 나는 여러분이 익숙한 궤도를 벗어나, 나의 가르침의 핵심에 조금 더 깊이 다가서며, 영성화의 길로 단호하고 확고한 한 걸음을 내딛도록 촉구할 때가 왔음을 본다.

14. 너희가 상징과 형상, 외형적인 예배 형식과 물질화된 것들을 통해 나를 찾고 숭배하는 한, 어떻게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내게 말하길, “이는 ‘초대 신도들’의 유산이며, 우리는 그것을 존중합니다.”라고 한다.

자, 백성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초대자들’은 단지 너희를 위해 길을 닦아준 선구자들에 불과하며, 그들이 시작한 그 형태의 신 숭배와 영적 교류를 *너희*가 완성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15. 신성한 법을, 그 법을 해석하기 위해 너희가 가진 종교나 방법들과 혼동하지 말라.

16. 법은 영원하고 불변하지만, 종교와 숭배 형식, 그리고 행위는 그것을 따르는 이들의 도덕적·영적 발전에 따라 발전하고 변화한다. 만약 이러한 영적 발전이 없었다면, 너희는 여전히 원시 민족들처럼 별과 자연의 힘 속에서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을 것이다.

17. 나를 사랑하고, 섬기며, 경배하는 방식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항상 앞으로 나아가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개선하며, 완전함을 향해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그 법을 건드리지 말고,

바꾸지도 말고, 대체하지도 마십시오. 그 법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지극히 높은 진리를 가르쳐 줄 것이며, 여러분이 그것을 완벽하게 이행하도록 항상 요구할 것입니다. 그 법은 보편적인 법으로서 현재와 영원히 존재하며, 너희에게 하느님에 대한 참된 사랑과 참된 이웃 사랑을 가르쳐 줄 것이다.

18. 관습이나 숭배 형식, 전통을 고수하는 자들이 되지 마라. 그렇게 되면 너희는 수세기 동안 교리 맹신과 무지의 무기력함에 머물게 될 것이다. 대신 율법과 진리의 수호자가 되어라.

19. 이 시대에, 전통에 얽매이고 보수적이며 광신적이었던 탓에 수 세기 동안 기다려 온 메시아가 가져다준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없었던 ‘제2시대’의 유대 백성처럼 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왔을 때, 그들은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진리의 빛을 볼 수 없었기에 그분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20. 오늘 나는 너희에게 단 두 단어만을 남기니, 너희가 이를 깊이 탐구하고, 충분한 준비를 통해 그 모든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라. 바로 “영성주의”와 “영성화”이다. 오직 그렇게 — 명상하고, 기도하며, 깨어 있는 가운데 — 너희는 이 가르침에 근거하여 너희 주님께 드려야 할 참되고 올바른 하나님 숭배가 어떠한지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1. 그렇다, 백성들아, 외적인 예배 형식을 통해 나를 사랑하고, 형상과 상징 속에서 나를 찾으며, 전례와 의식, 기념식을 통해 나를 숭배하기 위해, 너희 마음이 여전히 그러한 예배에 대한 갈망이나 필요를 느끼고 있다면, 너희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많은 교회와 많은 종파들이 있다. 그러나 이 영적 사역을 통해 나를 섬기고 사랑하며, 따라서 나를 숭배하는 다른 형태를 거부하고자 한다면, “영성주의”와 “영성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아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가 진정으로 이 가르침의 제자가 되고자 할 때, 관습, 규칙, 전통, 그리고 외형적인 예배 형식을 강요하는 자들 중 하나가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다시 물질주의와 우상 숭배, 광신주의에 빠지게 될 것이며, 영성주의에 대해서는 이름만 알게 될 것이다.

22. 내 가르침에 적응하고 부합하고자 하는 노력 속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높이 올라가라. 그러나 그 반대를 행하지 말라. 즉, 내 가르침을 너희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나 편의에 맞추려다 보니, 그것을 물질화하거나 훼손하거나 왜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23. 오늘의 이 가르침은 이를 들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 그들이 이 가르침에서 영감을 얻고, 오랫동안 그들을

웁아매어 온 그물을 끊어 버릴 수 있도록 에너지와 열정, 사랑, 그리고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란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성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진정한 개념이 형성되어야 하며, 그들의 가슴 속에는 이 빛과 완전함의 가르침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겠다는 고귀한 이상이 싹트어야 한다.

24.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의 차이점이 사라지고, 현재 너희 사이에 만연한 불화가 형제애로 바뀌며, 너희가 너희의 사명을 이해하게 되면, 너희 영혼에는 갈망이, 너희 마음에는 충동이 솟아나, 내 말씀 안에서 받은 영성화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길을 떠나게 될 것이다.

25. 너희에게 깨달음의 순간이 올 것이니, 그때 너희는 이 사역의 위대함을 지극히 명확하게 깨닫게 될 것이며, 그 근처에서 너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경이로운 계시들을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저절로 길을 떠나 온 땅에 퍼져 나가며, 가는 길마다 자비와 빛, 그리고 위로를 베풀게 될 것이다. 주변 사람들의 비판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며, 가족들의 무시는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사명의 위대함에 비하면 이 땅의 모든 고통은 하찮게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26. 고통에 무감각해질 정도의 영적 경지에 이르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자비의 망토로 보호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27. 믿음, 사랑, 영성화는 제3시대의 전사들과 사도들을 무적의 존재로 만들어 줄 세 가지 미덕이다. 이 미덕들은 태초부터 나의 존재와 임재, 나의 법과 진리를 증언해 온 모든 종들에게서 드러났다.

28. 이 종들 가운데서 너희는 족장들과 예언자들, 사도들과 순교자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그들만이 유일한 것은 아니었으며, 각자의 사명을 수행하고 나의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다양한 길을 걸으며 온갖 공격과 조롱, 박해, 비방을 견뎌낸 이들이 훨씬 더 많았다. 그들의 믿음, 그들을 해친 자들에 대한 관용,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이웃에 대한 변함없고 충실한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고통과 불의, 그리고 죽음을 이겨내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순교자들이 처형자들에게 보인 순종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랐던 모든 이들이 박해 앞에서 보인 인내와 평정심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29. 너희가 나를 그토록 사랑한다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이다. 너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고 사랑이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는, 그 투쟁이 너희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30. 너희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왜 너희를 감옥에 가두고, 왜 너희의 목숨을 앗아가겠느냐? 너희는 이미 그 시절이 지났다는 것과, 진리의 적들에게 순교와 감옥, 그리고 형장이 내 종들의 믿음을 꺾는 대신 오히려 그들의 사랑의 불길을 더욱 지피고, 내 가르침을 더 큰 힘으로 전파하게 만들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31. 너희는 이웃들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서의 평화를 잃을까 두려워한다. 차라리 너희 하느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거나, 사명을 다하지 못해 영혼의 평화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32. 오늘 너희는 내가 ‘약속의 땅’을 위해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언젠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며, 심지어 그곳에 있을 자격조차 없다고 느끼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이토록 큰 은총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한 일이 얼마나 미미했는가!”

33. 너희는 마음속으로 나에게 묻는다. “스승님, 혹시 우리가 받을 자격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건가요?” 이에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노니, 만일 내가 너희의 행위에 따라 준다면, 너희는 아주 적거나 아무것도 갖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가진 그 삶, 너희가 소유한 그 몸, 너희 존재 안에서 솟아나는 그 은사들, 그리고 너희 존재를 둘러싼 모든 것이 너희의 공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믿느냐?

34.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의 아버지이기에, 너희가 정당한 대가로 받을 만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었고,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줄 것이다.

35. 백성아, 너희는 믿음과 사랑이 부족함을 깨닫고 울고 있다. 그러고는 나에게, 어떻게 해야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앞에서 공로를 얻을 수 있는지 묻는다. 이에 나는 너희가 최선의 의지로 이웃을 섬겨야 하며,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너희 자신의 아픔으로 삼아야 하며, 너희의 재능을 발휘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그것을 완성해야 한다고 대답한다. 너희가 이웃에게 행하는 바에 따라, 너희가 영의 세계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받게 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36. 나에 관해 말하자면, 너희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 중 내가 아직 갖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나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평화를 가지고 있으며, 빛을 가지고 있다. 나는 우주의 주인이요,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고 섬긴다. 나는 완전함 그 자체이므로, 내 영에는 이기심의 그늘조차 조금도 없다.

반면, 내 영의 자녀인 너희 이웃들 가운데에는 — 얼마나 많은 비참함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둠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궁핍이 있는가! 왜 너희는 그들 안에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왜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사랑을 내게 바치지 않는가?

37. 백성아, 이것이 네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이며, 너희의 결단을 위한 나의 천상의 조언이다.

38. 내가 인류를 대신하여 받아들이는 사랑하는 자녀들아, 인간의 이성을 통한 나의 계시가 끝날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 후에는 너희의 영이 나의 신성과 영과 영 사이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9. 오늘 내 말씀은 너희의 방패이자 격려이다. 그러나 이 계시 기간이 지난 후에도 너희는 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40. 너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지도자가 필요했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부터 이 길을 따르는 모든 이는 내 율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을 것이며, 자신의 양심 외에는 다른 지도자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범과 영감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돕는, 큰 빛과 큰 영적 힘을 지닌 남녀들이 항상 있을 것이다.

41. 만약 상황이 달랐다면, 나는 이미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영들을 땅에 보내어 너희에게 길을 제시하고 끊임없이 율법을 상기시켜 주게 했을 것이다. 그들도 여전히 너희 곁에 있어 너희를 보호하고 동행하지만,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그러할 뿐이다. 누가 그들을 볼 수 있겠는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너희가 마음을 다잡으면, 인류와 항상 연결되어 있었고 인류 안에서 위대한 사명을 완수해야 했던 위대한 영들의 임재를 너희 위에 느낄 것이다.

42. 기도 속에서 그들에게 의지하라. 그리고 너희가 진정으로 그들을 신뢰한다면 —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 너희는 결코 파멸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너희에게 그토록 많은 증거를 보여주었던 바로 그 사랑과 헌신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43. 다시 한 번 말하노니, 이 세상에는 큰 빛을 지닌 사람들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너희의 길을 비추고 너희 삶에

사랑을 뿌려 줄 것이다. 인류는 언제나 지상에서 그러한 사람들의 존재를 누려왔으나, 이제 너희가 만들어낸 그 잘못된 세상을 없애고, 평화가 깃들며 진리가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을 세우기 위해, 수많은 고귀한 빛의 영들이 세상에 태어나는 시대가 올 것이다.

44. 그분들은 사람들의 악함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중 누구도 박해와 조롱, 적대감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곳에 머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상에서 그분들의 존재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45. 그들은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어루만질 것입니다. 아버지의 의로 가득 찬 그들의 말씀은, 겸손이라는 영혼의 옷을 허영과 오만, 거짓 권력과 거짓 영광이라는 호화로운 옷으로 바꿔 입은 모든 이들의 교만과 자만심을 정면으로 겨냥할 것입니다.

46. 이들은 가장 먼저 일어나 분노로 떨리는 손가락으로 나의 사자들을 가리킬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나의 종들이 그들이 겪는 모든 시련 속에서, 세상에 가져온 진리에 대한 위대한 증언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47. 너희는 현재 그들이 인간 삶의 어떤 길에서 나타날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어떤 이들은 거대한 종교 공동체의 품 안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들은 모든 사람의 통합과 영적 조화를 위해 싸울 것이다. 다른 이들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그들의 영감의 결실을 통해 과학의 진정한 궁극적 목적이 인간의 영적 완성이지, 인간의 비참화와 파멸이 아님을 보여 줄 것이다. 이처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법을 마음에 품고, 말과 행실로 내가 이 시대에 너희에게 전한 모든 것을 확증할 나의 종들이 드러날 것이다.

48.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받아들이는 이 가르침인 나의 씨앗이 너희 안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 열매는 너희 자녀나 너희 자녀의 자녀들 속에 환생할 위대한 영혼들이 될 것이다.

49. 이것이 이미 나의 마지막 가르침들이나, 나는 여전히 너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이는 내가 스승으로서의 사명을 마지막 순간까지 다하기 위함이며, 신성한 정의가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하게 드러나는 괴로움과 고통의 시기에 너희가 어둠 속에 머물지 않도록, 나의 모든 말씀에 빛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다.

50. 사랑하는 백성들아, 세상을 위해 깨어 기도하라.
51. 내게로 오라. 나는 위로이자 평화이다.
52. 너희는 이 땅에서 고통과 불행을 겪어왔는데, 이는 영혼이 인간의 곤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신의 능력과 은사를 펼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53. 사람들이 선한 의지를 가졌다면, 이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가 아니라 낙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고향을 축복으로 가득 채웠을 것이며, 길에 가시를 뿌리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의 고통은 그들의 잘못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그들이 고통을 만들어낸 것처럼,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54. 내 말을 듣는 너희는 길을 잃거나 방황하는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마치 거대한 나무 그늘 아래에 집을 지은 가족과 같으니, 그 나무의 가지들은 끊임없이 너희에게 열매를 내어준다.
55. 이 그늘 속에서 너희는 새로운 힘을 얻고 상처를 치유할 것이다. 왜냐하면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 다시 여정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56. 이미 너희의 영혼은 하늘 사다리의 여섯 번째 가로대까지 올라가고 있다. 그곳에서 너희는 모든 오류를 없애 주는 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 빛은 너희가 일곱 번째 단계를 밟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57. 나는 너희 사이에 존재하는 일곱 봉인에 대한 혼란과 잘못된 해석들을 없애 주겠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특정 봉인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 너희 영혼이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거쳐야 하므로 — 오늘날 여섯 번째 봉인의 시대, 즉 영혼 발전의 여섯 번째 시기에 살고 있다.
58. 한 인장에서 다음 인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영혼이 통과해야 했던 교훈과 시련이 얼마나 컸던가! 얼마나 많은 공덕을 쌓아야 했는가! 그러나 정점인 일곱 번째 인장의 공덕은 아직 부족하다.
59. 유혹을 동반한 악의 세력은 끈질기게 너희 앞길을 가로막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과 고통, 그리고 육신을 이겨내신 너희 스승을 기억할 것이며, 그분의 모범을 따라 시련에서 승리로 나아갈 것이다. 너희 마음속에서 싸울 칼을 찾으라. 그곳에서 너희는 언제나 준비된, 결코 실패하지 않는 무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60. 내 빛의 불꽃을 품고 있는 영혼이, 그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으며, 내가 모든 길에서 그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내게 있어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비록 그 영혼의 반항이 지속되거나

혼란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 이 어두운 세력들은 결코 나의 영원함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61. 나는 너희를 다시 한번 해방시켰다. 아니면 너희가 광신적인 과거와 편견을 떨쳐낸 후, 너희 영혼이 더 자유로워진 것을 느끼지 못하는가?

62. 나는 생명이요,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생명을 부여 주었으나, 항상 나 자신을 드러낼 한 민족이나 일군의 사람들을 찾아왔습니다. 이는 그들을 인류를 섬기는 나의 신성을 전하는 사자, 예언자, 또는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었지, 다른 이들보다 더 큰 사랑이나 호의를 베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63. 내 자녀들아, 내 말씀으로 힘을 얻어, 너희 이웃을 진정한 이웃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라. 죄인이나 악한 자, 광신자, 오만한 자를 심판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 너희는 양심 속에서 내게서 “깨끗한 자만이 첫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가르침 256

1. 백성들아, 너희가 선의로 내 말씀을 들을 때, 너희 영혼은 내 평화를 느끼게 될 것이다.

2. 나는 너희 마음속의 정원을 가꾸고, 내 사랑의 하늘의 물로 그 정원에 물을 주는 신성한 정원사이다. 나는 인류의 모든 괴로움 위에 이 신성한 사랑의 한 방울을 쏟아 붓는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의 왕국으로 이끄는 길을 안내한다. 너희는 그 길의 끝을 결코 발견하지 못하겠지만, 항상 진전을 이루고 새로운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3. 현재 내 말씀은 너희를 다듬어 형태를 갖추게 하고 있다. 나는 정교한 끌로 너희 영혼을 다듬고 있다. 너희도 내 율법을 지키며 스스로를 갈고닦아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도록 배우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일을 축복하여, 너희가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고, 이웃들을 이 사랑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리라.

4. 나는 너희의 스승이다. 그러나 나를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존재로 보지 말라. 나는 곧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아들과 성령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니, 성령과 아들은 단 하나의 영이며, 그 영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나의 계시 속에서, 다양하고 각기 다른 교훈을 통해 너희를 가르쳐 온 단 한

분의 하나님을 보라. 그것은 마치 많은 페이지가 있는 단 한 권의 책과 같다.

5. 너희의 행실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는 무지와 죄의 어둠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줄 그 빛을 너희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6. 백성아, 너희가 내 말씀으로 빚어지기 전에 누구였는지 기억하느냐? 너희가 이전에는 오늘날에는 결코 저지를 수 없는 수많은 배은망덕한 행위들을 저지를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느냐? 너희는 오늘의 삶을 과거의 삶과 비교할 수 없다. 과거에 너희는 존재를 기쁘게 하고 그 안에 희망을 불어넣어 줄 빛 없이 길을 걷던 외로운 지상의 순례자들이었다. 오늘날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이며, 그 사랑의 샘에서 너희의 갈증을 해소하고 상처를 씻어냈다. 나의 사랑은 너희 발에 박힌 가시를 뽑아 주며, 너희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다면, 그 못들도 마찬가지로 뽑아 주리라.

7. 나는 이 세상과 모든 세상의 빛이며, 너희가 이 빛으로 옷 입기를 원한다. 나의 말씀은 치유의 연고이니, 그것으로 치유하고, 경청하며, 실천하라. 모든 말씀은 생명의 샘에서 흘러나온 한 방울이다. 너희는 내면에 하나님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병들고, 고통받으며, 울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고쳐야 할 것은 고치며, 정화해야 할 것은 모두 정화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그릇을 안팎으로 모두 정화하라. 즉, 너희 영혼의 의지와 열망이 너희의 물질적 또는 인간적인 부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뜻이다. 나는 너희의 내면의 모습을 빚어내고 있다 — 너희가 사람들에게는 숨기지만, 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바로 그 모습 말이다. 너희의 외모를, 너희의 얼굴이 영혼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다듬는다면, 너희의 행동에는 진실함과 정직함이 드러날 것이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에 한 얼굴을 보여주면서 다른 얼굴은 숨기기 때문이다.

8. 나의 가르침을 따르고 너희의 은사를 활용하라.

9. 너희는 이미 너희의 상처를 살펴보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준 연고를 그 상처에 바르도록 했느냐?

10. 내 연고의 효능을 의심한다면, 다시 치료해 보라. 그러나 믿는다면, 그대로 두어라. 그러면 내 사랑이 그들을 치유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며, 그때 그들을 찾으려 할 때면 이미 상처는 아물어 있을 것이다. 다른 이들에게는 믿음과 기도, 그리고 생각의 힘을 통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리라. 수많은 영적

존재들이 와서 그들의 능력과 힘을 합쳐 너희를 “기름 부어” 줄 것이며, 너희는 그들의 도움으로 치유하게 될 것이다.

11. 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너희의 믿음과 공로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후, 너희가 건강해지면, 나는 너희를 싸움터로 보내어 너희 삶에서 가장 높은 것, 즉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루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되는 것이 기쁘지 않겠는가? 너희의 말에 진리의 본질이 담겨 있다면 기쁘지 않겠는가? 너희에게 위로를 구하는 이들을 가르칠 무언가를 갖는 것이 기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 마음에 든다면, 너희는 그것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것이 그것을 이루기 위한 너희의 선의와 노력에 달려 있다. 나머지는 내가 다 하리라.

12. 영적인 사람은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말합니다. 평범한 사람, 즉 물질주의자는 “인생이 얼마나 쓰라리고, 슬프고, 암울한가!”라고 말합니다.

더 높은 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에 부딪히고, 모든 것이 그를 상처 입힙니다. 영적으로 고양된 사람은 그 길의 역경조차 눈치채지 못합니다. 높은 수준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것은 타인의 미덕을 칭찬하거나 그들의 실수를 용서하기 위함이지, 결코 심판하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마음이 천한 사람은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며, 타인의 잘못을 퍼뜨리고,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13. 남을 판단하고 타인의 일에 간섭하는 이들에게 내가 묻노라. 너희의 죄의 짐이 너무 가볍게 느껴져서, 타인의 죄까지 더해 즐거움을 느끼는 것인가? 너희가 자신의 짐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왜 타인의 짐까지 더해 짐을 늘리는가? 왜 타인의 빛에서 기쁨을 얻기 위해 그들 안에서 보석을 찾는 대신, 스스로를 더럽히기 위해 오물에 집착하는 것을 선호하는가?

14.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거처가 있다. 그러나 높은 영적 영역에 거하는 이들은 사람들이 집에서 벗어나도록 돕거나, 그 집을 지는 것을 돕지만, 그들을 심판하지도 않고 그들의 비참함을 즐기지 않는다.

15. 나는 너희가 어느 날은 비방하다가 다음 날에는 후회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너희가 나의 계시를 부정했다가, 그 후 그것이 진리임을 증언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너희가 어느 날은 비방하다가 다음 날에는 비방했던 바로 그 것을 옹호하는 것을 보았다. 너희가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좋지만, 더 이상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아서 바로잡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어느 날 나는 너희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을 보았고,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비난하거나 심판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내 가르침의 빛으로 너희를 깨우치기 위해 온 것이다. 또한 내가 너희가 기꺼이 돕고, 너그럽고, 자비로우며, 이해심 깊은 모습을 보았으며, 이러한 공로들은 내가 항상 고려하고 인정해 왔음을 말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는 이미 잡초보다 밀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16. 입술만 기계적으로 움직이며, 마음 없이 기도하지 마라. 말하지 않고도 정성을 다해 기도하라. 예전에 거짓 서약을 하고 헛된 맹세를 하던 그 경쾌함을, 오늘은 진실을 말하는 데 사용하라.

17. 남의 것을 빼앗지 마라. 남의 것을 취한 자는 고통과 수치심을 안고 그것을 돌려주어야 한다. 나는 누구를 지목하지는 않으나, 각자가 내 말씀 중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18. 너희가 무지와 미성숙, 그리고 물질주의의 어둠 속에서 길을 걸어가던 시절에 행한 일들로 인해, 나는 너희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내 법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되지 않은 것, 부정한 것에 머물러 있다면, 너희는 너희의 행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그분은 너희 자신의 양심 속에서 너희에게 무자비한 분으로 드러나실 것이다.

19. 너희 모두는 나의 씨앗이며, 스승이 그 씨앗을 거두신다. 좋은 씨앗들 사이에 잡초의 씨앗이 섞여 있다 해도, 나는 그 씨앗마저도 사랑으로 내 손에 담아 황금빛 밀로 변화시키리라.

20. 나는 너희 마음속에서 잡초와 진창, 범죄와 증오의 씨앗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거두어들이고 사랑한다. 나는 그 씨앗이 햇볕 아래 밀처럼 빛날 때까지 어루만지고 정화한다.

21. 내 사랑의 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를 정화한 후, 너희가 새로운 꽃과 열매를 맺을 내 정원에 너희를 심을 것이다. 너희를 내게 합당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나의 신성한 사명 중 하나이다.

22. 나는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의 마음과 대화하기 위해 온다. 나의 임재는 너희가 내가 맡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준다.

23. 그러나 너희는 — 사람들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느냐? 양심의 빛 대신 죽음이 이 세상의 죄를 앗아가는 것을 볼 때, 슬픔을 느끼지 못하느냐?

24. 제3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너희는 내 말씀을 듣고 나에게서 배운 자들 중 하나이므로, 매우 중대한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25. 사람들이 과학을 통해 저 세상과의 소통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라. 과학이 너희를 깨우게 하고 싶지 않다면, 내 가르침을 증거하기 위해 나서라.

26. 내 존재를 수없이 부정해 온 과학자는 자연의 모든 부분을 연구하고, 땅과 바다, 우주를 탐구하지만, 그가 내딛는 걸음마다 나를 마주치게 된다. 왜냐하면 그가 이루어내는 모든 발견 속에서, 내가 온 창조물을 창조한 그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27. 너희는 많이 말해야 한다. 그래야 내 빛이 너희의 모든 이웃에게 닿아, 원자에서부터 가장 거대한 성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이 생명과 양식, 안녕과 완전함을 낳도록 정해져 있음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28. 무지한 자들이 내 가르침에 불완전함을 씌우지 않도록, 내 가르침을 온전히 널리 알리라. 선한 씨를 뿌리면, 너희로부터 태어날 후손들은 너희의 실수로 고통받지 않을 것이며, 고통이라는 유산을 물려받지도 않을 것이다.

29. 나는 너희에게서 순수하고 건강한 씨앗이 싹트어, 어디로든 축복을 전하기를 원한다.

30. 삶의 길에 선하고 모범이 되는 행실로 씨를 뿌리고, 나의 가르침을 왜곡하지 말라. 나의 가르침을 전하고 설명하기 위해 결코 표면적인 숭배에 빠지지 않았던 “제2의 시대”의 나의 사도들을 본보기로 삼으라. 인류가 그 후 빠져들게 된 우상 숭배의 책임을 그들에게 돌릴 수는 없다. 그들의 손은 결코 제단을 세우지 않았고, 영적인 하나님 숭배를 위한 궁전도 짓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인류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했고, 병자들에게 치유를, 가난하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었으며, 그들의 스승처럼 길을 잃은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었다.

31. 오늘날 너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내 사도들이 실천하고 가르쳤던 교리의 그림자조차 되지 못한다!

32. 다시 한 번 말하노니, 너희는 그 제자들 안에서 겸손과 사랑, 자비와 고양의 완전한 본보기를 찾을 수 있다. 그들은 입으로 선포한 진리를 자신의 피로 확증하였다.

33. 인류는 이제 너희의 증언을 믿기 위해 더 이상 너희의 피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나, 너희에게 진실함을 요구할 것이다.

34. 나의 가르침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물질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가르쳐 왔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세상의 재물을 경멸하도록 가르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으로, 이 땅과 그 경이로움, 아름다움, 그리고 기쁨을 사랑하라. 그러나 필요할 때에는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너희 영혼이 이 생애 잠시 머물고 있을 뿐이며, 떠났던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곳에서 너희 영혼은 영적으로 평화를 갈망하고 있다.

35. 오늘 너희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더 잘 섬기기 위해 물질적인 삶을 경멸하고 땅에서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잊어야 하는지 나에게 묻고 있다. 이에 대해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노니,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믿는 자는 착각에 빠져 있으며, 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36. 내가 내 자녀들의 생계를 위해 자연을 창조해 놓았음에도, 어떻게 내가 물질적 삶이 너희에게 제공하는 것을 빼앗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내가 창조한 것 중 그 어떤 것도 너희에게 해가 될 수 없으므로, 내가 그것을 금지하지는 않겠다. 다만 모든 것을 절제하며 사용하라. 내가 너희에게 방탕함과 물질주의에서 벗어나라고 말했을 때, 나는 항상 저급한 정욕, 악덕, 부도덕함, 혹은 해롭고 나쁜 것들의 사용을 가리킨 것이었다.

37. 오늘, 내가 내 가르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이 자리에서, 영혼이나 육체를 지배하는 법칙을 벗어나 행하는 모든 일은 둘 모두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너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38. 양심과 직관, 그리고 깨달음은 너희에게 안전한 길을 안내하고 넘어짐을 피하게 해 줄 인도자들이다. *이 빛들은 영에 속한 것이지만*, 이를 빛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 그 명료함이 여러분 각자에게 자리 잡게 되면, 여러분은 이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구원의 씨앗이 제 존재 안에서 싹틔고, 당신의 말씀이 마침내 제 삶 속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39. 나는 너희의 마음을 위대한 업적으로 이끌기 위해 너희에게 위대한 생각들을 불어넣는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르침은 이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니, 영성주의는 전 세계를 아우르기 때문이다. 성령의 가르침이나 계시는 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40. 모든 것을 휩쓸어 가는 거센 강물처럼, 영성주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낼 물결도 그러할 것이니, 그 힘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할 것이며, 그 누구도 그 흐름을 막으려 방해물이 되려 한다면 그 흐름에 휩쓸려 갈 것이다.

41. 이 땅에서 누가 영혼의 발전이나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막을 힘을 가질 수 있겠는가? 아무도 없다. 절대적인 권능과 공의를 지닌 유일한 존재는 너희 아버지이시며, 그분은 모든 영혼이 완전함으로 나아가도록 정하셨다.

42. 만일 사람들이 잠시 동안 나의 신성한 법들을 무시했다 하더라도, 나는 영적 삶에서 죽은 자들조차도 내 목소리가 우렁찬 종소리처럼 들리도록 할 것이다.

43. 이 백성의 목소리도 마찬가지로 마음속에서 종소리처럼 울려 퍼져, 사람들을 깨우고 기도와 명상을 촉구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행실이 인류 가운데 진정한 본보기로 빛나기 위해서는, 너희가 겸손을 입어야 하며, 너희 마음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

44. 너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그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라. 너희 이름에 대한 영예를 추구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행실이 순수하기만을 염려하라. 그러면 너희는 불멸의 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겸손함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이 세상에 자신의 발자취를 영원히 남길 것이다. 반면, 내 사역 속에서 세상의 찬사와 명성을 갈망하며 일하는 자는 자신의 행적이 곧 잊혀질 것이며, 그의 이름은 후손 세대인 3대 후에도 더 이상 알려지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45. 나는 너희에게 아름답지만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운 임무를 맡겼다. 그러나 각자에게는 그 임무를 수행할 작은 부분만이 할당되어 있으므로, 그것이 너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은 아니다.

46. 인류의 구원은 단 한 사람도, 심지어 한 민족도 이루어낼 수 없다. 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너희에게 내 피를 바쳤고, 이 시대에 사람들이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길을 찾도록 이끄는 이가 바로 나일 것이다.

47. 늘 깨어 기도하라. 지금은 어둡고 혼란을 일으키는 세력들이 풀려나고, 어둠의 군대가 사람들을 둘러싸고 혼란에 빠뜨리는 때이기 때문이다.

48. 내 계시가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너희의 영혼을 치유하고, 해방시키고, 새롭게 하며, 빛으로 끌어올리기 위함임을 온전히 깨달아라. 또한 너희에게 깊은 지식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비밀들을 설명하며, 너희에게 숨겨져 있던 것들을 밝혀주기 위함이다.

49. 본질과 영원한 생명이 가득한 나의 말씀을 간직하고, 너희 안에 있는 나의 힘을 느껴라. 염려하지 마라.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너희의 가장 작은 고통조차도 내 앞에 드러나 있다.

50. 나의 공의가 너희의 일을 돌보리라. 나는 너희의 눈물을 닦아 주고, 너희가 삶 속에서 의지할 수 있도록 지팡이를 건네며, 너희가 스승에게서 기쁨 부음을 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너희 이마에 입맞춤하리라.

51. 길 위에 있는 작은 자갈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치지 않고 그 위를 넘어가는 법을 배우라. 이는 곧 인간 삶의 비참함을 초월하여 사는 것과 같다.

52. 그런 믿음과 연민으로 열방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향력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며, *너희*는 나의 사랑의 망토가 너희 모두를 감싸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53. 내가 너희 영혼의 성장을 위해 허락한 모든 시간 동안, 너희는 점점 더 많은 빛을 얻어 왔다.

54. 이 빛은 바로 너희의 지성과 감정을 비추는 빛이다.

55. 너희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나는 이미 너희의 삶의 길과 성향을 알고 있었으며, 너희의 삶의 여정을 돕기 위해, 너희를 향한 사랑으로 그 길을 밝혀 줄 한 마음을 너희 길 위에 두었다. 이 마음은 남자의 마음이기도 했고, 여자의 마음이기도 했다. 이를 통해 나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으니, 여러분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믿음과 도덕적 힘, 자비의 버팀목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56. 너희는 내 오심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기 위해 입을 여는 것을 두려워하며, 너희 마음속에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갈망과 거부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나로부터 받은 은사와 사명을 숨기기를 더 선호한다. 그러나 자녀들아, 너희가 가진 은사를 숨기는 것은 곧 나를 부인하는 것이며, 너희 자신의 성장을 부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57. 나를 믿으라: 만일 이 백성이 하나가 되어 믿음과 용기를 가득 품고 말과 행실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나섰더라면,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땅 끝까지 전해졌을 것이다.

58. 너희가 여전히 힘이 없다고 느낀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먹고 마시라. 나는 너희 가운데 굶주림이나 목마름을 보고 싶지 않으니라.

59. 내 뜻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사랑을 마음속에서 느끼고, 저 세상의 평화를 마치 그곳으로 들어가 내 얼굴을 뵈도록 초대하는 문처럼 미리 엿볼 때, 그 보상은 곧바로 찾아올 것이다.

60. 나는 너희 모두에게 기도를 통해 영혼을 고양시키는 법을 가르친다. 어떤 이들은 이미 이 은총을 통해 스스로를 소생시키는 법을 알고 있지만, 다른 이들은 과거의 인상들이 그들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고, 종교적 관습과 전통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는 자신의 예배 행위를 정화하고, 갱신하며, 영혼을 고양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61.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통해 나의 현존을 믿은 이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확고한 발걸음으로 영과 영이 대화하는 시대로 들어설 것이기 때문이다.

62. 너희는 삶이 영혼을 큰 시련을 통해 단련시키는 모루와 같기에, 삶의 휴식으로서 필요한 위로와 온기를 얻기 위해 내게 다가왔다. 그러나 너희의 운명에 대한 믿음은 크며, 너희는 이 시련의 용광로에서 순수해진 모습으로 투쟁을 위해 나아갈 것임을 알고 있다.

63. 날마다 너희의 영적 기도가 내게 닿아 오는데, 그 언어는 너희의 입술로 발화된 말도 아니고 너희의 이성으로 형성된 개념도 아니기에, 너희의 세속적인 본성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영의 기도는 너무나 깊어서 인간의 능력과 감각을 초월한다.

64. 그 기도를 통해 영은 높은 영들이 거하는 빛과 평화의 영역에 이르고, 그곳에서 그 본질을 마음껏 흡수한 뒤, 힘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덧없는 육신으로 돌아옵니다.

65. 이제야말로 인간이 자신의 영혼을 해방하고, 오랫동안 영혼을 묶어 두었던 사슬이 끊어지며, 진정한 평화가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때이다.

66. 너희와 마찬가지로 내 신성으로부터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나서는 자들과 싸우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라. 그래야만 너희가 참된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분별하고, 전자의 행위는 인정하며 후자의 행위는 무효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모든 세력이 싸움을 벌이기 시작한 때이기 때문이다. 선함이 악과, 빛이 어둠과, 지식이 무지와, 평화가 전쟁과 싸우는 모습을 보라.

67. 너희는 지금 성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며, 잠든 자를 깨워 그로 하여금 경계와 한계를 없애고 모든 인간을 사랑으로 하나 된 단일한 가족으로 만드는 빛을 보게 하고 있다.

68. 나는 모든 제자와 나의 “어린이 제자들”이 마지막 날에 나를 듣게 하여, 인류를 대신하여 그들을 맞이하기를 원한다. 나의 팔은 펼쳐질 것이나, 나는 그것이 그 ‘두 번째 시대’ 때처럼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사랑의 포옹으로 너희를 감싸 안아, 인간을 통해 전해진 이 신성한 영의 계시가 마무리되게 하리라.

70. 영혼의 삶에서 죽은 자들조차도 우렁찬 종소리를 듣게 될 그 시간이 왔다.

71. 이 시대에 내가 택한 자들 중 누구도, 자신의 영적 은사로 인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여겨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 너희는 아직 요한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말했듯이, 그는 선지자 중 가장 위대했으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도 못 미쳤다.

72. 너희의 형제자매인 아버지의 자녀들을 사랑함으로써 아버지를 위해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는 불멸을 얻게 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이기심에 빠지고 자기애에 갇혀 지낸다면, 너희가 남긴 씨앗은 너희의 명성을 오래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73. 마음속 깊이 온유하고 겸손하라. 그러면 너희는 언제나 나의 은총으로 충만할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257

1. 너희는 고요히 머물렀고, 너희의 생각은 너희 아버지께로 향하고 있다.
2. “환영한다”고 스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안식과 평화, 또는 위로를 구하고 있으며, 내가 바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닌 자이기에, 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3.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찾고 있다면 —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것도 너희가 찾게 될 것이다.
4. 예수님의 말씀은 신성한 “말씀”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몸은 내 영을 모시고 내 말씀으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성전과도 같았습니다.
5. 그러나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며, 나를 따를 때, 너희가 나를 지칭하기 위해 가진 수많은 이름 중 어떤 이름을 붙이든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를 느끼는 것이며, 비록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완전히 완벽하게 하기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말이다.
6. 자신의 영적 수용 능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내면에서 나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7. 어떤 이들은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또 어떤 이들은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으나 생각을 정리할 수 없으며, 또 어떤 이들은 울고 싶은 욕구를 느껴 눈물을 흘리고, 어떤 이들은 꿔꿎어 보는 시선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8. 스스로 준비하여 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는 이들은, 은혜의 빵을 먹기 위해 진정으로 영적인 식탁에 다가가는 자들이다. 그들은 가르침이 이어질 때마다 언젠가 이성과 인간성을 초월하여, 내 말씀의 진의를 꿔꿎어 보고 그 안에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될 영혼들이다.
9. 이들은 자비를 실천하는 데 전념할 자들, 즉 평화의 사도들이 될 것이다. 그들은 평화의 근원을 찾았기 때문이며, 영혼에게 진정한 어둠인 불화와 다툼 속에 사는 자들을 바라볼 때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들은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우고, 어두워진 이성에 빛을 비추며, 육체적 또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10. 오직 나의 임재를 느끼고, 내 말씀의 의미와 사랑을 영혼으로 깨달은 자만이 훗날 고통받는 이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사람들의 고통과 무력함, 가난, 비극을 똑같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11. 내가 너희 모두를 내 식탁에 초대하고, 영적으로 내 임재를 누릴 준비를 하라고 요청한 것은, 너희 모두가 천국의 잔치를 누릴 운명임을 뜻하는 동시에, 너희 모두가 불화가 자라난 밭에 사랑을 뿌리고, 악덕과 비참함, 무지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빛으로 가득 채워야 할 사명이 있다는 뜻이다.

12. 이 교훈은, 너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느끼셨기에, 비록 인간이 되어 박해를 받고 조롱을 당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어둠에서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뒤로 남기신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것이다.

13. 제자들아: 너희가 이 세상에 첫발을 내딛기 전부터, 나는 너희의 삶과 행실, 그리고 생각을 미리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이제 시작할 삶의 여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함께 주노라.

14. 영혼은 육신을 통해 시련의 시간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이미 그 전에 깨달음을 얻고 강해져서, 세상이 제시하는 유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15. 때로는 마음이 크게 완고한 사람 안에 거하는 것이 그 영혼에게 어울리기도 하는데, 그럴 때면 자신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 그 마음은 삶 속에서 영혼의 시금석이자 시련이 될 것이며, 영혼이 그 마음을 다스리고, 몸과 영혼이 조화를 이룰 때만 인간이 평화를 찾을 수 있음을 설득해 낸다면, 영혼은 시련을 통과하고 더 높은 세상을 희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6. 마음이 삶의 고통과 불행 앞에서 약해지고 신성모독에 빠진다면, 이는 영혼이 고통에 굴복했기 때문이며, 물질의 단계까지 떨어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모든 곤란과 허무함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제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힘을 키우는 자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시련을 통해 얻은 경험의 열매를 간직하여 다시는 실패하거나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반면, 잠시라도 자신의 본질적 핵심을 잊고 세상을 위해 살고 고통받는데 만족하는 자는, 물질의 힘과 인간 삶의 곤란, 유혹, 비참함에 패배하여 타락하게 될 것이다.

17. 아, 너희가 이 땅에 첫발을 내디딜 때부터 부모의 입에서 지혜롭고, 힘을 주며, 위로가 되는 가르침을 들을 수만 있다면 —

이것이 영혼이 이성과 마음을 너희의 하나님께로 높이 이끌어 가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

18. 사람이 양심의 목소리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깊은 영적 가르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신성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인간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지혜롭게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인간을 둘러싼 물질은 영혼이 본래 속하지 않은 세상에 거주하게 되고, 자신과는 본성이 다른 육체와 결합되는 그 순간부터 영혼에게 시련이 되기 때문이다.

19. 여기에서 영혼이 자신의 과거를 잊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영혼이 갓 태어난, 의식이 없는 피조물 속에 환생하여 그와 하나가 되는 순간부터, 그 영혼은 그 육체와 밀접하게 연결된 삶을 시작한다. *영으로부터*는 양심과 직관이라는 두 가지 특성만이 남아 있지만, 그러나 인격과 이론 업적, 그리고 과거는 한동안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정하신 바입니다. 높은 고향의 빛에서 나와 이 세상의 비참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려는 영혼이, 만약 자신의 과거를 기억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생애에서 영혼 속에 존재했던 위대함이 사람들에게 드러난다면, 그들 사이에 얼마나 큰 허영심이 솟아날까요?

20. 너희는 영혼이 지상에 환생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영혼은 길고 때로는 가혹한 시련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준비 덕분에 영혼은 이 생애에 들어설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새로운 삶을 맞이하기 위해 과거에 대한 눈을 감고, 그리하여 이 세상에 온 첫 순간부터 그곳에 적응해 나갑니다. 반면, 여러분의 영혼이 육체와 세상을 떠난 후 영적 삶의 문턱에 서게 될 때의 모습은 얼마나 다른지요. 고향으로 돌아갈 진정한 준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혼은 혼란에 빠지고, 물질적 육체의 감정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향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이는 마지막 순간에 이 세상에 대한 눈도 감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그녀가 떠났던 영적 세계를 향해 다시 눈을 뜰 수 있는데, 그곳에서는 그녀의 모든 과거가 새로운 경험과 결합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녀의 모든 과거 공로가 새로운 공로에 더해질 것이다.

21. 그녀가 빛을 되찾는 동안, 짙은 장막이 그녀의 사고력을 감싸고 있다. 그녀가 뒤로 남긴 모든 것들의 끈질긴 영향이 그녀가 자신의 영혼의 진동을 느끼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나 그녀의 그림자가 사라져 진정한 본질의 핵심과 하나가 되어가는 그 순간 — 얼마나 큰 혼란이요, 얼마나 큰 고통인가.

22. 이 메시지를 듣고 읽은 후, 이를 쓸모없거나 잘못된 가르침이라며 거부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극단적인 물질주의나 맹목적인 고집의 단계에 있는 자만이, 자신의 영혼이 깊이 감동받지 않은 채 이 빛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23. 이 시기에 나는 인간에게 그의 영혼의 과거를 드러내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이 이미 이전에 살았으며, 지상에서 고귀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왔고,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져왔던 빛 그대로가 아니라 훨씬 더 큰 빛을 지니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함을 그에게 확신시켜 준다.

24. 땅에 거하는 영혼들아, 나의 임재를 느끼고, 너희에게 쏟아지는 신성한 빛을 바라보아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광선과 영감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 많은 수단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나 그 외에도, 나는 인간의 이성 기관을 통해 선포한 이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어, 그것이 너희에게 닿아 너희가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려 한다. 이것은 너희 사막 속의 생명의 만나이며, 너희 존재의 메마름 위에 내리는 은총의 이슬이며, 너희 고통 속의 치유제이자 너희 어둠 속의 끝없는 빛이다.

25. 이 말씀은 너희, 나의 계시를 듣는 수많은 청중과 증인들에게 감동을 준다. 온 인류에게 나의 신성한 메시지가 전해지도록 준비하라.

26. 나의 무한한 자비는 너희 모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지치고 울며 오는 자도, 참된 믿음 없이 나를 듣기 위해 다가오는 자도, 그리고 착한 제자로서 사명을 완수한 열매를 나에게 바치기 위해 간절히 다가오는 자도 모두 말이다.

27. 나는 너희가 불확실과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기에, 너희 영혼을 찾아 빛으로 채워 주려는 아버지이다.

28. 나는 인류에게 참된 자비와 영적 유익, 그리고 고양을 실현하는 일들을 행하도록 이끄는 가르침을 전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후세에게 기억되고, 그들로부터 축복을 받으며, 본보기가 될 것이다. 진리를 담은 행적만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남을 것이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에는 진리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행적이 파괴될 것이며, 그로부터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29. 제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웃의 마음에 씨앗을 남기고자 한다면, 그 씨앗은 너희의 행실과 모범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허영이 없는 행실이어야 한다. 길을 굽히거나 그 길을 벗어나지 않으려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겸손한 종이자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라. 그리스도의 행적은 너희의 영에 새겨져 있다.

30. 그곳에는 수많은 폭풍우와 회오리바람에도 불구하고, 나의 본보기가 되는 행적들이 영원하고 지워지지 않는 채로 남아 있다.

31. 백성아, 내 말씀이 이 시대의 인간적 고난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주었다는 것을 깨닫는가? 그렇다면 너희도 이웃들에게 똑같이 행해야 함을 알라.

너희의 마음이 내게 말하길,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웃에게 똑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한다. 이에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노니: 비록 너희가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주거나 은총을 베풀 수는 없더라도, 너희 입술에서 내 가르침을 듣는 이웃들이 자신의 은사와 능력이 깨어나는 것을 느끼게 하고, 아버지와의 교감을 배우는 과정에서 영감을 통해 수행해야 할 사명을 받게 할 수는 있다. 이제 너희의 사명이 충분히 크고 가치 있게 보이지 않는가?

32. 제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행실이 내 앞에서 가치를 가지기를 원한다면, 그 행실 때문에 동료 인간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

33. 제3시대의 신성한 만나가 이 백성에게 내려왔는데 — 어떻게 너희가 빛의 자녀들에서 어둠과 신성모독, 불순종의 자녀들로 변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내 계시의 청지기로 임명되었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비참한 존재가 될 수 있겠느냐?

34.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두려움이나 이기심 때문에 누구에게도 너희의 은사를 숨기지 않도록, 내가 끊임없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깨어 기도하라. 너희는 여행 가방에 너희 것이 아닌 많은 선물을 지니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내가 그것들을 너희에게 준 것은, 너희가 그것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이다.

알아두라. — 너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 그것을 나누지 않는다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자주 책임을 물은 것은, 너희가 나에게서 그토록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빈손을 내밀기 때문이다. 너희 손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나의 사랑의 말씀을 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35.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동기가 필요하다면, 참된 이웃 사랑의 행실을 실천하라. 내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서 너희는 동기와 보상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36. 나에게 자비를 기대하면서도, 자신의 길에서 실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는 자들은, 이웃에게도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은 자들이다. 그들은 마음을 차갑게 식힌 자들이며, 등불을 꺼버린 자들이다. 마치 동지에서 떨어진 연약한 새끼 새들 같거나, 가을에 나무에서 떨어져 바람에 휩쓸려 목적 없이 이리저리 떠도는 시든 나뭇잎과도 같다.

37. 어쩌면 너희는 내가 죄 많은 피조물들을 통해 너희에게 이 계시를 전한다는 사실 때문에 이를 비난할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분명 순수한 존재들이 아니다. 그러나 말해 보라. 이 인간의 입술을 통해 전해진 내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아무런 울림을 주지 못했는지, 혹은 그 달콤함이 어떤 순간에라도 너희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쓰라림을 없애 주지 못했는지.

38. 너희 남자들아, 상처 입은 마음과 혼란스러운 정신, 그리고 갈기갈기 찢긴 영혼을 안고 이곳에 왔으나, 나를 들은 후에는 힘을 얻어 일어섰음을 기억하라. 누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해 준 적이 있었느냐?

39. 여인들아, 너희는 울기에 지친 눈과 마음을 안고 이곳에 왔었다. 그러나 더 이상 눈물이 남아 있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너희는 나의 말씀을 듣고 뺨에 다시 눈물이 넘쳐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과 감동의 눈물이었다. 너희가 나의 목소리를 듣기 전 그날까지, 누가 너희 마음 깊은 곳까지 다다랐던가?

40. 이 가르침은 너희에게 그것이 헛된 말이 아니라 신성한 본질로 가득 차 있음을 증명해 주었다. 그러므로 그 형식은 단순하지만, 그 심오함과 의미는 그 말씀 자체에 담겨 있다.

41. 내가 너희의 고난 속에서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 왔듯이, 또한 너희 영혼에 빛을 주기 위해 왔다.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심연 속에서 풀려나 소용돌이치고 있으니, 너희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42. 너희 등불을 다시 밝히고, 마음속에 사랑을 일깨우며, 영생에 전념하고, 너희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 그래야만 너희는 이웃을 향한 연민을 느낄 수 있고, 너희 삶의 일부를 사랑의 행위에 바칠 수 있을 것이다.

43. 너희의 “보물”을 지키고, 다른 이들과 나누며, 그 안에 담긴 모든 것을 항상 잘 활용하라. 그러면 너희 안에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힘과 건강, 그리고 빛이 솟아날 것이다. 이 힘과 빛, 그리고 건강은 영혼에서 비롯되어 육신에 반영될 것이다.

44. 백성아, 너희는 더 이상 무작정 빛을 찾아 헤매는 방랑자가 아니다. 너희는 이미 그 빛을 찾았다.

45. 이 말씀은 여러분을 생명으로 깨우는 기적을 이루었으며,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치유해 준 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내 능력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내적 변화를 경험했음에도, 누가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46. 이제 너희에게는 삶을 개선하고, 유익한 존재가 되며, 영적 세계에서 너희 영혼을 위한 합당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주어졌다. 누가 이 기회를 너희에게서 빼앗을 수 있겠느냐? — 너희가 깨어 기도하는 것을 잊고, 너희의 부주의로 인해 유혹에 빠져 넘어지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다.

47. 내 가르침에서 예고된 중대한 사건들이 닥칠 때 평화를 유지하고 싶다면, 너희의 결심에 충실하라.

48. 여러분은 곧 큰 교회들의 대표자들이 신의 현존을 느끼고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깨닫게 될 그 시기가 오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49. 너희는 그들이 서로 의논하고, 질문하며, 제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나, 그들의 허영심은 잠시 동안 서로가 상대방보다 우월하다고 믿게 만들 것이다.

50. 이 투쟁의 시기는 너희 영혼에게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될 것이니, 그 시기를 통해 너희 영혼은 물질주의를 극복하고, 신앙과 사랑, 그리고 영성화의 길을 따라 하느님께로 올라가려는 열망을 더욱 굳건히 다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51. 영성주의자의 이성과 마음은 그들의 더 높은 존재 부분의 기쁨에 동참할 것이며, 그들에게 생명이 있는 한, 그들은 영혼과 함께 그 고귀한 사명을 수행하는 데 협력할 것이다. 그러나 대지의 품에서 쉬어야 할 시간이 오면, 그들은 주님의 일에 헌신했다는 평화와 만족감을 안고 그렇게 할 것이며, 그 사람의 마지막 생각과 마지막 심장 박동은 겸손하고 고귀하며 신의 계명에 순종하는 육신을 지녔던 자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게 새겨질 것이다.

52. 내가 너희에게 왜 이 땅에서 너희 몸을 영혼의 지팡이와 버팀목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는지 깨달아라. 나는 너희가 육신이 영혼을 지배하려 했던 그 홀과 권세를 빼앗아야 한다고 분명히 알려주었으니, 양심에 이끌리는 영혼이야말로 인간 삶의 유일한 나침반이자 유일한 빛이기 때문이다.

53. 나는 너희가 내 말 중 어떤 것의 뜻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기에, 너희의 이해력에 맞춰 너희에게 말해 왔으며, 또한 각 집단이나 무리, 모임의 준비 상태에 따라 내가 나를 드러내는 방식도 달라진다는 점을 너희에게 말해 둔다.

54. 모든 영혼은 자신의 아버지께 큰 의무를 지고 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으로 인해, 나는 너희가 내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영적으로 속죄하며, 정화되어 다음 거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다.

55. 오, 축복받은 제3의 시대여! 너는 네 “언약궐” 속에 세상이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네 빛을 활용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구원받을 것이니라.

56. 나는 너희가 영적으로 성장해 온 전 과정 동안 너희를 인도하고, 시험하며, 이 시대의 계시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왔다.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형성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들을 빚어내고, 정화하며, 고양시켜 인류 가운데로 보내어 그들의 사명을 완수하게 할 것이다. 이 백성이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장애물을 허물어 나갈 때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어 바다와 광야를 지나게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말이다.

57. 이 백성은 인류를 영적으로 깨우치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사명을 완수하고,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자각하게 되면, 너희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빛을 향한 갈망이 솟아나고, 그들의 영혼 속에서 고양의 이상이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이는 인간 삶의 뿌리까지 뒤흔들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58. 그때 양심이 경청되고 따르게 될 것이며, 영에 의해 부름받은 자들이 이해받게 될 것이며, 영적 갈망과 권리가 고려되고 존중받게 될 것이며,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며 그분의 진리를 바라보고자 하는 열망이 빛나게 될 것이다.

59.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갈증으로 인해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들의 자만이 꺾이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죄를 고백할 때, 그들이 나를 부인하려 했던 곳, 나를 심판하고 부정했던 곳인 그들의 왕좌와 호화로운 자리에서 내려올 때, 사람들 안에서 솟아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눈을 나를 향해 돌리며, 수 세기 동안 그들을 기다려 오시며 사랑으로 넘치게 해 주시려 했던 아버지께 아이들이 말하듯 나에게 말을 걸게 하기 위함이다.

60. 인간은 물질주의에 얼마나 깊이 빠져, 마침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부인하기까지 이르렀는가! 인간의 이성이 어떻게 이토록 어두워질 수 있었는가? 너희의 과학은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생명과 자연을 그토록 폄하할 수 있었는가?

61. 너희 과학이 발견하는 모든 작품 속에는 나의 현존이 있으며, 모든 작품 속에서 나의 법칙이 드러나고 나의 목소리가 들린다.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은 느끼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것일까? 나의 존재와 나의 사랑, 그리고 나의 정의를 부정하는 것이 과연 진보와 문명의 증거인가?

62. 그러면 너희는 모든 자연의 힘과 자연의 경이 속에서 신성하고, 고귀하며, 지혜롭고, 의로우며, 전능한 존재의 업적을 발견해 냈던 원시인들보다 더 진보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모든 선과 존재하는 모든 것을 그 존재에게 돌렸고, 따라서 그 존재를 숭배했다.

63. 그들은 점점 더 발전하는 지성을 통해 육체적 감각으로 인지한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들이 내게 어떤 완전한 숭배를 바칠 수 있었겠는가? 그들이 진리에 대해 어떤 완전한 이해를 가질 수 있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 그들의 경탄과 믿음, 그리고 숭배는 내 영이 시대를 거쳐 가꿔나가야 할 광활한 밭의 첫 열매로서 나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64. 그 때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인류에게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주었는가! 그리고 나의 사랑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계시를 맡겨 주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 이 사람들이 이해의 정점에 도달했어야 하고, 그들의 신에 대한 숭배가 완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이고 오만하며 비인간적인 과학이 일어나 나를 부정하고 있으며, 존재하는 종교 공동체들은 관행과 전통의 무기력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

65. 나는 너희에게 의지의 자유라는 선물을 주었으며, 내 자녀들에게 허락한 그 축복받은 자유를 존중해 왔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본성에 신성한 영의 빛도 심어 두었으니, 너희가 그 빛의 인도하심을 받아 너희의 능력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영혼과 육체 사이의 투쟁에서 영혼은 패배를 당했고, 그 고통스러운 추락으로 인해 점차 나인 진리의 근원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갔다.

66. 영혼의 패배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영혼이 더 이상 자신의 굶주림과 갈증, 나약함과 어둠을 견딜 수 없게 되면, 심연의 깊은 곳에서 다시 일어설 것이기 때문이다. 그 고통이 바로 그녀의 구원이 될 것이며, 그때 그녀가 자신의 영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강하고 빛나며, 열정적이고 영감에 차서 일어나 다시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선*이나 악을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할 자유는 없을 것이며,

오직 신성한 법칙을 이행하는 데에만 그 능력을 바칠 것이니,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내 영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가르침 258

1. 오, 백성들아, 너희는 내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으니, 이는 나의 정의의 목소리가 너희를 떨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과연 나의 정의인가, 아니면 불의인가? 만일 나의 정의라면, 너희는 너희 행위에 대한 신성한 심판을 받아들여야 함을 알아야 한다. 만약 그것이 불의라면, 너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불의를 저지를 수 없기 때문이다.

2. 너희는 가장 무자비한, 동시에 가장 사랑이 넘치고, 인내심 있으며, 이해심 깊은 아버지를 재판관으로 모시고 있다. 그분은 너희의 잘못을 폭로하거나 이웃들에게 너희를 고발하는 대신, 너희를 한 명 한 명 불러내어 마음속으로 말씀하시며, 필요한 만큼 시험하시고, 어떤 일을 마무리하거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3. 만일 신성한 정의 속에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이 담겨 있지 않았다면, 만일 그분의 정의가 그러한 근원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면, 인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인류의 죄와

끊임없는 범법 행위가 신성한 인내를 고갈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인류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으며, 영혼들은 여전히 육신을 입고 태어나고, 매 순간, 모든 인간의 행적 속에서 사랑이자 무한한 자비이신 나의 공의가 드러나고 있다.

4.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가르침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내 가르침의 진의에 깊이 몰입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그들은 세속적인 일과 목표에 몰두해 왔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그토록 몰두하고 노예처럼 얽매어 있던 것들을 잠시 뒤로 하고, 시선을 창공으로 들어 올려 내면 깊이 나에게 묻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나의 하느님,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삶은 어떻게 되어 버렸으며,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그 삶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많은 이들이 경험하게 될 깨달음의 순간이 될 것이다.

5. 다른 이들은 이 시기에 내가 너희에게 주신 말씀에 놀라게 될 것이며, 그 말씀은 바로 너희인 나의 사자들, 증인들, 제자들의 마음에 닿을 것이다.

6. 사람들은 나의 계시에 담긴 진실을 부정하려 할 것이나, 사실과 증거, 그리고 사건들이 이 진실을 대변하고 증언할 것이며, 이는 ‘제3의 시대’의 위대한 메시지로 내 백성의 입을 통해 전해질 것이다. 또한 문헌을 통해서도 나의 가르침이 세상에 퍼질 것이니, 이는 내가 태초부터 나의 사자들에게 심어준 허용된 수단이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너희가 나의 진리를 지키며, 가장 순수하고 소박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전하기를 원할 뿐이다.

7. 제자들아, 곧 말씀을 마치실 스승께서 매 가르침마다 너희의 싸움을 위한 영적 무장 교훈을 주시는 것을 보아라.

8. 너희는 번덕스러운 운명의 광활한 사막을 건너온 후, 내 가르침을 받기 위해 무리 지어 이곳으로 모여든다. 그 이유는 너희 영혼이 내 재림이 예고된 때가 왔음을 느꼈고, 너희를 부르는 신성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다.

9. 사랑의 양식, 생명의 만나를 갈망하며 희망의 빛에 힘입어 모여든 수많은 병자들, 굶주린 자들, 목마른 자들, 지친 자들이 이제 창조주의 면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10.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내 평화의 그늘 아래서 쉬고, 먹고 마시며, 병에서 치유되십시오.

11. 너희가 이 말씀에 계속해서 꾸준히 귀를 기울이고, 삶의 투쟁을 이겨내기 위해 나설 때, 믿음과 지식으로 강해졌기 때문에 너희의 짐이 더 가벼워진 것을 느낄 것이다.

12. 내게서 오직 세상의 재물이나 보물만을 찾고 영적인 은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실망을 겪게 될 것이며, 그들이 부름받은 길에서 벗어나면, 빈손을 쥐고 절망에 빠진 마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불결한 것을 사랑하는 영혼들이며, 나는 그들이 성장하고 경험을 쌓아, 내 길로 돌아왔을 때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더 잘 되어 있도록 그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어야 할 것이다.

13. 영성화를 통해 온 이들에게, 이 말씀을 통한 나의 임재는 진정한 빛의 잔치이며, 사랑과 정의, 지혜와 평화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영적 왕국의 가장 훌륭한 음식이 제공되는 곳이다. 이들은 나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게다가 세상의 혜택도 받아들이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14. 나의 사역은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며, 물질적인 것은 생명을 유지하고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보충물이 될 것이다.

15. 아, 너희 모두가 이 말씀의 태양이 곧 숨겨질 것임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 너희는 서둘러 그 가치와 빛을 너희 마음속에 간직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해하는 데 너무 느리고, 너무 반항적이어서, 이미 지금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볼 수 있도록 ‘예지력’이라는 은사를 펼치지 못하고 있다.

16. 확실히,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해 온 형태로 너희 가운데 머무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너희는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야 하며, 과거의 수많은 관습과 신앙적 신념, 관념, 그리고 과거의 행동 방식들을 잊어야 합니다. 그것들은 너희가 내 말씀을 처음 듣기 위해 이곳에 왔을 때, 너희가 젊어지고 온 엄청난 짐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17. 나는 영혼의 구세주이며, 너희의 믿음과 생명의 수호자이다. 나는 너희에게 위로의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고, 내 영에서 솟아나는 참된 빛을 보게 하지 않은 채, 너희를 심연으로 떨어뜨리거나 광야에서 길을 잃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

18. 너희는 단지 내 목소리를 듣고 마음에 평안을 얻는 데 그칠 것인가? 너희 이웃의 마음에 내 일을 심기 위해 준비하지도 않고, 내 제자가 되려는 마음도 없이 말이다.

19. 이웃에게 유익을 베풀어 나에게 기쁨을 드리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게 하고, 내가 나타날 때마다 너희에게 주는 신성한 가르침을 활용하여, 너희가 나에게 대해, 나의 율법과 가르침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하라. 나타나는 모든 새로운 빛을, 비록 그 빛이 모든 시대의 지혜인 절대적

진리의 빛이라 할지라도, 반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당황하지 않도록 하라.

20.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단지 너희의 고난 속에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을 느끼고 그들의 고통 속에서 위로해 줄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함임을 깨달아라.

21. 너희가 사람들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싶다면, 너희가 내 말씀을 처음 들은 날부터 내가 너희 곁에서 행한 일들을 돌아보기만 하면 충분하다.

22. 나는 너희를 용서하고, 끝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너희를 받아들이며, 고된 일과에서 쉬게 해 주었다. 나는 너희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 계급을 판단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 죄의 나병을 깨끗이 씻어 주고, 너희의 병을 고쳐 주었다. 나는 너희의 결점을 판단할 때 이해심 있고, 관대하며, 자비롭게 대했다. 나는 너희가 이웃을 구원함으로써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랑의 가르침을 주며, 너희를 참된 삶으로 되돌려 놓았다.

23. 내가 너희 각자에게 행한 이 일들 속에서, 너희는 육체와 영혼이 고통받는 이들—그들이 무리를 지어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니—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본보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4. 내가 이곳의 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나는 인류 전체에게 말하는 것이다. 너희의 임무는 내일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 구원의 사역을 완성할 나의 말씀을 형제애를 담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25. 오늘 너희는 고통이 너희를 덮쳤음을 느끼고 있으며, 때로는 이 잔을 통해 너희가 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너희가 더러워진 채로 어떻게 나를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 마음이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자비와 인간애의 감정으로 드러나는 사랑이 너희 마음에서 흘러나올 수 있겠느냐?

26. 하느님의 자녀들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고통이 생겨났습니다. 그 고통은 너희 마음을 다듬고, 너희가 잃어버린 길을 보여주기 위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강하고, 건강하며, 순수하게 보고자 하기에, 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내려와 그 안에서 모든 악을 제거합니다.

27. 이 형태로 너희 가운데 울려 퍼지는 이 목소리를 들으라. 이를 듣는 데 지치지 말라. 나는 너희 마음의 거친 부분을 다듬고, 1950년 이후 더 이상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때 너희를 굳건한 믿음 속에 남겨둘 수 있도록, 나의 계시를 연장해 왔다.

28. 사람들은 과학에 매몰되어 있으며, 그들의 마음과 이성
지상에서 살아가는 삶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말하는 이 단순하고 학식이 없는 이들을
택하였다. 나는 이 마음들을 어루만졌고, 그 후 내 빛으로 그들의
이성을 비추어 내 백성에게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였다.

29. 이 빛이 너희 삶의 길을 비추었기에, 너희는 나에게 자신을
맡겼다. 내가 떠난 후, 나는 너희를 인류 가운데 남겨 두어, 너희가
나의 진리를 증언하고, 제자들 가운데서 영적 사랑의 가르침을
행실로 전파하는 스승들이 나타나게 하리라.

30. 천국의 기쁨은 모든 이를 위한 것이다. 이 땅에서 너희는 그
평화의 일부와 영생의 빛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선한
뜻을 품으라. 그러면 나의 평화가 너희에게 결여되지 않을 것이다.

31. 내가 너희에게 내 말씀을 전한 이래, 너희는 생명의 책의
많은 페이지가 지나가는 것을 보아왔다. 그 각각은 완전한
가르침이었다. 때로는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에게 말씀하셨고, 또
다른 때는 스승이 너희를 자신의 강단에 앉히셨으며, 때로는
심판자가 너희를 일깨워 주셨다.

32. 너희 모두는 나의 말씀을 받았으므로, 따를 지침과 임무를
영 안에서 모두 받았다. 어떤 이들은 이미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출발할 시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준비 중이다.
너희 중에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 능력을 받지 못한 이는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나 내가 아직 이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금,
어떤 이들은 이미 그 잠재력을 펼치기 시작했지만, 다른 이들은
나의 계시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영적 성장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너희 모두는 하나의 영처럼 일어서라.

33. 너희는 내 말씀을 깊이 헤아리고, 내 영감을 받아들이며,
다가올 일을 예고해 줄 환상을 볼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34. 오늘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내 신성한 광선을
받아들일 은사를 받았거나, 영적 세계가 그들을 통해 드러나도록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자들은,
나중에서야 비로소 그 사명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비록 내가 이미
그들에게, 인류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전달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말이다.

35. 너희가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어떤 이는 한
나라에, 또 다른 이는 다른 나라에 있겠지만, 그럼에도 너희는
모두 내가 너희에게 가져다준 영적 조화를 통해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36. 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유대를 통해 강하고 무적의 존재가 되도록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다. 그 때문에 나는 제자들에게 본보기를 통해 길을 보여주는 사랑이 넘치고 인내심 깊은 스승이 되어 왔습니다. 너희의 발걸음과 행실, 심지어 말과 생각까지 주의 깊게 살피라. 너희의 불완전함을 심판하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너희의 양심을 통해 너희를 바로잡아 주시는 스승이어야 한다.

37. 내 뜻은 죄 많은 사람들을 통해 나를 드러냄으로써, 너희에게 내 능력과 사랑의 증거를 주는 것이었다. 이제 성령을 통해 너희 아버지께 나아가, 너희도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라. 이 목표를 향해 힘쓰고, 영혼과 영혼이 나누는 그 숭고한 대화를 이루되, 처음 거둔 열매에 만족하지 말고 오직 완전함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만족하라. 그때 모든 사람은 내면에 신성한 인도자를 갖게 될 것이며, 그분은 창조주의 사랑을 갈망하며 위쪽으로 발전해 나가는 이들에게 정해진 길로 영원히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38. 말씀이 된 나의 빛, 생명, 시련 — 이 모든 것은 너희를 물질주의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내일이면 인간의 과학조차도 영성, 고양, 고귀한 목표를 갖게 될 것이며, 겉보기에는 너희에게 숨겨져 있었던, 실은 단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비밀 속으로 파고드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영혼일 것이며, 이는 영혼이 순수함을 얻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성들아, 영과 그에 속한 것들에 마음을 기울인다고 해서 인간 생활과 너희의 세속적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될까 봐, 또 그로 인해 너희의 건강과 육체가 오늘날 아직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결과를 겪게 될까 봐 걱정하지 마라. 오늘날 사람들의 영혼이 현재 살고 있는 더러움에서 벗어나면, 그 영혼은 자신의 몸 안에서 새로운 힘과 그전까지 알지 못했던 빛을 느끼게 될 것이며, 이는 사람들이 웰빙과 안녕, 건강이 넘치는 삶을 창조하도록 이끌 것이다.

39. 도대체 왜 사람들은 헛되고 때로는 무의미한 종교 의식을 끊임없이 행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에 다가가려 애써 왔는가? 너희는 영원한 생명의 본질이나 실체가 없는 종교 의식으로 영혼이나 마음을 속여서는 안 된다.

40. 이 빛이 조속히 사람들의 마음에 닿아야 한다. 처음에 그것이 논쟁이나 싸움의 원인이 된다 해도 중요하지 않다.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선과 악은 예로부터 서로 충돌해 왔다. 밤의

그림자가 낮의 빛 앞에서 사라지듯이, 사람들의 악도 나의 사랑의 메시지 앞에서 물러설 것이다.

41. 그 “두 번째 시대”에, 내가 인간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은 극소수의 마음만이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나중에 구세주의 탄생을 새로운 시대의 시작으로 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내 계시를 시작하는 것, 즉 성령으로서 내가 오시는 일은, 내일 또 다른 시대의 시작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42. 신성한 사랑의 화신인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43.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 진리를 사랑하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이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44. 나는 사람들이 내게로 올 수 없었기에 그들을 찾아가는 “말씀”이다. 내가 그들에게 계시하는 것은 나의 진리이니, 진리는 내 뜻에 따라 너희 모두가 들어가야 할 왕국이기 때문이다.

45. 내가 먼저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많은 포기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어떻게 진리를 발견하겠느냐?

46.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때로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해야 하며, 심지어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할 때도 있다.

47. 자만하는 자, 물질주의자, 무관심한 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벽을 허물기 전까지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그가 나의 빛을 정면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욕과 약점을 극복해야 한다.

48. 유물론자는 오직 인간의 삶만을 사랑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이 덧없음을 깨닫기 때문에, 삶을 강렬하게 살아가려고 애쓴다. 그러다 자신의 계획이나 소망이 실현되지 않거나 어떤 형태로든 고통이 닥치면, 그는 절망하고 신을 모독하며, 운명에 도전하고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한다고 믿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운명의 탓으로 돌린다.

49. 이들은 굽히지 않는 육신 속에 갇힌 연약한 영혼들이며, 도덕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들이다. 그들은 물질주의에 빠져 하찮은 업적에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련을 겪는다.

50. 물질화된 자들은 얼마나 기꺼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어 하는가! 그들은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흘러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가.

51.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시험하거나 그분의 권능을 의심할 필요 없이, 선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 나의 사랑은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모든 이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52. 다시 한 번 너희에게 말하노니, 진리를 사랑하는 선의의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들은 신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보호 아래 들어오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내 임재를 느끼게 될 것이다 — 그들의 영혼 속에서도, 인간적인 삶 속에서도, 그들의 투쟁과 필요, 시련 속에서도 말이다.

53.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은 아버지의 법에 순종하는 자녀들이다. 그들은 바른 길을 걷고 있으며, 심한 고통을 겪을 때면 용서와 평화를 갈망하며 영혼을 나에게로 들어 올린다. 그들은 고통이 종종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인내로 그것을 견뎌낸다. 오직 그 고통이 견딜 수 없을 때에만, 그들은 자기 십자가의 짐이 떨어지기를 간구한다. “주님,” 그들은 나에게 말합니다. “제 영혼이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화와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는 저보다 제가 무엇이 필요한지 더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삶의 시련에 적용할 스승의 본보기를 찾기 때문입니다.

54. 모든 고통과 모든 고난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혼을 뒤흔들며, 성장하고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기회를 줌으로써 영혼의 얼룩을 씻어낸다는 것은 사실이다.

55. 사랑과 인내로 그 잔을 마실 때, 고통은 영혼에 얼마나 큰 선을 베푸는가!

56. 너희 영혼이 걸어온 시련의 길은 멀었다. 너희는 천 년 된 나무와 같다. 그 나무들은 거센 바람이 몰아칠 때 마른 잎을 잃고, 바람에 채찍질당해 헐벗게 되지만, 나중에 새로운 잎으로 덮이게 된다. 이처럼 나무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두도, 생애 동안 아버지께서 주시는 시련과 교훈을 받아들임으로써, 영혼의 낡은 옷과 불순물, 누더기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축제 의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57. 제자들아, 고통은 너희 마음속의 나쁜 열매를 제거하고, 경험을 선사하며, 너희의 잘못을 바로잡게 한다는 것을 알아두라.

58. 이와 같이 너희 아버지는 너희의 마음이 밝아지도록 너희를 시험하신다. 그러나 너희가 내 지혜로운 교훈의 뜻을 깨닫지 못해 이해하지 못한 채 헛되이 고통받으면, 그 고통은 무의미하며 너희는 그 교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59. 이 시기에 나는 너희에게 삶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으니, 너희는 고통의 원인을 알고, 속죄와 보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너희가 정화되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내 백성이 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체득할 때, 새로운 인류의 기초가 놓이게 될 것이다.

60. 때때로 고통이 너희를 뒤흔들었는가? 너희의 가지가 휘어지고, 마른 잎들이 떨어져 나갔으며, 너희 나무에서 나쁜 열매들이 떨어졌는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영혼이 얻은 선함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가치가 있다.

61. 나는 너희가 매일 자연 속에서 관찰할 수 있는 예들을 들어주겠다. 예를 들어, 폭풍우에 휘둘리는 나무처럼 말이다. 물질적 자연은 신성한 본성의 현현이므로, 너희는 이 생에서 너희를 둘러싼 모든 것에서 너희 영혼을 위한 교훈이나 계시를 발견할 수 있다.

62. 너희의 육신이 살아가기 위해 공기, 햇빛, 물, 그리고 빵을 갈망하듯이, 영혼 또한 그 본성에 맞는 삶의 환경과 빛, 양식을 필요로 한다. 영혼이 자신의 양식을 갈망하며 높이 날아오를 자유를 박탈당하면, 약해지고 시들며 무감각해집니다. 마치 아이를 항상 요람에 머물게 하고 방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의 사지는 마비되고, 얼굴은 창백해지며, 감각은 무뎌지고, 능력은 위축될 것입니다.

63. 영혼도 절름발이가 될 수 있음을 깨달으라! 나는 심지어 이 세상이 영적으로 절름발이, 눈먼 자, 귀머거리, 병든 자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갇혀 살며 자유롭게 펼쳐질 수 없는 영혼은 지혜나 힘, 미덕 어느 면에서도 성장하지 못하는 존재이다.

64. 거친 폭풍이 너희를 정화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라. 계절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정화되며, 꽃피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65. 다른 더 높은 삶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이 세상에서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66. 배우고, 깊이 생각하며, 투쟁하고, 고통받고, 희망하는 법을 이해하라. 항상 사랑하고, 또한 믿음을 가져라. 믿음과 선의를 지닌 사람이 되라. 그러면 너희는 위대한 영혼이 될 것이다.

67. 너희를 둘러싼 자연 속에서 나의 현존을 찾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라. 나는 너희가 모든 것 속에서 나를 발견할 것임을 안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것, 그리고 나의 모든 작품 속에 있기 때문이다.

68. 내가 잠시 동안 숨어 계신 이 사람들을 통해, 그들의 입술로 나의 신성한 말씀이 흘러나오게 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나를 드러내시는지 보라. 너희는 언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넘어 나를 보게 될 것인가? 언제 인간이라는 도구가 필요 없이 너희의 영적 감각을 통해 나를 감지하게 될 것인가?

69. 하나님의 영원한 가르침은 그분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오직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만이, 즉 영과 영 사이에서 직접 그것을 듣습니다.

70. 너희가 신성과 인간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너희 존재의 조화를 이루게 될 때, 너희는 천사와 인간, 하늘과 세상, 저 세상과 땅, 영과 물질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노래를 듣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은 자신의 창조물에 생명을 불어넣고 그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신성한 존재를 향한 사랑의 찬가로 하나로 합쳐질 것입니다. 제자들아, 너희는 이 찬양 속에서 하나가 될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내가 다시 인간들에게 온 이유입니다.

71. 너희는 너희 내면의 성소에 들어가야 한다. 그곳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신성한 지성에 의해 세워진 곳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곳에서 진리의 계시를 알게 될 것이며, 영원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어, 모든 덧없는 것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72. 너희의 육신이 무엇이겠느냐? 그 비행이 잠시뿐인 덧없는 작은 새, 곧 자신의 임박한 소멸을 무의식중에 노래하는 새일 뿐이다. 자기 중심으로 많은 것을 요구하고 탐내는 가련한 육신. 반면 영혼은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순수하고 빛나는 새로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영혼은 나이나 세월, 세기가 존재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73. 너희는 어느 날, 어느 시간, 어느 해에 태어났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영적으로 생명을 얻게 된 때가 언제인지 알고 있는가?

74. 영혼을 높이 들어라. 영혼은 너희 삶의 본질이며, 너희의 소명이자 너희가 창조된 목적이다. 일어나라. 그래야 너희는 내게로 올 수 있다. 나는 너희에게 줄 것이 많으니, 너희가 세상에서 마주한 것보다 훨씬 더 많다.

75. 사랑이 마침내 너희를 정복할 것이며, 사랑을 통해 너희는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가르침 259

1. 환영합니다, 나의 제자들아.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이곳에 왔으며, 나는 너희가 영생의 양식으로 배를 채울 수 있도록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

2. 비록 너희의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너희의 영혼은 내게 순종하기에 충분히 강하다. 마음을 준비하고 세상의 것을 버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 나선 제자는 복이 있다.

3. 나는 너희 영혼에게 은혜의 옷을 선사하노라. 시간이 흐르는 동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누더기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4. 나의 법은 너희가 모든 시대에 걸쳐 받아온 가르침이니, 너희가 따르지 않은 법이며, 너희의 불순종으로 인해 너희는 혼란에 빠졌다. 이제 내가 성령의 빛으로 너희를 다시 비추리라.

5. 나는 인류 앞에 빛나도록 해야 할 수 없이 귀중한 보석을 너희에게 맡겼다. 그것을 숨기지 말고, 스스로 그것을 빼앗지 말라.

6. 오늘 너희는 내가 옛 예루살렘에 승리의 행렬을 지으며 입성했던 날을 기념한다. 오늘도 사람들은 물질적인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내 앞에 나타난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마음속에 평화를 볼 수 없다.

7.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은총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알았기에, 영혼으로 ‘호산나’를 외치며 나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과 함께 계심을 증언했습니다.

8. 훗날, 너희가 사명을 완수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내가 십자가라는 거룩한 제단 위에서 희생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예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래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어린양일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린양이 그 피로 너희를 비추리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9. 오늘 나는 성령 안에서 다시 와서 너희에게 내 가르침을 전하고, 너희를 영적으로 변화시키며, 성령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어, 너희가 새롭게 되고 미덕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려 한다.

10. 사람들은 아직 이 말씀을 듣지 못했고, 서로를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강한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너희는 나의 힘으로 충만하여 인류 가운데서 나의 영적 임재를 증거하기 위해 나아갈 것이며, 나의 진리를 전하고 이 시대에 세상이 비워가고 있는 고난의 잔을 없애기 위함이다.

11. 너희 가운데는 굶주린 늑대가 있다. 너희는 깨어 기도해야 하며, 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한다. 나의 계명을 따르는 자는 나의 평화를 느낄 것이다.

12. 이 시대에 나는 너희가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명확하게 말해 주었다. 나는 이 길이 걸을 수 있는 길임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다. 고통이 너희를 덮칠 때, 그것을 너희에게 보낸 것은 아버지가 아니다. 너희 스스로가 불순종으로 인해 그 고통을 초래한 것이다.

13. 내가 무한하고 숭고하며 거룩한 사랑이며, 모든 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언제나 계속 사랑하리라.

14. 나는 너희가 인류의 본보기가 되도록, 도가니 속의 금처럼 너희를 정화하기 위해 왔다. 너희가 내 가르침을 이해해야만, 너희 동료 인간들 사이에서 모든 영혼을 비추는 빛의 햇불이 될 수 있다.

15. 내가 영생을 주려 하는 것은 너희의 영혼이니, 이는 그 영혼이 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나는 그 영혼이 내게 순종하고, 나와 영과 영이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다.

16. 물질적인 종려나무 가지는 내게 닿지 않으니, 영적인 방식으로 내게 너희의 종려나무 가지를 보여 주라. 너희는 현재 인류가 고통의 잔을 비워내는 시기를 겪고 있다. 그 고통이 너희에게도 닥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17. 이 며칠 동안 인류는 나의 수난을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금 너희는 내가 너희를 깨울 시기에 와 있다.

18. 인류가 여전히 광신과 타락, 죄악 속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볼 때, 내 영혼의 고통은 크도다. 그러나 너희, 깨달음을 얻은 선택받은 백성아, 영원히 인류 가운데 다스릴 나의 참된 가르침을 따르라. 사람들은 나의 사랑을 막을 수도, 나의 신성한 빛을 가릴 수도 없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나의 발자취를 따르고 나의 율법을 지키도록, 나의 말씀으로 너희를 격려하고 인도하노라.

19. 내일 너희는 기도를 통해 나의 신성으로 승화될 것이며, 직관으로 깨달음을 얻어 동료 인간들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20. 내가 너희에게 맡긴 사명은 너희가 언제나 이행해야 할 임무이니, 너희를 통해 인류가 나의 빛을 받아야 하며, 내가 그들을 은총의 삶으로 이끌어 올릴 것이기 때문이다.

21. 이스라엘아, 더 이상 잠들어 있기를 원하지 마라.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자연의 힘이 너희를 깨울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맡긴 송고하고도 어려운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22. 나는 너희가 그 땅을 깨끗이 하고 가꾸도록, 너희에게 주신 은사와 내가 맡긴 광활한 밭의 무한함을 깨닫게 하였다.

23. 너희는 생명나무의 잎사귀 그늘 아래, 나의 보호를 받는 나의 자녀들이며, 너희 영혼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선택받은 백성아: 너희 중에 내 자비를 간구한 자 중 누가 그것을 받지 못했느냐? 내 큰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증언하기 위해 길을 나선 너희 중의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너희의 증언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24.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라. 그리하여 사람들이 영혼 속에 은총의 생명을 갖게 하고, 그들 안에서 나아말로 최고의 의사임을 깨닫게 하며, 영과 영이 서로 소통하며 나를 찾게 하라.

25. 제2의 시대에 내 제자들은 인류가 그것을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며, 실천에 옮기도록 내 가르침을 전파했다. 그러나 나중에 인간은 내 가르침의 핵심에서 멀어져, 대중을 이끌기 위해 자신만의 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나는 인간이 그릇된 길로 빠지고 물질주의에 물들어 만들어 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단지 내 진정한 성전은 너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줄 뿐이다.

26. 이 시대에 나는 나를 찾은 너희에게, 마음속에서 나를 느끼고 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도록 가르쳤으니, 이는 너희가 은총과 빛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다.

27. 준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길을 떠나, 인류에게 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인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이 그분의 율법을 인정하고 따르게 하실 것이며, 그들이 은총의 삶을 살며 영과 영 사이에서 나를 찾는 법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28.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하라. 너희 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며, 너희의 준비 상태에 따라 나를 드러내리라.

29. 나는 이 시대에, 너희, 곧 선택받은 백성 가운데서 나를 드러냄으로써 인류에게 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증명해 주기 위해 왔노라.

30. 너희는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가르쳐야 한다. 그들이 준비하고, 물질적 집착을 떨쳐내면, 그들의 영으로 나를 느끼고 보게 될 것이라고. 그러므로 나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 너희에게 말씀하셨으며, 죄 많은 사람들을 통한 이 계시는 너희가 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인류에게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베푼 사랑의 증거였다.

31. 이스라엘아, 준비하라.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내가 계시하는 시간은 짧으니, 나는 너희가 준비 부족으로 인해 내일 고아처럼 느껴지거나, 호화로운 교회에 모여 의식과 물질적인 찬송에 만족하는 군중들을 흉내 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진정으로 느낀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영혼을 깨우치며, 사랑으로 가득 찬 내 말씀을 주어 너희가 나의 임재를 느끼고, 내일 이 사랑과 평화를 이웃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고 너희에게 왔노라.

32. 너희가 사랑으로 가득 찬 나의 말씀으로 너희 마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 큰 시련과 폭풍이 인류를 몰아치는 그 시기를 맞이했을 때,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이며, 너희 이웃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마음속에 평화가 없으며, 이 사람들이 잠시 위안을 갈망하며 쾌락에 빠져들더라도,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모든 쾌락 속에서도 그들은 나의 평화를 느끼지 못하는 고통받고 병든 영혼을 지니고 있다. 그들이 추구하는 오락 속에서 그들은 단지 육체의 감각만을 만족시킬 뿐이지만, 그들의 영혼 속에는 오직 고통만이 있을 뿐이다.

33. 이 인류는 나를 느끼지 못했으며, 아직 그 누구도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길을 보여 준 자가 없다. 나는 그들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자비로 그들의 잘못을 심판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속죄할 기회를 주리라.

그러나 나를 듣고,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낸 선택받은 백성아, 너희가 영적인 세계에 이르러 내게 너희의 불순종을 고백할 때, 내 앞에서 어떤 심정을 갖게 되겠느냐? 너희는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신 자들이며, 나는 너희가 어려운 사명을 완수한 채로 너희를 맞이하고자 한다. 나는 너희가 내 면전에서 피고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아버지 같은 미소로 너희를 맞이하여 빛의 영들로서, 너희 이웃의 인도자이자 보호자로서 다시 세상에 보내고자 한다.

34.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내게 온 것은 엘리야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너희를 모아 주었기 때문이며, 너희가 엘리야가 양처럼 내게 인도해 온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엘리야의 양 우리 안에 있는 자는 그에게서 보호를 받는다. 이 지칠 줄 모르는 목자는 교활한 박해로부터 너희를 지켜 준다.

35. 성령께서 너희에게 빛을 비추셨다. 그러나 내 신성한 인장을 지닌 자들만이 이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준비하고 엘리야의 인도를 받아 내게로 나아오는 모든 이가 이 은총을 받는다.

36. 성령의 빛이 너희를 비추었으니, 이는 너희가 영과 진리 안에서 나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나의 사랑을 느끼고 구원을 얻게 될 길이다.

37. 나는 엘리야가 내 앞으로 데려오는 양들을 받아들인다. 그는 계속해서 길을 잃은 자들을 찾아다닐 것이니, 이는 내가 땅의 모든 민족과 훗날 올 모든 세대에게 나의 자비를 베풀 것이기 때문이다.

38. 스승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마르지 않는 샘에서 수정처럼 맑은 물을 마시고, 영생의 떡으로 배를 채우며,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보라, 내가 내 식탁에 너희를 위해 가장 좋은 자리를 마련해 두었다.

39.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묻노라. 네가 열방을 위해 무엇을 구하느냐? 이 은혜는 오직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라, 열방이 고통의 큰 시련을 겪어 왔음을.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아, 네가 네 이웃을 위해 나서고 기도할 때, 내 뜻이 온 인류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40. 사람들은 나의 가르침을 왜곡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와서 나의 가르침과 지혜로 너희를 훈련시키려 왔으니,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어 내일 세상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영혼 속에서 나의 임재를 느끼게 해 줄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다.

41. 여러 나라들은 새로운 전쟁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깨어 기도한다면, 나는 인류에게 나의 평화를 베풀고 허락하리라.

42. 나는 이 제3의 시대에 영으로 오셔서, 마치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너희를 생명으로 깨우치기 위함이다. 나는 너희의 나병을 고치고 너희의 고통을 없애 주었다.

43. 나는 너희가 마음속에 나의 사랑을 간직하고, 인류를 이끌며 너희에게 그들을 드리우고 그 열매로 생명을 주었던 그 나무를 보여줄 준비를 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내 가르침을 주었다.

44. 사람들을 내게로 초대하여, 그들에게 나의 아버지 같은 어루만짐을 베풀고, 그들의 영혼을 깨우치며, 끝없는 악행의 바다에서 구원하고, 젖과 꿀을 주며, 그들의 삶에서 쓴맛을 없애 주도록 하라.

45. 너희가 이웃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너희는 내가 모든 시대에 걸쳐 너희에게 맡긴 사명을 완수한 것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백성아, 너희 내면의 양심의 목소리를 듣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결심을 굳게 다져라.

46. 나는 너희 마음속의 사랑을 구하노니, 너희가 그 안에서 나를 위한 성소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가 나를 섬기도록 신성한 은총으로 너희를 단장시키고 빛을 비추었노라.

47. 나는 너희 안에 이 말씀을 심어 두었으니, 내일 이 말씀은 좋은 씨앗이 되어 배가될 것이다. 너희가 더 이상 이 형태로 나를 듣지 못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내 제자들에게로 돌아와, 대변자들을 통해 듣지 못했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들을 가르칠 것이며, 나는 그들과 함께 하리라. 너희는 나의 율법에 충실하고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만 나의 일이 너희에게 방패가 되어 주고, 너희가 영성화의 깃발을 높이 세울 수 있을 것이다.

48. 이스라엘아, 인류에게 닥칠 큰 시련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파멸을 꾀하는 의도가 살아 있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들만의 신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뜻을 행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다시금 인류 가운데서 그 존재를 드러내실 것이다. 내 백성아, 너희는 노아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 율법인 구원의 방주를 다시금 보여주기 위해 나서야 한다.

49. 내 백성아, 너희에게 올 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들에게 내 사랑을 베풀고, 서로 사랑하도록 가르치며, 내 율법을 보여주고, 그들의 마음에 믿음의 불꽃을 지피고, 내 말씀으로 그들에게 평화를 주어 그들이 가는 길에서 그 평화를 누리게 하라. 너희는 그 무리들에게 영과 영으로 나를 찾도록 가르쳐야 한다.

50. 너희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이를 위해 나는 내 말씀을 통해 너희를 준비시켰으니, 이 수정처럼 맑은 물로

너희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너희를 강건하게 하며 치유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용기 있게 일어나 내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말해야 한다. 너희는 나의 사자가 되어야 하며, 너희를 통해 내가 그들에게 나의 빛을 주리라.

51. 기도 속에서 일어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며, 너희는 영적 세계와 함께 사람들을 차츰 깨우게 될 것이다. 나를 느끼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나에게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우리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라고 말하는 이들을 위해 깨어 기도하라.

그러나 영과 영으로 나를 찾는 법을 아는 너희는, 동료 인간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침묵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고양시키며 나를 찾도록 이끌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나의 용서를 실감하게 하고, 그들이 나의 율법을 지키도록 빛과 지혜를 주리라.

52. 나를 알아보고 내 곁에 있는 너희를 통해, 나는 악의 광대한 바다에서 파멸해 가는 자들을 도울 것이다.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이자 주님으로부터 선한 것을 받은 자로서, 인류를 향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계시한 모든 것을 증언하여, 그들도 나를 사랑하고 영적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라.

53. 오늘날 땅 위에 ‘이스라엘 백성’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으며, 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그러나 내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언급할 때, 그것이 유대 민족을 가리킨다고 오해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 백성은 모든 인종과 모든 언어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공동체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며, 그 사명 또한 영적인 것이 될 것이다.

54. 그 초창기 시절 이스라엘이 열두 지파로 이루어졌던 반면, 이제 새로운 백성이 수행할 것은 열두 가지 사명이 될 것이다. 이 열두 가지 신성한 사명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 그들에게 무적의 백성으로서의 힘을 부여할 것이다.

55. 사람들은 새로운 지파를 형성하기 위해 무리를 지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창조할 것이며, 각자에게 사람들 가운데서 수행해야 할 서로 다른 사명을 부여할 것이다.

56. 직관, 계시, 영감의 은사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영 안에서 깨어날 것이니, 이를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은 나의 메시지를 받게 될 것이다.

57. 새로운 백성을 이루는 사람들은 땅 위에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으로 인해 이미 그들의 영혼 속에서 성숙한 존재, 빛의 존재로서 표식이나 인장을 받게 될 것이며, 그들에게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58. 첫 번째 시대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갈망하며 광야를 건너기 위해 준비하고 질서를 잡았으며, 각 지파에게 서로 다른 임무가 맡겨졌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을 영적으로 복돋아 줄 것이며, 각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완수할 것이다.

59. 지금 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는 온 땅에 흩어져 하늘의 별들만큼이나 많은 그 백성의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60. 너희 중 일부가 받은 그 표징은, 이 제3의 시대에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이가 자신의 영혼 속에 지니고 있는 표식의 상징일 뿐이다.

61. 나는 너희에게 여러 번 말했듯이, 너희 영혼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이미 그 안에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인침”이라고 부르는 그 행위는 단지 하나의 상징에 불과했다. 그러나 너희의 사명이 이미 정해져 있고, 새로운 백성 안에서 너희의 소명과 역할이 무엇일지 이미 알고 있으니 기뻐하라.

62. 너희는 만민에게 나의 지시를 선포하는 전령이 되어야 하며, 내가 너희를 그 수탁자로 삼은 신성한 메시지를 인류에게 계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 안에서 모든 사자와 표식을 받은 자들이 영적으로 하나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영혼의 모든 은사와 능력이 해방되는 그 시대를 인류에게 선포해야 하며, 이를 발견하고, 꽃피우고,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63. 영감, 직관, 말의 은사, 치유, 예언, 계시, 영적 대화 — 이것이 바로 내 백성에게 부여됨으로써 모든 사람을 새로운 인류로 만들 은사들이다. 그러나 기도하고, 믿음과 용기를 가져라. 그래야 너희가 동료 인간들 사이에 평화와 정의, 그리고 이웃 사랑을 흘러넘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64. 나의 사자들은 모든 곳, 모든 기관의 품 안에서 사명을 수행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자신이 수행하는 영적 사명을 알지 못하겠지만, 그들의 영혼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자각할 것이다. 영혼은 마음에게 지상에서 이루어야 할 소명을 보여 줄 것이며, 이성에게 실현해야 할 모든 것을 계시해 줄 것이다.

65. 이 메시지를 받은 너희의 책임은 얼마나 큰가! 너희는 들은 바를 증언하고, 영성화의 모범이자 교훈이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66.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입을 열 때가 오면, 너희 가운데는 단 한 가지의 모호함도 있어서는 안 되며, 너희의 행실과 말, 그리고 글 모두에서 진리와 너그러움이 드러나야 한다.

67. 이제 내가 너희에게 묻노라. 너희는 인류를 위해 ‘깨어나라’는 경종을 울리는 이들이 되고자 하는가? 진리의 울림으로 마음을 일깨우는 종소리를 울려 인류를 깨우는 자들이 되고자 하는가? 아니면, 너희가 이 땅에서 남긴 마지막 흔적마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여, 세계 각국의 민족들에게 이 증언을 전하는 일을 새로운 세대에게 맡기려 하는가?

68. 비록 너희가 때때로 그토록 높은 소명을 다할 힘이 있는지의심하더라도, 내가 너희 각자를 파송했을 때 나는 틀리지 않았다.

69. 너희는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기에, 선택받고 파송되었다는 사실을 의심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이러한 약점은 내가 파송한 영적 영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 주어진 육체에 있는 것이다.

70. 영적 영혼이 육신을 이기는 때가 올 것이며, 깨달음의 빛이 모든 이성의 마음속에 비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서로 하나가 될 것이니, 오직 단 하나의 의지만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의 합당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너희 영혼에 새겨 놓으신 계명에 순종하려는 의지이다.

71. 스승의 신성한 빛이 온 땅에 퍼지고 있다. 내가 나의 “일꾼들”에게 부름을 보내니, 너희가 주님의 식탁에 앉을 수 있도록 하라. 너희의 순종과 겸손을 나타내고, 사랑과 이해와 자비를 품을 수 있도록 먹으러 이리 오라.

72. 지극히 높으신 스승인 내가 나의 “일꾼들”에게 완전한 본보기를 보여준다. 나는 이 제3의 시대에 제자들을 준비시켜,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너희에게 본래 주어진 자비를 실천하는 마음이 되게 하리라.

73.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는 내 사랑으로 너희를 격려하기 위해 너희에게 온다. 너희가 나를 느끼고 알아갈 수 있도록, 또 너희가 누구로부터 말씀을 듣는지 깨닫고, 그것을 연구하고 탐구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74. 사랑하는 “일꾼”들이여, 이에 깊이 몰두하라. 어둠, 즉 증오와 탐욕, 허영이 인류 속에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큰 힘이 있으니, 병든 자와 “나병 환자”, 불신자가 이 시대에 “신성한 말씀”이 전하는 바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사역을 전해야 할 자들이 바로 너희이다.

75.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 가운데서 빛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직 스스로를 알지 못하며, 사람들도 너희를 알아보지 못한다.

76. 불신하는 인류는 내 능력을 부정하기 위해 입을 열는데, 이는 그들이 내가 제2의 시대에 그들에게 주었던 증거와 기적들을 보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데, 이는 그들이 자신의 영혼을 고양하는 법을 알지 못했고, 기도하거나 간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77.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는 법을 가르쳤을 때, 나는 너희를 진리와 상향 발전, 그리고 준비의 길로 인도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깨어 있고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78.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라. 그러면 스승께서 너희에게 빛과 용서, 축복을 베풀기 위해 너희의 비천함 속에 나타나시며,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십자가를 더 가볍게 하고, 너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너희 곁에 있다.

79. 내가 너희에게 밭과 농기구를 맡긴 것은, 너희가 밭을 갈고 가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80. 인류는 내가 너희에게 맡긴 진리를 갈망하고 목말라 하고 있다. 인류는 어둠과 심연, 파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언어와 인종,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나는 그 차이점을 따지지 않고 오직 영혼들에게만 부르짖음을 전할 뿐이다.

81. 이스라엘아,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나의 가르침을 전해야 할 것은 바로 너다.

82. 너희가 지닌 은총과 내 말씀의 가치를 깨달아라. 내가 너희에게 맡긴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한 마음, 한 몸, 한 뜻으로 일에 매진하라.

83.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겸손의 본보기가 되라. 내 말씀을 전하고, 건강을 베풀며, 위로를 주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부활시키고, 눈먼 자에게 시력을 되찾아 주고, 절름발이를 고쳐 주라. 그러면 인류는 이러한 영적 기적을 통해 나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84. 1950년이 지나면 너희는 더 이상 대변자를 통해 나를 듣지 못할 것이며, 그때 너희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분이 바로 스승이시며, 성령이셨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85. 오늘 나는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내 은총을, 스승으로서 내 가르침을 준다. 나는 울림 좋은 종소리로 너희를 부르며 여러 길에서 너희를 모아, 이 시대에 너희를 인류의 인도자로 삼으려 한다. 나는 너희가 수행해야 할 사명을 상기시켜 주었고, 너희가 상징과 형상을 통해 나를 볼 수 있도록 너희의 영적인 눈을 단련시켰다. 나는 너희가 나로부터 받은 계시에 대해 인류에게 증언할 수 있도록 말의 은사를 주었다.

86. 너희는 나의 선택받은 자들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했노라. 너희가 가는 곳마다 빛의 흔적을 남기라. 그러나 이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너희가 새롭게 되어야 하며, 준비해야 한다.

87.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세상의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나를 이해하고, 나를 따를 수 있도록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88.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에 나의 임재를 실감하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 마음의 꽃을 나에게 바치고, 너희 선행의 향기가 나의 영에게 닿게 하며, 이웃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라. 그리고 내일, 너희가 더 이상 이 목소리의 매개체를 통해 나를 듣지 못하게 될 때, 인류를 위해 이 길을 보여주기 위해 나의 훌륭한 제자로서 길을 나서라.

89. 사람들은 나의 사역을 왜곡하고 길을 잃었다.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를 단련하여 더 이상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형상들은 말하지도, 느끼지도, 듣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나의 본질이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 물질화될 필요가 있겠느냐? 진리는 언제나 승리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나에 대해 증언할 수 있도록 항상 진리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다.

90. 유혹은 마치 맹금류처럼 너희의 은사를 빼앗으려 한다. 그러나 너희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억압의 시대는 이제 끝났으니, 너희는 이 자유를 활용해야 하며, 사람들의 악과 거짓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91. 이 가르침을 사랑으로 전하십시오. 사랑이야말로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나를 믿게 하기 위해 채찍을 쓸 필요는 없었습니다. 만일 내가 그렇게 했다면,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아버지이자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92. 세상의 길과 오솔길에서 너희는 고통을 마주했다. 이제 내 진리가 있는 이 길을 바라보아라. 너희의 영적인 시선으로 그 영광을 바라보아라. 나는 너희에게 열쇠와 은사와 권능을 맡겼다. 인류가 너희를 나의 제자로 알아볼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잘 활용하라.

93.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대변자들을 통해 내 음성을 듣지 않게 될 때, 너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때이다. 나는 결코 너희와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어려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나는 너희에게 영감을 주고 영과 영이 소통하는 방식으로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가르침 260

1. 너희는 이 시기에 내게로 돌아와 나의 새로운 가르침을 듣고, 너희가 잊고 있던 나의 교리의 법전을 받으며, 사람들이 너희에게 숨겨왔던 나의 계시의 책을 찾으려 한다.

2. 나는 생명책의 또 다른 장, 즉 무한한 지혜를 담고 있는 여섯 번째 인을 너희 앞에 펼쳐 놓았으며, 현재 이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너희에게 계시하고 있다. 이 계시는 너희가 꿰뚫어 볼 수 없었던 비밀들을 설명해 준다.

3. 여섯 번째 봉인이 완전히 열렸으며, 나는 그 내용을 한 페이지씩 너희 눈앞에 펼쳐 보이고 있다.

4. 너희가 나를 경청하며 준비를 충분히 해왔을 때마다, 너희는 위대한 신성한 계시를 얻어 왔다. 너희는 지혜의 책의 상속자들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준비할 때 여섯 번째 봉인의 내용이 너희 안에 쏟아져 들어올 것이며, 그리하여 너희는 들은 목소리가 나의 목소리였음을 확인하는 증인이 되고, 너희의 행실을 통해 이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5. 만일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다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완전한 이해와 완전한 사랑을 기대하실 수 있겠느냐? 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너희 영에 대해 내 가르침을 점점 더 단순하게 밝혀 왔음을 기억하라.

6.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너희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너희는 아직 나를 온전히 알지 못하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완전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내가 너희에게 계시한 바를 이해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너희의 사랑은 스승의 말씀에 힘입어 너희를 삶의 여정의 목적지로 이끌 것이다.

7. 여러분은 영적 사막을 가로지르며, 그 과정에서 신성한 등대의 빛에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바닥을 태우는 것은 뜨거운 모래도 아니고, 얼굴 피부를 상하게 하는 것은 햇살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 물과 빵의 부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 그 희생과 고난, 불운은 마치 여러분이 천천히 건너가고 있는 사막과도 같지만, 평화의 왕국에 도달하겠다는 확고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8. 엘리야는 이 시대에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투쟁 속에서 그들을 격려하는 인도자이다.

9. 이 여정은 너희 영혼에 진보와 완성을 남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깨달아라. 첫 번째 시대에는 너희가 아직 견습생이었고, 두

번째 시대에는 제자였으며, 이 시대에는 스승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다.

너희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은 내 사역을 탐구하려 할 것이며, 어떤 이들은 이를 과학적인 것으로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너희는 영적 가르침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지 그들에게 알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행실로 이를 증언해야 한다.

10. 나는 인간의 과학에 반대하지 않는다. 과학은 지식이며, 통찰이며, 빛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가르침은 모든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다. 나의 말씀 속에서 나는 너희에게 영적 영혼에 대해, 영적인 것과 신성한 것에 대한 지식에 대해, 그리고 물질과 실체 너머에 있는 더 높은 삶에 대한 지식에 대해 이야기한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류의 복지를 위해 사람들이 발전시켜 온 그 과학을 나는 축복하노라.

11. 지금이야말로 영혼과 과학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게 될 때이다. 과학은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 육체를 단련하는 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는 영적 영혼에서 솟아나는 빛이기 때문이다.

12. 나의 신성한 가르침은 너희에게 영혼을 완성하도록 가르치는 더 높은 과학이다. 이를 위해 나는 너희에게 뇌와 마음을 주었으니, 그곳에서 너희의 사고와 감정을 고귀하게 다듬으라.

13.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는 가르침은 한계가 없으며, 모든 것을 아우르고, 무한하다. 그 안에서 너희는 영적 삶과 물질적 삶에 대한 참된 지식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14. 나는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 비밀을 파헤칠 능력이 있다고 본다. 물질에 관한 과학을 통해 너희는 물질적 창조를 지배하는 법칙들을 알게 되었으니, 그 법칙들은 너희 자신의 몸 속에 응축되어 있다.

그러나 이전에는 너희에게 비밀이었던 것을 알게 되면서, 너희는 저 세상의 문턱 앞에서 있음을 깨닫게 되었으니, 그곳에서 끊임없이 너희와 소통하려 애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다. 내 가르침을 안다면, 너희에게 무엇이 알려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

1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학자들 앞에서 너희 마음이 낙담하지 않도록 막아 줄 더 높은 지식을 너희에게 준다.

16. 자연이나 너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뜻이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과학 서적을 참고할 필요는 없다.

너희에게는 너희의 이성을 준비하고 마음을 정화하여, 너희 입술에서 영감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17.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너희가 아무리 미숙하더라도 내 왕국을 너희에게 내어주었고, 너희에게 내 피를 주기 위해 너희에게 내려왔노라!

18. 내가 현재 가르치고 있는 이 백성은 그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더 위대해지지는 않겠지만, 내가 그들에게 맡긴 것과 내가 그들에게 계시한 것에 대해서는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너희의 임무는 너희가 가진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그들을 너희와 같게 만들어, 비록 너희가 받는 데 있어 첫 번째였더라도, 겸손함으로 인해 마지막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너희 뒤에 오는 자들이 너희보다 더 큰 진전을 이룰까 봐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더 많이 줄수록 너희의 지식은 더 커질 것이다. 반면에, 너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을 아무것도 전하지 않는다면, 너희 영혼은 별거벗은 채로 남고, 너희 마음은 비어 있으며, 너희 손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보물을 잃게 될 것이며, 그 책은 잠겨 버릴 것이다. 너희 입은 침묵하게 되어 더 이상 영적인 가르침을 말하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맡기신 치유의 향유를 잃게 될 것이다.

19.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의 사명은 평화와 사랑의 사명이다. 이 사명은 너희의 영이 이미 ‘첫 번째 시대’에, 즉 너희가 내 율법의 어린 제자들이었던 그 시절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 시절에 나는 너희를 도구로 삼아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르침과 본보기를 주었다. 두 번째 시대에는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이는 너희가 내 입술로부터 열두 사도가 듣고 전파했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온 백성이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난 후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와 순교자들이 생겨났다.

20. 백성들아: 내가 성령으로 오시는 이 시대에, 나는 너희를 신성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스승으로 훈련시켜 남겨두겠다.

21. 대다수의 인간 피조물들은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통해 나를 듣지는 못하겠지만, 너희를 통해 나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너희에게 내 말씀을 전하는 이 방식을 영원히 폐지할 시기가 이미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나를 듣지 못했던 많은

민족들이 너희를 통해 나를 듣게 될 것이다. 오늘, 너희와의 나의 언약은 나의 피가 아니라 나의 빛으로 인봉될 것이다.

22. 너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사람들에게 물을 필요도 없고, 그들의 질문에 말더듬거나 침묵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너희 안에는 너희에게 말씀하시고 영감을 주실 스승이 계시니, 너희의 기도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23. 보라, 세상이 큰 곤경에 직면하여 예수께서 '제2의 시대'에 인류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되새기며, 이 시대를 뒤흔드는 사건들이 내 임박한 재림의 징조이기를 바라며 옛 선지자들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다.

24. 너희가 내 사역의 추종자로서 동료 인간들 앞에서 스스로를 열등하고 경멸받을 만한 존재로 여긴다면, 사람들은 너희를 어리석고 무지한 자로 여길 것이다.

25. 내가 무지한 자들을 통해 나를 드러낸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단지 내가 사용하는 표현 방식일 뿐이다. 왜냐하면 나의 영감을 받아들이는 뇌는 영혼 속에 빛을 드러내며, 그 빛은 지혜이기 때문이다.

26. 내가 다시 말하노니, 싸우라! 영혼이 발전의 길에 있는 한, 유혹에 노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힘을 주어, 너희가 악한 성향을 이겨내게 하리라. 너희 영혼이 강해지면, 육체의 욕망을 이겨내기 위해 이성에는 힘을, 마음에는 확고한 의지를 줄 것이다. 사람에게 빛이 부족하면, 그의 영혼은 성장하지 못한다. 그러면 삶의 모든 우여곡절이 그의 마음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그는 폭풍 한가운데서 전복되는 배와 같다.

27. 사람이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마치 유혹의 교활함에 맞서 파괴될 수 없는 갑옷을 입은 것과 같다.

28. 내가 너희에게 이 가르침을 밝힌 것은, 너희가 길 위에서 잠시 넘어지거나 비틀거릴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회개의 길을 찾게 하려는 것이다.

29. 너희가 겸손할 때, 너희를 기다리는 삶 속에서 너희의 영적 풍요로움이 더욱 커질 것이다. 그때 너희는 존재의 가장 아름다운 감정을 선사하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영혼 속에는, 아버지께서 내가 창조하신 모든 것의 충실한 수호자이시며, 고통받는 이에게는 위로가 되고, 평화를 잃은 이에게는 평화가 되어 주시는 분을 섬기려는 갈망이 싹트게 될 것이다.

30. 이 순간들에 내 임재를 너희에게 알리는 것은 단지 나의 말씀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평화 한가운데서 나를 깊이 느끼는 너희 자신의 영혼입니다.

31. 스승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너희 영혼은 나의 천상의 식탁에 자리를 잡았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식탁에는 특권적인 자리가 없으며, 모두는 나의 자비로 감싸여 있기에 평등하다.

32. 나의 사랑이 너희의 존재를 관통하여,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너희 마음속에 첫 번째 자리도 마지막 자리도 없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가 이미 여러 나라와 지방, 마을로 향하는 길을 떠났더라면, 사랑도 자비도 없는 인류를 마주하게 되었을 것이며, 어디에서나 고통과 비참함을 발견했을 것이다. 어디에서나 내 씨앗을 뿌릴 만한 적당한 땅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33. 인류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나를 드러냈는지 알지 못한 채 나의 현존을 느끼며, 두려움에 찬 기도를 통해 오직 나의 피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그들에게 나의 빵을 주면 사랑에 대한 굶주림과 갈증으로 망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나의 빛만이 그들의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나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고통과 절망에 찬 목소리가 나에게 묻습니다. “왜 오지 않으십니까? 고통 속에서 당신을 부르며 간청하는 이에게 왜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34. 그들은 날마다 나를 듣고, 그분의 은총으로 천민들을 신성의 종들로 변화시키는 내 영의 현존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35. 만일 그들이 내가 머지않아 다시 떠나게 될 것을 안다면, 너희가 그들의 위로와 영적인 말씀, 빛의 한 줄기에 대한 갈망에 무관심했던 점을 두고, 너희를 가차 없이 배은망덕한 자들로 단정할 것이다.

36. 나는 현재 너희가 나의 이별 이후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다. 그래야 너희가 삶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단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니, “그 말씀”이 영적으로 너희 안에서 계속 울려 퍼지며, 너희에게 큰 영감을 드러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영적 계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모일 때, 여러분은 나로부터 신성한 영감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순간 스승의 따뜻한 마음과 여러분의 머리에 얹히는 그분의 손길의 달콤한 무게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여러분에게 나의 평화를 선사해 줄 나의 사랑하는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37. 내가 너희에게 치유 연고의 한 방울을 주니, 너희가 박해를 받을 때 사람들 가운데서 기적적인 치유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대유행병이 돌고, 과학으로는 알 수 없는 기이한 질병들이 창궐할 때, 내 제자들의 권능이 드러나리라.

38. 나는 너희에게 가장 녹슨 자물쇠, 즉 가장 완고한 마음과 심지어 감옥의 문까지 열어 무고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열쇠를 맡긴다. 너희는 언제나 평화와 나에 대한 신뢰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니, 이는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 천사들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천사들은 너희의 사명 수행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삼아, 너희가 내 씨앗을 뿌리기 위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 가정, 병원, 감옥, 불화와 전쟁의 현장 등 —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39. 그러면 제6인장의 빛이 강력한 힘으로 비추어질 것이니, 이는 온 세상이 그 광채를 볼 수 있는 우주적인 햇불과 같을 것이며, 내 가르침의 이름이 인류에게 널리 알려질 것이다.

40. 이 시대에 내가 나를 드러낸 이 땅의 한 구석은 새 예루살렘의 반영이 될 것이며, 그곳은 “열두 문”을 열어 대거 몰려올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들은 이 시대에 스승이 어디에 계셨는지 묻고,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과 그가 제시한 증거들을 확인하며, 그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의 제자들이었던 이들을 관찰하기 위해 올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과거의 예언이 담긴 경전을 가지고 와서, 내가 과연 너희 가운데 있었는지 확인하려 할 것이다.

41. 내 제자들 중 일부는 지금 있는 곳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다른 나라로 떠나야 할 것이며, 사도와 선교사로서 길을 가는 동안 파괴와 죽음이 그 흔적을 남긴 전장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죽은 도시들과 폐허, 그리고 비참함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죽은 자들’을 믿음과 빛, 사랑의 삶으로 되돌리기 위한 투쟁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일꾼들’의 진실성을 의심한다면, 나는 그들을 통해 기적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회개하고 울게 될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자들의 마음에 자신의 고통을 쏟아 부을 것이다.

42. 너희는 그때 누가 너희를 부르며 맞이할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누구에게 나아가든지, 항상 겸손과 온유함으로 말해야 한다. 너희는 과거의 율법과 계시, 가르침들을 해석할 것이며, 이 시대에 성령을 통해 계시된 것들도 해석할 것이다. 너희는 비유적인 말로 말하되, 내 비유와 비유적 표현을

설명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어른들은 이해하고, 아이들은 깨달음을 얻으며, 노인들은 머리를 앓지 않을 것이다.

43. 이 말씀에 회심하는 자들은 ‘일꾼들’에 합류하여, 나를 위해 마음과 영혼을 얻기 위해 길을 떠날 것이다.”

44. 논쟁은 격렬하겠지만 결실을 맺을 것이니, 고통이 이미 마음들을 비옥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45. 내 가르침으로 인해 일어날 변화들을 알아차리라!

46. 물질적 권력은 무너지고, 과학은 혼란에 빠지며, 교만은 꺾이고, 정욕은 누그러질 것이다.

47. 이미 발달하여 꽃피운 인간의 영혼은 곧 내 가르침의 계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물질주의와 사리사욕, 허영 뒤에는 내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영적 영혼이 존재한다.

48. 너희가 뿌릴 씨앗이 내가 너희에게 맡긴 그대로 순수하도록 신경 써라.

49. 너희는 너희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끼며,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들의 관습, 생활 환경, 법, 가르침, 의식은 또한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을 것이다.

50. 너희는 세계관과 가르침 간의 투쟁을 목격하게 될 것이며, 어떤 이들은 내 법에 부분적으로 따르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 원칙들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릴 것이다. 나는 그들이 서로 대립하고 싸우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51. 이 대립 속에서 너희는 주요 종교 공동체들이 사랑과 자비보다는 폭력과 불의를 더 많이 동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 약자들을 자신들에게 묶어두려는 시도를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52. 모든 곳에서 분열이 드러날 것이니, 진리는 바로 그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지키기 위한 자신만의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이 떠오를 때, 너희는 “사랑 속에 있다”고 대답해야 한다.

53. 제자들아, 너희의 기쁨은 크다. 내 말씀이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고, 시련의 시간에 너희를 지탱해 주었으며, 너희를 양육해 주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알게 되었을 때, 너희의 상처가 아물고 너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다.

54. 너희 마음속에서 물질적인 것에 대한 얼마나 많은 욕망이 사라졌는지! 이는 영적인 씨앗으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삶을 온전히 누릴 기회를 발견한 너희 영혼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너희는 과거를 돌아보며, 예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을 비교해 본다. 그러는 가운데 너희가 이룬 영적 성장을 깨닫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에게 감사한다.

55. 너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를 밀고하지 않고 사랑으로 바로잡아 주었다. 나는 세상이 너희의 결점을 보고 너희를 꾸짖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세상은 잔인하며, 그 정의에는 자비가 없다.

56. 내 영적 세계가 너희를 바로잡게 하라. 그들은 너희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며, 사랑의 형제자매로서 자신의 사랑의 행실을 떠벌리지 않는 자들이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심연과 위험에서 너희를 구해 주었으며, 얼마나 많은 잘못된 결심에서 너희를 돌이키게 했는가. 그들은 너희 마음의 열정이, 너희 자신에게 유죄 판결이 될 수도 있는 말로 표출되지 않도록, 얼마나 자주 너희의 입을 다물게 했는가!

여러분이 옳다고 여겼던 잘못된 계획에서 실패했을 때, 그들은 그 후 여러분을 위해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간병인으로서, 보호자로서 지칠 줄 모르고 여러분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 또한 말을 멈출 때, 그들도 더 이상 여러분에게 말을 건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존재들에게 모든 사랑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 곁에 아주 가까이 머물며 계속해서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57.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말하지 않고, 나의 영적 세계도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사역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때야말로 아버지와의 완전한 교감이 이루어지는 때가 올 것이며, 너희는 영적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58. 내 말씀은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폭풍우의 굉음 속에 구체화된 형태로 들었던 것처럼, 혹은 제2시대에 예수님의 입술에서처럼 가장 인간적인 형태로, 또한 너희가 이 시대에 성령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인간의 목소리를 통해 전해지는 방식으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준비하는 모든 이는 영과 영 사이의 교감을 얻게 될 것이며, 이는 소수만의 특권이 아닐 것이다.

59. 영혼들이 서로 소통하는 법을 알고, 자신들이 비롯된 영의 언어를 아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60. 영성화는 잠들어 있던 은사나 능력의 각성과 마음의 모든 점유에 대한 섬세함을 가져올 것이다.

61. 나의 임재가 느껴질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사역에 대해 말할 때, 너희는 나로부터 영감을 받아 헤아릴 수 없는 지혜가 담긴 문장들로 말하게 될 것이며, 이는 지식이 풍부함

사람들조차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이 소통에서 큰 진전을 이룬 이들은 단지 단어나 문장, 아이디어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완전함으로 가득 찬 온전한 가르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희의 손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도 요한의 손처럼, 마치 “금 붓”처럼 글을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62. 너희가 불신자들과 서기관들, 사제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내 영으로 충만함을 느낀다면, 누구에게도 너희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이 아버지이시라고 말하지 말라.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너희를 통해 인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 교감 속에서 너희의 눈은 뜨여 있고, 너희의 영혼은 황홀해져야 하며, 그 순간 입술이 드러내는 바에 놀라워해야 한다.

63. 환상을 통한 예언의 은사 또한 풀려, 아직 너희에게 드러나지 않은 비밀을 밝혀 주고 미래를 보게 할 것이다. 그러나 환시자는 결코 동료 인간을 심판하거나 폭로해서는 안 된다.

64.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영과 영 사이의 교감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나는 너희에게 다시 한 번 말하노니, 1950년에 내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끝난다 해도 나의 사역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온 땅을 아우르는 그 목적과 사명은 계속될 것이다.

65. 너희는 준비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모일 때마다 — 이 교회당에서든, 너희 집에서든, 혹은 야외에서든 — 그 모임에서 영적으로 나의 임재를 느낄 것이다.

66. 그러나 깨어 있으라. 아버지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나눈다고 떠벌리며, 거짓 지시와 영감을 전하는 거짓 제자들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진리와 속임수를 구별하고, 열매로 나무를 분별하라고 가르쳤다.

67. 나는 양쪽 모두를 시험할 것이며, 너희는 참된 제자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거짓 제자들은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68. 내가 마지막 가르침을 전할 때, 내 가르침을 활용하지 않은 자들을 보고 슬퍼하겠지만, 내 작별의 뜻을 이해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성장 덕분에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69. 나는 너희가 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잡이로 기도를 남겨 주겠다. 입술로만 읊조리는 기도도, 노래로 부르는 기도도 아니라, 순수한 생각과 고귀한 감정으로 가득 찬 기도를 말이다.

70. 이러한 행실로 인해 박해를 받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제단이나 형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죄를 받게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말할 때가 올 것이며, 너희는 진리를 통해 사람들을 설득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신 숭배가 공개적이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임을 보여 줄 것이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에서 잘못을 찾으려 하겠지만, 결코 찾지 못할 것이다.

71. 인내하라. 그러면 우상 숭배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손으로 우상들을 부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72.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전에는 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261

1. 내 말씀은 명료하며, 그 간결한 표현은 학식 있는 자와 무식한 자 모두를 설득하고 감동시킨다. 그 명료함 덕분에 너희는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거나 받아들이기를 꺼렸던 많은 교훈들을 쉽게 이해하게 되었다.

2. 오늘날 너희는 인간이 영적인 것을 감지하기 위해 과도한 감정의 격동이 필요 없이도 자신의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늘날 너희는 제한된 두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완전한 교제가 어떻게 현실이 될지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나의 대변자들의 이성적 능력을 통해 전해진 나의 계시의 진리에 대해 확신하고 있다.

3. 나를 들은 자들 안에는 빛이 비추었으므로, 거짓과 불결한 것이 더 이상 그들의 마음에 들어올 수 없게 되었다.

4. 이제 빛의 시대가 도래하여, 사람들은 단순히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진리를 이해하고, 그 근거를 밝히며, 마음으로 체감하게 될 것이다.

5. 내 가르침의 목적은, 누구도 타당한 이유 없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며, 그 이유가 바로 신성한 사랑이며, 모든 사람의 소명은 사랑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모든 이에게 확신시키는 데 있다.

6. 태초부터 모든 시대에 걸쳐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생명은 누구에게서 온 것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곳에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그들의 불확실성과 인식의 부족에 대한 일부 해답은, 내가 시간이 흐르며 너희에게 계시해 온 것들에 대한 내 설명과 그들의 성찰을 통해 얻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큰 오해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의 책에 간직된 것은 사람들에게 계시되지 않는 한 그들이 결코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지혜의 책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으며, 그 내용은 무한합니다.

7. 이 세상은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갑자기 혼란을 겪게 되겠지만, 그 후에는 평온을 되찾고 이해에 이르게 될 것이다.

8. 인간은 언제나 진리를 깨닫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다. 태초에 인간은 모든 것을 자연의 소행으로 돌렸으나, 나중에는 관찰과

사유를 통해 그토록 많은 기적과 완벽한 작품들이 무에서 생겨날 수는 없으며, 창조적 힘과 지성, 그리고 더 높은 권능이 존재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러한 확신 속에서 사람들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으며, 그들은 모든 피조물이 비롯된 그분을 숭배하기 위해 제사와 의식을 만들어 냈습니다.

9. 인간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질문들이 떠올랐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정말로 존재하시는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가?” 사람들은 나의 존재와 본성에 대해 이러한 질문들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의문을 품었고, 나는 언제나 모든 부름과 모든 질문에 응답해 왔다.

10.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태초부터 사람들에게 많은 증거와 계시를 주셨습니다 — 그 피조물들의 순진함과 무지, 그리고 천진난만함에 맞춰 물질적이고 만질 수 있으며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내셨으며,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 나는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나타나 사람들의 모든 질문에 직접 답하고, 모든 의심을 불식시키고, 그들이 더 이상 무지하고 순진하며 어리석은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신성한 영의 빛 덕분에 사랑과 깨달음으로 고양된 위대한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시기를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본성과 소명, 그리고 존재의 이유를 자각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1. 따라서 어떤 이들은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신의 지원과 도움을 구한 반면, 다른 이들은 지능이 발달할수록 스스로를 독립적이고 강력하며 현명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오만함이 커져만 갔다. 그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수 있고 스스로로 충분하다고 믿었다.

12. 이 인류 역사 속에는 항상 영성주의자와 유물론자가 존재해 왔으며, 양측 간의 세계관 대립도 끊임없이 이어져 왔는데, 각자는 자신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싸워왔다.

13. 이 시기에 나의 영적 임재는 너희를 화해시키고, 서로 화해하게 하며, 너희의 모든 의문에 답하고, 영적인 것을 위해 싸워온 자들도, 물질적 삶에 담긴 것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선포하는 자들도 옳지 않다는 것을 너희에게 증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전자는 광신자로서 죄를 지었고, 후자는 무지한 자로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한쪽이든 다른 쪽이든 모두 그 진리의 일부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조화시키고 서로 화해시키며 사랑으로 통합하는 법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14. 너희에게는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며, 너희는 그토록 웅장한 화합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이 화합이 현실이 될 것임을 아주 잘 알고 있다.

15.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하느님께서 너희를 창조하신 그 완전한 본성을 더 이상 지니지 못하게 될 것이며, 아버지의 모든 행위가 그러하듯, 의롭고 바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양심 속에 내 빛을 더 이상 간직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빛, 즉 너희가 영이라고 부르는 그 신성한 부분이 인간을 통해 그들에게 허락된 자유 의지의 전 과정을 거치며, 그를 갱신과 회복, 그리고 영적 상승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아직 잠시 더 기다려야 한다.

16. 너희는 나를 맞이하기 위해 너희 마음을 성소로 준비하였다. 그 전에 너희는 양심의 성찰을 거쳤고, 많은 이들의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흘렀다.

17. 나는 너희 모두의 말을 들었으며, 모두에게 축복을 내린다.

18. 나는 시험에서 약해져 고통을 느낀 자가 누구인지, 나에게 원수를 용서하겠다고 서약했으나 지키지 못한 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그러나 그가 나를 듣기 위해 내게로 돌아왔을 때, 즉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겸손히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청했다.

19. 내가 너희가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너희를 강하게 해 주고, 무한한 인내와 관용으로 너희를 가르치며, 모든 이에게 자신의 이해력, 노력, 의지력, 그리고 발전을 증명할 새로운 기회를 줄 것임을 알아두라.

20. 진실한 회개가 많은 오점을 씻어내고, 너희의 짐을 가볍게 하며, 너희 마음에 평화를 준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때 너희가 짐에서 해방된 기분을 느낀다면,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고통받는 많은 이웃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나의 치유의 향유가 모든 병자와 고통받는 이들에게 부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21. 나는 너희에게 몇 시간씩 이어지는 기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은 단순하지만 영적인 깊이가 있는 짧고 진심 어린 기도를 원한다.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기에 충분할 것이다.

22. 기도는 내가 인간에게 영적 교감을 나누기 위해 영감을 준 영적 수단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태초부터 너희 안에서 갈망으로, 영혼의 필요로, 시련의 시간에 피난처로 드러났다.

23. 참된 기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기도가 가져다주는 축복을 알지 못하며, 그 안에 담긴 건강과 은혜의 근원을 알지 못한다.

비록 나에게 다가가고, 나와 대화하며, 자신의 간구를 나에게 전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는 하지만, 영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지 자신의 생각을 하늘로 향하는 것만으로 바치는 헌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여겨져, 곧바로 나에게 바칠 물질적인 것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그것으로 나에게 더 잘 경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4. 이처럼 사람들은 우상 숭배와 광신, 의식과 겉치레에 빠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신의 영혼을 질식시키고 아버지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그 축복받은 자유를 빼앗아 버렸다. 오직 고통이 매우 심하고, 고뇌가 인간의 한계를 다다를 때에만 비로소 영혼은 해방되어 형식을 잊고 우상들을 무너뜨리며, 몸을 일으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게 된다.

25. 기도를 통해 사람은 평화를 얻고, 지혜를 얻으며, 건강을 얻고, 심오한 진리를 이해하게 되며, 이성이 깨달음을 얻고 영혼이 용기를 얻는다.

26. 영과 영으로 기도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어디서나 보호받고 있음을 느끼지만, 자신의 존재를 느끼고 안전함을 얻기 위해 찾아가야만 하는 형상이나 상을 좇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27. 이 물질주의 시대에 민족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십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곳 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비밀을 발견하였으니, 바로 마음에서 솟아나와 간절한 구조 요청으로, 탄식으로, 간절한 간구로 내게 닿는 그 기도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여정에서 간구했던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영혼의 언어로 말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과 대화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8. 제자: 너희는 단지 한 가지 교훈이 아니라 온 책 한 권을 받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니, 그 누구도 이전에 말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나에 대해 말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29. 이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니, 이를 잘 활용하라. 모든 이에게 베풀고, 모든 이를 가르쳐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한계가 없으며, 그것으로 인해 너희의 마음은 결코 비어 있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너희가 더 많이 베풀수록 너희 안에서 그것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더 많이 사랑할수록, 너희는 덕이 더욱 커질 것이다.

30. 나는 내 임재를 증거하기 위해 내 백성 가운데 내 사랑을 남기노라.

31. 나의 계시는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나의 빛은 인간의 이성 능력 위에 비추어, 이를 통해 인류에게 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32. 너희는 내 말씀이 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한 마음에서 다른 마음으로 전해지는 전령이 될 것이다.

33. 지금 이 시기는 이 백성이 자기 성찰에 전념해야 할 때이며,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순수하게 사랑하는지, 아니면 광신에 빠졌는지 알 수 있도록 내면을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이 너희의 잘못을 바로잡기에 적절한 때이다.

34. “영성화”라는 단어의 의미를 연구하면서, 너희는 신성을 너희가 상징이라고 부르는 형상들로 표현하려는 것이 오류임을 깨달았다. 이는 너희가 외적인 겉모습으로 인해 바로 눈앞에 있는 실재를 가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큰 오류가 된다.

35. 나는 항상 지성, 생명, 사랑, 권능 안에서 나를 드러내며, 결코 생명이 없는 형상으로는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은 한 사람의 지성 능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의 계시 중 하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영혼이 없는 초상화와 형상으로 나를 묘사하려고 고집하는 것입니까? 내가 나를 드러내는 그 사람은 자신의 영혼과 심지어 몸속 깊이에서 나를 강렬하고 깊이 느끼며, 그의 기쁨은 심오하고, 그의 황홀함은 그의 이성애 닿는 빛을 선명하게 보게 해 줍니다.

36. 너희는 이 사람과 같다. 그런데 왜 너희는 너희 마음속에서 나를 똑같이 느끼지 못하는가?

37. 이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 보라. 그러면 너희는 신성을 물질화하려는 경향이 있는 곳에는 영성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38. 현재 너희는 모두 “영성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가 왜 너희에게 이 내적 고양을 이루라고 촉구하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조차 명확히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내 계명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어떤 이들은 스승이 제자들에게 불어넣는 이상을 이해하며, 이들은 서둘러 그분의 가르침을 따를 것입니다.

39. 상징주의와 형식에 대한 사랑, 그리고 초상화에 대한 숭배는 인류의 영적 유년기, 즉 사람들이 신성을 믿기 위해 외적이고 가시적인 것을 필요로 했던 원시 시대를 상기시켜 줍니다.

40. 인간의 지성은 발달의 초기 단계에 있었다. 그 당시에는 내가 사람들에게 “영혼에 속한 것을 탐구하고 이해하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이 과학의 모든 길을 걷고, 수많은 철학을 발전시켰으며, 여러 분야에서 이성적으로 성장한 지금 — 과연 영성주의를 마침내 이해하지 못하겠는가? 내 새로운 메시지를 마주하고 혼란에 빠지겠는가? 아니, 백성들아, 인간의 영혼은 나의 구원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며 갈망하고 있다.

41. 이 가르침을 전파하고 심어 나가는 투쟁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많은 민족들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신성한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 훗날 사람들은 인류가 오늘날까지 알지 못했던 그 정신의 자유를 알게 될 것이다.

42. 세상에서는 전쟁이 계속될 것이며, 죽음과 파멸의 위협이 민족들에게 무겁게 드리워질 것이다. 이는 자신의 철학과 교리를 고집스럽게 고수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43. 백성아, 네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영적인 용기를 준다. 내가 너희 영혼 속에 비추게 한 이 빛이 어둠을 몰아낼 것이라고 말했듯이, 이제 다시 한 번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해 주었다.

44. 바로 이 순간, 나는 너희를 나의 신성의 빛으로 감싸 안는다. 나는 너희를 스승으로 준비시키기 위해 내려왔으니, 너희가 사랑과 자비, 겸손과 용서의 말과 행실로 동료 인간들을 가르치도록 하라.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행실은 언제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 준다.

45. 사람은 또한 인류에 대한 사랑과 형제애, 평화에 대해 말하지만, 그 행실로 자신의 말을 부정하고 있다.

46. 오늘, 아버지께서 인간의 이성을 통해 너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내려오신 이 시점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랑에 대해 말하면서도 마음속에 증오를 품고, 선에 대해 말하면서도 정반대의 행동을 하며, 평화에 대해 말하면서도 전쟁을 부추기는 자들 중 하나가 되지 말라. 아니라, 너희가 내 말씀이 너희 안에서 꽃피는 것을 보려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실을 통해 그 말씀을 전해야 한다.

47. 영혼을 통해 말하라. 너희는 성령의 시대가 절정에 달해 있기 때문이다. 항상 기쁜 마음을 유지하라. 만일 잠시 동안 나를 멀리 느껴진다면, 떠난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 자신이다. 너희가 너희 영혼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나 너희 마음속에 살아 있기 때문이다.

48. 신성한 영과 인간의 마음 사이의 거리와 장벽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 곁에 너무나 가까이

거하고 있으니, 나를 보기 위해 지평선을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다. 경건함과 집중으로 너희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면, 나의 성소에서 나를 발견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49. 이 시대의 나의 계시들은 너희를 나의 신성과 영적으로 연결해 준다. 이는 너희 영혼이 늘 갈망해 온 친밀함이다.

50. 나는 여전히 이 인류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아첨하며, 나를 가까이 느끼기 위해 그들의 의식과 찬송, 기도문, 그리고 다양한 예배 형식으로 나를 부르는 것을 보고 듣고 있다. 나는 모든 이에게 나의 현존을 느끼게 하며, 모든 이와 함께 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의 신성 숭배가 온전해지기를, 또한 아버지와의 교제도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때가 왔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가르침이 이 시대에 너희에게 밝혀 준 것이다. 오늘 너희는 나에게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영과 영 사이의 대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배웠다.

51. 너희가 이 길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나는 너희에게 모든 의식과 외적인 숭배를 제쳐두라고 권면했다. 그 결과, 너희가 신성한 속성을 표현하려고 사용하던 모든 물건들과, 너희의 영적인 예배가 지닌 감각적 요소나 외형적 표현들이 너희의 모임 장소에서 점차 사라졌다.

52. 나의 가르침은 단지 너희가 지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힘과 확신을 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이 가르침은 너희가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의 문턱을 넘어 영원한 고향으로 들어가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다.

53. 모든 종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혼을 복돋아 주지만, 저 세상으로 향하는 위대한 여정을 위해 영혼에게 진실을 드러내거나 준비시켜 주는 일은 거의 없다. 이것이 바로 많은 이들이 죽음을 끝으로만 여기게 되는 이유이며, 그 순간부터 진정한 삶의 무한한 지평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54. 너희는 이 시대에 내가 성령으로서 너희에게 준 가르침을 ‘영성주의’라고 불렀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비밀을 드러내 주셨기 때문이다. 저 세상과 인간 사이에 장막이 존재하는 것은 더 이상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다. 나는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오직 나의 뜻에 따른 것만을 그 삶에 대해 너희에게 드러내 주겠다.

55. 무덤을 끝으로 여기지 말고, 그 너머에 공허나 죽음, 어둠, 혹은 무(無)를 보지 마라. 육신의 죽음 너머에는 생명과 빛, 그리고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다.

56. 너희가 그 영역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영혼을 고양시킴으로써 ‘영적 계곡’에 거하거나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57. 너희 몸을 쇠사슬이나 적, 혹은 사형 집행자로 보지 말고, 너희 몸은 너희가 힘을 실어주어야 할 연약한 피조물로 보라. 그래야만 그 몸은 너희의 하인, 버팀목, 그리고 임무를 완수하고 산을 오르는 데 있어 최고의 도구가 될 것이다. 광신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을 영성화하라. 그래야 너희가 기도 속에서 초월하여, 생각의 날개를 타고 병자들에게 치유의 향유를 전할 수 있을 것이다.

58. 제2의 시대에 내가 제자들에게 내 왕국에 대해 말했을 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게 “주님, 당신의 왕국은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나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워지자, 내 말씀은 더 이상 비유로 전해지지 않고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게 되었으며, 모두가 그것을 깨달았다.

59. 오늘날에도, 내가 더 이상 이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나는 비유적인 표현 방식을 버리고, 너희를 위해 남겨 두었던 위대한 일들에 대해 단순하고 명료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1866년 이후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은 지난 3년간의 내 가르침에 요약되어 있을 것이다.

60. 이 시대에 인간의 이성을 비추는 신성한 광선을 통해 너희가 들은 이 말씀은, 너희 영혼을 위한 새로운 만나가 되었다. 이는 또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행하신 빵과 물고기의 기적과도 같았다.

61.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실 시간은 이미 매우 얼마 남지 않았다. 스스로를 단련하고 나의 말씀과 본보기를 활용하여, 그것들을 가지고 인류에게 나아가 나의 가르침을 증언하라. 많은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나, 다른 문들은 닫힌 채로 남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의 말을 듣기 위해 몰려올 것이며, 그들 중에는 ‘귀머거리’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씨를 뿌려야 한다. 사람들의 마음은 마치 흙과 같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가 뿌린 씨앗 위에 이슬과 비를 내려 주리니, 그러면 그 씨앗이 싹을 틔울 것이다.

62. 다른 민족들에게로 나아가도록 정해진 이들은 평화의 사자로서 국경을 넘을 것이다.

63. 세상은 모든 고통과 악덕, 질병과 상처를 안고 속죄의 골짜기처럼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니,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맡긴, 모든 악을 치유하는 연고를 그 위에 바르도록 하라.

64. 너희는 스스로 큰 일을 할 능력이 없다고 느끼겠지만, 나는 너희를 통해, 너희 사랑과 자비의 작은 부분으로 너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낄 만큼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낼 것이다.

65. 내 말씀이 더 이상 이 모임 장소에서 울려 퍼지지 않을 때, 너희는 함께 모여 내 가르침을 낭독할 것이며, 그 속에서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교훈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선견자들은 성령으로서 너희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실 스승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곳, 너희 가운데서 병자들은 고통을 덜고, 임종에 이른 자들은 생명을 되찾을 것이며, 슬퍼하는 자는 위로를, 절망에 빠진 자는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될 것이다.

66. 너희는 너희 자신의 삶의 모범을 통해 가르쳐야 하며, 나머지는 내가 하리라. 이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나 자신을 사랑하게 하려고, 너희로 하여금 이 사랑의 일에 동참하게 한 것이 나의 뜻이었다.

67. 내 마지막 가르침이 전해지는 날까지 준비하라. 그날은 제2시대의 최후의 만찬과 같을 것이며, 너희는 그곳에서 나의 마지막 말씀을 받게 될 것이다.

68. 내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영성 수양에도 힘쓰지 않았으며, 낡은 관습과 전통에 고집스럽게 매달렸던 자들은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이며, 나중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맡긴 책을 읽을 때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고통과 후회로 가득 차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으려 애쓸 것이다.

69. 어둠이 세상을 뒤덮으려 할 때, 내 사랑의 빛이 세상과 그 길을 비춘다. 날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이 삶을 떠나고 있다. 그들을 잊지 말고, 너희 기도의 빛과 자비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라. 빛의 존재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그들은 이미 빛 속에 있으며, 너희를 위해 힘쓰고 있으니. 사람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너희의 모든 이웃을 위해 기도하라. 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가르침 262

1. 내 영은 너희가 스승님께 다가가고자 하는 동일한 열망으로 하나가 된 모습을 볼 때 기뻐하느니라. 여기, 내 말씀이 선포되는 이 곳에서 너희는 비참함과 원한, 시기, 그리고 고통을 잊게 되느니라.
2. 너희는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 좋으니, 너희가 마음을 성소로 준비해 두었을 때 비로소 내 말씀이 그곳에 닿을 것이기 때문이다.
3. 너희의 영적 예배에는 겸손과 소박함이 깃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물질적인 것과 과시적인 것들이 너희를 본질, 즉 너희 아버지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자비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이러한 고양의 순간을 누릴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너희의 사고는 신성한 사고에 부합하게 된 것이다.
4. 하나 되고 형제애가 넘치며 진리와 선한 행위를 사랑하는 백성을 이루라. 새로운 형제자매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며, 입가에 미소를 띠고 그들을 환영하고, 마음속에는 진정한 이웃 사랑을 품고, 영으로는 기도를 드리는 백성이 되라. 너희는 나를 들었던 그 시간 동안 쌓아온 것을 그들에게 전해 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해 제시해 둔 참된 길을 그들에게 보여 줄 것이며, 나를 본보기로 삼는다는 생각에 기뻐할 것이다. 너희의 지식이 아직 그다지 깊지 않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너희의 이웃 사랑이 크다면, 너희는 참된 기적을 행하게 될 것이다.
5. 이 사명을 수행하는 이가 사랑으로 자신의 행실을 비춘다면, 이 사명은 결코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반면, 단순히

의무로만 여기는 이에게는 이 사명이 무거운 십자가처럼 보일 수도 있다.

6. 너희가 아직 이처럼 까다로운 사명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미숙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선한 의지는 모든 것을 이겨낸다.

7. 이제 나는 너희의 모든 일상적인 행위가 고귀한 감정에서 영감을 받고, 시련과 어려움이 너희를 막거나 물려서게 하지 않도록 준비할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새로운 날의 빛을 맞이하며 눈을 뜨면, 기도하고, 생각으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며, 내 빛에서 영감을 받아 그날의 계획을 세운 다음, 삶의 투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 과정에서 강해지기로 결심하고, 단 한 순간도 순종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8.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머지않아 너희의 굳건함과 너희 행위의 결과가 너희를 놀라게 할 것이다.

9. 너희의 행동에 진실함과 순수함이 담겨 있도록 하라.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무분별한 그 순간에는,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10. 내가 보기에 너희는 비방과 비판을 두려워하고 있다. 나는 너희가 조롱당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너희 양심이 너희에게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를 상처 입혔을지도 모르는 자들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에 진리의 빛이 비치게 하리라.

11. 자비가 무엇인지, 어떻게 느끼고 베풀어야 하는지에 대해 참된 깨달음을 얻으라. 그래야 자비가 더 순수해지고, 너희는 과시하지 않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나 “너희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모르게 하라.” 즉, 과시하며 베풀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자비의 모든 행실을 훼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2. 나는 이 각 공동체와 함께, 여러분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서로 돕는 진정한 가족을 이루고자 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서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감정이 피어오르고 너희 마음속에서 성숙해지면, 너희는 수천 명에 달하는 사랑과 빛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그 선한 열매를 선사하기 위해 투쟁의 길로 나설 수 있게 될 것이다.

13. 오늘 내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인 이 제자들의 무리에 더 이상 속하지 않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땅의 각지로 흩어지더라도, 투쟁 속에서 그리고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영적으로 하나되어 있을 것이다. 이 영적 유대감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을 것이다.

14. 너희는 너희 아버지와의 조화를 이루었으니 복이 있도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에, 단 한 번의 불순한 생각도 너희 마음을 방해하지 않았도다. 모든 것이 조화였으며, 그 조화 속에서 너희는 어떤 모임 장소에서도 멀리 떨어진 자연의 품 안에서 내 말씀을 들었도다.

15. 너희를 둘러싼 것들의 영광을 보라: 창조주를 향한 끊임없는 경배의 제단인 높은 산들; 인간의 삶을 비추는 헤아릴 수 없이 거대한 등불인 태양; 아버지께로 트릴을 올려 보내는 새들의 조화로운 노래는 마치 간구하는 찬송과 같으며, 이 영광 한가운데서 너희 영혼은 신성한 말씀의 합창에 황홀해하고 있다.

16. 나의 위로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며, 나의 빛이 광선으로 쏟아져 내리고, 동시에 나는 너희가 나를 위해 가져온 제물을 너희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노라.

17. 그러므로 너희는 이 고양되고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너희 가운데 가장 큰 기적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구하라, 병든 자들을 위해,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자리를 비운 자들을 위해, 길을 잃은 자들을 위해 구하라. 그러면 그들은 풍성하게 받을 것이니라.

18. 사랑하는 백성아, 내 앞에 나아갈 최고의 제물을 찾는 자여: 너희는 스스로를 정화하고 양심이 지적하는 과오들을 씻어냈으며,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한 후, 나와 교제하기 위해 성소를 준비하고 있다.

19. 깨어 기도하라, 스승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시니, 그리하여 너희가 유혹 앞에서 강해져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 너희 자신을 위해, 그리고 기도하는 법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 매일 기도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느냐? 너희 영혼을 나에게 드높이기 위해 긴 시간이 필요하겠느냐? 아니요, 백성들아,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사랑의 시간, 나에게 바치는 헌신의 시간이야말로,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날을 위해 내가 미리 계획하신 바에 대한 너희의 순종과 복종을 나에게 드리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나는 너희의 곤경 속에서 위로해 주고, 너희의 일에서 용기를 북돋아 주며, 너희의 계획이 번창하도록 빛을 비취 줄 것입니다.

20.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자비로운 친구가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로 오라. 너희 마음속에 있을지 모를 고통을 나에게 말기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최선의 길, 곧 너희가 찾는 해결책을 조언해

주리라. 너희 영혼이 짐에 짓눌려 있다면, 그것은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맞아들이고 자비로운 판단으로 대할 것이며, 개선하려는 너희의 결심을 굳건히 하고 잃어버린 힘을 되찾아 주리라.

21. 오직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만이 너희를 은총 안에 머물게 하고, 너희의 영적·육체적 건강을 지켜 줄 것이다. 너희가 얻는 경험은 너희 영혼 속에 차츰차츰 쌓아가는 빛이 될 것이다.

22. 나의 심판과 법은 무자비하니, 이 시기에 너희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사랑과 인내로 그렇게 하라. 그러나 너희가 지쳐 있다면, 내가 너희의 십자가를 함께 지어 주리니, 그리하여 너희가 다시 힘을 얻어 계속 싸울 수 있게 하리라.

23. 너희의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으며, 시련은 오직 마음을 다듬고 육신의 본성을 꺾기 위한 것임을 알면서, 어찌하여 반항하느냐?

24. 너희 영혼은 큰 힘을 부여받았으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시련은 너희가 지닌 능력과 에너지보다 크지 않다. 그것들은 너희가 공덕을 쌓고 구원받도록 돕는 은혜이다.

25. 나의 아버지 영은 인류의 고통을 보실 때 고통스러워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법칙을 적용하면 오직 번영과 평화만을 가져옵니다.

26. 인간을 통해 파괴의 힘이 풀려났다. 전쟁은 모든 마음속에 그 씨앗을 뿌렸다. 인류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가! 전쟁은 그 궤적을 따라 얼마나 많은 버림받음과 비참함, 고아됨, 그리고 슬픔을 남겼는가! 너희는 전투에서 전사한 이들의 영혼이 소멸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인간 안에 깃든 생명의 일부인 영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27. 아니요, 백성들아: 영혼은 전쟁과 죽음을 이겨내고 살아남는다. 내 영의 이 부분은 고통의 들판에서 일어나, 내 길을 따라 계속 살아가고, 꽃피우며, 발전할 새로운 지평을 찾고 있다.

28. 그리고 땅에 남아, 조국이 황폐해지고 밭이 황폐해지며, 전염병과 기근이 횡행하고, 도덕과 선의 원칙이 짓밟히는 것을 목격한 이들에게, 나는 그들의 삶의 용기를 지켜 주었으며, 그들 모두를 지켜보았다.

29. 장차 올 시대에 나는 그들을 통해 내 말씀의 빛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위대한 영적 사명을 맡길 것이다.

30. 그들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대로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 이 영혼들 속에는 고통도, 비참함도 없으며, 오직 영혼의

위대함만이 있을 뿐이다. 그들은 시련의 한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며, 내게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정화되었다.

31. 백성아, 너희의 기도를 그 영혼들의 기도와 합쳐라. 너희는 고통 속에서 정화되지 않았으며, 너희의 시련은 이 시기에 내가 사랑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베풀어 준 평화였다. 너희가 준비가 되면 — 어떤 이들은 고통을 통해, 다른 이들은 사랑을 통해 — 너희는 서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어, 내 가르침을 따르며 함께 내 말씀을 깊이 탐구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 사랑의 잔을 마시며, 너희가 받은 모든 것이 유익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나는 나의 사역을 추진하며, 그 최종 목표와 그 결과를 너희에게 보여 주겠다. 인류가 남긴 영적·도덕적 폐허 위에, 나는 온전하고 강한 세상을 세울 것이다.

32. 백성아, 너희에 대한 심판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으나, 다른 민족들이 내 심판의 짐을 짊어졌던 것처럼, 너희도 정해진 때에 너희의 행실에 따라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33. 나는 모든 이를 환영한다. 나를 듣고자 간절히 오는 이도, 알아보기 위해 들어오는 이도, 그리고 자만심에 차서 들은 모든 것을 부정하며 단지 호기심 때문에 오는 이도 모두 환영한다.

34.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영향력은 항상 존재해 왔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 예전에는 한 가지 방식으로, 오늘은 다른 방식으로, 내일은 또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영원토록 그러할 것이다.

35.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는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유대가 있으며, 이 유대가 바로 신성한 영과 너희 모두 사이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이유이다.

36. 진리를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사랑과 빛과 선함을 갈망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진리를 찾으라, 그러면 진리가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다. 계속해서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도 신성한 지혜의 책을 탐구하라. 그러면 그 책이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니, 아버지는 간절히 묻는 자에게 결코 침묵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37. 책과 학자들, 그리고 다양한 학문 속에서 진리를 찾는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결국 자기 자신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될까? 내가 모든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영원한 진리의 씨앗을 심어 두었기 때문이다.

38. 여기 인간의 뇌 속에서 빛나며 말씀이 되는 나의 빛이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이 계시를 불가능하다고 여기는가? 사람들이

과학을 통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소통할 수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39.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간의 영혼이 지닌 능력을 알지 못한다면, 나를 아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40. 내가 인간의 이성 기관을 통해 나를 드러내는 것은, 뇌가 창조주에 의해 ‘완벽하게 창조된 장치’이기 때문이며, 그 안에서 영혼의 빛인 지성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41. 이 ‘장치’는 너희가 아무리 과학을 동원해도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모형이다. 너희는 그 형태와 구조를 너희 창조물의 본보기로 삼겠지만, 너희 아버지의 작품이 지닌 완전함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내가 창조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찌 의심할 수 있겠느냐?

42. 너희는 스스로를 알지 못한다고 다시 한 번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영적인 측면에서 스스로를 안다면, 너희는 이 신성한 계시를 지성적 능력으로 받아들이기 뿐만 아니라, 더 큰 놀라움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너희가 스스로를 안다면, 너희는 동료 인간들에게 이해받지 못한다고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심지어 스스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 스스로를 알아가라. 그래야 너희가 스스로에게 영원한 의문이 되지 않을 것이며, 너희 내면에 품고 있는 답을 사방에서 찾지 않게 될 것이다.

43. 나의 모든 가르침은 너희 존재 속에 담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왜냐하면 이 지식에서 빛이 태어나, 영원하고 완전하며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을 찾게 되기 때문이다.

44. 나의 가르침은 너희 안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높은 존재, 즉 너그러움과 빛, 영혼의 아름다움, 미덕, 지혜, 그리고 힘이 되는 존재를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때 너희의 기쁨과 내면의 평화는 얼마나 클 것인가! 너희의 영혼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네 존재의 진정한 본질이다.”

마음속에서 모든 선한 씨앗을 몰아내고, 자신의 존재를 이기적인 삶, 물질주의적이고 타락한 삶에 바친 사람들의 행동은 얼마나 다를까요. 그들이 한 번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고, 양심과 대화를 나누는 순간을 갖게 되면, 그들은 결코 흐려지지 않고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을 보게 될 것이며, 자신 안에 품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소행임을 깨닫지 못하는 그 괴물 앞에서 공포에 질리게 될 것이다.

45. 오, 불신자들아! 와서 내 말을 자주 들어라. 내 말씀은 너희의 의심을 극복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내 말씀의 표현 방식이 예전에 내가 사용했던 것과 다르다고 느낀다면, 나는 너희에게 형식과 겉모습에 집착하지 말고, 여전히 동일한 그 본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노라. 신성한 것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므로 본질, 즉 의미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러나 계시가 너희에게 전해지는 형태, 혹은 내가 너희에게 진리의 또 다른 부분을 알려주는 방식은 항상 너희가 도달한 수용 능력이나 발전 단계에 맞춰 나타난다.

46. 내 가르침의 상당 부분은 너희가 스스로를 발견하고, 자신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야 너희가 더 이상 길에서 넘어지지 않고, 길을 잃거나 비참함을 느낄 때 더 이상 자비를 구하지 않게 될 것이다.

47. 너희 존재 속에 그토록 많은 풍요와 숨겨진 보물을 품고 있으면서, 왜 눈물을 흘리는가? 너희가 오랫동안 잊고 지내온 삶의 목표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다. 너희는 영혼이 품고 있는 모든 것을 발견하기 위해 스스로를 알아가야 한다.

48. 묻고, 탐구하고, 파헤쳐 보라. 너희 본성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큰 보물과 놀라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49. 오, 수많은 사람들아, 나와 함께 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너희의 세상이 지치게 하고, 동료들이 너희를 오해하며, 가족들이 너희를 이해하지 못할 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맞아들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 있음을 증명해 보이리라.

50. 이리 오라. 내가 너희를 참된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고, 너희가 베풀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리라. 그러나 너희가 자신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베풀 수는 없을 것이다.

51. 너희를 둘러싼 모든 것이 베푸는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보아라. 원소들, 별들, 생명체들, 식물들, 꽃들, 그리고 새들 — 가장 큰 것부터 더 이상 감지할 수 없는 것까지 모든 것이 베푸는 능력과 소명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신의 은총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장 많이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스스로를 예외로 두는가?

52. 너희가 어린 형제자매들의 길에서 빛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와 사랑, 덕과 능력을 얼마나 더 키워야 하겠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얼마나 높고 아름다운 소명을 주셨는가!

53. 나의 평화를 느끼고, 그것을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라.
누구도 너희에게서 나의 평화를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것은
보물이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보물이다.

54. 권력도 과학도 너희에게 평화를 줄 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평화를 찾지 못한다고 해서 절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선의의 사람 안에, 곧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따르기 위한 평화가 진정으로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55. 율법을 지키는 가장 실용적이고, 소박하며, 단순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나의 가르침을 들어라. 너희의 하나님과 그분의 작품,
그리고 삶은 단순하고 소박하다는 것을 깨달아라.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명백한 것을 신비롭게 보이게 만드는 것은 바로 너희의
무지와 미성숙함 때문이다.

56. 하나님께서는 복잡하지도, 신비롭지도 않으며, 그 창조물
속에 질서가 없는 것도 아니니, 완전한 것은 단순하기 때문이다.
반면, 각기 다른 단계에 있는 피조물들은 불완전할수록 그만큼 더
복잡해진다.

57.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대한 진실된 인식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나를 알아가고 영적인 것의 의미를 깊이 파고들도록
노력하라. 비록 나에 대한 너희의 지식이 적다 하더라도, 그
지식은 정확해야 한다.

58. 너희가 나의 존재와 나의 본질, 나의 권능과 나의 공의에
대해 실재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면, 때가 되면 너희는 이웃들에게
너희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진실된 인식을 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59. 그러면 너희는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고, 접근하기
어렵고, 신비로우며, 이해할 수 없다고 상상해 온 그 신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녀들에게 영원히 마음을 열어 두시며, 모든
장소와 모든 순간에 현존하시는 참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60.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 아직 너희가 나에 대해
품고 있는 상상은 영적인 것보다 인간적인 것이 더 많고, 너희의
믿음은 미약하지만 — 너희는 오늘보다 더 깊이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더 완전한 방식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너희는
어둠을 마주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지치지 않고 빛을 전하기
위해 힘쓸 것이다. 진정한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너희의 연민은 진심 어린 것이 될 것이다. — 나를 사랑하고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를 진정으로 알지도 못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지도 못하는 이들을 향한 연민 말이다.

61. 제2의 시대에 나는 들판을 거니는 것을 기뻐하였으니, 그곳에서 농부들은 내가 지나가는 것을 보자 나를 맞이하기 위해 다가와 마음으로 나에게 말을 건넸다. 나의 영은 그들이 순수하고 소박한 모습을 보니 기뻐하였다.

나는 가정에 들어갔는데, 때로는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앉는 바로 그 순간이기도 했다. 그들이 나의 부름을 듣자 기쁜 마음으로 내게 다가와 함께 식사하자고 초대했고, 어떤 은총을 청하기 위해 내게 마음을 열었다. 나는 그들 모두에게 축복을 내렸고, 제자들과 다시 만나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 가족들은 천국의 모습이며, 이 가정들은 마치 성소와 같다.”

62. 가끔 제가 혼자 있을 때면, 아이들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와 작은 꽃을 건네주거나, 사소한 고민을 털어놓거나, 저에게 입을 맞추곤 했습니다.

63. 어머니들은 자기 아이들이 내 품에 안겨 내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면 불안해하며 걱정하곤 했다. 제자들은 이것이 스승에 대한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여 아이들을 내 곁에서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게 내버려 두어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희는 아이들의 순수함과 단순함, 천진난만함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64. 나는 마치 막 피어나는 꽃봉오리를 보는 사람이 기뻐하듯이, 그 순수함과 천진난만함에 기쁨을 느꼈다.

65. 그들도 꽃피는 영혼들이며, 미래를 위한 약속이자,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생명들입니다.

66. 나는 그 영혼들을 사랑한다. 그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생명으로 피어날 꽃봉오리들이기 때문이다.

67. 어느 날, 나는 이 땅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함께 한 결혼식에 초대받았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두 사람의 삶에서 그 뜻깊은 순간에, 나는 내 자녀들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 마음들의 기쁨을 보고 그들과 함께 축제를 누리고 싶었으며, 이를 통해 나는 너희의 구원에 이바지하는 어떤 기쁨도 나에게 무관심하지 않으며, 너희 삶의 중요하고 뜻깊은 순간 어느 하나에도 나의 임재가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희에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이자 여러분의 중재자이신 마리아도, 잠시 부족해진 잔치의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그분의 권능을 사용하여 늘려 주시도록 간구하셨을

때, 이 인류에 대한 그녀의 사명이 무엇인지 증명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 축복받은 중보기도를 위해, 그리고 나의 권능에 대한 믿음과 간구하도록 이끄는 영감으로 너희에게 완벽한 본보기가 되어 주는 그 여인의 마음을 위해 그 기적을 허락하였다.

68. 비록 짧게나마 그 사건들을 언급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말하지는 마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경험하고 말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으며, 너희의 영 안에 살아있다고 말해야 할 테니까요. 반면에, 너희는 이 삶이 모든 발전 단계에서 경이로우며, 영원히 내가 너희에게 말을 건네는 깊고도 끝없는 교과서임을 깨달아야 한다.

69. 그것을 관찰하고, 느껴 보라. 그러면 그 안에서 스승이자 아버지이자 심판자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이미 이곳에서 또 다른, 더 높고, 더 빛나며, 더 완전한 삶에 대해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70. 제자들아: 나는 너희가 고통에 짓눌려 쓰러져 있던 땅의 흙더미에서 너희를 일으켜, 희망과 성취의 삶으로 이끌어 주었다. 나는 너희가 시련을 겪을 때 내 힘을 느끼게 해 주었으며, 아무리 큰 고통 속에서도 의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71. 오늘 너희는 온 인류가 현재 고통의 잔을 마시고 있다는 것을, 고통받는 것이 너희뿐이 아니며, 눈물을 흘리는 것도, 고통의 잔을 더 격렬하게 비우는 것도 너희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에 너희는 나에게 감사하며, 너희의 생각을 이웃들에게로 돌리고, 잠시나마 너희 자신을 잊는다.

72. 너희 모두는 마음속에 상처를 안고 있다. 누가 나처럼 너희의 내면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나는 너희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너희 세상에 만연한 그토록 큰 불의와 배은망덕함 앞에서 너희가 느끼는 낙담함을 알고 있다. 나는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며 고생해 온 이들, 그들에게 삶 자체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이들의 지침을 알고 있다. 이 생에서 홀로 남겨진 이들의 공허함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이 나에게서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이 동반자이든, 마음의 평화이든, 치유가든, 사명이든, 빛이든, 그것을 주기 위해 왔기 때문입니다.

73. 남자들아, 내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눈물은 아이들과 여성들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앞에서 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내 손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 줄 것이며, 나의 위로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스며들 것이기

때문이다. 약한 모습으로 내게 오는 자는, 아버지의 힘 안에서 강해지는 법을 깨달았기에, 그 후로는 동료 인간들 앞에서 강해질 것이다.

74. 내가 너희의 고통을 단지 느끼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없애고자 한다는 것을 알라.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단순히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 율법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기도하는 법을 알며, 시련 속에서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가르침 263

1. 신성한 빛이 너희를 비추고 너희 영혼을 강하게 하는 이 교제의 순간에, 내 영의 평화가 너희 안에 함께하기를 바란다.
2. 평화와 조화의 낙원을 꿈꾸는 이들이 복을 받으리라.

3. 인간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영혼에게는 더욱더 유익하지 않은 사소한 일들과 허영, 그리고 정욕을 경멸하며 무관심하게 여긴 이들에게 복이 있도다.

4. 아무 결과도 낳지 않는 광신적인 종교 의식을 없애고, 오래되고 그릇된 신앙관을 버려 절대적이고, 순수하며, 맑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5. 나는 세상이 평화를 주지 않으며, 그 평화를 오직 너희 자신 안에서만 찾을 수 있음을 점점 더 깨닫고, 외적인 것을 거부하고 대신 영적 성찰과 사랑, 그리고 내면의 평화에 몰두하는 이들을 축복한다.

6. 진리가 두렵지 않았고, 진리에 대해 분개하지 않은 너희 중의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빛이 폭포처럼 너희 영혼 위로 쏟아져 내려, 너희의 빛에 대한 갈망을 영원히 채워 줄 것이니라.

7. 나는 이곳저곳에 모여 신성한 스승에 대한 갈망으로 황홀함에 빠진 너희 위에 평화의 망토를 펼쳐 놓노라. 내게로 올 때, 기도하라, 나의 제자들아, 기도하라. 비록 내가 너희에게 예언한 모든 것이 아직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더라도, 너희는 반드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니라.

8. 계속 기도하라. 그리하여 인간의 무지의 짐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의 지식을 모아두었다는 이유만으로 학식 있다고 자처하는 자들의 허영심도 사라지게 하라. 진정한 학자는 파괴하고, 지배하고, 말살할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 애쓰는 자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모든 피조물에 대한 사랑에서 영감을 받아, 창조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고양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더욱 조화롭게 만드는 자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9. 제자들아, 너희는 거짓 속에서 진리를 찾지 말고, 겸손한 영혼 속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고양된 마음 속에서, 삶의 소박함과 순수함 속에서 진리를 찾아야 한다고 너희에게 말하노라.

10. 지혜 안에는 너희 마음이 갈망하는 치유의 향유와 위안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한때 너희에게 진리의 영을 위로의 영으로 약속했던 것이다.

11. 그러나 시련 앞에서 주저앉거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려면 믿음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12. 믿음은 너희가 영원의 안전한 항구에 도달할 때까지 너희 삶의 길을 비추는 등대와 같다.

13. 믿음은 오늘 한 걸음 나아가고 내일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자신의 고통과 맞서 싸우려 하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의 자비에 의해서만 성령의 승리를 믿는, 미지근하고 겁 많은 영혼들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4.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계심을 의식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내 안에서 느끼며 이웃을 사랑하는 영혼이 느끼는 바로 그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의 정의에 대한 믿음은 너무나 커서, 이웃이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지도 않고, 모욕과 잘못을 용서하며, 자신의 공덕을 통해 정화를 이루었기에 내일 빛으로 충만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15. 믿음을 가진 자는 평화를 누리고, 사랑을 지니며, 내면에 선함을 품고 있다.

16. 그는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부유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부가 아니라 진정한 부를 지닌 자이다.

17.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비참함에서 도망치지만, 그 공포 속에서 끊임없이 심연과 곤경으로 빠져든다. 그들은 이러한 덫에서 벗어나기 위한 올바른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의 비참함에서 도망치는 자는 이기주의자로,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이를 쓰러뜨리고, 억압하고, 갈기갈기 찢어 버리며 파멸로 몰아넣는다. 그는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며, 자신의 안전과 생존만을 유일한 이상과 목표로 삼는다. 다른 이들은 그의 형제가 아니며, 그에게 있어 모두 낯선 사람들일 뿐이다. 그는 믿음이 없으며, 그 빛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신뢰하지도 않는데, 이는 그가 진리를 알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8. 그러나 인류여, 내가 너에게 내 길, 즉 지혜와 사랑과 평화의 길인 믿음의 길을 상기시켜 주도록 보낸 그 사람들을 너는 어떻게 대했느냐?

19. 너희는 그들의 사명에 대해 전혀 알고자 하지 않았으며, 너희의 이론과 교리에 근거한 위선적인 믿음으로 그들을 대적했다.

20. 너희의 눈은 내 사자들 중 누구라도 사랑의 메시지로 가져다준 그 빛을 바라보려 하지 않았으니, 너희가 그들을 예언자, 선견자, 깨달은 자, 의사, 철학자, 과학자, 혹은 목회자라고 부르는 상관없이 말이다.

21. 그 사람들은 빛을 전파했으나, 너희는 그 빛을 알아보려 하지 않았고, 그들은 너희보다 앞서 갔으나, 너희는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희생과 고통, 자비의 길을 본보기로 남겼으나, 너희는 그 본을 따르는 것을 두려워했으며,

나를 따르는 이들의 고통이 영의 기쁨이자 꽃으로 가득한 길이며, 약속으로 가득한 지평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22.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꽃 향기를 맡으러 온 것도, 세상의 덧없는 쾌락에 취하려고 온 것도 아니었다. 그들의 영혼의 갈망은 더 이상 불순한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높은 곳에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23. 그들은 고통을 겪었지만 위로를 구하지는 않았으니,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 왔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으니, 투쟁이 끝난 후 진리에서 멀어진 모든 이들의 영혼이 믿음과 생명으로 부활하는 기쁨을 목격하기를 고대했기 때문이다.

24.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존재들은 누구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빛과 사랑, 희망, 건강, 믿음, 구원의 메시지를 너희에게 전해 준 모든 이들이다. 그들이 어떤 이름을 가졌든, 너희가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든, 지상에서 어떤 칭호를 가졌든 상관없다.

25. 너희도 내가 나의 사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너희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본보기를 귀감으로 삼음으로써 그들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적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핑계로 삼지 마십시오.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 준 이들이 오직 씨만 뿌리고 결코 거두지 못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백성들아, “육체”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끊임없이 사랑으로 비옥하게 만들어야 하는 불모의 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영혼의 수확은 빨리 오지 않습니다.

26. 오늘날의 학자들에 대해, 즉 자연과 그 힘과 원소들에 도전하여 선을 악으로 보이게 만드는 자들에 대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겠느냐? 그들은 과학의 나무에서 아직 익지 않은 열매를 뜯어 먹었기 때문에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 열매는 오직 사랑으로만 익힐 수 있었던 것이었다.

27. 오직 나의 사랑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보라, 사람들 속에는 사랑의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다. 기도하라. 그러나 기도의 힘을 진정으로 믿는 마음으로, 너희 동료들이 삶 속에서 싸우고 이웃의 평화를 파괴하는 무기의 폭력을 이겨낼 만큼 큰 믿음으로 기도하라.

28. 예전에 기도할 때 사용하던 그 형상과 우상들을 눈앞에서 치워버린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노인의 모습으로 한정하지도 않고, 신성하기 때문에 형상이 없는 분께 너희의 상상력이

인간적인 형상을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지도 않으므로,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다.

29. 너희의 육신이 땅에 남고 영혼이 천상의 고향으로 올라갈 때, 너희가 죽음이라 부르는 것을 지나 무한한 세계로 올라갈 때, 너희는 너희의 이성이 얼마나 많은 그릇된 관념을 만들어 냈는지 깨닫게 될 것이며, 그때 비로소 거짓이 마치 눈에서 떨어지는 안대처럼 너희 영혼에서 사라지며, 진리의 빛을 바라보게 될 것임을 느낄 것이다.

30.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가장 높은 천국에 이르러 마리아를 만나기를 희망하는가! 그들은 마리아를 항상 인간으로서의 모습, 즉 이 세상에서 성육신한 그리스도의 어머니였던 여성으로 상상하며, 왕좌에 앉은 아름답고 위엄 있는 여왕으로 그려낸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너희 마음속에서 신성한 존재에게 형상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영적 어머니이신 마리아는 실재하시지만, 여성의 모습도, 그 어떤 다른 모습도 지니고 계시지 않다. 그분은 자비가 무한히 퍼져 나가는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온화함 그 자체이시다. 그분은 영혼들 안에서 다스리시지만, 그분의 통치는 겸손과 자비와 순결의 통치이다. 그러나 그녀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 같은 왕좌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우시지만, 그 아름다움은 여러분이 아무리 아름다운 얼굴을 떠올려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천상의 것이며, 여러분은 결코 그 천상의 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31.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진리에 조금이라도 다가가 그 묵상에 깊이 잠기고자 한다면, 신성을 형상화하려 애쓰던 과정에서 만들어 냈던 모든 형상을 너희의 눈과 마음에서 제거하도록 계속 노력하라.

32. 신성한 스승께서 아직 가르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면, 너희는 내 진리가 너희의 이성에서 스며들게 할 것이며, 그러면 너희 영혼 앞에 새로운 지평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배우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며, 영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 걸을 수 있는 들판과 계곡, 길, 산들이 너희에게 펼쳐질 것이다.

33. 나의 빛은 모든 영혼 안에 있다. 너희는 이제 나의 영이 사람들에게 쏟아질 시기에 들어섰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학자든 무식한 자든, 위대하든 보잘것없든, 권력자든 가난한 자든, 너희 모두가 머지않아 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것이다.

34. 어떤 사람이든,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떨게 될 것이다.

35. 제자들아, 여기 너희가 깊이 묵상할 새로운 교훈이 있다.
내가 단지 너희의 귀를 즐겁게 하거나 너희 마음을 어루만져 줄
말을 들려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님을 깨달아라. 스승의 뜻은 너희를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여 진리의 빛을 보여주기 위함임을
깨달아라.

36. 나는 영원한 빛이요, 영원한 평화요, 영원한 행복이니,
너희가 나의 자녀인 만큼, 너희를 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자 의무이며, 이를 위해 나는 영혼을 그 왕국의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길로서 율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37. 율법을 지키고 공덕을 쌓을 기회는 매일, 매시간
찾아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허비하지 마라. 일단
지나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선한 하루를 위해
준비하라. 그러면 밤이 되었을 때, 너희의 잠은 평온하고 달콤할
것이라고 내가 말하노라. 덕을 행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
영혼의 성장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38.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는 두 차례에 걸쳐 사람들 곁에
있었다. 하나는 인간의 모습으로, 다른 하나는 영적인
방식으로였다. 이제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이해할 때가 되었다.

39. 왜 너희는 대개 울며 불평하며 내게 오는가? 내가 이 세상에
계셨을 때, 나는 안락과 쾌락 속에서 살지 않았고, 세속적인
권력의 지팡이도 잡지 않았다. 나는 고통을 겪었고, 투쟁했으며,
내 고통에 맞서 반항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오히려 내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자진하여 말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왔다.

40.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영혼이 일단 그
사명을 완수하면, 무한함을 갈망하며 모든 물질적인 것을 뒤로
하고 천상의 영역을 향해 날아오르는 법을 가르쳐야만 했다.

41. 너희는 비참함이나 궁핍 속에서,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오직
너희의 온전함을 위한 은총의 선물만을 갈망하고 있을 뿐인데, 왜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지 않으시는지 종종
자문하곤 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내가 너희가
바라는 모든 것을 주고, 너희가 이 땅에서 갈망하는 모든 기쁨을
허락한다면, 너희는 나중에 그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니, 이는
너희가 스스로 정체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제자들아, 너희가 그 모든 것을 소유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이나 수고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낭비하고 소중히 간직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너희가 오늘

청하는 것을,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로에 근거하여 받게 된다면, 너희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그것을 간직하게 될지 보게 될 것이다.

42. 내 말솜은 언제 이해될 것인가? 언제 너희는 그 말솜이 너희 마음속에서 꽃피고 너희 영혼에서 열매를 맺도록 허락할 것인가? 내가 너희를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생각하라. 이 세상에서 혼자라고 느끼는 이는 누구인가? 자신이 고아라고 말하는 이는 누구인가? 너희가 준비하게 되면, 더 이상 혼자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니, 어디에서나 나의 도우심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내 길의 빛을 찾으라. 그러면 너희는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이다. 과학이나 인간의 지식이라는 빛에 매달리지 말라. 이성의 빛은 영혼을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하기에는 너무 미약하기 때문이다.

43.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를 고양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니, 사랑에는 지혜와 감성과 고양의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신성의 모든 속성을 집약한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불꽃을 모든 영적 피조물 안에 지퍼 두셨다.

44. 너희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내가 얼마나 많은 교훈을 주었느냐! 신성한 자비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와 삶, 그리고 환생을 허락했느냐! 그 교훈은 배워질 때까지 필요한 만큼 반복되었다. 일단 성취되면 반복할 이유가 없으니, 더 이상 잊혀질 수도 없기 때문이다.

45. 너희가 나의 교훈을 빨리 배운다면, 더 이상 고통받거나 실수를 두고 올 필요도 없을 것이다. 지상에서 받은 교훈을 잘 활용하는 존재는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언제나 더 큰 성숙함과 더 나은 삶의 조건 속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한 생과 다음 생 사이에는 항상 휴식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는 새로운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생각하고 휴식을 취하는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46. 누군가 마음속으로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 하루의 일과나 이 휴식 기간은 우리를 다시 세상에 보내어 새로운 고난을 겪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47. 아, 작은 자여, 나는 네 무지를 용서하며, 너희가 걸어가야 할 삶의 여정에서 내가 불공평하거나 불완전한 것을 아무것도 예정하지 않았음을 말해 주마. 영혼은 지치지 않습니다. 오직 물질 세계에 살 때만, 몸이 전달하는 피로의 영향을 느낍니다. 그러나

다시 영적 자유와 영적 빛으로 돌아갈 때, 피로를 떨쳐내고 다시 지치지 않게 됩니다.

48. 세상과 육신의 유혹에 맞서 강해지라. 너희가 시련을 겪고 있을 때, 나의 모범을 기억하라.

49. 너희는 나에게 묻는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상의 유혹을 겪으실 수 있었느냐고? 이에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노니, 너희 스승의 마음을 건드린 것은 천한 유혹들이 아니었다.

50. 내가 이 세상에서 가졌던 육신은 인간적이고 감수성이 풍부했으며, 인류에게 나의 교훈을 전하기 위한 내 영의 도구였습니다. 그 육신은 내 영이 계시해 주었기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시련을 알고 있었고, 다가올 고통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51. 나는 그 육신이 너희에게 진정한 인간다움의 특징을 보여주기를 원했다. 그래야 너희가 나의 고통이 실재했고, 인간으로서 내가 치른 희생의 죽음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52.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나의 희생적 죽음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분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나의 성령의 능력을 세 번에 걸쳐 부르시어, 그 무거운 시련을 이겨내셨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째는 십자가 위에서였다.

53. 인류가 그분께 가할 고통이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하려면, 내가 사람이 되어 너희에게 내 삶과 피를 희생으로 바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내가 “영”으로 왔더라면 — 내가 너희를 통해 어떤 희생의 죽음을 겪을 수 있었겠는가? 내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었겠으며, 너희가 내게 어떤 고통을 느끼게 할 수 있었겠는가?

54. 신성한 영은 불멸하며, 고통은 그분께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고통에 민감하고, 그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본질적으로 죽을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에 나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나의 진정한 희생의 죽음을 바치며,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55. 너희가 죄인인 한, 그 수난 속의 나를 본보기로 삼고, 그 피를 기억하여, 너희의 잘못을 뉘우치며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무한한 사랑의 본보기로 정화되기를 바란다.

56. 너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 십자가 위에 계신 나를 기억하라. 내가 내 처형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치유했던 것처럼, 너희도 힘든 삶의 여정 내내 너희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에게 악을 행한 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선을 베풀어야 한다. 그렇게 행하는 자는 나의 제자이며, 진실로 내가 그에게 말하노니, 그의 고통은 언제나 잠시뿐일 것이니, 이는 내가 그가 시련을 겪을 때 내 힘을 느끼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57. 스승의 모범을 통해 이웃을 가르치려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이 백성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공동체에서는 말만으로 가르치지만, 그 말들은 행실과 모범으로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58. 이제 너희는 내 가르침의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다. 그 가르침은 너희 마음이 내가 너희 영에게 맡긴 사명을 수행할 준비가 될 때까지 서서히 다듬어 나갈 것이다.

59. 내 발자취를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누구에게도 내가 이 세상에서 겪었던 것과 똑같은 고통을 겪으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내 희생을 똑같은 방식으로 치르라고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너희에게 말하건대, 오직 내 영이 그 육신에게 내어준 그 고통의 잔을 비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육신뿐이었으며, 다른 사람은 그것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육신은 덕에서 생명의 힘을 얻었고, 그를 받아들이기 위해 자궁을 내어준 분, 곧 마리아의 순결함 속에서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60. 백성들아, 마음을 가다듬고, 내 가르침을 들을 때 너희가 들어가는 이 축복받은 고요함을 활용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집중과 영성화의 순간들 속에서 내 씨앗이 너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싹트고 있다.

61. 이 형태로 주어지는 나의 계시의 마지막 시기를, 이 은총을 다시는 받지 못할 것임을 깨닫고 활용하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62. 내가 말씀을 전하던 그 시절은 은혜가 넘치던 때였다. 나는 상속권을 박탈당한 자들에게 선물을 아낌없이 베풀었고, 삶의 투쟁에서 패배한 자들을 일으켜 세웠으며, 죄인들과 천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

63. 그 시절은 지나가고 나면 그리움으로 회상될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비록 내 말씀이 대변자를 통해 전해졌을지라도, 마음들은 내 임재를 느꼈고 영혼들은 나의 신성한 본질로 충만해졌기 때문이다.

64. 오, 수많은 사람들아, 이 축복받은 시간에 너희가 보여주는 영성을 항상 간직하라. 그것은 너희의 모임에서, 기도하는 순간에, 그리고 너희의 모든 행위에 항상 함께해야 한다.

65. 이 포도주를 마시고, 이 빵을 먹어 배부르게 하라. 너희는 이 준비 기간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나의 계시는 곧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66. 진정으로 준비하는 제자는 언제나 입술에 증언을 품고 있을 것이며, 스승으로부터 물려받은 진리를 숨기는 것은 그에게 불가능할 것이다. 빛이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온 존재는 내가 너희에게 계시한 말씀과 행적에 대한 살아있는 증언이 될 것이다.

67. 내 말씀과 내가 그에게 맡긴 은사를 마음속에 숨기는 자는, 그것으로 인해 잃어버린 기쁨을 결코 맛보지 못할 것이다. 내 발에 씨를 뿌리고, 싸우고, 스스로 고통받는 것은 영혼에게 기쁨이자 행복이기 때문이다.

68. 투쟁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쓰라린 시련의 날들이나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영혼은 겸손과 사랑으로 아버지의 뜻에 반응해야 한다. 바로 그 온유함 속에서 내가 선한 제자들과 충실한 증인들에게 나의 평화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69. 너희는 제2시대의 내 사도들에게 그 길이 수고롭지 않았고, 그 싸움이 더 쉬웠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백성아, 그들도 그들의 스승과 마찬가지로 고난의 길과 골고다를 겪었다. 그러나 모든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평안한 마음으로 영혼을 하늘로 향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겪은 모든 것이 진리를 갈망하는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70. 만일 너희가 내 가르침을 따르는 그들에게, 그들이 약해졌는지, 아니면 박해자들과 처형자들을 두려워했는지 묻는다면, 그들은 너희에게 그들의 믿음이 단 한 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신성한 권능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었고, 그 믿음 덕분에 손실과 조롱, 시련, 심지어 죽음조차도 무심하게 여겼다고 말할 것이다.

71.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앞에 놓인 발자취이며, 인간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분의 능력, 사랑, 힘, 자비에 닮아가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72.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그 순교자들처럼 박해와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스스로에게 느끼는 사랑을 뒤로 미루어야 하며, 특정 순간에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 위해 너희 자신의 것을 잊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참된 사랑에서만,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불멸의 행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복음을 전파하려는 열정과 사람들의 마음에 스승의 빛을 전하고자 하는 갈망으로 모든 것을 바쳤던, 신의 말씀을 전한 그 제자들처럼 말이다.

73. 그것은 그들이 가장 가까워서 본 본보기였으며,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그들과 같이 되려고 노력했다. 너희 중 누가 포기, 온유, 자비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 길은 열려 있고, 그 오솔길은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며, 길가에는 물을 갈망하고 씨앗을 굶주리는 들판들이 있다.

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가르침 264

1. 사랑하는 백성아, 나는 너희 안에서 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투지를 발견한다. 너희는 내 말씀에서 영감을 얻고, 인류의 길에 빛의 흔적을 남기려 애쓰고 있다.

2. 이 백성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번성했던 것처럼 번성하고, 다른 공동체들이 그들에게 합류할 수 있도록, 너희는 내 율법에 대한 진정한 순종의 증거를 보여야 한다. 나는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맡긴 사명인 영적 일과를 계속해 나가기를 권면하며, 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깊이 탐구하여 이해한 자는 실패하기 어렵다는 것을 너희에게 말해 둔다.

3. 나는 이 사명을 수행하는 데 너희의 모든 시간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루 중 몇 분이라도 내 말씀을 연구하거나, 선한 일을 행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영적 길에서 한 걸음 전진하기만 하면 나에게 충분하다.

4. 너희는 나의 자비와 사랑을 비추고자 하는 거울과 같으나, 그 거울은 흐려져 빛과 진리를 반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 거울을 깨끗이 닦아내면, 너희는 너희 안에 내 영이 비치게 될 것이다.

5. 너희가 마음 깊은 곳에서 나에게 “스승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바로 그 순간이 내가 진정으로 너희 안에서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때가 될 것이다.

6. 너희의 선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희의 마음은 여전히 나의 사랑 앞에서 잠들어 있으며, 너희는 너희의 사명을 수행하는 일이 나의 사랑에서 영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직 깨달아야 한다. 이 힘에 이끌려 일에 나서는 제자는 그의 삶에서 사도가 될 것이며,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그를 약하게 만드는 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7. 너희가 평화에 대해 말할 때, 너희 마음속에 평화를 간직하라. 너희가 나와 나의 사역에 대해 말할 때, 먼저 나를 알아가라. 그래야 너희가 결코 진리를 훼손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진리의 유일한 소유자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무지와 광신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담은 가르침을 전파할 때, 동시에 이웃 안에서 진리를 발견할 줄 아는 것이니라. 어떤 이들은 많은 빛을 가질 것이요, 어떤 이들은 단지 한 줄기 불꽃만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 모두 안에서 나의 임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니, 그들은 모두 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8. 너희 아버지께 감사하고, 회복의 시대를 목격했음을 기뻐하라. 내일, 이미 영의 세계에 이르러 지상에서 행한 너희 행위의 열매를 바라볼 때, 너희는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렇다, 제자들아, 이 눈물과 속죄의 골짜기는 평화와 영적 발전의 땅으로 변모할 것이다.

9. 오늘날까지 인류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참된 성전을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인류는 수많은 숭배 형식과 의식을 도입하고, 수많은 종교 공동체를 설립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그 영의 성전은 오늘날까지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10. 이 성소가 사랑과 진리와 정의라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날, 너희의 모든 신앙적 차이는 사라지고, 너희는 전쟁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11. 오직 나의 진리 안에서만 너희는 너희의 유산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진리에서 멀어지면, 형제자매가 될 때까지 너희 자신을 잊어야 할 것이다.

12. 나의 영성주의 백성인 너희는, 나의 최상의 계명인 사랑을 모범을 통해 가르치기 위해 모든 이에게 형제애를 베풀어야 할 사명을 지고 있다.

13. 너희는 아직 어떻게 일하게 될지 모르고, 너희 영의 힘이 어디까지 닿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으니 너희에게 말하노니, 염려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 나의 빛이 너희에게 틈을 보여 줄 것이며, 나의 목소리가 하루의 일을 시작할 때를 알려 줄 것이다.

14. 너희의 영혼은 이미 나를 듣고 깨어났으니, 이제 나는 너희를 다시 잠들게 하지 않으리라. 너희 영혼은 자신의 소명 속에서 나의 사랑을 예감하기 때문에, 순수한 감정을 통해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그 영혼이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게 하라. 그 사명을 위해 자유를 허락하라. 그리고 그 영혼이 어떤 고귀한 일을 위해 그 시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임을 너희에게 느끼게 할 때,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15. 이미 지금부터 내 계시를 연구하는 데 전념하는 이들, 곧 내 말씀을 묵상할 시간을 내는 이들은 그 길을 더 걷기 쉽게 만들고 십자가를 더 가볍게 마주하게 될 자들일 것이다. 말씀은 강물처럼 그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것이며, 치유의 향유는 그들의 영적 손에서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16. 나를 듣고 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영혼 속에서 큰 만족과 기쁨, 그리고 승리를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17. 선한 제자들은 겸손해야 하며, 그들이 누구인지는 그들의 사랑의 행실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 내 사역 안에서 ‘사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내 선택받은 자들 중 하나라고 자랑하며 세상이 그들의 이마에 찍힌 내 인장을 보기를 바라는, 나의 ‘어린이 제자들’ 중 일부와는 달라야 한다.

18. 직관적이고 깨어 있는 이 인류는 머지않아 진정으로 설교하는 자들과 단지 흥내만 내는 자들을 분별해 낼 것이다.

19. 내가 너희 모두에게 말했으니, 이는 내가 너희 모두가 빛을 갖기를 원한다는 증거이다.

20. 너희의 책임은 그 길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길에서 벗어난 ‘일꾼들’이 반드시 너희의 길과 마주칠 것임을 알아두라. 너희는 그들이 ‘울타리’로 돌아오도록 돕기 위해 그들에게 조언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21. 너희 모두 내가 너희에게 맡긴 것을 잘 지키라. 겸손과 지혜로 행하면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고난의 잔을 비울 때면 인내로써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 고난은 곧 지나갈 것이다.

22. 심판이 너희 곁에 임했고, 큰 시련의 시간이 왔음을 예감하거나 알게 된다면, 너희 영혼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며, 마음을 다잡으라.

23. 지금까지 추방된 자처럼 느꼈거나, 조국이나 부모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낀다면, 염려하지 마라. 너희의 공덕은 너희 영혼이 갈망해 온 조국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며, 한편으로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용서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너희의 행실은 지상에 평화의 시기가 더 빨리 도래하도록 이룰 것이다.

24. 시련으로 가득 찬 이 생에서 성장하여 주님의 면전에 이른 영혼의 행복을 너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 영혼은 송고한 영적 언어로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승리했습니다. 주님께서 제 영혼에 주신 빛과, 제게 드러내 주신 사랑으로 승리했습니다. 제 시련은 매우 컸고, 저를 몰아친 폭풍은 매우 거셌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저는 그 모든 것을 이겨냈고, 이제 주님 곁에 있습니다.”

25. 이 사랑의 불꽃은 시련을 불러일으켰으니, 그렇지 않았다면 영혼의 삶에는 교훈이 부족했을 것이며, 그녀의 모든 능력은 계속해서 잠들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26. 나는 많은 제자들에게서 슬픔을 봅니다. 너희는 나의 부름이 머지않아 올 것임을 예감하고 있으며, 너희 영혼이 이 땅을 떠날 때 평화를 누리는 모습을 보지 못한 채 떠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 말도 전하노니, 염려하지 말라. 너희 영혼은 이곳으로 왔던 영의 세계에서, 이 세상에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기뻐할 것이기 때문이다.

27. 이미 내 생명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꽃피고, 너희가 날마다 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때 너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면, 영적 세계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완전한 명료함과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이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28. 지식에 대한 갈망을 해소하라. 그러면 너희는 인생의 여정에서 매 순간 놀라움을 느끼게 될 것이며, 너희의 십자가가 무겁다 하더라도 삶을 유쾌하고 가볍게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29. 덕이 충만한 제자로서 자신을 고양시켜라. 그래야 내 가르침이 너희 영혼에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 가르침 속에서 유혹과 시련을 이겨내는 데 필요한 모든 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30. 이미 나는 너희가 내 밭에서 씨 뿌리는 자로서 임무를 수행한 첫 수확물을 내 곡창에 모아 두었으며, 내 말씀으로 너희가 계속해서 씨를 뿌리도록 격려해 주었다. 어떤 이들의 마음이 너희의 메시지에 즉시 응답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깨어나고 있는 영혼들이 있는 것처럼, 뒤쳐질 영혼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라.

31. 나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가르침인 은총의 샘으로 모여들어, 그들의 얼룩을 씻어내고, 더러운 옷을 벗어던지며, 나의 빛으로 옷을 입는 모습을 보고 있다.

32. 이 시대에 내 말씀을 들은 자들 중, 내가 1950년 말에 이러한 계시의 방식을 끝낼 것임을 모르는 자가 누구인가? 아무도 없다. 크든 작든 모든 공동체에서, 도시와 마을의 모임 장소에서 — 나는 모든 대변자를 통해, 이 날짜를 기점으로 인간의 이성을 통한 계시의 이 단계를 끝내겠다는 나의 뜻을 밝혔다.

33. 영적 백성에게 새로운 날은, 더 이상 이러한 형태로 나를 듣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나를 받아들이고 느끼게 되는 때가 될 것이다.

34. 그때 너희가 더 이상 대변자를 통해 나를 듣지 않게 되면,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깊이 성찰하게 될 것이며, 지금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교훈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듣지 못한 자들이 너희에게 — 내가 온 이유와 계시를 묻는다면, 너희는 그들에게 분명한 말로, 나의 재림이 당시 나를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게 했던 것과 같은 이유에서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너희가 전통, 의식, 우상 숭배로 대체하려 했기 때문에, 너희가 멀어졌던 진리와 율법의 길로 너희를 인도하기 위함이다. 비록 때로는 아버지를 숭배하고 그분께 기쁨을 드리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가 있더라도, 이것이 진정한 길은 아니다.

35. 옛날에 신성한 가르침에 잘못된 해석을 붙였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나의 가르침은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다시 오셔서 너희가 오류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셔야만 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릇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36. 비록 내가 그 당시에도 다시 오겠다고 너희에게 약속했었지만, 또한 *이* 말을 해야겠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인류가 내 가르침의 길을 걷고 있다고 확신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가르침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게 될 때가 올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내 재림을 예고했던 바로 그 때이다.

37. 나는 너희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 내가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 너희에게 약속했던 대로, 나는 영으로 오셨다. 내가 이 목소리의 매개자들을 통해 나를 드러낸 것은, 너희가 영으로 임재하시는 나를 느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영감을 받아들이실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38. 너희의 영과 심지어 너희의 감각이 받아들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필요했는데, 이는 영과 영 사이의 교감을 위한 예비 단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마지막 계시를 알렸던 바로 그 대변자들을 통해 일시적으로 나를 드러냈다.

39. 이것이 바로 자녀들과 아버지 사이의 영적 대화가 이루어질 시기가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씀드리기 위해 선택한 중간적인 방식이었다. ‘중간적’이라고 한 것은, 내가 그 당시처럼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인간으로 오지도 않았고, 완전히 영적인 형태로 오지도 않았으며, 오직 내가 깨우쳐 준 이성의 기관들을 통해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40. 이러한 계시의 방식은 너희에게 나의 현존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제2의 시대에, 희생적인 죽음을 맞이한 후 사도들 곁에 신성하지도 않고 완전히 인간적이지도 않은 형상, 즉 육신으로 나타나, 비록 신성하지도 않고 완전히 인간적이지도 않은 형상이었지만, 그럼에도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었기에 가장 불신하는 자들에게조차 신뢰를 심어줄 수 있었다.

41. 너희는 이 시대에도 엠마오로 가던 그 순례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나의 임재를 누리고 싶었고, 사도들이 들었던 말씀을 그런 방식으로 듣고 싶어 했으리라! 그러나 그것은 다른 시대였기에, 따라서 다른 교훈들이 주어졌던 것이다.

42. 믿으라. 너희가 지금 나를 듣는 이 방식이 그때보다 더 진보된 것임을. 왜냐하면 이 방식은 너희의 본질, 즉 이성이라는 기관과 영, 그리고 영혼에서 비롯되는 반면, 내 제자들이 보고 들었던 것은 그 본질 밖에 있었으며 오직 그들의 감각에만 드러났기 때문이다.

43. 오늘날 너희는 내 안에서 인간의 형상을 보기 위해 눈을 뜨지 않아도 되며, 내 존재를 믿기 위해 내 손에서 빵을 받을

필요도 없고, 내가 바로 나임을 믿기 위해 내 상처에 손가락을 대지 않아도 된다.

44. 너희는 내가 더 이상 인간 세계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들이 어떻게 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는지, 심지어 제자 중 한 명이 나를 만질 수 있었는지 묻고 있다. —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 보여준 모든 것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나로부터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 그러나 모든 비밀은 때가 되면 풀릴 것이다. 당분간은 신성한 본성과 인간의 본성 사이에, 주님께서 그분의 고귀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는 다른 많은 본성들이 있다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45. 그리스도는 그분의 계시와 가르침을 통해 시대를 훨씬 앞서 가셨다. 이는 때가 되어 인간이 영적인 것에 눈을 뜨고 그 더 높은 삶과 관련된 모든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때, 매 순간마다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계시하고, 말씀하시며, 유산으로 남기신 스승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46. 기도하고 내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 주님의 계시를 받은 이 백성에게, 그 증언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할 수고와 투쟁의 날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47.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인류의 수호자로서 준비해 왔다. 너희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축복받은 도시의 문들, 즉 빛을 갈망하는 이방인이 들어올 열두 개의 영적 문을 지키고 있다.

48. 열두 지파여, 복이 있도다! 너희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으며, 얼마나 많은 특권을 누렸는가! 나는 모든 시대에 너희에게 내려와 영과 영으로 너희와 대화해 왔다. 나는 너희의 소망을 물었고, 너희는 내게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의 소망은 인류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며, 삶의 우여곡절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주변에서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하고자 하지 않는 가난하고 무지하며 물질주의에 물든 인류를 보며, 그들을 위해 고통스러워한다. 너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영적 은사를 얻게 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에게 간구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모든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내 말씀을 들은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모든 이가 내 사역의 이 단계를 알게 되지는 않겠지만, 나는 현재 모든 사람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

나의 말씀은 양심의 소리, 나를 증거하는 시련, 자연의 힘, 혹은 나의 영적 자녀들을 통해 등 다양한 형태로 쏟아져 나옵니다. 나의 말씀은 보편적입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49. 나의 가르침은 너희에게 완전한 사랑, 이타적인 사랑을 가르친다. 나는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형제로서 너희에게 나의 사랑을 보여주었다. 나는 너희가 서로를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기를, 동료 인간들에게 진정한 이웃 사랑을 느끼기를, 넘어진 이를 일으켜 세우기를, 언제나 용서하기를 원한다. 제2시대에 여러분과 그토록 가까웠던 나의 삶은 누구나 본보기로 삼을 수 있도록 보여주기 위한 교훈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준 그 교훈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50. 너희 영혼이 본래 지녔으나, 시간이 흐르며 너희의 여정에서 조각조각 버려둔 그 모든 은총을 되찾아라. 나는 너희가 내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되기를 원한다.

51. 오,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의 길을 준비하며,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들의 마음을 희망으로 채워라. 이 세상이 혼란으로 가득 찬 길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느냐? 그들이 너희 안에서 자신들의 잘못과 불완전함을 보게 된다면 말이다. 오, 어린 아이여, 마음속으로 스스로와 대화하고, 자신을 성찰하며, 내가 네게 준 육신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영혼과 물질을 하나의 몸과 하나의 의지로 만들어라. 법칙에 복종하라. 자유 의지를 활용하여 무한히 사랑하고, 유익하고 조화로운 삶을 창조하라. 영의 법칙과 자연계의 법칙을 따르라. 내가 그 둘을 제정하였으며, 그것들은 완전하기 때문이다.

52. 나, 아버지께서는 항상 너희를 자애로운 눈으로 바라보셨으며, 너희가 모든 영적 은사를 얻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마련해 두셨다. 나는 너희 영혼에게 천사의 양식을, 너희 육신에게는 내가 창조한 자연의 열매를 베풀어 주었다. 너희는 시작된 일, 즉 너희 영혼을 온전하게 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올 기회를 얻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너희가 나와 닮았음을 보지 못했느냐?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온전함 속에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53. 죄를 멀리하고, 비록 세상의 쾌락이 너희 마음에 기쁨을 준다는 것을 깨닫더라도 거짓된 약속에 현혹되지 마라.

비록 내 길에 가시가 가득하더라도 — 이 길을 선택하라.
이것이야말로 평안으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상처에 바를 연고를 가지고 있으나, 세상은 너희에게 사랑도 자비도 베풀지 않는다.

54. 인류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세운다. 그들의 믿음의 부족은 나의 신성한 영을 끊임없이 상처 입힌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낙담하지 않도록, 용서의 망토 아래 내 모든 상처를 감추고 나의 탄식을 억누르겠다.

55. 제3시대의 십자가 발치에서 깨어 있으라. 나의 잔은 매우 쓰다. 너희는 그 맛을 알기 위해 이 잔에서 한 방울을 달라고 나에게 청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오늘 이미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삶이 이미 매우 고통스럽고, 속죄의 삶을 살고 있다면, 차라리 너희의 날들을 달콤하게 만들고, 사랑으로 미소 지으며, 이 시기가 지나면 평화가 올 것이며,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이며, 은총과 덕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될 것임을 알려주는 나의 계시를 묵상하며 기뻐하라.

56. 나는 모든 민족과 모든 가정, 모든 마음을 준비시켜 그들에게 평화와 연합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인류가 일으킬 마지막 전투가 끝난 후, 나의 왕국은 인간의 영혼에 다가와 그곳에 영원히 자리 잡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선의 전사로서 악에 맞서게 하여, 전쟁의 모든 요소와 악덕이나 질병의 모든 씨앗을 근절하게 하리라. 이 위기 속에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너희의 온전한 사랑을 펼치라.

57. 이 시대에 나는 많은 대변자들을 통해 내 말씀을 전하였다. 그것은 언제나 동일한 본질로 계시되었으며, 그 의미는 변함없다. 나는 교육받지 못한 소박한 남녀들을 도구로 삼아, 내 생명을 불어넣는 사랑과 지혜가 담긴 말씀을 전달하였다. 내가 떠난 후,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통합하고 나의 모든 영감을 깊이 탐구할 때, 너희는 완전한 것을 깨닫고 불완전한 것을 제거하게 될 것이다. 전달자에게 기인하는 부분을 나에게 돌리지 말라. 내가 너희를 깨우쳐 주리니, 너희가 세 시대에 걸쳐 내가 전한 세 부분을 하나의 책으로 통합하여, 그것이 하나의 완전한 작품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첫 번째 시대의 사도인 모세에 대해 끊임없이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나는 예수와 그분의 행적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이를 통해 성령으로서 세 번째 시대의 계시를 통합하리라.

58. 오 제자들아, 너희가 평화롭고 하나 될 때마다, 나는 너희에게 나의 계시를 내려 주리라. 그때 너희의 얼굴은

진실함으로 가득 찬 영혼을 비추어야 하리라. 나는 너희가 가진 모든 은사를 그대로 간직한 채로 너희를 남겨 두고, 저 세상에서 너희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너희의 행실을 지켜보리라. 이는 내가 성전과 너희 마음의 보금자리에서 너희와 아주 가까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59. 너희가 아이들이 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그들을 멀리하는 것을 보노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작은 몸속에는 나에 대해 많은 것을 아는 위대한 영혼들이 깃들여 있다고. 비록 그들이 예언의 성취를 목격하기를 갈망하더라도, 이 사역의 빛을 보지 못하게 그들의 눈을 가리지 말라. 너희의 사역은 그들을 통해 확증될 것이니라.

이 세상은 영성화로 나아가는 발전 과정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양한 연령대에서 부르는 것은, 영적 영혼에게는 나이도 성별도 없으며, 그 본질은 영원하고 나와 닮아 있기 때문이다. 이 영혼들의 빛을 기뻐하며, 그들이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의 사명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라.

60. 오늘 너희의 기도는 세상을 위한 평화를 간절히 청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의 사자가 되리라. 너희의 모든 선행에 대해 나는 은혜를 베풀 것이며, 너희가 용서할 때마다 나는 한 나라를 용서하리라. 너희가 뿌린 씨앗은 영원 속에서 나에 의해 배가될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265

1. 제자들아, 내 강단에 와서 나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 보아라. 너희는 사색을 통해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 말씀은 너희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 줄 것이다.

2. 만일 사람들이 태초부터 그리고 모든 시대를 통해 삶의 목적이 영혼의 완성에 있음을 깨달았더라면, 그들의 존재도 달랐을 것이며 그들의 행실도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첫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자신에게 잠시만 주어진 것의 소유자라고 여겼으며, 고귀한 일을 위해 맡겨진 모든 것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했다.

3. 이 세상이 어떻게 과학을 통해 오직 세속적인 것의 영광과 권력만을 발견하려 애쓰며, 영혼의 완성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지 보라. 그러나 영혼이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하고, 그 안에 존재하는 미덕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삶 속에서 사랑도, 진정한 자비의 감정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4. 많은 이들이 세상에 만연한 이 물질주의적이고 타락하며 이기적인 삶에서 자신의 영혼을 해방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삶의 투쟁은 너무나 복잡하고 쓰라리며 어려워서, 영혼조차도 인간 삶의 근심과 문제에 얽매어 있기 때문입니다.

5. 여러분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더 단순했다면, 삶의 투쟁도 덜했을 것이며, 여러분은 영혼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전념할 수 있는 자유와 시간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6. 나의 작은 제자 여러분, 인류의 변혁을 실현하는 일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임무가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사람들이 그동안 빠져 살아온 큰 오류에서 벗어나게 해 줄 이 신성한 메시지를 널리 전파해야 합니다.

7. 이처럼 메마른 밭에 영적인 씨앗을 뿌리는 이 일은, 모든 위대한 업적과 마찬가지로 믿음과 사랑, 그리고 노력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나의 신성한 계획이 실현될 것임을 단 한 순간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만일 너희가 의심한다면, 아무런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임무는 내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이 제자 연합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다.

8. 너희가 이 영적 사업의 창시자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과거에 너희 형제들이 이루어 낸 다른 사업들, 즉 이전의 노력들을 이어가는 자들임을 깨달아야 한다.

9.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한 가르침은 예전과 변함없이 항상 동일하다고 말한 바 있다. 만일 너희가 그 안에서 어떤 차이를 발견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겉모습에 관한 것일 뿐이다. 왜냐하면 내가 각 시대에 너희에게 가르침을 전한 방식은 인류가 이룬 영적 발전 단계에 따라, 또한 내가 다가간 백성에 맞춰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0. 이 시대에 나를 영접하는 것이 너희의 소명이었다. 너희의 사명은 내가 과거의 사자들과 사도들에게 맡겼던 사명보다 결코 덜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말씀과 너희 행실의 순결함이 합쳐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꽃피게 될 결실 있는 씨앗이 될 것이다.

11. 수 세기 동안 영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사람들과 민족들의 삶을, 내 말씀과 너희의 모범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12. 너희는 이 가르침의 스승이 될 준비가 될 때까지 미리 준비해야 하며,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사랑으로 동료 인간들의 손을 잡고 첫 번째 수업부터 마지막 수업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라.

13. 누구도 오늘과 같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며, 현재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은 채 미래가 오기를 기다리며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야말로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두어야 할 때이므로, 싸움의 시간이 왔을 때 낙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전할 가르침에 대한 믿음은 완전해야 하며, 기이한 사람들과 물질주의자들이 여러분의 조언을 쉽게 무효화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떨쳐내야 합니다.

14. 두려워하는 자는 내 진리에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런 자에게는 마음속에서 믿음의 불꽃이 타오를 때까지 시련을 겪어야 한다.

15. 제자가 스승이 될 수 있는 은총을 얻게 되면, 그의 존재와 말은 사랑스럽고, 친근하며, 설득력 있게 될 것이다. 그는 첫 순간부터 신뢰를 심어줄 수 있도록 행동할 것이다. 그의 말은 그가 말하는 바를 진정으로 알고 있으며,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고, 더 높은 빛이 그를 비추고 있음을

증명할 것이다. 선한 제자가 적대자들에게 공격받는 것을 보게 되더라도, 그의 마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그를 가르치신 분에 대한 신뢰가 완전하기 때문에 침착하게 그들을 맞이할 것이다.

16.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며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위선의 옷을 벗고, 스승에게서 보았던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자신을 감싸야 한다. 이는 내가 곧 진실함이기 때문이다.

17. 땅 위에 진리의 씨 뿌리는 자들이 나타나 사방에 나의 치유의 기름을 뿌려야 한다. 그래야 귀머거리가 듣고, 눈먼 자들이 내 메시지의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18.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오직 선한 것만을 원하신다. 이 선을 실현하는 데 동참하는 모든 이에게 복이 있으리라.

19. 내 말씀의 메아리와 너희가 행하는 일은 많은 곳에서 알려지게 되었으니,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퍼져 나갔다. 그리고 내 계시에 대한 소식을 접한 회의적인 사람들이, 이 분쟁의 세상을 형제애가 넘치는 가족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가르침을 믿지 못하더라도, 그 불신은 너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며, 그들이 회심하기까지 몇 년이 더 지나야 할지 또한 중요하지 않다. 이 사역을 위해 싸우고 노력하라. 그래야만 너희는 점차 조화의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며, 그 씨앗은 점점 더 널리 퍼져 나갈 것이다.

20. 백성들아, 지금 이 시기는 너희에게 시험의 때이니 — 이를 잘 활용하라. 나중에 후회하며 “주님, 제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렇게 해서 놓친 기회를 되찾을 수는 없으며, 오직 행함과 내 율법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만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21. 내가 너희에게 이 아버지 같은 조언을 남기는 것은,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신의 피조물들을 위해 사랑과 생명, 그리고 가르침의 계획을 세우신 것처럼, 너희도 그분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너희 자신을 위해 사랑과 겸손, 순종, 인내,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22. 인간은 육신의 삶이 영적인 삶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겼는데, 비록 육신의 삶은 덧없고 영적인 삶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종종 깨닫고 있었음에도 말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문명과

과학에서는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정체되어 있고 종교에서는 잠들어 버린 이유이다.

23. 종교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그러면 그 어느 것도 발전, 전개, 또는 완성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각 종교는 최고의 진리라고 선포되지만, 그 종교를 믿는 이들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찾고 깨달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24. 신성한 계시들, 하나님의 율법, 나의 가르침과 나의 계시는 처음부터 너희로 하여금 인간이 발전의 과정을 거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 주었다. 그런데 왜 너희의 어떤 교파도 이 진리를 확인하고 검증하지 않는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직 영혼을 깨우고, 그 안에 빛을 밝혀 주며, 영혼을 성장시키고 그 안에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며, 비틀거릴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고, 멈추지 않고 나아가게 하는 가르침—오직 이러한 가르침만이 진리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나의 가르침이 언제나 여러분에게 밝혀 온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영혼에 관한 일보다 지상의 삶에 관한 일에 더 신경을 쓰느라 오랫동안 영적으로 정체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기 위해, 너희는 지상에서 너희의 일과 의무를 수행하는 데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종교를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나서 그 종교적 전통을 따를 때,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으로 양심을 달래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확보했다고 믿는다.

25. 인류여, 이 얼마나 큰 무지인가! 언제쯤 비로소 현실을 깨닫게 될 것인가? 너희가 종교적 관습을 따를 때,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희* 영혼도 텅 빈 채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느냐?

26. 너희가 교회를 떠나며 “이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말할 때, 너희는 큰 착각에 빠진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무언가를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너희는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만 나에게서 많은 것을 받을 수 있고, 스스로에게 많은 것을 얻을 수는 있을 뿐이다.

27. 너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 장소들을 찾는 데 그친다고 믿는데, 이는 또 다른 큰 착각이다. 왜냐하면 그 장소들은 제자가 나중을 위해 배워야 할 학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배운 교훈을 실천에 적용해야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율법을 진정으로 지키는 것이다.

28. 형제자매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불화가 있고, 부부 사이에 얼마나 많은 비극이 있으며, 얼마나 많은 부도덕과 악덕이 있고, 민족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십니까? 이 모든 것은 너희가 신성한 율법을 저버리고 멀어진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29. 사람들에게는 영적 교육이 부족하며, 자신의 성장 과정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30. 온갖 형태로 이 세상에 내려오는 뼈저린 고통은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의 결과이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공의를 깨닫지 못한다. 어떤 이들은 야망에 눈이 멀었고, 또 다른 이들은 증오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31. 과연 누가 인간들 사이의 악을 근절할 수 있겠는가? 초인적인 고통이나, 끝없이 고통스러운 시련일까? 아니, 백성들아. 그 고통은 단지 일시적으로만 악을 막을 뿐이다. 그러나 이 짧은 기간은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고, 분노를 표출하며,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자 빛, 즉 나의 법을 느끼게 될 것이다.

32. 제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준 계시의 의미를 깨달아라. 이 메시지가 사람들의 영혼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왜 너희에게 말하기 위해 왔는지, 그리고 왜 한동안 너희 가운데서 내 계시가 이루어졌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33. 아, 너희 모두가 알기만 한다면 — 내가 너희가 따라야 할 종교와 예배 형식을 언급할 때, 내가 너희를 심판하거나 해치려는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성한 뜻, 즉 서로 사랑하고 영적 가르침을 너희의 인간 삶에 적용하라는 것을 너희가 이해하기만 한다면! 그러나 나는 너희의 마음이 여전히 굳어져 있으며,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나의 새로운 사자들을 박해하고 나의 새로운 계시를 조롱할 것임을 알고 있다.

34.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빛은 번개가 번쩍이듯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져 나가 영혼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35. 제자들아,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의 기도는 너희가 이 가르침을 이해했다는 증거가 되어야 하니, 그래야 내 가르침을 통해 얻은 지식을 내일 너희의 행실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36.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맡긴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너희의 증언에 본질과 진리가 담기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37. 또한, 내 가르침에 대한 너희의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면, 빛의 적들이 너희 안에서 나의 사역을 대적할 때 너희의 믿음과 신념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임을 깨달아라.

38. 나는 너희에게, 비록 그들이 '영성주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더라도 전 세계에 영성주의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들의 말을 들을 때, 그들이 영성주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직관과 명확한 인식을 깨닫고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나는 또한 너희에게 이 사실을 예고하노니, 내가 떠난 후에는 스스로를 영성주의자라고 칭하는 집단과 종파들이 나타날 것이나, 그들의 삶과 행실은 영성을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은 너희와 대립하며, 너희의 불완전함을 찾아내어 너희를 배척하고 사기꾼이라고 부를 것이다.

비록 여러분이 이를 의심하겠지만, 이 말씀으로 양육받은 여러분 가운데서도 형제자매들에게 대항하여 일어나, 불화를 조장하고 눈을 가리는 무기를 휘두르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39. 너희의 믿음이 확고하지 않고 깨달음이 깊지 않다면, 그 세력들에 맞서 어떤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겠느냐?

40. 내가 너희의 믿음을 적대세력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무기를 주려고 애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너희가 그들과 논쟁을 벌이는 것을 원치 않으며, 더구나 그들을 물리치고 너희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은 더욱 원치 않는다. 나의 뜻은 너희가 결코 당황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제자리에 머물러, 너희를 탐색하러 오는 모든 이가 너희가 기도하고 내 말씀을 연구하는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다.

41. 너희 행위의 진실함이 바로 너희를 파멸시키려는 자들에 맞서 너희가 들어야 할 최고의 무기가 될 것이다.

42. 나는 내 대열에 확고한 병사들, 진리를 수호할 줄 아는 용감한 병사들을 원한다. 무지함으로 인해 내 일을 존중하지는커녕 모독하는 광신자들의 군단은 원치 않는다. 나는 믿음이 약하여 싸움 앞에서 용기를 잃고, 싸울 능력이 없다고 여겨 도망치는 무리들을 원치 않는다.

43. 너희 자신을 성찰해 보라. 오랫동안 내 말씀을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싸울 능력이 없다고 느낀다면, 이는 너희가 내 말씀을 활용하지 못했고, 내 부르심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내 계시 속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각성의 외침을 듣지 못한 채 잠들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줄 것이다.

44.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이미 망했고, 박해자들에게
필연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
정반대다. 나는 너희에게 지금이 너희의 행실이 영적인 것인지
인간적인 것인지 철저히 살피기에 아직 유리한 때라고 말한다.
너희의 행동 방식을 면밀히 관찰하여, 그릇되고 잘못되었으며 내
일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을 발견하도록 하라. 일단 너희의 행동
방식이 진실성과 순수함으로 똑딱해지면, 너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참된 영성주의는 너희를 모든 법칙을
성취하는 길로 이끌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너희를 정죄할 수
없을 것이다.

45. 너희는 믿음의 무기가 단지 너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책임이 너희 개인을 넘어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 각자에게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맡겨져 있으며, 너희는 그들을 시련에서 구원해 낼 때까지 그들을
지키고, 기도하며,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46. 너희는 앞으로 여러 번의 아침 묵상에서 나를 듣게 될
것이며, 너희의 지식과 믿음을 굳건히 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면에서 미지의 힘과 무한한 신뢰를 느끼게 될
것이다. 이 자신감과 투쟁 앞에서의 평온함은 믿음이 너희에게 줄
것이며, 그 지식은 너희가 내 말씀에서 발견한 것들에 가치를
부여할 것이다.

47. 나는 너희가 평화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나는
너희를 나의 사랑의 망토로 감싸 주리라.

48. 사랑하는 백성아: 오늘 너희는 성령의 언어로 나에게
말하였고, 나는 내 평화로 너희에게 응답하였다.

49. 너희의 방패가 되어 온 이 말씀을 머지않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 너희는 슬픔에 휩싸이게 되며,
겉보기에는 길게 느껴졌으나 실상은 짧았던 이 기간 동안 나의
오심이 그토록 짧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묻노라. 너희는 무엇을 “나의 재림”이라 부르느냐? 혹시
1866년부터 1950년까지의 기간, 즉 내가 너희에게 내 말씀을
전했던 그 시기를 말하는 것이냐?

50.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간의 이성 기관을 통한 이
계시는 단지 너희가 영과 영의 대화의 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된 것일 뿐이며, 그 때 너희는 베다니에서 내 제자들에게
예고된 대로 “구름 위의 영” 안에서 나의 재림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이다.

51. 내가 이 대변자를 통해 너희에게 주는 이 가르침을, 더 이상 이성적 능력이 아니라 너희의 영이 스승의 빛을 받아들이게 될 그 시대를 위한 준비로 받아들여라.

52.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한 새로운 약속이자 새로운 목표이다. 너희가 대변자를 통해 받은 메시지가 한 인간을 통해 전달된 것이며, 그 사람이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완전함과 불순함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따라서 이제 너희는 중개자 없이, 먼저 귀나 뇌를 거치지 않고 내 말씀이 너희 영에 직접 닿을 때, 너희가 그 말씀의 하모니를 받아들일 그 완전함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먼저 영에 닿을 것이며, 영은 영혼을 깨우치고 마음을 고귀하게 만드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53. 오랫동안 여러분은 이 가르침을 들어왔으며, 신성한 것으로부터 양분을 얻기 위해 그 의미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내일, 여러분이 영에서 영으로 영감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받아들이는 것은 더 이상 인간의 말이 아니라 신성한 본질이 될 것이며, 여러분은 이 본질을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으로 전달하여 주님과 인류 사이의 매개자가 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54. 제자들아, 나의 대변자들을 통한 이 계시의 시기는 너희로 하여금 신성한 언어를 이해하도록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깨달아라. 이것이 스승이 제자들에게 준 근본적인 교훈이었다.

55. 너희가 이 말씀을 듣는 오늘, 너희는 나의 임재를 느끼고 있기에, 더 이상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 날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영과 영으로 나와 교감하게 될 때, 나의 제자들은 나의 임재를 훨씬 더 뚜렷하고 순수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56. 마음속에서 나를 그렇게 느끼는 이들의 기쁨은 클 것이다. 그들은 결코 “스승님께서 곧 떠나실 것이다”라거나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남기지 않고 우리를 떠나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요, 그때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항상 자녀들과 함께 계셨고, 결코 떠나신 적이 없으며, 항상 나와 함께 있는 법을 알지 못한 것은 바로 사람들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57. 오늘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느끼지도 이해하지도 못한 채 말하고 있다. 너희의 물질적 사고방식이 너희 본성 안에서 나의 현존을 느끼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성화가 너희 삶의 일부가 된다면, 너희는 모든 사람 안에 내 현존이 있다는 진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나의 목소리가 양심 속에서 울려 퍼지고, 내면의 심판자의 목소리가 들리며,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질 것이다.

58. 나는 너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너희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다. 그러나 내 마지막 말씀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많은 마음속에 슬픔을 보게 된다. 울며 슬픔에 짓눌리는 이들은 비록 나를 들었으나 나를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며, 시련의 순간에 준비되지 못한 자들이다.

59. 나는 너희에게 항상 말해 왔다: 황홀경에 빠진 발화자들이 내뿜는 이 말의 핵심에 담긴 신성한 의미를 찾아보라. 만약 너희가 이러한 계시의 걸모습에만 만족한다면, 인간적인 것에서 비롯된 많은 말들에 신성한 색채를 입히게 될 것이며, 그러면 너희는 새로운 광신주의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60. 너희는 인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예정되어 있으며,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사랑과 인내, 자비로 동료 인간들을 가르치는 길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필요할 때는 그 교훈을 되풀이하고, 필요할 때는 처음 몇 페이지를 다시 떠올리며 되돌아보아야 한다.

61. 인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내가 여러 차례에 걸쳐 너희에게 영적 삶에 대해, 지상에 인간이 등장한 일, 나의 첫 계명과 첫 계시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인류의 시대를 관통하는 여정, 그들의 성공과 오류, 상승과 쇠퇴에 대해 — 너희에게 남긴 위대하고 고귀한 모범 덕분에 그 이름이 존경받으며 보존되고 있는 깨달은 자들에 대해, 마찬가지로, 인류의 역사에 지울 수 없이 기록된 타락한 자들의 이름도, 너희가 그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62. 나는 너희가 메시지와 계명, 예언과 가르침을 받아온 나의 사자들의 이름을 상기시켜 주었다.

63. 이와 같이 나는 모든 과거 가르침의 내용을 단 하나의 가르침으로 통합하였다.

64. 영성주의는 세 가지 성서가 하나의 영적 책으로 통합된 유산이다.

65. 나의 모든 가르침은 1950년 이후의 싸움을 대비하도록 너희를 준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 시기가 되면 너희는 더 이상 “은사자들”을 통해 영적 세계를 접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들 역시 이러한 형태의 계시를 전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의 수호천사이자 조언자, 위로자,

보호자인 이 축복받은 존재들은, 그 시기가 지난 후에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존재를 느끼며,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준비시켜 왔습니다.

66. 영적 세계는 이 시기에 무엇을 위해 왔는가? — 그들의 말과 행적을 통해 나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너희에게 나의 계시를 해석하는 법을 가르치며, 그 의미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였다.

67. 그들은 결코 여러분에게 불필요한 가르침을 주지 않았으며, 여러분이 알 때가 아직 되지 않은 것을 결코 드러내지 않았고,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신비로운 학문이나 능력을 심어주기 위해 온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달랐으며, 그들의 숭고한 영혼과 빛은 그들이 평범한 물질화 현상에 빠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니, 그들은 사랑의 법칙을 그들의 영적 이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68. 이 영적 세계는 신의 명에 따라 잠시 동안 인간적인 방식으로 소통하기 위해 왔으며, 그들의 너그러운 형제애의 인상을 남기고, 그들의 존재에 대한 증언과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왔습니다.

69. 그들은 더 이상 인간의 입을 통해 너희에게 말하지 않게 되더라도, 너희에게서 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니 — 오히려 그 반대이다.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너희의 감수성이 그들의 존재를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게 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70. 백성아, 너희가 너희의 은사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진정으로 영적 세계와 조화를 이루게 된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여정에서 기적의 흔적을 남기게 될 것이다.

71. 이 시대에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용기 있는 자들, 즉 선한 예언자들과 선한 조언자들이 나타나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삶과 말로 백성을 내가 정해 놓은 길로 인도할 줄 아는 자들이며, 나의 가르침을 흠 없이 보존할 줄 아는 자들이다.

72.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용기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나는 현재 내 말씀으로 그들을 준비시키고 있으니, 이 계시의 끝이 올 때 그들이 일어나 백성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무리가 흩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73.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인간과의 소통을 증언하는 자들로 남겨 두었음을 항상 상기시켜 줄 것이며,

그들은 너희가 내가 영으로 오셨음을 인류에게 선포하도록 예정되어 있음을 끊임없이 말해 줄 것이다.

74. 나는 더 이상 사람이 되거나 사람들 가운데 육신을 입고 나타나기 위해 오지 않을 것이며, 이 땅에 다시 육신을 입고 오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 사실을 동료 인간들에게 전해야 하며, 이것이 너희 십자가의 일부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임을 안다.

75.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듯이, 지레네가 지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무게를 지고 계신 것을 보고 그분을 도왔던 것처럼, 오늘날 나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를 위해 그렇게 하며, 너희의 삶을 상징하는 산의 정상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그들과 함께 걸어가, 너희가 운명의 십자가 위로 올라설 수 있도록 할 것이다.

76. 그 때 너희는, 주님의 옆구리가 사랑과 생명, 용서를 선포하는 피를 흘리기 위해 열렸던 것처럼, 그 순간 너희 마음이 열리도록 허용함으로써 한 일을 완성하는 것이 얼마나 큰 만족감을 주는지 체험하게 될 것이다.

77. 이것이 바로 내가 현재 영성주의 삼위일체-마리아 신자들의 마음에 심고 있는 가르침이다.

78. “영성주의 백성”이라 함은 신성한 영의 빛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며, “삼위일체적”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세 가지 계시의 단계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이며, 그리고 “마리아적”이라 함은, 여러분이 그 신성한 자애를 아버지께로 이끄는 사다리로서, 또한 여러분의 교만을 없애고 주님 앞에서 온유와 겸손이 가득한 자녀로 변화시켜 주며,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며 정화해 주시는 중재자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79. 이 지극히 다정한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항상 나에게 나아갈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신뢰한다면, 곧 그분의 도우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80.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가르침 266

1. 나는 스승이다. 영원한 가르침의 말씀을 누리기 위해 이리로 오라. 비록 내가 지금 이 뇌를 통해 나를 드러내지 않을지라도, 나의 가르침은 항상 존재한다.
2. 내가 너희에게 내 말씀을 주는 것은 단지 짧은 순간뿐이다. 너희는 너무나 미숙하여, 무한 속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며 각기 다른 삶의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와 모든 영혼에게 말하고 있는 영원한 가르침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나는 너희에게 오직 진실만을 말한다. 왜 많은 이들이 내가 너희에게 계시하는 것을 의심하는가? 너희 또한 하나의 진리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진리와 존재를 믿으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진리와 존재는 믿지 않는가? 진리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 모르겠는가?
4. 여기에서 나는 너희가 이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짧고 간결한 가르침을 전한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라 할지라도 너희는 이를 잠시만 간직할 뿐, 곧 잊어버릴 것이다.
5. 진리의 빛이 항상 타오르는 영적 왕국에서는, 나의 가르침이 영원하며, 그것을 듣는 이들은 결코 듣는 데 지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나의 가르침은 마치 여러분이 숨 쉬는 공기처럼 그들의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듣기 위해 마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세상에서 영혼 속에 나의 가르침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도움의 손길이 부족하여 꺼져버린 희망으로 인해 넘어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없이, 길을 잃고, 눈이 멀고, 귀가 먹은 채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묻노라: 영혼의 길이자 빛인 신성한 계명을 자신의 본성에서 지워버린 자들은 어디로 가는가?
6. 불쌍한 피조물들아, 너희 배는 방향을 잃었고 등대의 빛을 발견하지 못하여 난파당하고 있다.
7. 나는 너희를 찾고 내 빛을 주노니, 너희가 그 길을 걷게 하고, 그 길을 통해 스승이 삶을 통해 끊임없이 너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려 함이라.
8.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강하지만 영적으로는 강하지 않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9. 나는 너희가 등을 돌렸던 현실과 진리에 너희를 더 가까이 이끌어 준다. 너희가 영의 삶인 더 높은 삶을 경멸했을 때, 너희는 물질 세계의 삶인 더 낮은 삶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10. 참된 삶의 길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는 다시금 너희의 참된 본성에 가까워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 길은, 너희가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의 균형을 맞추고, 너희 자신 안에 품고 있는 진리를 알게 될 때 발견하게 될 길이다. 그때 비로소 너희 존재의 더 높은 부분인 영이 이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빛을 가져오고, 길을 알고, 법을 지닌 자이다. 그러므로 내 육체의 행동을 결정하고 다스리는 이는 바로 나일 것이다.” 너희가 한 번 그렇게 말하게 된다면, 그것은 너희 존재 안에서 빛이 비추고, 그 반사가 인간의 마음에 닿았기 때문이다.

11. 아, 너희의 육신이 너희 영혼이 예지력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을 받아들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영혼은 결코 보는 것을 멈추지 않는데, 비록 육신이 물질화된 탓에 그 어떤 것도 감지하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너희는 언제쯤 너희 영혼을 이해하게 될 것인가?

12. 내 말씀을 들으라. 너희로 하여금 싸우고 역경을 이겨내게 하며, 시련 앞에서 도망치지 말고, 희생을 마주했을 때 낙담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내 가르침을 받아들여라.

13. 나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하노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시련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힘을 주었음을 깨달으라. 성령의 힘은 육체의 힘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문제들로 인한 짙은 안개가 너희의 시야를 가린다면, 믿음의 빛으로 그 안개를 몰아내고 쫓아내라. 그러면 너희는 그 안개 너머로 무한함과 하나 되는 지평선을 보게 될 것이며, 그곳은 너희가 앞으로 나아가 평안으로 충만해지도록 초대할 것이다.

14.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그 후 동료들의 문제에 맞서 그들의 투쟁을 돕게 될 것이다.

15. 이 삶이 한 번의 전투임을 알되, 너희는 승리하도록 정해져 있음을 명심하라. 너희 각자 안에 있는 나의 빛은 결코 악의 어두운 세력들에게 패배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6. 너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오직 너희의 승리를 통해서만, 이 생과 영적 세계에서 너희에게 드러날 비밀들의 계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7. 시대를 초월하여 투쟁하는 백성들아: 너희가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싸우지 않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안개와 고난, 문제와 시련은 끝이 날 것이며, 이는 너희 자신의 것이든 타인의 것이든 마찬가지일 것이다.

18. 내가 너희에게 이웃이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에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하더라도 염려하지 마라. 강한 영혼들은 자신의

십자가와 타인의 십자가를 견딜 수 있으며, 작고 약한 영혼들을 기꺼이 돕는다. 그들은 치유할 상처를 항상 찾아다닌다.

19. 고통받는 이에게 말을 건네며 상처를 치유하고, 아물게 하며, 잊게 하는 이의 말씀이 축복받으리라. 그는 내가 그의 마음에 심어 놓은 치유제의 사명을 알고 있다.

20. 어려움이나 위험에 둘러싸였을 때, 자신의 영의 힘을 간구하며 육신에 얽매인 영혼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싸워 승리하며 승리를 거두는 이가 바로 강한 자이다. 믿음 덕분에 영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21. 나는 이를 통해 너희에게, 싸움이 너희를 부르는 곳에서는 지혜와 정의, 그리고 믿음이 그 앞을 가로막는 곤경과 불순한 정욕을 언제나 이겨낼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22. 너희의 은사가 꽃피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은사들은 영이 생명을 얻은 그 순간부터 이미 너희 안에 있었다. 영이 육체와 세상에 “내가 너희를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클지 상상해 보라!

23. 제자들아, 나는 영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가르침을 너희에게 주었다.

24. 진리를 깨닫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곧 그 길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은 자신들의 행실이 나의 행실보다 우월해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의 가르침을 늘 거부한다.

25. 나는 너희 모두를 사랑한다. 나는 양들을 부르며, 그들을 하나로 모으고 세어 보며, 날마다 그 수가 더 늘어나기를 바라는 목자이다. 나는 그들을 먹이고 어루만지며, 돌보고, 그 수가 많음을 볼 때 기뻐하지만, 때로는 모두가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26. 이것이 바로 너희의 마음이다. 너희 중 많은 이가 내게로 오지만, 진정으로 나를 따르는 이는 적다.

27. 내가 너희에게 내 말씀을 전하는 대변자들을 보아라. 그들은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졌다. 그들은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은사를 의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온유하게 자신의 길을 계속 걷고 있다. 그들은 제2시대에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며 나에 대해 의심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던 자들에 의해 내가 십자가로 끌려갔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사명의 십자가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짊어졌다.

28. 백성아, 나는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내 사랑의 망토는 너희가 지금 나를 듣고 있는 모임 장소를 넘어 펼쳐져 있다. 너희는 예외 없이 모두 내 영과 내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다.

29. 나의 말씀은 평온한 평화의 안식처입니다. 지치고, 슬프고, 지겨우거나 아플 때 그곳을 찾아오십시오.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가고 싸워 나갈 수 있는 용기와 건강, 그리고 믿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30. 나는 너희가 열렬하고 겸손하며 내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결코 내 능력을 시험하거나 내 공의를 의심하는 자들처럼 되지 않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렇게 하는 자가 스스로 시험에 빠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31. 내가 이 형태로 나 자신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믿든, 인정하기를 원치 않든 간에: 이 계시의 핵심에 존재하는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완전히 확신할 때까지 경외심과 온유함으로 귀를 기울이라.

32. 이 계시의 진리를 부인하고, 너희가 듣는 말씀을 믿는 자들을 비방하며, 나의 대변자들을 조롱했던 자들이 얼마나 많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지 너희가 알기만 한다면. 오늘날 그들은 자신의 입에서 나온 그 모욕적이고 무례한 말들을 어떤 말로 지울 수 있을지, 또 어떤 행실로 주님을 달래드릴 수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33. 나는 너희가 판단할 때 경솔하지 말고, 첫인상에 휩쓸려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도록 배우기를 바란다. 내가 이 조언을 주는 것은, 너희가 내 말씀을 해석할 때나, 교리, 종교, 철학, 종파, 영적 계시 또는 과학에 대해 판단해야 할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아니며, *여러분이* 아는 진리는 *여기서* 드러나는 방식의 극히 일부일 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다른 수많은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는 절대적 진리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34. 내가 오늘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는지 설명해 주겠다. 그 이유는 이 무리 가운데, 내가 이 백성에게 그토록 많은 말씀을 전하고 있고 이 말씀이 “말씀”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무리의 완전한 갱신이나 영성화를 이루지 못했는지 끊임없이 묻는 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나는 그에게 상세한 가르침으로 대답하며, 만약 내가 순수한 권능으로 이를 원했다면, 순식간에 이 모든 죄인들을 천사로 변모시켰을 것이지만, 그러한 일은 내 눈에는 아무런 공로가 되지 않을 것이며, 바로 그 이유로 이 말씀이 지혜롭고 지극히 인내심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는 이 백성의 마음을 믿음과 사랑, 회개와 솟아날 때까지 오랫동안 다듬어 나가기 위함이다.

35. 사람들은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세상을 파괴하고 있다. 너희는 그들의 폭력이 나의 권능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오류를 깨닫고 바로잡은 뒤, 그들이 파괴하고 더럽힌 모든 것을 다시 재건하여, 내 눈앞에서 그들의 공로가 진실되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36. 너희는 아직 작은 백성이다. 그러나 나는 오늘까지 나의 계시를 위해 모인 소수의 사람들을 결정적인 요소로 여기지 않았다. 그 증거는 내가 너희에게 준 수많은 가르침과 계시들이다.

37. 1950년 이후, 너희가 더 이상 이런 형태로 나의 말씀을 받지 않게 되면, 너희 마음에는 걸보기에는 공허함이 생길 것이며, 침묵과 슬픔이 가득한 몇 번의 아침 목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이 나에게 의해 지혜롭게 계획되었음을,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준 마지막 가르침을 통해 너희를 높은 곳으로 이끌어,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잊을 수 없는 정점에 도달하게 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38.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너희의 등불을 꺼버리거나 너희가 나에게 바치는 영적 제물을 시들게 할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너희가 영원부터 영혼에 새겨온 인장을 지워버리겠느냐? 믿음은 너희 마음속에 깊은 뿌리를 내렸으며, 계속해서 자라나 너희 주변의 모든 것을 비출 것이다.

39. 그러면 너희의 투쟁과, 내가 너희에게 겪게 한 큰 시련이 지난 뒤, 휴식의 시간이 찾아올 것이며, 너희는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약속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희에게 예고했던 그분이 이미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오늘 너희를 통해 말씀하셨으며, 너희의 고난 속에서 너희를 돕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 분이다. 그분은 이 시대에 계시된 나의 영이시며, 천사들로 이루어진 영적 세계로, 너희의 삶의 여정을 동행하고, 너희의 큰 전투에서 너희를 보호하며, 너희를 치유하고 위로해 주는 존재들이다.

위대한 덕을 지닌 존재들의 온 군단이, 예고된 대로 너희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의 시간에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 나와 하나가 되었다. 지구를 가득 메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계시와 이 사역에 깊이 들어가 그 위대한 은사를 누릴 자로 선택받았으니, *너희*는 스스로를 매우 행복한 자로 여기라.

40. 나는 너희를 내 제자로서 사명을 완수할 준비가 된 상태로 남겨둘 것이며, 머지않아 너희는 내가 가르침을 전하는 동안 너희에게 예고했던 것들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에는 내 영적 현존을 증언하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며,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느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을 통한 나의 계시가 끝나더라도, 나는 모든 자녀들의 영혼 안에서 다스리기 위해 그들의 준비와 참된 경배를 계속 기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율법과 성령의 은사가 드러날 것이며, 나는 너희의 경배와 사랑을 받아드릴 것이다.

41. 오래전부터 나는 너희에게 여러 나라에서 내 말씀을 전할 것이며, 인간의 이성을 통해 다른 민족들에게도 내 빛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해 왔으니, 진실로 내가 작은 공동체들 속에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 말씀하셨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들이 나를 들었을 때, 어떤 이들은 나를 스승으로 받아들였고, 다른 이들은 단지 더 높은 영적 존재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42. 내가 말하여 내가 스승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이들은 믿었고 다른 이들은 의심했다. 그러나 단순하고 겸손한 피조물들을 통해 드러난 내 말들이 담고 있는 의미와 지혜를 깨달았을 때, 그들은 내 영의 이러한 계시가 과연 가능한 일인지 자문했다.

43. 나는 또한 그곳에서 그 계시가 끝날 시간을 정해 두었으며, 너희가 너희의 증언을 가지고 내 말씀이 들렸던 지구의 그 장소들에 이르게 되면, 너희는 그들에게 이 계시들의 진실을 확인해 줄 것이다. 오늘날 의심하는 그 남자와 여자들이 너희의 분명한 증언을 듣게 되면, 그들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44. 내가 준비해 둔 공동체가 얼마나 적었는지! 그러나 나는 그곳에 계셨고, 모든 영혼을 깨우치며 나에게 대한 증거를 남기셨으니, 이는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45. 너희가 내 설교나, 그의 고국에서도 전해진 내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문객이나 외국인을 맞이할 때, 그를 거절하지 말라.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그를 환대하여 함께 기쁨으로 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확인하고, 내 재림을 기대하며 깨어 기도해 온 모든 이가 이 시기에 나를 맞이했음을 알게 하라. 나는 너희를 나의 제자로 삼기 위해 모든 이를 부르셨다.

46.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미리 알려 두노니, 누군가 너희에게 이 나라 밖에서도 나의 신성한 광선이 굶주린 자들을 먹이기 위해 말씀이 되었다고 말할 때, 너희가 놀라지 않도록 하라. 내 사랑은 모든 것을 포용하며, 나의 회복 사역은 전 세계를 아우른다는 것을 알라. 그리하여 내가 오직 너희 나라에만 은혜의 선물을 베풀지 않았음을, 오히려 내가 하나로 연합시켜 단 하나의 지점, 즉 영성화로 이끌고자 하는 모든 이가 나의 가족임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47. 내가 이 시대에 너희에게 준 가르침을 통해, 나는 이전 시대의 계시들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각 계시에서 가르침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는 예언과 스승의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계시 속에 온전한 율법의 요약이 담겨 있으며, 그것들이 너희에게 영성화로 이끄는 길을 제시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48. 수세기와 시대가 흘렀으나, 비로소 오늘에 와서야 너희는 율법과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었다.

49. 내가 너희의 여정에서 많은 “기적” — 너희가 나의 행적을 부르는 대로 — 을 허락한 것은 너희의 믿음을 북돋우기 위함이었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아낌없이 베푼 것은 오직 선의 길에야 비로소 평화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하려는 의도에서였다. 그 기적들은 백성이 새로운 광야를 건너는 동안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50. 이 평화 속에서 너희는 싸움의 때가 왔을 때 강해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왔다. 나는 너희가 기도를 무기이자 방패, 영감의 수단, 보루이자 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영과 영이 소통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

51. 너희는 내가 사도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쳤을 때, 그들에게 모든 시대를 위한 기도를 준 것인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물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그 기도를 드렸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고귀한 방식, 즉 사랑과 겸손, 믿음, 경외심, 순종, 신뢰를 담은 기도를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52. 내 말씀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데 그친 자들과, 그 기도를 자신들의 기도를 위한 본보기로 삼지 않은 자들은 잘못 행한 것이다.

53. 오늘 내가 너희에게 영적으로 고양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 나는 너희 마음속에서 그 기도의 본보기, 그 완전한 기도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너희가 입술로 나에게 말하기보다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며, 그 기도를 구성하는

문장들을 차례로 반복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 문장들에서 영감을 받아 너희 마음속에서 형성하는 생각들이 ‘주님의 기도’처럼 아버지께 대한 사랑, 겸손, 믿음, 경외심, 순종, 그리고 신뢰를 표현하기를 원할 뿐이다.

54. 당분간 너희의 임무는 내가 방금 말한 내용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이며, 그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는 누구에게도 가르치려 하지 말아야 한다. 명심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영성주의적 가르침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가르치신 기도를 대체했다고 주장한다면, 여러분은 이단자로 간주될 것이며, 그 가르침은 신성한 스승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55. 반면에, 너희의 생각이 정리되고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때야말로 여러분은 내 가르침을 깊이 탐구하지도 않은 채, 내 말씀을 습관이나 관례, 무익한 관행으로 전락시킨 사람들을 쉽게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아름답고 심오한 말들을, 이성이 이해하지도 못한 채 무심코 내뱉을 뿐, 그 말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56. 제자: 내 가르침의 목적인 ‘영과 영의 기도’에서, 너희의 온 존재는 창조주께 말씀드리기 위해 그 행위에 온전히 집중하게 된다. — 너희 온 존재에서 솟아나는 목소리로, 영을 사자이자 통역자로 삼아서 말이다.

57.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버지께 진정한 경배와 사랑, 인정, 겸손, 경외심을 바칠 수 있는 방식입니다.

58. 여러분을 평화로 이끌고 영성화의 길을 보여줄 것은 과학도, 이 시대의 가르침도 아닐 것입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여러분의 이성을 비추고 참된 길을 드러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59. 인간이 이해해 온 과학은 결코 인간의 마음을 영적인 것을 느끼고 볼 수 있을 만큼 민감하게 만들 수 없을 것이다.

60.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들이 과학의 근저에서 나를 찾으려는 의도를 가졌다면, 과학을 통해 나의 현존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하는 모든 기적 속에서 나를 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눈먼 자들처럼 나를 부인하고 있다.

61. 인간이 열망하며 탐구하는 자연은 나의 권능과 사랑, 그리고 공의를 드러냄으로써 끊임없이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은 단지 지식을 추구하고 권력을 축적하기만 할 뿐, 창조주의

작품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랑이 모든 행위의 영감과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는다.

62. 자연과 그 요소들, 그리고 그 힘이 나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느냐? 자연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려고 애쓸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의 품에서는 오늘날까지 그 안에 담겨 있던 셀 수 없이 많은 교훈들이 솟아날 것이다. 그 내면에서는 정의를 향한 외침이 울려 퍼질 것이며, 우주 공간에는 진동이 일어날 것이고, 멀리서 궤도를 돌고 있는 세계들 또한 그 메시지를 전해 줄 것이다.

63.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과학자가 온 힘을 다해 보아도 사방에 심판을 가져오는 파괴적인 힘을 막기에는 자신이 너무 무력하고 미약하다고 느낄 때, 그는 자신의 업적에 경악하며 물러서서 마침내 외칠 것이다. “주님, 바로 주님이십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임재요, 주님의 음성이요, 주님의 정의입니다!”

64. 그것은 많은 이들에게 심판과 두려움, 그리고 회개의 날이다.

65. 그 고통은 너무나 커서, 마치 검은 애도와 비탄의 망토가 사람들을 덮는 것처럼, 그들 안에 어둠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의 영혼에서 기도가 터져 나올 것이다. 이 기도는 지치고 병든 채 아버지 집 문 앞에 엎드린 “탕자”의 두려움에 찬 간구일 것이다.

66. 사람들이 마침내 진리의 빛을 향해 영의 눈을 뜨는 그 순간이 복되도다. 그들의 과거는 용서받을 것이며, 새로운 태양이 그들의 삶에 빛나며 그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며, 고귀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67. 고통의 잔을 바닥까지 비워낸 사람은 얼마나 경건한 마음으로 과학의 길을 걷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가 자연의 신비를 탐구할 때, 그에게 영감을 주는 의도와 이상은 얼마나 고귀해질 것인가!

68. 어둠이 지나간 뒤 다시 빛이 나타날 것이며, 그 밝음 속에서 사람들은 삶을 더 영적이고 고귀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종교적 광신의 얽매임은 사라지고, 인류는 나의 현존을 느낄 것이다. 이 가르침은 거부당하고 박해받았던 끝에, 진정한 신의 계시로 받아들여져 온 세상에 퍼져 나갈 것이며, 사람들을 빛과 믿음, 선과 정의의 길로 이끌어 줄 것이다.

69. 내가 너희에게 예고하는 이토록 큰 행복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너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이 반드시 너희의 삶을

끝없이 악화시키거나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만 일어나는 것이냐? 아니오,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슬픔과 고통, 괴로움과 비참의 날들을 예언하듯이, 나는 또한 빛이 이성애, 평화가 마음애, 사랑의 힘이 영혼애 되돌아오는 날들도 너희에게 예언한다.

70. 너희는 악이 하나씩, 불행이 하나씩 닥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더 이상 좋은 일을 기대하지 않고, 유리한 변화를 믿지 않게 되었으니, 이는 너희가 믿음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류가 선과 형제애의 길로 돌아올 것이라는 생생한 희망을 품는다면, 다른 이들이 나서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의 사명을 다함으로써 그에 기여하십시오.

71. 사랑하는 백성들아, 나는 너희의 의사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만큼 너희의 건강을 위해 애쓰는 이는 없으며, 나만큼 너희의 고통을 깊이 느끼는 이도 없다.

72. 지금 이 순간, 내 치유의 향유가 너희의 몸과 영혼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끼고 싶으냐? 그렇다면 기도애 들어가라. 나를 향해 마음을 들어 올리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정화하라. 그러면 너희는 최고의 의사가 주는 치유의 향유를 느끼게 될 것이다.

73.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이 생을 마치고 영혼의 긴 여정을 다 걸어가고, 시련의 사막을 건너며 너희의 갈보리 산을 올라갔을 때, 너희는 항상 너희를 기다려 온, 빛나는 도시, 곧 진정한 영원한 영의 도시에 있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어떤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니, 그곳에는 오직 완전함에 이른 영혼들만이 거하기 때문이다. 고통과 질병, 궁핍과 불행은 속죄하거나 배우기 위해 고통받는 불완전한 영혼들에게만 해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74. 왜 너희는 여기서 형제자매로서 하나가 되어, 비록 환하게 빛나는 도시는 아니더라도, 너희 아버지를 맞이할 수 있는 환하게 빛나는 영적 고향을 만들지 않는가? 나는 너희 마음속으로 들어가 너희를 격려하고, 치유하며, 다정하게 어루만져 주리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마시는 것이 나의 피가 아니라 나의 신성한 본질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75. 인류여, 나는 너희를 사랑하노니, 그러므로 나는 너희 자녀들을 위해 ‘지키고’ 있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리라. 그 옛날 내가 사람들 가운데 거할 때, 나는 기도하기 위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자들을 생각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의 죽음을 짊어졌던 그들을 위해 사막으로 물러났노라. 오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직 도달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나는 사막의 고독을 발견하며, 그곳에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너희를 생각하고 있노라. 바로 내가 구원하여 내
왕국으로 데려갈 너희를 말이다.

76. 남자들아! 울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울음 또한 은사이기
때문이다. 기도하라. 너희 모두가 내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되라.
눈물을 흘리고, 아픔을 떨쳐내며 기쁨을 맞이하라.

77. 여성들, 어머니들, 처녀들, 어린 소녀들아, 나는 너희와 함께
있으며, 모든 마음에 나의 애정을 베풁니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가르침 267

1.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의 영혼을 하나로 모아 내 임재를
기다리는 너희에게 — 축복이 있기를.

2. 너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찾고 있으며, 나는 너희 각자에게
그 열매를 주리라.

3. 내 사랑의 빛은 이 나무들을 살랑거리게 하는 산들바람과
같습니다.

4. 제자들아, 삶은 창조주께서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신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이다. 그러나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아름다움과 기적이 담겨 있는지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 책을 읽는 법을 배워야 한다. 신성한 스승인 나보다 누가 이 책의 내용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교훈 한 교훈 더 잘 보여줄 수 있겠느냐?

5. 오랫동안 그 책은 한 페이지가 펼쳐진 채로 남아 있었는데, 이는 너희의 무관심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교훈을 전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멈춰 서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너희가 삶과 영원, 그리고 빛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 책에 시선을 돌린 순간이 왔고, 너희는 스승이 이미 알고 있던 페이지를 넘기며 너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보여주는 것을 보았다.

6. 이 책이 너희에게 전해 주는 지식은, 너희의 과거가 너희 영혼에게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준다. 이제 지식의 빛에 비추어, 너희는 수많은 가르침의 근거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와 모든 피조물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게 될 것이다.

7. 긴 여정 속에서 이미 겪어낸 시련의 광활한 사막과 길의 갈림길을 건너고, 매복과 위험이 도사린 어두운 숲을 뒤로 한 영혼들은 복이 있다. 그 큰 시련을 겪어낸 자들이야말로 내 말씀을 가장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며, 심연으로 추락할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8. 너희 각자 안에 존재하는 책 또한 위대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 책이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너희의 과거, 너희 영혼이 겪어 온 모든 것, 그리고 날마다 그 역사가 더해져 가는 그 책이다. 일단 “나의 품”에 들어오게 되면, 너희는 그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며, 완성에 이르는 산을 오르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보게 될 것이며, 그 사실에 기쁨을 느낄 것이다.

9. 지금 여러분은 고통의 시기를 겪고 있으며, 그 의미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고통이 죄인들에게 정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너희는 모두, 내가 내 자녀들 각자에게 한 벌의 옷을 정해 두었으나,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그릇’을 안팎으로 깨끗해질 때까지 씻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옷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 옷은 바로 진리이다.

10. 누가 자신이 내 제자가 될 능력이 없다고, 혹은 경험이 없다거나, 겪은 일이 너무 적다거나,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내 메시지를 전할 만큼 강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11. 아니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삶을 너무 짧게 살지 않았으며, 너희가 겪은 일도 너무 적지 않다. 의심과 믿음의 부족은 육신의 껍질에서 비롯되며, 발전의 길에서 자신의 영적 영혼이 축적해 온 힘과 빛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낙담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12. 너희는 너희의 과거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으며, 너희의 기원이 얼마나 멀리 거슬러 올라가는지 아느냐?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미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너희의 발걸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느냐?

13. 이 제3의 시대에 도달한 후에는 누구도 자신을 미성숙하거나 무지하다고 여겨서는 안 되며, 특히 내가 “장자”라고 부른 너희는 더욱 그러해야 한다.

14. 왜 미래를 두려워하느냐? 과거에 너희 영혼이 쌓아온 모든 경험을 헛되이 내버려 둘 생각인가? 수확도 거두지 못한 채 씨앗을 방치할 생각인가? 아니, 제자들아. 아무도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지만, 승리의 순간을 늦추고 어떤 길을 가든 어차피 겪게 될 고통을 더할 수는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15. 너희가 이 진리를 확신하지 않는 한, 나는 너희를 복음을 전하러 지방과 여러 나라로 보내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때는 너희 말에 설득력이 없을 것이며, 세상은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자로 알아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16. 나는 지금 너희에게 단순하고 영적이며 소박한 하나님 숭배를 가르치고 있다. 이는 너희가 겉치레적인 예배 의식에 매달려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내가 이미 여러 번 말했듯이 실천적인 이웃 사랑이라는 본질에 충실하는 데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17. 너희는 이미 영적인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지나왔으며, 오늘날 너희는 충만함인 성숙함을 얻게 될 새로운 삶의 문턱에 서 있다.

18. 나를 듣는 이는 적으니, 따라서 이를 체험하는 이도 적다. 빛의 시대에 살면서도 마치 어둠 속을 걷는 것처럼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이 인류를 보라. 그들의 잔을 살펴보고, 그들의 상처를 바라보며, 그들의 절망을 느껴보라. 멀리서라도 그들의 영혼에 너희의 존재를 알리고, 만일 너희가 이웃에 대한 자비와 사랑을 품고 있다면, 고통에 눈물을 흘려라. 그러면 너희는 깊은 연민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 마음에서 고귀하고 너그러운 충동이 솟아나, 너희를 사랑과 치유, 그리고 빛의 지칠 줄 모르는 파종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계속해서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숨어만 있다면 — 그때 너희 마음이 이웃에 대한 연민으로 민감해지고 정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19. 영혼들을 여러분 편으로 이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 말씀의 치유제와 여러분의 자비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오십시오.

20. 누구에게도 그의 신앙적 신념이나 의식이 불완전하다고 증명하려 하지 마라. 그 결과는 부정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고통받는 이에게 다가가, 그의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를 위로하라. 그러면 너희는 그의 입술에서 너희가 진리의 전령임을 알려주는 진심 어린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21.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고통의 순간과 괴로움의 순간에, 나는 내 자녀들에게 그들이 나를 기리기 위해 거행하는 의식과 예식 그 자체보다 더 가까이 있다. 깊은 고통 속에서 진실함으로 가득 찬 기도가 솟아나는 반면, 의식 속에서는 전통과 관습의 힘, 일상적인 관행, 심지어 허영심까지 드러나기 때문이다.

22. 이제 너희 모두가 온전한 명료함으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말씀을 새롭게 들어야 할 때가 왔다. 내 사명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지, 너희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3. 모든 것이 본래의 진리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므로 사람들 사이에서 세계관 간의 투쟁이 불붙을 것이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물질주의 한가운데서 위대한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며, 이 빛들은 지상에 영성주의가 도래함을 알리는 선구적인 징조가 될 것이다.

24. 선견자, 예언자, 깨달음을 얻은 자, 영감을 받은 자들 — 이들은 모두 인류에게 영 안에서 나의 임재를 선포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한 기초를 놓는 사명을 맡게 될 것이다. 그 성전은 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어지며, 그 내부에는 믿음의 불꽃이 타오르는 곳이다.

25. 이 성전은 영광스러운 것이며, 그곳에서 너희는 내 전능하심이 태초에 모든 내 자녀들이 그 안에 거하게 하려고 이미 창조하신 성소를 보게 될 것이다.

26. 오늘날 너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토록 많은 완고함을 보고, 전통과 광신주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것을 보며, 그들의 갱신과 변화, 그리고 영성화의 가르침이 실현되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해 보일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이가 빛 가운데 거하며 진리를 알기 위해 내게로 오도록 예정되어 있기에, 나의 뜻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구원받기는커녕 파멸당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 그러면 너희의

불완전함인 그 악한 면들이, 비록 영구적이라 할지라도, 결국 사라질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27. 인류에게 얹혀 있는 시련은 크다. 너희의 직관은 세상이 나의 신성한 심판 아래에 있으며, 사람들의 교만이 아버지께 벌을 받았고, 이 심판의 권능이 날마다 커지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보라, 인간이 어떻게 오만함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으며, 저지른 악행을 뉘우치지 않는지, 한마디로 말해 신성한 정의에 굴복하지 않는지를. 그들 스스로가 고통의 시간을 연장하고, 많은 무고한 이들을 파멸로 끌고 가고 있다. 이 고통의 시간은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인가? 사람들이 진리를 향해 눈을 뜨고, 유일하게 존재하는 권능이신 나께 굴복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28. 백성아, 너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의 원인을 알게 되었고, 동료 인간들의 구원과 평화에 기여할 방법을 찾았다는 사실에 행복함을 느끼지 않는가?

29. 너희가 이러한 기쁨을 경험하는 것은, 너희가 나의 말씀을 이해했고, 사랑으로 너희의 어려운 사명을 수행하는 법을 알기 때문이다.

30. 1866년부터 1950년까지, 내 말씀, 즉 이 영의 빛은 너희가 경험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너희 가운데 울려 퍼졌다. 이 기간 동안 많은 대변자들이 그들의 은사를 펼쳤으며, 내 종들, 즉 나의 “일꾼들”의 핵심 부대를 이룬 남녀들이 준비되었다.

31. 나의 선택받은 자들의 이성적 능력을 통해 나의 영이 드러났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께서 말씀하신 이 피조물들이, 자신들의 입에서 나온 말을 완전히 자각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그들이 자신의 이성 기관에 내려온 것이 무한한 무엇임을 느끼고 있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입술로 내뱉은 말의 위대함과 그 의미를 평가하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2. 1950년 이후, 즉 내가 작별을 고한 이후, 이 백성은 인류에게 나의 사역을 알릴 것이나, 그것은 인간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나의 뜻에 따른 것이다. 내가 말했던 그 대변자들은 나의 영감을 표현하던 그 순간, 자신들의 입에서 나온 말을 이해할 능력이 없었다. 내일 그들은 내가 그들을 통해 예고했던 모든 것, 곧 내 예언들이 성취된 것을 확인하고 놀라게 될 것이다. 그때 항상 열성적이었던 이들은 더욱 큰 사랑으로 자신의 사명을 받아들일 것이며, 때때로 믿음이 부족했던 이들은 잠시나마 의심했던 것을

뉘우치며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들의 믿음은 불타오를 것이며, 그들은 끝까지 나에게 충실할 것이다.

33. 내 말씀을 듣고 있는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나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스승님의 대변자이며 스승님의 광선이 그 이성애 머무르는 사람이, 스승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까?” 이에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노니, 그렇다. 나의 대변자이면서도 의심 속에서 살아왔고, 심지어 계시가 전해지는 순간에도 의심했던 이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영감이 그들에게 쏟아져 들어갔던 바로 그 순간, 변화된 그 서툰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씀과 빛, 진리, 그리고 위로가 얼마나 위대했는가.

34. 내가 그들 안에 임했을 때, 그 가르침이 위대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은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자들이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나에게 합당하게 대할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가장 열심히 노력해 온 자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더 큰 순수함으로 나에게 다가오며, 자신이 맡은 직분에 항상 합당해지려고 애쓰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35. 너희의 의심은 얼마나 자주 그들의 겸손에서 비롯되는가? 그들은 내가 그들을 이 사역을 위해 성별한 그 순간부터 혼란스러워하며 스스로에게 물었기 때문이다. “나 같은 작은 피조물, 합당하지 못한 죄인, 하찮은 존재가 하필 하나님께 의해 이토록 위대한 임무를 맡게 될 수 있을까?”

36. 너희는 그 의심 너머에 있는 내 작은 자녀들의 사랑과 경외심을 알아차리는가? 이제 왜 어떤 이들은 의심하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들의 전도를 통해 나를 드러내시는지 이해하는가?

37. 나의 현존을 믿는 대변자는 얼마나 자주 그 사실만으로도 만족해하며, 영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감정을 준비에 담지 않습니까? 그 결과 그의 표현은 차갑거나 단조로워집니다. 마찬가지로, 허영에 사로잡힌 자 역시 본질적으로 가장 빈약하고 빛이 가장 적은 자였습니다.

38. 너희는 스승께 대한 완전한 헌신과, 그분에 대한 믿음과 사랑, 겸손의 황홀경 속에서, 세상에 대한 집착과 육신의 껍질을 벗어던지고, 빛을 필요로 하는 형제자매들을 향한 마음으로 ‘유익이 되고자’ 하는 이상을 품은 그 목소리의 전달자들을 통해, 나의 가장 완전하고도 완벽한 계시를 받아왔다. 얼마나 적은 이들이 스스로를 준비하고 나를 것처럼 맞이할 줄 알았는가!

39. 영감을 받은 그 대변자 안에서 변모를 발견하지 못했느냐? 가르침의 설교가 절정에 달했을 때, 그 입술을 통해 신성한 빛이 비치는 영적 감동을 느끼지 못했느냐? 바로 그 시간들이 제3의 성서의 가장 영광스러운 구절들이 기록되었던 순간들이다.

40. 시험의 시기에 너희 영혼을 하나로 모은 너희에게 축복이 있기를. 첫 번째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너희 모두는 잠들지도 않고 유혹에 빠지지도 않도록 시련을 겪어 왔다.

41.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줄 시간이 이미 다가오고 있으니, 너희는 그날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 그때 나는 너희에게 첫 수확을 요구할 것이며, 동시에 너희가 계속해서 나의 밭을 가꿀 수 있도록 씨앗과 가르침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42. 어떤 이들은 시련의 의미를 이해하고 내 뜻을 찬양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이에 반발한다.

43. 내가 오래전에 이미 회오리바람이 휘몰아치고 너희 백성 가운데 혼란이 휩쓸게 될 이 날들을 너희에게 예고했음을 기억하라.

44. 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깨어 있던” 이들은 극소수였으니, 그들은 내 비유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았다. 대다수는 내 예언을 잊고 방심하다가, 그로 인해 당황함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45. 이것이 바로 내가 예고했던 폭풍우이며, 세레 요한이 예언했던 것과 같다. 엘리야가 욱신을 입고 온 그 요한은 모든 나쁜 나무를 뽑아 버리고, 좋은 나무에서 시든 잎이나 열매 맺지 못한 열매를 떼어 내기 위해 올 것이라고 했다.

46. “이 혼란이 지나갈까요?”라고 너희는 두려움에 차서 내게 묻고, 나는 말한다. “그렇다.” 그러나 그 전에 너희는 많은 고난을 겪고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이다.

47. 진정으로 빛의 승리와 연합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나는, 기도와 내 말씀의 연구,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바를 실천하는 데 머물러야 하며, 너희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 너희는 진정으로 승리할 것이다.

48. 나는 영성화를 추구하고, 마음속에서 물질주의와 우상 숭배의 마지막 흔적까지 제거하는 이들, 곧 내 뜻에 순종하고 내 가르침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이들에게 승리를 주리라. 나는 그들 모두를 격려할 것이며, 그리하여 그들은 깊이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말할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일이며, 이것이 바로 영성주의이다.”

49. 나는 그들이 공부하고 명상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들 가운데서 내 존재를 드러내고, 영성화의 길에 꾸준히 머물도록 격려하기 위해 그들에게 새로운 계시를 내려 주리라.

50. 내가 계시를 내리던 기간 동안 너희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 왔는데, 그중 일부는 이 모임 장소 안에서, 다른 일부는 너희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이루어졌다. 나는 이 임무들 각각에 다른 이름을 부여했으며, 그리하여 지도자, 대변자, 은사자 등의 직함이 생겨났다.

51. 1950년 말에 나의 계시와 영적 세계의 계시가 끝날 때, 그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던 그 직함들이 너희 사이에서 사라지고, 너희가 서로 가까워져서 누구도 자신을 더 높다고 여기지 않고, 누구도 자신을 더 낮다고 느끼지 않기를 원한다.

52. 그 때에는 너희가 더 이상 그 호칭들을 꼭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가 더 이상 공식적으로 그 직분을 맡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가 덜 존중받거나 덜 사랑받지는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진리 안에 머무르는 것이며, 너희의 사랑의 행위가 동료 인간들의 감사를 받을 만해야 한다는 것이다.

53. 나는 온 백성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고 아름다운 칭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나, 비록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자격을 갖추어야 함을 명심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가르침의 목적입니다. 곧, 여러분이 지극한 완전함 그 자체이신 신성한 아버지의 합당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여러분에게 불어넣는 것입니다.

54. 이 말씀을 통해 나는 너희가 내가 제시한 길을 끈기 있게 나아가도록 격려한다.

55. 이 시험의 시간에 내가 너희를 위로하노니, 너희가 낙담하지도 말고 믿음을 잃지도 않도록 하라.

56. 너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수많은 고통과 근심, 소망과 간구를 기도를 통해 내게 맡겨라.

57. 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것이 내게 닿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뜻에 따라, 그리고 적절한 때가 되면 너희에게 주리라.

58. 내가 꽃들에 이슬을 내려주는데, 어찌 너희 영혼에 나의 빛을 보내지 않겠느냐?

59. 여기, 나는 본질로서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계시한다.

60. 이 시기에 나는 너희에게 영성화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나에게 약속했던 그 거짓 사랑을 대체할 것이다.

61. 나는 너희에게 기회를 주노니, 내가 너희를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기회를 주고 있다. 이는 나의 본보기가 너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자비를 베풀기 위해 반드시 돈을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가장 가난하다고 여기는 자조차도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고갈되지 않는 풍요로운 재물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62. 너희가 사랑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 광활한 밭은 “영적 농지”라는 이름을 얻었으니, 나는 너희 모두가 그곳에서 일하도록 초대한다. 그리하여 너희가 선을 행하며 너희의 은사를 펼칠 때, 그 은사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63. 나는 너희에게 영감, 치유의 향유, 직관, 영혼의 힘, 그리고 평화를 선물로 주었다. 그러나 나는 청중들 사이에서도 각기 다른 사명을 분배하였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이성으로 나의 빛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통해 그것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 또 다른 이들은 이성적 능력을 통해 영적 세계를 받아들이는 은사를 받았다. 또 다른 이들에게는 예지력, 즉 영적인 시력을 통해 저 세상과 미래에 대한 일부를 엿볼 수 있는 은사가 주어졌다.

64. 어떤 이들은 분별의 은사를, 또 다른 이들은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

65.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나의 계시가 시작된 이래, 나는 너희가 너희의 은사를 활용하고 영적 사명을 시작하기를 원했다. 그래야 내가 떠나는 날이 왔을 때, 너희가 이미 그 여정의 일부를 걸어왔기에, 그토록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너무 약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66. 어떤 이들은 신의 뜻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 일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이들도 있는데, 이들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67. 이것이 바로 내가 이 백성에게 책망하는 오류들이다. 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르침을 받아 온 이들을 조롱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68. 너희가 예배 의식 중에 저질렀고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모든 잘못을 하나하나 열거함으로써, 내가 왜 스스로를 물질화해야 하겠느냐? 너희의 양심과 영적 세계의 조연만으로도 너희에게 교정과 가르침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6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사역을 가장 이타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이야말로 감각을 현혹하는 예배 행위를 가장 빨리 버리고, 자신의 오류를 가장 쉽게 바로잡을 자들이 될 것이다.

그들은 항상 영적 성장을 갈망해 왔기 때문이며, 익숙한 관행을 없애는 것이 그들에게는 희생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송배의 형태와 관습, 의식을 통해 내 사역 안에서 자신의 위상을 세우거나 생계를 꾸리거나 허영심을 만족시키려 했던 자는, 자신에게 있어 ‘영적 사역’인 척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을 버리기 위해 스스로와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 사역 안에서는 오직 순수하고, 고상하며, 완전한 것만을 허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순함, 물질화, 거짓을 내포한 모든 것은 인간의 작품일 뿐이다.

70. 너희는 언제 이 작품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게 될 것인가? 이 작품이 나의 것이며 너희에게 맡겨진 것이기에, 너희는 그 어떤 자신의 것도 덧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언제 깨닫게 될 것인가?

71. 오, 사랑하는 백성아! 나는 너희를 진흙탕에서 빛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고 싶어 하는 이들이 많다. 이들은 이미 저 멀리서 어렴풋이 드러나고 있는 시련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72. 아버지이자 스승으로서 나는 너희 가운데서 나의 사명을 다했다. 백성들은 기도하고, 명상하며, 신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가르침 268

1.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정한 날에 더 이상 내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된다면, 너희의 능력이 너무 늦게 깨어나서 너희의 사명을 다하는 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더 이상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그날부터, 너희에게는 새로운 전개가 시작되어, 그로 인해 너희는 영과 영 사이의 교감을 얻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2. 너희의 감수성은 날마다 더 높아져야 한다. 그래야만 영감 속에서 나의 임재를 느끼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남길 공허함을 곧 채울 수 있을 것이다.

3. 만일 여러분 중 누군가가 내가 말한 이러한 약점에 빠지게 된다면, 이 가르침을 기억하여 즉시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영혼 속에 간직되어 있을 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히 잃어버린 줄로만 여겼던 은사들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기쁨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4. 염려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5. 백성들아, 영혼의 자유를 가로막는 시련들을 이겨냈다면, 너희 영혼의 승화를 방해할 수 있는 불순종으로 인해 새로운 시련을 자초하지 마라.

6. 이제 너희의 증언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 나의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 신중히 준비해야 함을 명심하라.

7. 인류는 내가 너희 가운데 계셨으며, 소박한 남녀 모임 속에서 영적으로 나를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나의 메시지를 알게 될 때, 그것은 이미 나의 말씀이 나의 대변자들의 입을 통해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8. 모든 민족이 이러한 형태로 나를 듣게 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니, 모든 이가 나를 그렇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 새로운 계시의 증인이었던 이들을 통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증언을 믿는 것이, 내 말씀을 전하는 동안 황홀경에 빠진 대변자를 목격하는 것보다 그들에게는 더 쉬울 것이다.

9. 바로 이것이 이 백성이 말아야 할 사명이다. 즉, 그들이 영적으로 스승으로부터 받은 가르침과 교훈, 지침에 대해 진실함과 영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10. 오직 이성의 훈련에만 전념한 나머지, 내 교훈을 잊어버린 민족들이 있다. 그들은 과학을 숭배하는 민족들이다. 반면, 물질주의적 가르침으로 인해 영을 세상의 노예로 만든 다른 민족들은 세속적인 권력을 꿈꾸는 자들이다. 또한 종교적이긴 하지만, 내가 이 시대에 너희에게 가르치는 영성화의 기초가 되는 기독교적 씨앗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민족들도 있다.

11. 이 모든 민족들은 주님께서 그분의 일꾼들에게 맡기신 넓은 밭과 같다. 그러나 나의 새로운 메시지가 세상에 전해지기 전에,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는 준비의 시기를 겪게 될 것이다. 어떤 민족에게는 전쟁이 닥칠 것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세계관의 충돌이 닥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빛과 진리, 평화를 갈망하게 될 때, 바로 그때가 나의 씨 뿌리는 자들이 와서 사랑과 자비로 그들에게 맡겨진 신성한 씨앗을 뿌릴 적기일 것이다.

12. 또한 어떤 민족들은 제2시대에 제가 오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제 말씀과 행적이 무엇을 드러냈는지를 먼저 알아야만, 제3시대의 계시로서 제 새로운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13. 인류는 빛이 오기 전, 즉 신앙과 숭배의 영성화와 진정한 자유가 도래하기 전까지 투쟁과 혼란, 정화의 시기를 겪게 될 것이다.

14. 이스라엘아, 너희는 지금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신 것을 기념하고 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너희는 마음속에 나의 모범을 간직해 왔으며, 이것이 오늘날 빛의 시대에 사는 너희로 하여금 그 가르침의 무한한 의미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15. 땅에는 내 삶의 여정에 대한 그 어떤 흔적도 남아 있지 않으니, 이는 내가 그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내 흔적이 내 자녀들의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했으며, 그

사랑과 빛, 그리고 희생의 길이 모든 사람의 가장 순수한 마음속에서 빛나기를 원했다.

16. 피는 이 세상에서 나의 사역을 확증하여 그 기억이 지워지지 않게 하였으며, 이제 너희는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계셨던 지 약 2,000년이 지났으나, 너희는 마치 어제 일인 양 나의 수난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니, “단 한 알의 씨앗도 헛되지 않으니, 조만간 싹을 틔워야 하기 때문”이라는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7. 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섰을 때, 군중들은 환호하며 나를 맞이했다. 마을과 골목길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스승이 성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기적과 권능의 증거를 경험한 이들이었습니다. — 이제 볼 수 있게 된 맹인들, 이제 ‘호산나’를 노래할 수 있게 된 병어리들, 침상에서 일어나 유월절에 스승을 뵈기 위해 서둘러 달려온 절름발이들이었습니다.

18. 나는 이 승리가 덧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으며, 제자들에게는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예언해 두었다. 이는 내 투쟁의 시작에 불과했으며, 오늘날 그 사건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점에서, 나는 너희에게 내 진리의 빛이 여전히 무지와 죄, 그리고 기만의 어둠과 싸우고 있음을 말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최종적인 승리는 아직 오지 않았음을 덧붙여야 한다.

19.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던 일이 내 대의의 승리를 의미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회심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사람은 많았는데 말이다.

20. 설령 그 사람들이 모두 내 말씀에 회심했다 하더라도, 그 뒤를 이어 수많은 세대가 더 이어지지 않았겠느냐?

21. 그 환희의 순간, 그 짧고도 승리의 입성은 오직 빛과 선, 진리, 사랑, 정의의 승리—반드시 올 것이며 여러분 모두가 초대받은 그 날—을 상징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내 자녀 중 단 한 명이라도 새 예루살렘 밖에 남아 있다면, 어떤 축제도 열리지 않을 것임을 알아두십시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의 권능이 마지막 자녀 한 명까지 구원하지 못했다면, 승리를 말할 수도 없고 승리를 축하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22. 지금, 이 시기에, 내 임재를 느끼고 내 말씀을 들은 너희는, 마치 나를 맞이하는 도시인 것처럼 내가 너희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너희 영혼을 준비하고 단장하고 있다. 나는 너희의 준비를 축복하며, 너희가 영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너희의

기도를 마치 이미 진리의 승리를 실제로 기념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23. 이것은 새로운 투쟁의 시대의 시작일 뿐이며, 너희 영혼의 구원, 해방, 그리고 고양을 위한 최종적인 승리의 시작일 뿐이다.

24. 너희 모두 하나가 되어, 기쁨과 승리에 대한 희망, 그리고 너희 사이의 조화를 표현하는 찬송가를 부르라.

25. 백성아, 너희는 이 시대에 선택받은 자들이니, 너희를 통해 내 말씀이 은혜의 이슬처럼 인류 위에 내리도록 하라. 일어나서 발전을 추구하라. 그래야 너희의 사명과 투쟁이 끝났을 때, 내 면전에 나아가 스승과 함께 그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을 것이며, 그 메아리는 영원히 울려 퍼질 것이다.

26. 오직 인간만이 땅 위에서 나를 구현하리니, 이는 그가 내 영의 형상과 비유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내 율법을 따르며 끊임없이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길을 통해 너희 영혼은 온전해질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누가 너희의 결심을 흔들 수 있겠느냐?

27. 나는 너희가 너희 내면을 알게 하려고 너희의 겸손과 사랑, 온유함을 시험하였다. 나는 너희를 알고 있으나,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깨닫는 것이 필요하며, 오직 시련만이 너희가 스스로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28. 너희는 종종 나에게 묻는다. “이 삶은 무엇을 위한 것이며, 왜 우리는 이토록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이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영혼은 자신의 공덕을 통해 가장 깊은 삶의 단계에서부터 완전함의 정점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상승해야 한다.

모든 존재는 발전의 법칙에 따릅니다. 또한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에 너희 영혼은 속죄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내 심판이 우주에서 저질러진 모든 잘못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는 너희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거주하는 모든 생명 세계에서조차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울지 말고, 오히려 나에게 감사하라. 영혼이 정화될 이 시기가 지나면, 너희는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며, 그때는 너희가 올바른 길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법칙을 이행하기에 더 나은 조건이 마련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시련 속에서 낙담하지 않도록 십자가를 지는 자로서 너희와 함께 있다.

29. 너희는 지금 나의 수난을 기념하며, 그 희생의 죽음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낀다. 매 순간 너희는 이를 깊이 생각하며,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이 세상의 고난을 초월하기 위해 결심을 다지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깨어 있으라. 너희는 아직 연약하기 때문이다. 제2의 시대에는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충실하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무리가 나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나의 행적을 비난하고 심판을 내리며, 나를 따르는 자들이 박해를 받게 되자, 내가 내 사랑으로 넘치게 채워 주었던 바로 그 영혼들이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30. 오늘 너희는 나를 사랑하며 내 말씀을 믿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 중 많은 이들이 큰 시련에 직면하면 나를 떠날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의 소명은 최고의 행복인 영적 고양에 도달할 때까지 싸우는 것이다.

31.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 너희의 마음을 두드리노라. 내가 너희가 끊임없는 적대감에 얽매어 있는 것을 볼 때, 과연 내 평화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므로 나는 어둠과 악에 맞서 싸우기 위해 위대한 전사로 왔으며, 나와 함께 선의 영들, 즉 영적 세계도 내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왔노라. 이 싸움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나의 모든 자녀들이 구원받을 때까지이다. 그러나 나는 고통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너희를 변화시키고자 할 뿐이다.

32. 과거의 내 말씀을 연구해 온 자들이, 내가 사람들에게 돌아온 이 시기의 내 계시를 목격할 때, 그들은 이 가르침의 증인이 될 수 있게 해 준 나에게 감사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이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영광 중에 나타나신 것을 보았듯이, 1950년 말에 다시 내가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스승과 하나가 되기 위해 매일 그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33. 훗날 너희는 세상에 맞서야 할 것이며, 그때 종파와 교회의 성직자들과 목사들이 일어나 너희를 대적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들 중에는 오직 진리만을 찾는 이들도 있을 것이며, 그들이 나의 말씀을 알게 되면 그들의 믿음이 불타오르고 나를 믿게 될 것이다.

34. 너희가 나를 알게 되면,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스승으로서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심판자로서 얼마나 관대하고 공의로우신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35.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는 신성한 스승의 제자들이므로 세상은 너희에게 완전한 행실을 요구한다. 이 스승이 나쁜 평가를 받지 않도록 내 지시를 따르라.

36. 내가 나타나실 순간이 가까워지면, 너희의 심장은 더 빨리 뛰게 될 것이다. 어떤 이에게는 기쁨 때문이고, 어떤 이에게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모두는 나의 신성한 임재를 느끼게 될 것이다.

37. 나는 오직 너희를 안전으로 인도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깨우며, 너희가 여정 내내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를 건네주기 위해 온다.

38. 십자가 위에서 죽음과 씨름하며, 사형 집행인들의 학대와 고문을 당하면서도, 무한한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아버지,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39. 나는 인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었기에, 그 신성한 용서 안에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을 포함시켰다. 나는 진실과 영 안에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에 나의 새로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도 그 축복받은 시간에 내가 이미 보았음을.

40. 오늘 나는 너희를 영적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왔다. 왜냐하면 인류는 이미 오랫동안 종교적 광신, 우상 숭배, 그릇된 예배 형식, 그리고 물질주의라는 침대 위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인류는 그것들로 서로에 대한 사랑, 자비, 용서, 그리고 이 유일한 법칙에서 비롯되는 모든 것을 대체하려 했기 때문이다.

41. 이 말씀의 의미에는 세상이 새롭게 되고, 참된 길로 돌아가며, 나를 향한 사랑으로 고양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만일 이 백성이 내가 제3의 시대에 그들에게 전해 준 교훈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내 말씀 안에서 강해지지 않고, 내 자비의 신성한 방주에 피난처를 찾지 않는다면, 큰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42. 너희는 내가 너희가 운명의 시련을 겪고, 이 땅에서 쓸개와 식초를 마시는 것을 보는 것을 기뻐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 백성아. 나는 너희가 범죄자나 추방자처럼 대우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며, 오히려 모든 면에서 존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우받기를 원한다.

43. 나는 너희가 내 말씀의 영광과 그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용서에 익숙해져 있는 것을 보노라. 그러나 너희는 시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이를 이겨내기 위해 준비하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자 하지 않는다.

44. 너희는 겸손하다고 주장하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배은망덕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인다. 이것이 과연 너희가 내 진리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전파하고자 하는 본보기인가?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고 너희의 행동을 되돌아보아, 내 말씀을 가혹하게 판단하지 않도록 하라.

45. 오, 사랑하는 백성들아, 지금이 공덕을 쌓기에 좋은 때이다. 내 행적 속에서 너희는 너희의 행실을 바로잡고, 너희 스승이 모든 가르침에서 발산하는 빛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가다듬을 수 있는 필요한 본보기를 찾을 수 있다.

46. 내게 말하라. 너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너희를 외면했느냐? 어떤 걸림돌에 막혀 멈춰 섰을 때, 내가 너희를 뒤로 남겨두거나 버렸느냐? 고통에 굴복하여 넘어졌을 때, 내가 너희에게 엄한 모습을 보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토록 큰 사랑으로 제자라고 부르는 이들이 불행에 빠진 이웃을 외면하고, 바른 길에서 벗어난 이를 사랑으로 끌어안아 개선하도록 돕기는커녕 거부하며, 때로는 자신들이 판단할 권한이 없는 일에 간섭하며 심판자가 되기도 하는 것을 나는 봅니다. 이것이 나의 가르침에 부합합니까? 아니오, 너희 양심이 내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너희가 스스로를 가장 면밀히 성찰하여, 너희 감정을 병들게 하는 수많은 거친 부분들을 다듬어 내고, 비로소 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47. 너희의 마음이 정욕과 결점, 그리고 인간의 비참함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내 가르침을 전하려 하느냐? 내가 이미 여러 번 말했듯이, 눈먼 자가 다른 눈먼 자를 이끌면 둘 다 비틀거리거나 심연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48. 이것이 바로 여섯 번째 봉인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이다. 하나님의 책인 이 책의 두 번째 마지막 장이 열려, 지혜로 모든 영혼과 모든 이성적 능력에 쏟아져 내리고 있다.

49. 이 빛은, 세상을 정화하고 갱신하는 큰 시련이 지난 후, 제3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결속을 이루게 될 새로운 새벽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에게 내 메시지를 전할 때 상세히 설명해야만 했다. 나는 그들이 싸움에서 강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심판하고 책임을 물었다. 나는 세상이 그들의 불완전함을 바로잡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을 배우러 보내지 않고 가르치러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50. 백성아, 내 빛이 메신저의 입술을 통해 말씀이 되기 전, 잠시나마 두려워했느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 나는 네 예감을 축복하노라.

51. 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아 — 너희는 너희 영 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주신 율법을 간직하고, 그 영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제 성령의 계시를 받고 있는 백성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며, 어떤 이유로도 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52. 너희가 빛으로 너희 이성애에 쏟아져 내리는 것을 느끼는 이 영은 아버지이시니, 곧 너희에게 “나는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율법을 계시해 주신 분이시다. 너희의 이성을 영감으로 채우고 너희 입술에 지혜의 말씀을 엮어 주시는 이 영은, 땅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시고 너희에게 사랑의 가르침을 유산으로 남기신 그 스승의 영이시다.

53. 오늘 나는 사람들의 영을 통해 나를 드러내기 위해 그들에게 오고 있다. 나는 이성을 비추는 빛 속에서, 오직 마음만이 느낄 수 있는 광채 속에서, 영혼의 양식이 되는 본질 속에서 온다.

54. 지금은 각성의 시기이자 영적 풍요의 시기이며, 이 시기에 너희는 모두 전사가 되고, 모두 ‘일꾼’이 되며, 모두 제자가 될 것이다.

55. 지난 시절, 너희는 내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는 것에 만족하며 기뻐하기만 했다. 너희는 마음을 더 사랑스럽게 만들고 평화를 되찾기 위해 나를 찾았으나, 모든 영혼이 전해야 할 메시지와 궁핍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풍성한 선물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았다.

56. 이 시대의 내 말씀은 너희를 이기적이고 은둔적이며 결실 없는 삶의 은폐된 곳에서 이끌어내어, 빛의 길을 열어주고 씨를 뿌릴 밭을 제공하고자 한다. 나는 너희가 겉보기에는 교양이 없고, 무지하며, 초라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너희의 긴 발전 여정이 선사한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음을 알고 있다.

57. 내 백성이 사도로서 내가 그들에게 계시해 준 지식을 전파하러 나설 때, 빛의 후광이 그들을 감싸야 할 것이다. 그때쯤이면 너희는 이미 내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을 것이며, 나를 드러낼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며 오랫동안 너희 존재 속에 숨겨져 있던 너희의 은사에 대해 온전히 깨닫게 될 것이다.

58. 너희는 얼마나 많은 가르침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수많은 방식, 그리고 영적 삶과 인간적 삶에 대한 얼마나 많은 새로운 관념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것들을 깊이 파고들어 판단할 줄 안다면, 각각은 너희에게 선하고 올바른 부분과, 정의와

사랑, 그리고 완전함인 진리에서 멀리 떨어진 그릇된 부분을 보여 줄 것이다.

59. 너희가 오류나 무지, 혹은 악을 발견하는 곳에서는, 내 가르침의 본질을 전파하라. 그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불순물이나 오류와 섞여서는 안 된다.

60. 나의 가르침은 절대적이며, 포괄적이고 완전하다.

61. 나의 진리에 대해 완전한 확신을 가진 자는, 다른 곳에서 보는 낯선 예식을 결코 나의 사역에 섞지 않을 것이니, 그는 나의 가르침이 다른 가르침들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선하고 참된 것을 이미 포함하고 있음을 깨닫기 때문이다.

62. 내 모든 가르침은 아무리 단순하더라도, 너희 영혼을 위한 지식의 한 페이지들이다. 너희 영혼은 머지않아 내 말씀을 모아 인류에게 생명의 씨앗으로 전할 것이다.

63. 너희는 아직 모든 이에게 들릴 수 있도록 동료 인간들에게 어떻게 외쳐야 할지 모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조급해하지 말라. 내가 너희가 강하다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해 길을 닦아 주고 수단을 주리라.

64. 기도할 때 마리아를 중재자이자 중보자로 찾는 너희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영적으로 그녀는 너희의 어머니이시니, 내가 십자가 아래에 남겨 두어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하게 하고, 너희가 그녀를 사랑하며 그녀의 품에서 위로를 얻게 하려 한 바로 그분이시다.

65. 마리아는 신의 품에서 나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 여성이자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66. 오직 너희와 같은 순수한 꽃에서만 인류에게 구원을 줄 열매가 나올 수 있었으니, 바로 태초의 족장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열매로서, 그들이 “메시아”라는 이름을 붙인 바로 그 열매입니다.

67. 마리아의 영적 영혼이 지상에서 사랑과 온유, 그리고 희생의 사명을 완수하자, 그녀는 자신이 왔던 완전함의 품으로 돌아갔다. 마리아는 다른 영혼들처럼 발전의 과정을 거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신성한 표현 형태이며, 하느님의 온유 그 자체이다.

68. 이 가르침은 이 계시의 진리를 보지 못했던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 줍니다.

69. 영성주의는 사고와 마음에 무한히 넓은 발전의 장을 열어 주어, 여러분이 지혜의 길 위에서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70. 내 말씀을 들으며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너희 백성은, 그동안 오직 신비와 수수께끼로만 감춰져 있던 것들을 이미 명확하게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71. 이 시기에 너희는 더 이상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생각도 하지 않고 탐구하지도 않는 그런 믿음 말이다. 너희의 영혼은 성장하여 알고자 하고, 파헤치고자 하기에, 나는 너희에게 진리의 영으로서 나의 빛을 보내어 모든 비밀을 밝히고, 내가 예수를 통해 너희에게 약속했던 대로 설명해 줄 때가 무르익었음을 보았다.

72. 내일, 너희가 내 가르침의 핵심을 이해하고, 이를 요청하는 이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명을 해 줄 수 있게 되면, 너희는 내 이름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이 세상이, 세속적 영광의 허영과 과학의 승리에 눈이 멀어 있다가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진리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깨닫고 다시 나를 향해 눈을 돌리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73. 그러나 지적으로 발전하고 깨어난 이 새로운 인류는 계시에 대한 설명과, 비밀에 대한 해명, 그리고 비유적인 의미로 받아들인 것들에 대한 해석을 요구할 것이며, 나는 이 소박한 백성이 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고, 내가 그들에게 계시한 바를 겸손하게 가르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 백성이 옛 경전들도 올바르게 해석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그들이 과거를 설명할 줄 안다면, 현재를 그토록 소박하게 풀어낼 줄 알게 되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74. 모세 종교, 기독교, 영성주의 — 이 세 가지는 단 하나의 가르침, 즉 ‘사랑’에 대한 세 가지 서로 다른 교훈이다.

75. 이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 나설 자들의 수는 적다. 그러나 제2시대에 내 제자들의 수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류가 예수의 말씀을 알게 하는 데 성공했으니, 그들이 충분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76. 오, 나의 새로운 제자들아, 나의 가르침으로 너희 영혼을 굳건히 하고, 내일 열방으로 파송될 자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라. 너희의 그 소망은 사랑과 믿음, 그리고 선의의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가르침 269

1. 여호와와 율법과 예수의 가르침을 영혼 깊이 새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한 사람을 통해 너희에게 전하는 내 말씀을 받아들여라. 눈을 뜨고 이 시대의 사건들을 바라보아, 내가 다시 한 번 너희에게 나를 알리기 위해 왔음을 알라. 내 말씀을 듣고 깊이 연구하여 그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이라. 그리하여 이전의 두 성서와 함께, 네가 영원히 연구할 수 있는 하나의 책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2. 나는 너희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시련을 통해 다가올 시대를 대비하여 너희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떠난 후, 너희는 내 자리를 이어받아 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이 아침 묵상에서 나의 수난을 떠올렸고, 그 스승의 행적을 기억하며 깊이 성찰했으나, 그 거룩한 사건들을 형상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시절을 다시 체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바로 그 당시 제 삶의 여정을 뜻밖의 일로 여기며, 처음부터 끝까지 경이로움으로 지켜보았던 바로 그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제 겸손함에 놀라셨고, 자기 집조차 없었던 가난한 가정에서 제가 태어나신 것을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직 신성한 율법을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가르쳤을 뿐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가 제 말씀과 행적의 의미를, 저를 기억하며 제 모범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치 펼쳐진 책처럼 자리 잡았던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상으로 돌아왔고, 나는 다시 한 번 여러분 곁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람들을 통해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의심했다. 너희는 왜 내가 이 방법을 선택했는지, 왜 내 사역이 어떤 교회와도 거리가 먼 이런 형태로 펼쳐졌는지 비난하는 투로 물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대다수가 이 나라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품으로 내려왔다.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보내신 대로 모든 나라에 흩어져 있으며, 그들에게 나는 영적으로 나를 드러내었다. 이들은 나에게 충실하게 남아 있는 나의 선택받은 자들이다. 그들의 마음은 타락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영은 나의 영감을 받아들일 수 있다. 나는 현재 그들을 통해 세상에 지혜의 큰 보물을 주고 있다.

3. 나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부르고 있다. 나의 빛은 영 안에서 드러나며, 영이 깨어나 모든 영혼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을 준다. 나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 인류가 물질주의에

너무 깊이 빠져들게 두지 않을 것이다. 시련이 그들을 멈추게 할 것이며, 내 말씀이 그들에게 닿을 때 사람들의 은사가 깨어나고, 그들의 마음이 감수성을 되찾으며, 그들의 길이 정해질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나를 부르기를 알게 되고, 내게서 치유의 연고를 구하며, 나의 제자로 거듭날 것이다.

4. 나는 너희 주변에 너희를 감싸줄 영적 안녕의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며, 모든 것이 너희의 영적 고양에 유리하게 될 것이다. 불신자들에게 인내심을 가지라. 그러면 너희는 시간이 지나면 나의 계시가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나의 말씀이 소중히 여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5. 내가 너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너희가 형제애와 화합을 이루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6. 새로운 제자들아, 이 진리에 대해 말할 때 지치지 말고 힘내라. 두려움 때문에 내 말씀을 입에 올리지 못하는 서툰 입술들아, 결심을 하는 그 순간 마음을 열어라. 내 이름으로 말한 단 한 마디의 말도 죄인을 구원할 수 있으며, 악에 빠져 반항하게 된 자들의 길을 가로막는 심연을 메울 수 있다. 너희는 내 말씀이 가진 능력을 알고 있는가?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진 권한의 힘을 알고 있는가? 모범적인 행동으로 말하며, 내가 *너희에게* 맡긴 내 사역의 그 부분을 충실히 수행하라. 나머지는 내가 하리라.

7. 나는 너희 안에서 제2시대의 제자들을 본다. 너희 중에는 요한, 베드로, 도마, 그리고 유다를 상징하는 이들이 있다. 비록 그들은 학식이 없었지만, 나를 본보기로 삼아 감탄할 만한 가르침을 전하고 기적을 행했다.

8.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믿기 위해 나에게 '보는 능력'을 구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는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았고, 내 말씀의 열매가 주는 달콤함을 맛보며 그 열매로 양식을 얻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귀한 은사를 사명으로 받아들인 후, 나를 증거하는 법을 아는 자들에게도 내가 축복을 내리리라.

9. 나는 너희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리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가장 작은 것조차도 내가 배가시키리니, 이것이 바로 나의 뜻이니라.

10. 하늘에서 봉인되었던 책이 여섯 번째 장에서 열렸다. 그것은 지혜와 심판을 담고 있는 일곱 봉인의 책으로,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으로 인해 봉인이 풀려 그 깊은 가르침을 너희에게 드러내게 되었다.

11. 인간은 성령의 신성한 숨결에 힘입어 다섯 시기를 거쳐 지상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삶의 영적 의미,

존재의 목적, 소명, 그리고 본질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그의 이성과 영혼 모두에게 헤아릴 수 없는 신비였으며, 그 내용을 해석할 수 없는 봉인된 책과 같았습니다. 그는 영적인 삶을 막연하게 짐작했을 뿐, 존재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발전의 사다리를 진정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상에서 자신이 맡은 지극히 고귀한 사명도, 투쟁에서 승리하고 인간의 궁핍을 초월하며 영적으로 완성되어 영원한 빛 속에 거하기 위해 자신의 영에 속한 미덕과 은사들도 알지 못했다.

12. 신성한 책이 열리고, 사람들이 그 내용을 들여다보아야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근원인 무지의 어둠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었다. 누가 이 책을 펼 수 있었겠는가? 신학자, 과학자, 혹은 철학자였을까? 아니, 그 누구도, 심지어 의로운 영혼들조차도 그 내용을 너희에게 드러낼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책이 간직하고 있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이다.

13. 오직 그리스도, “말씀”, 그분 홀로, 신성한 사랑만이 이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사람들이 나의 영적 현존의 광채에 눈이 부시지 않고 신성한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인류는 ‘하나님의 지혜의 책’이 인류를 위해 간직하고 있던 비밀들을 알 수 있게 해 줄 적절한 성숙에 도달하기 위해, 시련과 가르침, 경험과 발전의 다섯 단계를 거쳐야만 했다.

14. 하나님의 율법,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신성한 말씀, 그리고 예언자들과 사자들, 사절들이 전한 모든 메시지는, 모든 사람에게 빛과 구원과 정의를 항상 선포해 온 신성한 약속에 대한 인류의 믿음을 지탱해 준 씨앗이었습니다.

15. 이제 여러분이 내가 여러 시대를 걸쳐 여러분에게 계시해 온 모든 것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될 ‘위대한 계시’가 이루어질 때가 왔습니다.

16. 이제 너희가 이론 영적 발전과 겪어 온 시련, 그리고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내 보물창고에 너희가 준비될 때까지 간직되어 있던 지혜의 빛을 내 영으로부터 너희 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왔다. 그리고 인류가 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필요한 발전 단계에 도달했으므로, 나는 그들에게 나의 빛의 첫 번째 광선을 보냈으니, 바로 이것이 그것이며, 이는 나의 말씀을 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교육받지 못하고 소박한 사람들을 황홀경에 빠지게 하여 말하게 한 것입니다.

17. 이 빛의 광선은 단지 준비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새로운 날을 알리는 새벽빛과 같다. 훗날 내 빛은 온전히 너희에게 닿아 너희의 존재를 비추고, 무지와 죄, 비참함의 마지막 그림자마저 없애 줄 것이다.

18. 너희가 무한한 경이로움으로 그 여명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대는, 인류의 영적 삶에서 막 시작되는 여섯 번째 시대, 즉 빛과 계시, 오래된 예언과 잊혀진 약속이 성취되는 시대이다. 이것은 여섯 번째 인으로, 풀릴 때 정의와 깨달음, 계시로 가득 찬 메시지를 통해 그 안에 담긴 지혜를 너희 영혼에 쏟아 붓는다.

19. 너희에게 있어 이는 여섯 번째 시대이며, “제3의 시대”이다. 이 시대에는 내가 “제1의 시대” 때보다 더 가까워서 너희에게 말했고, “제1의 시대”에는 나의 현존과 말씀을 “다양한 형태로” 감지할 수 있게 했으며, “제2의 시대”에는 너희의 마음에 말하기 위해 “나의 말씀”을 사람으로 만들었던 때보다도 더 가까워서 말하였다.

20. 오늘 나는 다시 내 목소리를 들려준다. 그러나 내가 나를 드러내는 대상은 더 이상 오감이 아니며, 내가 말하는 대상도 너희의 마음이 아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는 대상은 너희의 영적 영혼이며, 빛의 왕국, 즉 영원하고 행복한 영의 왕국으로 이끄는 승천의 길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21. 너희의 이름과 운명이 기록된 하나님의 책의 여섯 번째 봉인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 안에는 가르침과 지극히 큰 시련, 그리고 지혜의 계시가 담겨 있다.

22. 이 시기에 나의 종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명상하고, 새롭게 되며, 화합과 평화와 영적 빛을 뿌리고, 너희의 잠재력과 능력을 꽃피우며, 너희의 승화를 위해 투쟁하는 것; 무지와 악덕, 광신을 근절하는 것 — 한마디로 말해, 사람들 사이에서 수많은 형태로 드러나는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고, 배신하는 것을 그만두고, 용서와 자비가 마음에서 마음으로, 민족에서 민족으로 퍼져 나가며, 더 이상 피와 눈물이 흐르지 않게 되면, 그때 비로소 영과 영의 대화를 의미하는 위대한 고요가 찾아올 것이다. 그때 나는 마지막 봉인, 즉 일곱 번째 봉인을 풀 것이며,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너희에게 가르쳤던 대로 서로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23. 이것이 바로 —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그래 왔듯이 — 간결하고 쉬운 말로, 여러분이 『지혜와 신성한 정의의 책』에

나오는 일곱 번째 봉인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내용 중 일부입니다.

24. 너희는 이를 들었으니 이제 이해해야 한다. 훗날 너희는 예언하고, 계시하며, 가르쳐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25. 신성한 나무는 그 가지를 주와 도시 위로 뻗어, 지친 여행자들에게 그늘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이제 영으로 오기 때문에, 이 시대에 내가 여러분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내 말씀을 듣게 한 것은 필연적인 일이었습니다.

26. 너희가 지금 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지역은, 너희가 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만 했다. 시련과 고통, 그리고 괴로움이 너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현실을 직시하게 했다. 그 고통이 너희 마음의 메마른 흙을 갈아엎었고, 눈물이 그 흙에 물을 주었다. 그리하여 너희는 나의 말씀인 씨앗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27.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왜 부르셨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너희가 내 밭의 일꾼이 되어 이 씨앗을 온 세상에 퍼뜨리기를 원한다.

28. 사랑하는 “일꾼”들아, 깨어나라! 보라! 해가 지평선 위로 떠올랐으니, 너희에게 일하라고 촉구한다.

29. 내가 바로 그 해이며, 이 시기에 내가 오신 것은 너희에게 새로운 새벽이 되었다.

30. 누구도 내 영지에서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의심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를 부르셨으니, 내가 실수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31.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일 중에는 너희의 힘을 넘어서는 일은 없다. 그러나 너희의 수가 많고 단합이 클수록, 너희가 깊어져야 할 십자가는 더 가벼워질 것임을 말해 둔다.

32. 너희 영혼이 이 행성으로 보내지기 전에, 그 영혼에게는 “밭”이 보여졌고, 평화를 심는 것이 그 임무이며, 그 메시지가 영적인 것임을 들었으며, 너희 영혼은 이를 기뻐하며 그 사명에 충실하고 순종하겠다고 약속했다.

33. 왜 지금 씨를 뿌리는 것을 두려워하느냐? 왜 너희 영혼이 그 임무를 맡았을 때 그토록 기뻐했던 일을 지금 와서 감당할 자격이 없거나 능력이 없다고 느끼느냐? 너희가 정욕이 너희의 길을 가로막게 내버려 두어 영혼이 지나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며, 동시에 유치한 변명으로 그 우유부단함을 정당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34. 너희가 왔던 그 ‘계곡’으로 빈손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때 너희의 고통이 매우 클 것임을 나는 알고 있다.

35. 첫 번째 확실한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후 온 믿음과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그러한 준비를 통해 점차 내면의 힘이 생겨나, 육신과 끊임없는 싸움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은 육체에 맞서 양심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육체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할 것이다.

36. 이런 방식으로 영적 영혼은 인간 삶 속에서 점차 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뒤를 돌아보게 될 때, 나를 따르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방해했던 그 장애물들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37. 자녀들아, 내 가르침이 너희에게 용기를 주지 않는가? 내 말씀이 너희를 깨워 현실로 이끌지 않는가? 너희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느끼지 않는가?

38. 내 말씀에는 너희를 향한 단 한 마디의 비난이나 책망도 없었음을 명심하라. 그 말씀은 오직 빛으로 가득 찬 문장들로 너희가 이 땅에 가져온 영적 사명을 완수하도록 권면했을 뿐이며, 너희가 자유 의지를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즉 영혼이 육체의 의무에 간섭해서는 안 되며, 육체 또한 영혼이 그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희가 이해하도록 도와주었다.

39. 오직 나의 가르침만이 너희에게 영혼과 육체 사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이며, 너희 아버지의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 즉 스승이 되기 위한 길 위에서 제자들이 행해야 할 일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 줄 것이다.

40. 너희는 언제 이 내면의 투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인가?

41. 어떤 이들은 아직 싸움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싸움 한가운데 서 있으며, 또 다른 이들 — 극소수 — 는 육신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싸움을 시작했으나, 자신 안에 품고 있던 적들에게 패배하여, 이제 나의 길이 아닌 길을 걷고 있는 다른 이들도 봅니다.

42. 나는 계속해서 그들을 찾아다닐 것이며, 여전히 그들이 스스로 진리와 삶의 본질이 어디에 있고, 허상, 허울뿐인 금, 속임수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기를 원한다. 나는 그들이 누더기 차림으로, 피 흘리는 마음과 학대받은 영혼을 안고 내게로 돌아올 때, 그들이 스스로를 속였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임을 안다.

43. 너희는 언제쯤 고집스럽고 건방진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그만두겠느냐?

44. 내 식탁으로 오라. 내 말씀의 풍미를 음미하며 영혼이 빛으로 충만해지도록 하라. 너희는 내 가르침을 통해 영혼이 더 강해지고, ‘육체’가 더 유연해지고 순종적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45. 너희가 내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가르침은 온전한 의미를 잃게 된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내 율법과 가르침의 목적이 선을 행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단지 기억 속에만 간직하거나 입으로만 말할 뿐, 자신의 행위에 적용하지 않는 자는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46. 내 삶의 원칙을 가르치고 그 내용을 설명하러 떠나기 전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계시한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해야 한다. 즉, 이웃을 사랑하고, 영적인 삶을 살며, 사랑의 행실과 빛으로 너희의 길을 가꾸어야 한다. 만약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이미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영성주의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영성주의는 너희의 진정한 본성을 드러내며, 이를 통해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갖게 되고, 스스로를 깨달을 수 있다.

47. 영성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포기, 노력, 그리고 희생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더 높은 존재에 대한 갈망이 깨어났을 때, 너희 존재 안에서 사랑이 빛나기 시작했을 때, 혹은 영적인 것에 대한 열망이 싹트기 시작했을 때, 희생이나 포기 대신에 너희에게 있어 쓸모없고 해롭거나 나쁜 모든 것을 떨쳐내는 것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48. 너희가 나를 들었을 때, 너희 영혼이 깨어났다. 너희가 들은 것은 평소의 전례도,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말씀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의 가르침이 너희 영혼에 깊은 인상을 남겼기에, 너희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무엇을 계시할지 알고자 하는 갈망으로 항상 내게로 다가왔던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단지 나를 들었거나 나의 말씀을 배웠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49. 내가 예수로서 인간으로 계셨던 그 시절, 나는 항상 내 말씀에 사랑의 행실을 곁들였으며, 그 행실들은 모든 영혼 속에 깊이 새겨져, 내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이가 말씀의 빛과 행실의 진실함 속에서 나를 본보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다.

50. 이제 내 말을 잘 들어라, 백성아, 그리고 내 말씀을 합당하고 진실하게 따르도록 하라. 나는 너희가 마음속에 슬픔을 품고 있는

것을 보노니, 이는 너희가 이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내가 너희 영혼에 새겨 놓은 율법을 지키지 않을 것임을 예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늘날도 ‘초기’ 때와 마찬가지로 백성이 갈라질 것이다.

51. 나는 너희에게 많은 말씀을 하였고, 모두를 위해 단 하나의 길을 표시해 두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내 자녀들 중 일부가 내게 불순종한다면, 너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계시를 끝낼 날이 왔을 때, 이 백성에 대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나는 이 시대에 해방자로서 너희에게 왔으며, 광야를 통과하는 길, 즉 해방과 구원을 위한 영적 ‘일’을 보여주었고, 마지막에는 영혼에게 평화와 빛, 그리고 행복이 되는 새로운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약속하였다.

해방과 영성화를 갈망하며 길을 떠나 이 여정에서 나를 따르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광활한 사막이 가져다주는 시련 속에서 결코 버림받거나 약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믿음을 저버리고 영적인 것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자들, 즉 계속해서 우상과 전통에 집착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나*를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파라오’, 즉 ‘육신’, 물질주의, 우상 숭배의 노예가 될 것이다. 약속의 땅, 곧 영의 고향에 이르고자 하는 자는 이 세상을 걸어가는 동안 선한 발자취를 남겨야 한다. 이 길을 따라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나에게 희망을 두면 길을 잃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신뢰가 없다면, 너희의 믿음은 절대적이지 않은 것이며,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려는 자는 나의 진리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52. 나는 너희 모두를 축복하며, 너희를 용서하고, 나의 사랑 안에서 너희를 하나로 묶어 주노라.

53. 스스로를 성찰하여, 너희의 의식 속에서 너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확고하다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도록 하라.

54. 너희의 믿음과 행동 방식을 살펴보아, 너희가 영성주의자라고 자칭할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그 이름을 갖기 위해 아직 한동안 더 기다려야 하는지 알도록 하라.

55. 너희 중 많은 이들이 나를 영성주의자라고 칭하는데, 이는 내가 인간의 이성을 통해 계시할 때 내 존재를 믿기 때문이며, 또한 내 말씀을 듣기 위해 자주 그 자리에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선을 실천하고, 삶의 본질을 깨닫고, 이웃을 사랑하며, 너그러우면서도 결실 있고 덕이 넘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영성주의자가 되기를 원한다.

56. 내 말씀이 너희를 깨우고 고양시키게 하라. 그 말씀이 너희 영혼 속에 간직된 모든 은사, 능력, 힘, 그리고 미덕을 너희 앞에 드러내게 하라. 너희는 내 안에서 유산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함으로 인해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여기는 자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너희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영적인 빛과 은총을 부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물질적인 삶에 빠져 살고 있음을 보시고, 너희를 깨우치기 위해 오셨으며, 영성화의 길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신성한 지혜의 샘이 너희 손이 닿는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영적인 굶주림과 갈증을 겪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시작과 함께, 마치 여러분도 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영혼이 과거에 거두어 온 모든 것은 제3의 시대가 가져오는 시련과 교훈을 이겨내기 위한 경험과 단련의 빛이다.

57.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이끌어 내 교훈을 배우게 하노라. 내 강단 앞에 모인 모든 이를 환영하며, 인내하는 너희에게 축복을 내리노라. 내 말씀 앞에 너희가 함께 있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니니, 이는 내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너희의 갈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직 나만이 너희가 지닌 은사를 밝혀 주고, 너희가 이웃에게 지고 있는 책임을 실감하게 해 줄 수 있다.

지금은 심판의 때이며,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때이자, 속죄의 때이다.

58. 나의 신성한 사역은 빛이며, 이 빛이 사람들을 비추면 성령을 통해 그들을 깨우치게 한다. 어떤 이들에게는 신성한 메시지가 영감의 형태로 직접 전해질 것이며, 다른 이들에게는 나의 제자들을 통한 말씀을 통해, 또 다른 이들에게는 나의 가르침의 의미를 담은 글의 형태로 전해질 것이다.

59.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사람들은 영의 삶으로 깨어날 것이다. 그것은 그들에게 마치 새로운 존재와 같을 것이며, 마치 약속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놀라운 놀라움들로 가득 차 있고 가장 위대한 이상인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질 것이다.

60. 그렇다, 사랑하는 백성들아, 영혼들이 고양되어야 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이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함, 조화, 지혜, 행복, 빛, 무한한 평화, 사랑, 영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영혼이 시련의 도가니에서 벗어나고, 끝없는 정옥의 바다에서 '육신'과 세상과 싸워 이겨냈을 때, 그것은 잠시 멈춰 서서 일어난 모든 일을 되새기게 됩니다 — 마치 파도와 필사적으로 싸우다 마침내 육지에 도달한 난파선 생존자가, 자신의 믿음과 희망의 상징인 나무 조각에 매달린 채, 여전히 거센 바다를 바라보며 외치는 것처럼:

"배는 침몰했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하늘의 주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바로 폭풍우가 지나간 후, 한 선원처럼 잠시 멈춰 서서 사색하며 자신의 정옥을 돌아보고, 세상의 영광과 허영이 마치 침몰한 배처럼 과거 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는 영혼의 모습이다. 그러나 그 안에서 믿음의 빛이 솟아오르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는 기쁨에 차서 외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토록 큰 고통 속에서도 저는 아버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61. 이것이 바로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이며, 그 고양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가르침 270

1. 내 계시의 마지막 날을 위해 준비된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의 영혼은 나의 새로운 성찬에 참여할 것이니라. 그곳에서 너희 영혼은 이 보이지 않는, 누룩 없는 참된 빵을 마지막으로 받아들이며 힘을 얻고, 영성과 빛으로 채워질 것이며, 이를 통해 곧 이 가르침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이니라.

2. 이 마지막 시간에 얼마나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가! 이 백성 위에 얼마나 많은 빛이 비추고 있는가!

3. 천국은 너희 영혼에게 그곳에 거하라는 영원한 초대를 가지고 다가올 것이다. 위대하고 강인한 영들, 빛의 영들, 영적 왕국의 참된 현자들이 그 순간에 함께할 것이다.

4. 다른 시대에 신성한 메시지를 지상에 전했던 선구자들과 예언자들도 함께할 것입니다. 내 말씀은 육신을 입은 영혼이든 물질에서 자유로운 영혼이든 모든 영혼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5. 그 존재들은 우주에 존재하는 무한한 생명 세계의 대표자들이 될 것이며, 이 시대에 이 형태로 주어지는 나의 마지막 계시들에 참석할 것이다.

6. 그들은 이 백성들 가운데서 무엇을 보게 될까?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한다. 그래야 너희가 식탁에 앉는 자들, 곧 스승과 함께 먹고 우는 자들, 하늘의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자들에 속할 수 있을 것이다. 배반을 저지르는 한 그 식탁에 오지 마라. 그럴 경우 너희는 겉으로만 내 곁에 있었던 것이 될 뿐이다. 실은 너희 양심이 너희로 하여금 아버지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7. 내가 왜 이런 식으로 너희에게 말하는지 아느냐?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완전히 알고 있으며, 누가 나를 부인할지, 누가 내 말씀을 연구했기 때문에 내게 충실할지, 그리고 누가 내 사역의 핵심을 결코 깊이 탐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을 잃을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8. 어떤 이들은 오직 내 말씀의 의미에만 관심을 두고 항상 자신의 영혼이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갈망했던 반면, 다른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에 더 흥미를 느꼈다. 마찬가지로, 전자는 영성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때 기뻐했지만, 후자는 자신의 잘못이 지적되는 것을 불편해했다.

9. 내 대변자들을 통해 알려졌어야 했으나 숨겨졌던 모든 일들에 대해, 누가 내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할지 나만이 알고 있다.

10. 백성들아, 깨달아라. 이 “제3의 시대”에, 너희는 이 신성한 계시를 목격한 증인으로서, 이 메시지를 온전히 충실하고 진실하게 전파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 너희는 인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동료 인간들에게 영적인 길을 가르치기 위해 부름받고 선택받았다. 그 길은 너희를 평화와 참된 빛, 그리고 모든 이를 아우르는 형제애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다.

11. 내가 너희를 가르치기 위해 바친 시간은 길었다. 그러나 가장 나중에 온 자들은 나를 거의 듣지 못했으므로, 나는 그들을 위해 내 말씀을 글로 남겨 두어, 그들이 그 안에서 신성한 의미를 찾고 모두가 동일한 이해와 동일한 영성을 얻게 하리라.

12. 이 길을 따를 때, 너희는 영혼의 완성을 제외한 다른 어떤 이상도 품지 말라. 이 완성은 내 가르침을 실천하고, 내 지침을 삶으로 살아가며, 끊임없는 의무 수행을 통해 너희의 존재를 이웃과 신성한 법칙, 그리고 인간의 법칙을 섬기는 데 바침으로써 이룰 수 있다.

13. 너희는 이미 물질적인 삶을 위해 많이 투쟁해 왔다. 이제 영혼을 위해 일할 때이다.

14. 이 두 가지 노력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의 투쟁은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반면, 영적인 투쟁은 절대적으로 이타적이어야 하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사랑과 자비로 여러분의 길을 가꾸어야 합니다.

15. 이러한 방식으로 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고상하고 순수하며 영적인 삶을 실천하는 데에 더 큰 만족과 가장 큰 기쁨, 참되고 영원한 승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16. 영혼이 세상의 물질화와 육체의 반항을 초월할 때, 진리의 빛을 통해 삶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깨닫게 된다.

17. 내 자녀들의 영혼에 평화가 깃들어 있을 때 나는 기뻐하며, 사람의 마음이 기쁨을 느낄 때 나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 나는 너희가 진실된 것을 추구하기만을 바라며, 이를 위해 내 말씀 안에서 너희에게 그 수단을 주노라.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씀에 익숙해지지 않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나의 지시를 따르고 존중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은 바로 나의 사역을 증거할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의 말씀 속에서 그들에게 베푸는 사랑을 사랑으로 보답할 자들이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이 백성에게 점점 더 바치는 이 목소리의 전달자들에게 연민과 감사를 품는 자들이다.

19. 그러나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나의 선포에 익숙해져 버렸는가! 그들은 마치 의식에 참석하거나 전통을 이행하는 사람처럼 나의 가르침에 임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내 백성에게 기대하는 태도가 아니다.

20. 너희 모두가 영적인 방식으로 나의 사역을 이해할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수록 어떤 “일꾼”들은 겸손하고 자비롭게 변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형제자매들보다 점점 더 우월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변한다는 점에 유의하라.

21. 전자는 조용히, 겸손하게, 영적인 내면성 속에서 활동한다. 후자들은 아침과 찬사, 경의에 둘러싸여 살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으며, 작고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비하하는 데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이들은 나의 제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범이나

가르침, 또는 계시가 결코 그들에게 그러한 행동 방식을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22. 여러분 중에서 그러한 단상을 스스로 만들어 올린 이들에게, 나는 사랑으로 말하노니, 내일 오늘 여러분을 높이 들어 올린 바로 그 자들이 여러분을 끌어내리지 않게 하려면 — 확신을 가지고, 회개를 통해 — 그 단상에서 내려와야 한다. 이는 거짓 권력의 왕좌에 앉아 그곳에서 이웃을 모욕해 온 사람들에게 항상 닥쳐왔던 일과 같다.

23. 너희 가운데서 사랑으로 영적 자선의 축복받은 씨앗을 뿌리며 겸손히 일해 온 이들에게, 나는 너희가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하며,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을 계속 모아 주어야 하며, 앞으로도 어둠과 무지, 악덕과 혼란의 길에 빛을 비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꾼”이 걸어야 할 길이며, 그 사명이다.

24. 나는 한쪽도 다른 쪽도 내 사역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 믿음으로 연결되고, 영성화에서 일치하며, 같은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같은 길을 걷는 것이다.

25. 세상에 너희가 영성화의 대가라고 떠벌리지 말고, 심지어 제자라고도 말하지 마라. 그러나 너희의 행실이 가능한 한 내 진리에 충실하도록 힘쓰라. 그러면 그 행실들이 너희를 위해 증언할 것이다.

26. 너희 삶의 힘든 순간과 큰 시련 속에서, 겉으로 누구의 주목도 끌지 않도록 영으로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내 임재와 능력을 너희가 느낄 수 있게 하리라.

27. 나의 영토는 무한하다. 누가 감히 이 영토가 너희가 나의 말씀을 듣는 그 모임 장소들로만 제한되어 있다고 믿을 수 있겠느냐?

28. 나의 사역의 터전은 온 땅, 곧 나의 뜻에 따라 사람이 거주하거나 영혼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 있다. 나의 발은 이 세상을 넘어, 빛과 평화, 영적 문화, 정화와 완성을 갈망하는 모든 생명 세계에 이른다.

29. 너희의 상상을 넓히고, 너희의 이성이 스스로 가둔 울타리를 깨뜨리게 하며, 너희의 영혼이 육신이 씌운 사슬에서 해방되어 무한함을 바라보고 영원함으로 충만해지도록 하라.

30.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탐구하기 위해 너희에게 찾아오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때 너희가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 그들에게 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은 아무런 공로가 되지 않을 것이니, 그 말씀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기에 그 의미는 순수하고

완전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너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내 백성 가운데서 소박하고 순수한 삶을 발견할 때, 비로소 공로가 될 것이다. 즉, 자신의 시간 일부를 자비를 베푸는 데 바치는 법을 아는 남녀들, 삶의 여정에서 위로와 빛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 말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세상에 전해야 할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이며, 이는 말이 아니라 행실을 통해 드러나는 증거이다.

31. 비록 너희 입술에서 말의 은사가 피어올라 이웃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겠지만, 너희의 모든 말을 확증해 줄 것은 바로 행함이어야 한다.

32. 너희는 제2시대의 제자들이 스승에게서 들은 말을 되풀이하는 데만 만족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백성아.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에 빛이 풍성히 쏟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의 행실과 실천은 그들의 말만큼이나 많았다. 그러므로 그들의 씨앗은 결실을 맺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

3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 백성아, 내 말씀으로 너희 영혼을 소생시키라. 너희는 아직 잠시 동안이나마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너희 마음을 내 가르침의 모든 정수를 간직하는 상자로 삼고, 너희 영혼이 내 지혜가 보존되는 성궤가 되게 하라.

34. 이 나그네새들이 더 이상 이 나무의 가지에서 지저귀지 않을 날이 이미 다가오고 있으니, 나중에 낭비한 시간 때문에 너희가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35. 이 계시의 시기를 마무리할 때가 오면, 나는 너희가 영적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을 것이다. 너희에게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36. 나는 너희에게 빛의 무기를 주었으니, 너희가 내가 예고한 이 시기를 맞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그 시기에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믿음을 파괴하려 할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례 없이 맹렬히 공격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남겨 두어, 빛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연고를 베풀어 육체와 영혼의 아픔을 치유하고, 참된 길에서 벗어나는 자들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리라.

37. 이 시대가 너희에게 갑작스럽게 닥치지 않도록 준비하라. 만일 너희가 잠들어 있다면, 고통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너희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없을 것이며, 오직 자신만을, 기껏해야 자녀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만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잊기를 원한다. 그래야 너희

영혼이 '이웃 안에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가장 고귀한 사명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38. 나는 너희가 이웃을 마치 아는 사람인 양 사랑하기를 원하며, 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기를 원한다.

39. 너희는 하나가 되어, 박해와 시련, 저항을 뚫고 나아가는 길을 아는 강한 백성, 즉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루라. 나의 평화에 대한 신성한 약속에 힘입어, 내 율법의 빛나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라.

40. 너희는 영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평화와 자유를 위해 투쟁하며, 수많은 억압과 유혹, 모욕을 겪어 온 백성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바로 이토록 쓰라린 고난의 잔을 통해 너희 영혼은 정화되고 단련되었다.

41. 빛과 자유, 평화의 이상이 사라지지 않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이 영적인 길이, 믿음과 선의를 가진 사람들을 반드시 목적지까지 인도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42. 내 정의가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면, 그것은 너희가 증언하고, 회개하게 하며, 길을 평탄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3. 인류는 진리에 대한 갈망이 매우 커질 것이며, 그들이 파멸하지 않도록 내 가르침의 수정처럼 맑은 물을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영적 발전 단계상 더 이상 속을 수 없으며, 세상이 이제 눈을 완전히 뜨고 빛을 바라보며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며, 이것이 빛이고, 이것이 어둠이다"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인류는 더 이상 굽은 길을 걷거나 의식과 전통 속에서 길을 잃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44. 경험과 자유 의지, 불순종과 악의 긴 여정은 인류가 이미 걸어온 길이며, 인류는 혼란 속에서 도달하게 될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그곳에서 자신 안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45. 영은 어둠에 맞서 빛의 날카로운 칼처럼 싸울 것이며, 영혼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을 것이다. 그리고 영혼이 평정을 되찾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되면, 일련의 환상들이 그 마음속을 스쳐 지나가며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아 줄 것이다.

46. 그 순간들 속에서 나의 말씀은 폭풍우 치는 밤의 등대처럼 빛나며, 길을 잃은 자의 길을 밝혀 줄 것이다.

47. 그때까지 너희가 필요한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면, 그것이 옳은 일인가?

48. 너희는 인류의 영적 구원에 너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너희의 사명은 어떻게 되겠느냐?

49. 나는 너희 없이도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부를 때,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대답할 수 있겠느냐?

50. 제자들아: 기도한 후에 너희의 책임을 생각하고, 너희 사명의 중대함을 헤아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그에 대해 자세히 말해 주었으니, 너희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

51. 나는 사랑과 지혜의 말씀으로 너희를 격려하기 위해 너희에게 온다. 너희는 중대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직전에 서 있다. 나는 1950년에 세상이 큰 충격에 휩싸일 것이라고 너희에게 예고한 바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나의 계시 마지막 해와 나의 작별을 특징지을 것이며, 이를 통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나의 계시의 진실성과 그 배경을 알아볼 때, 1866년 계시가 시작되었을 때와 1950년 계시가 끝날 무렵 모두 하늘과 자연, 그리고 인간의 삶이 뒤흔들렸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52.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일의 세상을 생각하라. 내 임재의 징조를 두려움에 차서 찾아 헤멜 사람들을 생각하라. 너희가 보고 내게서 들은 모든 것에 대한 충실한 증인으로 남게 될 것임을 기억하라.

53. 나의 가르침이 상세했던 것처럼, 너희의 증언도 그러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너희 주변의 어떤 사람에게도 사소한 의심이나 오해라도 남기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54. 너희 마음 깊은 곳에 새겨 두어라. 너희가 이웃을 설득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고 인상적인 행위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오직 내 가르침의 영적 본질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물론, 위로를 갈망하며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찾아오는 이들, 그리고 고통의 위안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에 사로잡혀 그 치유의 연고를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조차 신경 쓰지 않는 이들을 감동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눈을 뜨고, '일꾼'들이 나로부터 받은 치유의 약이 온전한 순수함 그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방식으로 뿌려진 씨앗은 열매가 없는 가라지만 많이 맺을 것입니다.

55. 참되고 올바르게 이해된 자선을 실천하는 데 자신의 일을 두는 “일꾼”—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 외에도, 하느님에 대한 믿음의 불을 밝히고 영적 지식을 전하는 자—자신을 잊고 잠시나마 이웃을 섬기는 데 전념하는 자, 그는 동료 인간들에게 영성을 체감하게 할 것이며, 그의 행위를 통해 나의 현존을 느끼게 할 것이며, 그 결과 그의 발은 비옥해지고 그의 수확은 풍성하고 풍요로울 것이다.

56. 나는 너희가 스스로를 속이지 않도록, 너희의 의도와 행위의 목적을 미리 살피도록, 그리고 너희가 얻게 될 결과가 어떤 성격을 띠 수 있는지 깨닫도록, 너희 영혼에게 부여된 사명을 상기시켜야 한다.

57.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니,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양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깨어 살아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이 생을 넘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하게 될 것이며, 이곳에서는 빛의 세계에 거할 자격을 얻기 위해 공덕을 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다른 이들이 여러분의 도움으로 여러분보다 먼저 도착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의 공덕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자신보다 그들을 더 많이 생각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58. 영성주의자의 삶의 길은 험난합니다. 가르침을 받은 후에도 마음속에 증오, 이기심, 위선, 또는 악의를 품고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의 제자라고 정당하게 자칭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59. 영적 수행자 안에는 평화, 믿음, 이웃 사랑, 용서, 미소, 이해, 관용, 그리고 다정함이 깃들어 있어야 하며, 이를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제로 베풀어야 한다. 반면, 진리를 왜곡하거나 숨기거나 배반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의 마음속에 열정, 힘, 그리고 엄격함이 있어야 한다.

60. 나는 너희에게 순수한 씨앗을 주고, 그것을 뿌릴 준비된 밭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돌아올 때 나에게 열매가 열리지 않은 것을 바칠 이유는 없다.

61. 내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묵상하라. 그러면 그 말씀이 너희 존재의 숨겨진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너희 마음속에 다듬어지는 일을 시작하는 정교한 끌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62. 백성들아, 내 부르심이 너희가 지상에서 수행해야 할 사명을 알리기 위함이었음을 깨달아라. 너희의 영은 이미 자신이 무엇을 위해 파견되었는지 알고 있었으나, 너희의 물질적 본성 또한 이

계시를 받아들여 영과 협력할 준비를 갖추고, 둘이 하나의 존재와 하나의 의지를 이루게 될 때까지는 아직 부족했던 것이다.

63. 이 계시들을 들은 후, 너희 중 누구라도 자신의 사명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 너희의 영이 도망쳐서 그 싸움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 자신의 운명으로부터 도망치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은 유치한 일이다. 이 세상이나 다른 세상 어디에서 내 목소리가 닿지 않는 곳을 찾을 수 있겠느냐? 없다. 내 목소리는 너희의 빛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 누가 이 시련의 시기를 피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물러나 숨는 곳이라면 어디든 정화의 과정이 너희를 따라갈 것이다.

64.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맡긴 율법을 실천하고 따를 때에만 안전과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의 길에서 너희 영혼이 얻는 공로, 즉 자비와 형제애는 너희의 인간 삶 속에서 평화, 평온, 확신, 그리고 건강으로 드러날 것이다.

65. 첫 번째 시대에 백성은 주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오늘날 나는 너희가 맹세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나를 따르는 동기가 자발적이며, 그 실천이 사랑에서 비롯되기를 원한다.

66. 나는 이 시기에 모든 공동체가 모여, 이 백성이 나에게 순종과 연합을 맹세했던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하나의 군중을 이루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묻노라: 너희는 그 맹세를 지켰느냐? 너희는 나의 지시에 순종하고 연합했느냐? 아니, 백성아, 너희는 그 맹세를 따르지 않았고, 너희의 맹세는 무효였다. 그렇다면 왜 그 날을 기념하는가? 설령 그 전통을 기념하기 위해 결코 하나로 연합하지 않는다 해도, 너희가 육체적으로는 떨어져 있더라도, 대신 영적으로 연합하여 같은 방식으로 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나에게서 훨씬 더 기쁠 것이다. 그때 비로소 너희는 나의 사역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며, 너희의 연합은 사랑과 진실함으로 굳건해질 것이니, 단지 너희 영혼에 맹세의 짐을 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맹세를 이행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67.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따르기 위해 일어설 때, 그들의 언약이 사랑과 믿음으로 이루어지기를 나는 원한다.

68. 내가 너희의 모든 전통을 폐지하는 이유를 이해하느냐? 너희가 그 전통을 따르려는 노력 속에서, (사랑의) 율법을 따르는 데 있는 너희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6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의 내 계시가 끝나기 전에 너희가 화합하지도, 서로 용서하지도 않는다면, 너희를 뒤흔들고

너희의 그릇됨과 불화를 상기시켜 줄 시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것이다.

70. 너희가 내 말씀에 익숙해졌음을 보노라. 내가 책망하거나 훈계하는 어조로 너희에게 말할 때면 너희는 귀를 막고, 조금 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무한한 사랑으로 너희에게 말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71. 아아, 백성아, 너희는 씨앗을 간직하려 하지 않았으면서 오직 열매를 먹는 즐거움만을 갈망하고 있구나! 내 말씀이 너희에게 없다면 너희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때 너희는 그 공허함을 채울 어떤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겠느냐?

아니요, 백성아, 스스로를 속이려 하지 말고, 차라리 지금부터 내 말씀을 너희 마음에 간직하고 모아 두라. 그러면 언젠가 내 계시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너희는 고갈되지 않는 지혜의 보물, 건강과 평화의 원천, 끝없이 솟아나는 축복의 샘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72. 너희가 더 이상 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 그 예고된 날이 가까워질수록, 내 말씀은 점점 더 명확해질 것이다. 내 대변자들 중 일부는 성숙에 이르렀으며, 그들과 백성들이 준비해 온 것에 대한 보상으로, 나는 내 말씀을 완전한 명확함과 간결함으로 쏟아내고 있다.

73. 이전에는 비유적인 방식으로 너희에게 말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나의 대변자들은 오직 그런 형태로만 내 진리의 심오한 가르침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비유나 형상 뒤에는 대변자가 표현할 수 없었던 신성한 것 또는 신비로운 것이 숨어 있었다.

나중에, 그의 영성화와 고양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자, 그의 입술에서 비유적인 표현은 사라졌다. 이제 그의 지성 능력은 모든 이성과 모든 영혼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귀한 진리를 소박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가르침 271

1.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백성아, 그리고 너를 통해 미래의 세대들을 축복하노라.
2. 내가 보기에 너희는 세상의 병에 감염되었고, 모든 연약한 존재들처럼 병들어 버렸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정화하리니, 너희에게는 성취해야 할 위대하고 고귀하며 어려운 영적 사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3. 내 말씀 속에서 나는 너희를 “이스라엘”이라 불렀고, 너희는 이 이름을 듣자마자, 감당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책임의 무게에 떨어졌다.
4. 이 이름은 너희를 깨우게 했으며, 그 이후로 너희는 심령과 영혼을 알차고 건강하며 순수한 양식으로 채우기 위해, 부도덕하고 해롭거나 나쁜 쾌락에 탐닉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5. 너희는 저급한 정욕을 차츰 진정한 사랑으로 대체하고, 무의미한 쾌락을 영적 만족을 위해 포기하였으며, 이러한 모든 갱신과 정화는 너희 마음에 감수성을 불어넣어, 영적 영혼의 잠들어 있던 능력들이 너희 삶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하게 했다.
6. 내 말씀이 마치 햇살이 농장을 비추듯 너희의 이성에 닿았을 때, 너희는 마침내 너희 영혼이 오직 아버지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만 양분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7. 이처럼 영성화의 시대를 열도록 예정된 이 백성 가운데서 점차 빛이 비쳐 들어오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일단 너희 자신과의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단 한 걸음도 더 내려가거나 물러서서는 안 된다.
8. 너희가 더 이상 자신의 고통을 느끼지 않고, 대신 타인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할 때, 너희는 내 가르침의 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9. 이제 예언자들을 통해 인류에게 예고된 시기가 도래하였으니, 이 시기에는 고통이 매우 혹독해지다가, 그 후 사라지고 서서히 평화로 변해갈 것이다.

10.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오신 것과 위로의 영으로서 내 임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언가를 예감하며 나를 기다리고 있다.

11. 이곳의 이 백성은 사람들에게 나의 새로운 계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 영혼 위에 나의 빛을 쏟아붓는 이유이다.

12. 더 이상 흔들리지 마라, 백성아, 더 이상 의심도 불순종도 없어야 한다! 믿음과 신뢰가 너희 온 존재를 사로잡게 하라.

13. 삶의 시련을 피하지 마라. 그것들은 너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시대에 보내진 것은, 높고 고귀하며 귀중한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너희 영혼을 정화하기 위함임을 알라.

14. 오늘 나를 따르기에는 장애물이 너무 많다고, 내일의 태양이 너희의 길을 온전히 비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제야 싸움에 나서겠다고 변명하며, 너희의 사명 수행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라.

15. 신성한 영의 빛이 너희가 넘어지거나 잠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너희 영혼 위로 비추고 있음을 보아라.

16. 때때로 나는 너희가 명상하는 고요함 속에서, 왜 인류에 대한 그토록 큰 의무가 있는지 묻는 너희를 놀라게 하곤 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너희의 질문은 너희가 자신의 영적 과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너희가 이웃들에게 진 빛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17. 지상의 모든 민족에 대한 너희의 책임에 대한 확신이 완전해지면, 너희는 큰 사랑으로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기쁜 마음으로 영적 승천의 산을 오를 것이다.

18. 너희의 기억 속에서 영혼의 과거가 지워졌을지 모르고, 이전의 생애들이 잊혀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록하시는 생명의 책에는 과거의 그 어떤 것도 가라앉지 않으며, 지워지거나 잊혀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현재에 존재하며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19.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정의입니다: 완전하고, 사랑이 넘칩니다.

20. 사람이 길을 잃고 세상의 더러움 속으로 빠질 때, 주님께서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상에서 행한 행실들로 인해 영생을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면, 영원한 심판자께서는 여러분에게 실수를 만회할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노력과 의지력, 선을 향한 끈기를 통해 구원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21. 이제 여러분은 이 축복받은 기회를 얻었으니, 이 모든 것을 깊이 성찰하고 여러분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래야만 — 영혼들이 물질 세계를 거쳐로 삼기 위해 떠나는 그 “계곡”으로 돌아갈 때 — 미완의 임무와 사명 없이 그곳에 도착하여, 대신 여러분이 살아왔던 육신의 빈약함과 서툰을 이겨냈다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

22. 너희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깨어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기에 너희가 내딛는 발걸음에 대해 너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침을 준 기간은 매우 길었고, 내가 너희에게 교훈을 전한 말씀은 매우 상세했기 때문이다.

23. 유혹은 가장 엄숙한 순간과 가장 중대한 시기에 너희를 가장 강하게 휘감아, 마음이 약해지고 용기가 꺾이며, 의심과 불확실성, 우유부단함이 솟아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24. 내 사역의 순수함에서 영감을 얻고, 무엇이 너희 아버지께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것인지, 지금 너희가 무엇을 잘하고 있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25. 남의 행위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라. 그러면 연구와 사랑의 부족으로 인해 너희 눈이 간과했던 무수한 불완전함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26.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광신, 우상 숭배, 미신, 물질주의, 그리고 불필요하고 무익한 예배 행위를 모두 몰아내라. 그것은 마치 밭에서 잡초를 제거한 뒤, 그 위에 아름다운 밀을 파종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27. 너희에게 남은 시간을 활용하여 내 가르침을 들으라. 그리하여 그 가르침이 너희를 빛과 은총으로 채워, 너희가 영성으로 향하는 확고한 한 걸음을 내딛게 하라. 너희가 물질주의와 오류로 가득 찬 숭배 관습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 한 걸음을 내딛지 못했던 것이다.

28. 오늘까지 너희에게는 너희의 형상들과 의식과 상징들을 없애고, 무한한 곳에서 영적으로 나를 찾으려는 믿음이 부족했다. 너희에게는 영성인이 될 용기가 부족했고, 너희는 물질주의적 사고방식과 잘못을 숨기기 위해 일종의 가짜 영성을 만들어 냈다.

29. 나는 너희가 위선적이기보다는 진실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삶을 철저히 정화하고 세상에 이 사역의 진리를 보여줄 수 있도록, 지극히 명확하게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스스로를 영성주의자라고 부르느냐? 그렇다면 진정으로 그러하라. 내 가르침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한, 내 가르침에 대해 말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행실로 인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30. 무엇보다도 내 사역이 무엇인지, 내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희의 사명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깨달아라. 그래야만 — 너희의 길에 너희의 발걸음을 인도할 만한 합당한 인도자가 없을 때 — 너희는 양심과 내 가르침에서 얻은 깨달음을 통해 스스로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어떤 실수나 오류에 대해서도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될 것이다.

31.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영적 여정을 조언으로 이끄는 자가 나의 법에 따라 행한다면, 너희는 그를 충실히 따를지니, 그는 너희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32. 이 백성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오면, 내 말씀은 모든 이에게 똑같이 전해졌으므로, 내 목소리는 모든 영혼에게 똑같은 공의로 다가갈 것이다. 그때는 아무도 “주님, 더 많이 아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저 그들이 시킨 대로만 행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33. 너희는 타락하거나 사악한 세속의 아버지가 보여주는 나쁜 본보기를 보고, 그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아이가 잘못을 저지른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 아이가 부모의 발자취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34.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양심과 이성이야말로 너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

35. 그러나 너희를 인생의 길로 인도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 정해 놓은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해서, 너희는 그들을 무시하거나 더 이상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구원을 얻은 그곳에서, 너희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이들을 돕기 위해 너희 쪽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즉, 너희의 자비와 사랑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36. 사랑하는 제자들아, 시련이 닥쳤을 때 의심의 고통에 시달리지 않도록, 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도록 노력하라.

37. 유물론은 영혼의 발전에 엄청난 장애물로 가로막혀 있다. 인류는 이 벽 앞에서 멈춰 서 있다.

38. 너희는 인간이 물질 관련 과학에 적용하여 지성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영적 존재에 대한 그의 판단력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물질에 완전히 속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한 그의 인식은 뒤쳐져 있다.

39.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기는 두 가지 측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지성의 발전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 정체입니다.

40. 실제로 신성한 빛이 이성적 능력 위에 비추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인류에게 경이로움을 안겨주는 결실을 맺는 나의 위대한 영감이 그곳에서 솟아납니다. 왜냐하면 이성은 이제 자유와 지식의 확장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연 연구에 몰두하고, 탐구하고, 발견하고, 기뻐하며, 놀라워하지만 결코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영적인 것, 즉 자신이 알고 있는 물질 너머에 있는 진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는 두려움을 느끼며, 미지의 영역, 즉 자신이 금기시하는 것, (자신의 생각에 따르면) 오직 고귀하고 하나님의 신비를 탐구할 자격이 있는 존재들에게만 주어진 것으로 여기는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41. 그는 자신이 약하고 어리석음을 드러냈으며, 자신을 억누르는 편견을 의지력으로 극복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왜곡된 해석의 노예임이 드러난 것이다.

42. 인간의 지성이 영적 차원에서도 발전하지 않는 한, 그 발전은 결코 완전해질 수 없다. 너희가 오직 세속적인 삶에 대한 인식에만 몰두해 왔기 때문에, 너희 영혼이 얼마나 뒤쳐져 있는지 깨달아라.

43. 인간은 타인의 의지의 노예이며, 저주와 비난, 위협의 희생양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무엇을 얻었는가? 인간이 가져야 할 최고의 지식을 이해하고 얻고자 하는 모든 소망을 포기하게 되었을 뿐이다. 또한 인간은 터무니없이 항상 비밀로 여겨왔던 것, 즉 영적 삶을 스스로 밝힐 수 없게 된 것이다.

44. 너희는 지상의 인간에게 있어 영혼의 삶이 영원히 수수께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희는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의 기원을 알지 못하고 영과 관련된 어떤 것도 알지 못하는 한,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너희는 식물과 동물들 사이에서 초라한 세상에 사는 피조물에 불과할 것이다. 너희는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며 서로 싸울 것이며, 너희의 삶은 여전히 고통이 지배할 것이다.

45. 너희가 자신의 본성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이웃 안에서 모든 이에게 내재하는 영적 형제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 과연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아니, 인류의 자녀들아, 비록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따른다고 말하더라도 말이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피상적으로만

받아들인다면, 너희의 믿음과 깨달음, 그리고 사랑은 그릇된 것이 될 것이다.

46. 오늘날 나의 빛은 눈부시고 영감을 주는 방식으로 모든 이성의 기관에 내려오고 있다. 이 빛이 인간의 언어를 통해 전달될 때, 그것을 들은 이에게는 그것이 나의 가르침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너희 영혼의 고양을 목표로 하므로, 나는 그것을 ‘영성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름이나 정의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그 의미와 그 안에 담긴 진리입니다.

47. 지금은 내 말씀의 빛과 더 높은 도덕, 그리고 영성화의 지혜가 마음속에 쏟아지는 유리한 시기이다. 마치 너희가 건너온 사막의 긴 가뭄 끝에 내리는 상쾌하고 유익한 비와 같다.

48. 이 가르침은 제2시대에 표현된 나의 말씀이 완전했던 것처럼, 그리고 나의 모든 영감이 그러하듯이 완전하다. 이 완전함은 그것을 전달하는 지성 기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영감을 주신 신성한 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49. 이 가르침은 모든 순수하고 신성한 것들처럼 단순하므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를 실천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너희 영혼의 노력은 육체적인 수고와 절제, 혹은 희생을 요구하며, 영적 수양이나 훈련이 부족하다면 너희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50. 태초부터 영혼과 “육신” 사이에는, 하느님께서 주신 법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이 옳고, 허용되며, 선한 것인지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투쟁이 있어 왔습니다. 이 힘든 투쟁 속에서, 여러분은 마치 낮설고 악의적인 힘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하여 이 싸움에서 등을 돌리게 하고, 자유 의지를 행사하여 물질주의의 길을 계속 견도록 부추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육체의 연약함보다 더 큰 유혹은 없다. 육체는 주변의 모든 것에 민감하고, 굴복할 만큼 연약하며, 쉽게 넘어지고 유혹당하기 쉽다. 그러나 육체의 충동과 정욕, 연약함을 다스리는 법을 배운 자는 자기 안에 품고 있는 유혹을 이겨낸 것이다.

51. 예수님께서 제2시대에 전하신 사랑의 가르침이 너희가 따라야 할 길을 이미 보여주셨는데, 영성주의가 너희에게 무엇을 새롭게 가르쳐 주겠느냐? 그분은 너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지극히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며, 영적으로 실천하도록 가르쳐 주셨다.

52.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숨어 계신, 육신이 되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계시되었으므로 완전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세상에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예수 안에서 세상에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이 지금 영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여러분 가운데 살았을 때 남긴 그 가르침과 행적, 본보기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스스로를 매우 발전했다고 여기고, 그 시대와는 매우 동떨어진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서, 내 말씀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영성주의를 통해 너희는 내가 남긴 가르침과 본보기를, 너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너희의 발전 단계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53. 오늘의 말씀은 제2시대의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니, 이는 인간의 매개자를 통해 전해지기 때문이며, 이 이성 기관들의 수용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의 의미는 완전하다.

54. 아무도 내가 사용하는 인간의 육신 속에서 신성의 현존을 보아서는 안 되며, 그들의 인간적인 목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형상이 없으시며, 너희와 같은 인간의 목소리 형태도 없으시다. 그러므로 내 말씀을 듣는 자는 인간적인 말씀의 외형적인 표현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할 것이며, 그 말씀의 의미 속에서만 찾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모든 교회에서 계시해 온 것이다.

55. 스승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제2의 시대에 인류에게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로 전하셨던 그 신성한 가르침들을 상기시켜 주시려 한다.

56. 내가 돌아온 것은, 현 세대가 나의 말씀을 삶의 규범과 법칙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설명해 주는 새로운 교훈을 통해 그들에게 길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57. 인간은 자유 의지의 충동에 따라, 삶의 많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채 고집스럽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

58. 지구상에서 약자를 억압하는 제국이나 강대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야 할 때가 되었으나, 여전히 그러한 존재들이 남아 있다는 사실은 인간 내면에 여전히 원시적인 성향이 우세하여, 권력을 남용해 약자를 착취하고 폭력으로 정복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증명한다.

59. 비록 내가 인간을 지구에 두어 그곳에서 주인이 되어 다스리게 하고, 평화와 이해, 조화가 넘치는 세상을 통치하게

하여, 창조주이신 왕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신하가 되게 하려 했으나.

60. 그러나 사람들이 지구상에 세운 통치는 다르다. 그것은 허위의 위대함, 허영, 거짓된 영광의 통치이다. 그러므로 세상은 평화, 지혜, 영적 고양과 같은 영적 보물을 가장 큰 부로 여기지 않는다.

61. 인류는 약간의 평화를 갈망하지만, 분별력, 용서, 자비, 화해, 사랑과 같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만 결코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62. 이제 나는 평화 왕국의 수립을 추구하는 자들과, 세속적 지배의 권력을 방어하거나 확대하기 위해 싸우는 자들 사이에서 벌어질 거대하고 격렬한 투쟁을 너희에게 예고한다.

63. 이는 영과 물질 사이의 싸움이며,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사이의 오래된 전투이자, 영이 물질에 대항하는 것이다. 누가 누구를 이길 것인가? 어떤 이들은 ‘영’이라고 말하고, 다른 이들은 ‘물질’이라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무도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64. 이 싸움은 영이 승리하고 “육체”를 굴복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 승리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육체와 영혼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각자의 소명을 다하고, 하나의 이상 아래에서 정의와 사랑의 길, 즉 내 율법이 제시한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양쪽 모두를 위한 최종적인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들은 살인적인 전쟁으로 서로에게 얼마나 큰 해를 끼치고 있는가! 마음속에 조금의 평화도 없이, 적으로 변해버린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위협을 받으며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며, 날과 달과 해가 흘러간다. 이것이 높은 이상을 위해 사는 것일까, 아니면 적어도 그것을 위해 싸우는 것일까? 아니오, 백성들아: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훨씬 더 하찮은 인간적인 권력 욕망 때문에 서로를 죽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려 하지 않으며, 인간의 존재가 신성하다는 사실과, 오직 그 생명을 창조하신 분만이 그것을 처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원치 않는다.

65.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오랫동안 전쟁터였습니다. 그러나 인류에게는 조상들이 물려준 엄청난 경험조차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경험은 마치 양심이 펼쳐 놓은 책처럼 오늘날의 인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 굳어 있어, 빛의 유산과도 같은 그 경험의 결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조상들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유일한 것은 피를 통해 전해진 증오, 자만, 원한, 탐욕, 오만, 그리고 복수뿐이었다.

66. 수많은 무고한 이들의 피로 땅이 붉게 물들고, 그 후 살아남은 자들의 슬픔으로 인해 검게 변해야 할 것이다.

67. 사람들이 교만과 오만이라는 토대 위에 세운 모든 제국은, 겉보기에는 견고해 보였던 기초가 허술하여 나의 공의에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져 내렸다.

68. 오늘날 사람들을 경탄하게 하는 그 세력들이 곧 요란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그 뒤를 이어 다른 세력들이 일어나더라도 마찬가지로 쓰러질 것이다.

69. 사람들이 민족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태초부터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계시해 주신 사랑과 정의의 법칙에 따라 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스스로를 다스린다면, 그들은 세상에서 처음으로 조화, 형제애, 진정한 진보, 영혼과 인간의 꽃피움, 지혜, 지식, 그리고 번영이 공존하는 평화의 왕국을 위한 견고한 기초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70. 사랑하는 백성아, 이 은혜로운 아침에 네 생각을 집중하고 네 감정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야만 네가 지금 받고 있는 가르침에 대한 네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을 지니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71. 너희가 내 사역을 위해 일할 만큼 충분히 강해졌다고 준비가 되었다고 느낀다면, 이제 나서서 내가 너희에게 예고한 평화와 진리의 왕국, 즉 새로운 세상의 견고한 기초가 될 내 말씀을 널리 알리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가르침 272

1.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축복하며, 너희 안에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대를 축복하노라. 너희는 모든 시대에 걸쳐 나의 계시와 계명을 체험해 온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다.

나는 너희를 새로운 환생으로 이 땅에 보내었다. 그러나 그 전에 나는 인류가 이 시대에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너희에게 말함으로써 너희를 준비시키고 경고했다. 나는 너희에게 인류의 물질주의와 혼란에 대해 말했고, 너희는 자신의 사명을 다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섬세함 그 자체이자 부드러움과 빛인 나의 말씀을 바위처럼 굳은 그 마음속으로 어떻게 스며들게 할 수 있을지 자문해 왔습니다.

스승께서는 너희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시고, 너희를 ‘일꾼’으로 삼으시며, 너희가 준비하고 가꾸어 비옥하게 만들어야 할 밭과 같은 마음들을 너희에게 맡기셨다.

2. 너희가 사람을 통해 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이라 불렀을 때, 너희 영혼은 떨어졌다. 너희의 연약한 육신은 이러한 계시를 알지 못했으나, 영적 영혼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내 사역에 동참하도록 예정되었으며, 너희의 발걸음을 조심해야 한다. 내려오지 말고, 세속적으로 변하지 말고, 군중 속에 섞이지 말라. 너희는 동료 인간들보다 우월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용히 일하여, 오직 이웃에 대한 사랑과 자비만이 너희를 구별되게 하라.

3. 너희의 존재는 어둠을 몰아낼 것이며, 내 가르침을 전할 적절한 기회를 찾지 못해 입을 다물게 되더라도, 너희의 영이 말할 것이니, 그리하여 너희는 동료 인간들 사이에 빛과 의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4. 이 고통의 시기에 나는 너희를 위로하러 왔다. 모든 영혼은 해방의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의 구세주를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들은 그가 어떤 방식으로 올지 모르지만, 기다리며 감추어진 신성한 지혜에 묻고 있다.

5. 너희 백성아, 너희는 예언된 모든 것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있으며, 이 빛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사랑하며, 내가 그들에게 주는 삶의 매 순간마다 나의 자비와 능력을 드러낸다고 말하라. 그들이 온전해지도록 도와주고, 진실함으로 나를 찾으며, 영적으로 나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라.

6. 너희, 나의 일꾼들이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대로, 내가 그들과 소통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각지로 보내고, 너희 안에 나의 영을 두어 모든 인종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의 말씀을 전하게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사람들을 오직 하나의 목표, 오직 하나의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7. 사람들은 길에 놓인 돌덩이들에 걸려 넘어지고, 탄식하며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속죄의 법칙과 정의에 따르는 것이며, 이는 내 뜻대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나를 아버지로서 사랑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8. 너희 마음이 큰 시련을 겪을 때, 너희는 반항하며 나에게 묻는다. “이 고통의 잔을 비워야 한다는 것이 과연 내 운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나의 속죄입니까? 이것이 정말 아버지의 뜻입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뜻

없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 너희 운명에는 너희가 견뎌내야 할 많은 시련이 있다. 어떤 것은 내 율법을 어긴 대가일 것이며, 다른 것은 내 영이 너희 영에게 전해주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불필요하다고 여길지라도, 그 모든 것은 의로운 것이다. 너희가 깨어 있고 공부한다면, 그 시련들은 내 완전함과 내 사랑을 말해 줄 것이다. 가장 쓰라린 날들 속에서도 희망과 믿음을 지키고, 내일이 더 나아질 것임을, 내 사랑의 태양이 너희의 영혼과 몸을 비출 것임을, 너희의 이성과 직관이 맑아져 좋은 목적지로 인도될 것임을 믿으라. 그리하여 너희가 삶의 여정의 끝에 다다를 때, 너희 안에는 평화가 깃들고 아버지 안에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모든 시련을 겪은 후 너희는 너희의 힘을 깨닫게 될 것이며, 나는 너희가 나에게 베푸는 사랑에 따라 그 열매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9. 인류여, 사람들이 영적 지혜를 찾게 될 제3의 시대를 환영하라. 그것은 너희가 믿음과 직관, 그리고 영성화를 통해 나를 느끼게 될 시대이다. 인간의 모습으로 내 임재를 기대하지 말고, 나를 믿기 위해 내 상처를 찾아 손가락을 파고들지 말라.

10. 이 시대에는 모든 것이 영적일 것이다.

11. 너희가 모든 물질주의를 버림으로써, 나를 영으로 이해하고 느낄 때가 왔다.

12. 우상 숭배와 광신, 그리고 전통을 고집스럽게 고수하는 민족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그들은 나의 빛을 볼 수 없을 것이며, 영혼이 깨어나는 무한한 기쁨을 느낄 수도 없을 것이다.

13. 비록 나의 가르침이 세상을 뒤흔들겠지만, 싸움이 끝나면 지상에서는 나의 영에서 솟아나는 참된 평화를 느끼게 될 것이다. 오직 어리석고, 고집스럽고, 마음이 굳은 자들만이 계속 고통받을 것이다.

14. 인류 위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떠돌며 살아가고 있으니, 이는 빛의 존재들로 이루어진 세계이며, 모든 것을 이끌고 결정하는 엘리야가 그 앞을 선도하고 있다.

15. 그 천상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준비가 된 자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16. 지상의 모든 민족에는 영적 세계의 사역을 돕기 위해 영혼이 파견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영적 영감에 무감각한 바위로 변하게 내버려 둔다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들은 자신이 멀어진 길로 되돌아가기 위해 매우 쓰라린 잔을 마셔야 할 것이다.

17. 나에게 있어 한 인간 존재의 회개와 갱신, 그리고 구원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나는 전능하지 않은 것이며, 인간이 나보다 더 강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능력을 인간 내면의 악이 지닌 힘보다 열등하다고 여기는가? 너희는 인간 내면의 어둠을 신성한 빛보다 우월하다고 보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너희 마음이 내게 말하라.

18. 명심하라. 내 사명은 너희에게 존재를 부여한 후, 너희를 완전함으로 인도하고 너희 모두를 하나의 영적 가족으로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그리고 내 뜻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19. 나, 신성한 씨 뿌리시는 분은, 모든 영혼 속에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내 사랑의 씨앗을 심는다. 이 씨앗이 온 인류 속에서 언제 싹을 틔울지는 오직 나만이 알고 있으며, 오직 나만이 끝없는 인내로 내 행위의 열매를 기다릴 수 있다.

20. 이 가르침의 의미를 잘 활용하여, 먼저 너희 가족의 품에 화합을 심기 시작하라. 그 다음에는 너희 민족을 이루는 공동체들 간의 조화를 도모하라. 그들이 영적인 유대로 하나 되면, 너희 가운데서 평화와 행복이 바깥으로 빛나도록 하라.

21. 온 인류를 회심시키기 위해 필요한 투쟁의 규모를 가늠하고, 존재하는 죄의 정도와 곳곳에 만연한 비참함을 고려하다 보면, 너희는 필연적으로 우울한 기분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누가 오직 여러분만이 세상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각자 맡은 부분을 잘 수행하는 데 만족하고, 다른 이들이 그들의 몫을 다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아버지의 도움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22. 인류에게 어려운 이 시기에, 즉 제3시대의 시작에 지상에서 살게 된 것은 너희의 운명이었노라. 그러나 너희의 운명을 한탄하지 말라. 이는 곧 나를 향한 비난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각자가 —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의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다 — 여러 번 지상에 왔었으며, 그 중 몇몇 생애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갈망하는 모든 것을 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23. 이 시대에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이들은 과거에 쾌락과 인간적 만족, 세상의 영광이라는 잔을 바닥까지 비워버렸기 때문에 영적 길에서 벗어나 더러워졌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24. 속죄와 정화의 시기는 반드시 찾아와야만 했으니, 비록 이를 위해 세상에서 수세기가 흘러가야 했고, 너희 영혼이 이 순간까지 기다려야 했더라도 말이다. 그러나 그 시기는 이제 도래했으니, 바로 오늘이다. 이를 깨닫고, 체험하며, 활용하라.

25. 위로의 영의 빛을 받아들이라 — 그분은 내가 사람들에게 한 약속에 따라 반드시 오셔야만 했던 분이시다.

26. 이제 내 존재가 보이지 않는 형태로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는지 깨달아라. 나는 오늘날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이에게 빛과 사랑, 지혜와 위로를 쏟아붓는 영 안의 그리스도이다.

27. 사랑이 인류여, 너희의 삶을 다시금 비추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영적인 길을 보여주고, 너희 안에 존재하는 진리를 드러내어, 너희가 신성한 빛을 깨닫게 하리라. 자신이 실제보다 더 위대하다고 여길 때, 그것이 착각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너희는 “육체”에 따라, 즉 인간적인 존재에 따라 자신을 믿고 있다. 그러나 인간적인 것은 덧없는 것이기에, 그러한 믿음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나는 너희에게 믿음과 성장을 너희 영적 영혼의 가치에 근거하도록 가르쳤으니, 그것들은 확고하고 영원하기 때문이다.

28. 너희는 너희가 단지 물질일 뿐이며, 오직 이 세상만이 존재한다고 믿어 왔기에, 인생에서 그토록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삶의 투쟁은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다.

29. 너희의 물질주의는 내가 인간에게 맡긴 에덴을 지옥으로 바꿔 놓았다.

30.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그릇되었고, 그들의 쾌락과 권력, 부, 학문과 과학 또한 그릇되었습니다.

31. 부자와 가난한 자, 너희 모두는 소유하는 것이 허망한 돈에만 마음을 쏟고 있다. 너희는 고통과 질병을 걱정하며, 죽음에 대한 생각에 두려움을 느낀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다른 이들은 한 번도 소유해 본 적 없는 것을 얻기를 갈망한다.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는 반면, 다른 이들은 모든 것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과 열정, 욕구, 그리고 야심 찬 목표들은 오직 물질적인 삶, 육체의 굶주림, 저급한 정욕, 인간의 욕망에만 국한되어 있다. 마치 인간에게 실제로 영혼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32. 세상과 물질은 영혼을 일시적으로 제압하고, 점차 다시 노예 상태로 몰아넣었으며, 결국 인간 삶 속에서 영혼의 사명을 무너뜨렸다. 왜 너희는 너희 삶을 짓누르는 그 굶주림과 비참함, 고통과 두려움이 바로 너희 영혼의 비참함과 고통을 충실히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서서히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가?

33. 내가 너희 안에 존재하지만 너희가 보려 하지 않았던 진리를 밝혀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왔고, 이제 내가 너희 곁에 있으며, 나는 너희가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너희 영혼의 메시지를 진정으로 듣도록 가르쳐 줄 것입니다.

34. 머지않아 너희는 삶이 인간인 너희에게 잔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이 스스로에게 잔인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해심이 부족하여 고통을 받고, 주변 사람들도 고통받게 한다. 너희는 외로움을 느끼고, 아무도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이기적이고 냉정해진다.

35. 그때 내가 내 목소리를 들려주리니, 너희가 일어나 감정을 고상하게 다듬어야 하며, 비열함과 불순함에 시선을 두지 말고, 용서하고 덜어주어야 할 비참함과 궁핍에 주목하라고 말하리라.

36. 너희의 이성과 시선을 영원하신 분께로 들어 올려, 순수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라.

37. 영혼의 거처인 무한한 공간 속에서 빛과 고귀한 생각, 그리고 영원한 평화가 진동하고 있다. 그곳까지 너희 자신을 끌어올리고, 그 영역에서 힘을 얻으라. 너희가 그곳으로 올라가지 않는 한, 계속해서 병들게 될 것이며, 형제자매임을 깨닫지 못한 채 다투게 될 것이다.

38. 이 물질주의는 사람들을 갈라놓았다. 불화의 씨앗이 너무나도 번져, 민족들끼리만 서로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들끼리도 서로를 배척하게 되었다.

39. 적어도 내 가르침을 양식으로 삼는 너희 백성아, 더러움에서 벗어나 사랑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라. 너희 영혼의 평화와 행복을 온전히 물질 세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너희의 열망과 목표를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사이에 나누어 양쪽 모두에 공평하게 임하도록 노력하라.

40. 물질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을 그만두라. 너희가 하느님께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오직 영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라.

41. 물질적인 행위로 너희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고집스럽게 믿는 것이 어떻게 옳을 수 있겠느냐? 너희의 모든 오류와 실수를 자각하라. 너희가 사는 방식처럼 지나치게 물질에 치우쳐, 이것이 너희가 창조된 목적이라고 믿는다면,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영혼이 진리를 깨닫는 과정은 매우 쓰라릴 것이다.

42.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녀를 원하시지 노예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시나, 너희는 너희 자신의 정욕과 타인의 정욕에 노예가 되어 있다.

43. 너희는 지저귀기보다는 두려움에 떨며 뺄뺄거리는 길을 잃은 작은 새들과 같다. 너희는 낮 동안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은혜에 더 이상 감사를 드리지 않으며, 내 은혜가 너희에게 닿을 때마다 내 이름을 찬양하지도 않는다.

44. 너희는 육체의 힘에 의지했기 때문에 낙담하게 되지만, 육체는 연약하다. 세상을 진정한 행복의 왕국으로 여기는 것이 큰 착각임을 깨달을 때, 너희는 강해질 것이다.

깨달음과 통찰의 순간, 영혼은 육신 안에서 비참해졌다는 사실 때문에 그토록 큰 비참함에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다. 영혼은 하늘의 높은 곳을 정복하는 콘도르가 되고자 하지 않았다. 오히려 빛이 눈부셔서 어둠 속에 갇들어야만 하는 새들처럼 되기를 선호했다.

45. 내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해야만, 내가 너희에게 인간적인 삶을 경시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시선과 이성, 그리고 이성을 영원한 것에 두며 진정한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46. 오늘날 너희의 영적 무지는 너무나 커서, 저 세상으로 떠난 이들을 생각할 때 “불쌍한 사람, 죽어서 모든 것을 뒤로 남기고 영원히 떠나버렸구나.”라고 말하곤 한다.

47. 너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 영적 세계에 있는 그 존재들이 너희를 얼마나 연민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알기만 한다면. 너희의 무지를 마주하며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바로 연민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들을 볼 수만 있다면, 비록 단 한 순간이라도, 진실 앞에서 말문이 막히고 압도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48. 여러분은 땅속에 남겨진 생명이 없는 유해를 보며 울고, 그들을 덮고 있는 무덤 언덕에 꽃을 심고 눈물로 적시는 동안, 그 육체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빛의 왕국에 거하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불쌍한 육체여,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지켜주었는지, 얼마나 많은 영예와 기쁨, 허영과 덧없는 영광을 네게 안겨주었는지, 그런데 이제 너는 어두운 무덤 속의 한 줌 먼지에 불과하구나.”

49. 너희 모두 내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 보라. 그러면 너희는 그 안에서, 오늘까지 알기를 원치 않았던 비밀들이 지극히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50. 지금보다 더 좋은 시기에 내가 너희를 위로하러 올 수 있었겠느냐? 물론 너희는 이 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왕국으로 내려가셨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세상이 허우적거리는

너희의 죄 많은 삶보다 더 지옥 같은 것이 무엇이겠느냐?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온다. 너희는 참된 길에서 멀리 벗어나 — 나 없이도 살려고 할 만큼 멀리 —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은 너희의 삶과 나의 삶이 하나라는 것이다.

51. 하나님의 법에서 분리된 인간의 존재는 공허하고 거짓이다. 내가 왜 너희에게 빛을 가져다주러 왔는지 깨달아라. 바로 내가 이전에 너희에게 전했던 바로 그 말씀으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진리는 하나뿐이므로 가르침도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자기애는 너희를 위해 우상 숭배의 왕좌를 세웠다. 그러나 너희가 데려오리라 믿었던 왕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너희 마음은 방향을 잃고 말았다. 그러나 너희 존재의 깊은 곳에서 너희의 하나님, 참된 왕의 임재를 찾을 수 있다. 너희가 그곳에서 나를 발견한다면, 나는 너희에게 나를 위해 왕좌를 세우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믿음의 촛대가 빛을 비추는, 사랑과 겸손의 제단을 더 선호한다.

52. 너희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은 참으로 많다. 생각해 보라. 하루에 몇 번이나 너희 몸을 먹이느냐? 그 식사 중 단 한 끼라도 빠지면 너희는 기력이 쇠약해진다고 느낀다. 그러나 너희 영혼은 — 하루에 몇 번이나 내 말씀으로 그 영혼을 먹이느냐?

53. 너희 삶의 가뭄 속에서 인류의 영적 굶주림과 목마름이 얼마나 큰지 깨달으라. 그러면 너희는 내 진리를 설명하고 너희의 큰 고난 속에서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 영 안에서 임재하시는 나의 존재를 정당하게 여길 것이다.

54. 이 시대에 내 가르침과 내 오심은, 내 뜻에 따라 너희 모두가 되어야 할 나의 새로운 제자들이, 그들의 스승처럼 위로의 영이 되어, 내 사역을 실현하고, 내 사랑을 뿌리며, 빛을 밝히고, 아이들의 마음에 사랑과 이해를 심어 그들의 존재 속에 있는 헤아릴 수 없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지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육신의 고통에 굴복한 병자들에게 치유의 연고를 전하기 위함이며, 그들의 고통은 생명이 다함에 따라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머리를 기댔 사람이 없는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55. 너희가 이 큰 고통들의 실상을 보게 되면, 그것을 너희의 고통과 비교하게 될 것이며, 너희가 가장 크다고 믿었던 그 고통을 축복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주님, 제가 가진 모든 것 때문에 저는 행복해야 합니다.”

56. 고통받는 이들과 친밀해져야만, 너희 마음이 많은 교훈을 얻어 사랑이 넘치고 부드러워지며, 거짓된 기쁨에서 벗어나 대신

애정을 갈망하고 사랑과 위로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게 될 것이다.

57. 너희가 타인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끼게 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병원의 고통의 침상에 누워 있는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 나서게 될 것이다. 너희의 손은 주저함 없이 나병환자에게 닿을 것이며, 고아를 다정하게 어루만질 것이다. 너희의 입술은 말로 영혼에 빛을 비추게 될 것이며, 너희는 목적도, 사랑도, 하나님도 없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불꽃을 피우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58. 영성가는 물질적 재물을 과도하게 쌓아두지는 않겠지만, 대신 영혼의 보물로 항상 풍요로워지도록 할 것이다. 그는 그 보물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상태가 어떠한지 항상 알 것이다. 그는 모든 필멸자처럼 고통을 겪겠지만, 결코 절망하거나 반항하지 않을 것이다.

59. 모든 기회에 나의 본보기를 마음에 새기라 — 바로 너희를 사랑하고 위로하며,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사명에 바쳤던 그 삶을 말이다. 나는 많은 이들이 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내 모든 가르침 속에서 이 길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내 말씀을 전할 특별한 장소를 따로 두지 않았다. 광장이나 기둥이 늘어선 홀, 거리나 성전, 길 위나 산 위에서 나는 천국에 대해 말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였다.

60. 생의 투쟁 속에서 쌓아 올린 공덕으로 가득 찬 여정을 항상 준비해 두어, 내가 다른 삶으로 부르실 때 결코 당황하지 않도록 하라. 항상 내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점검하라.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공덕이 없는 영혼으로 세상을 떠나지 마라. 그때가 되면 너희는 지상에서 많은 선행을 했더라면 하고 바랄 것이나,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을 것이다. 너희의 양심과 항상 소통하라. 너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61. 오, 내가 특히 내 말씀을 전하는 영혼들이여, 낙심하지 마라. 내 길을 꾸준히 걸어가면 너희는 평화를 알게 될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모두는 그 행복을 경험하도록 정해져 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천국을 누리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면,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마라. 너희의 행복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너희 영혼이 그 신성한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씩 공로를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너희 곁에 서서 온 길을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깨달아라. 나의 사명이 너희의 사명과 하나이며, 나의 운명이 너희의 운명과 하나임을 인식하며, 나를 온전히 신뢰하라!

62. 너희가 나에게로 올라올 수 없었기에, 내가 너희에게로 왔으니, 이는 내 자비의 증거이자 너희 믿음에 대한 자극이 되었다. 너희는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이미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의 싸움에서는 강하지만, 영적 영혼의 사명 앞에서는 약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에게, 내 제자로 여겨지기에는 아직 결점이 너무 많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결점은 돌과 같고, 그것들이 모두 합쳐지면 짐과 같다. 너희가 그 짐의 무게 아래서 살아가는 한, 너희가 높이 날아오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너희가 점차 결점이라는 무거운 짐을 떨쳐낼수록, 너희는 영의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음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63. 내 말씀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도록 허락하라. 나는 너희 모두가 나를 듣기 위해 마음을 준비한 채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안다. 어떤 이들은 이 계시를 조롱하고, 어떤 이들은 의심하며,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고상하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생각은 각 사람의 이성 기관에 닿아 지혜로 드러난다.

64. 내가 내 사랑으로 너희를 섬긴다는 증거를 이미 주었음에도, 누가 감히 내가 사람들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할 권리가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고난의 나무에 못 박히셨을 때를 떠올려 보라. 그러나 그 십자가는 인류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여전히 내 자녀들에 대한 사랑으로 상징되는 나의 사랑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65. 너희는 의심하고, 판단하며, 심지어 조롱까지 하지만, 나는 너희가 무지에서 비롯된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너희를 용서하고 축복한다. 나는 너희가 내일 가장 열렬한 신자들이 될 것임을 알기에, 너희에게 생각할 시간을 준다. 지금은 ‘육신’이 영보다 강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계시한 진리를 아직 온전히 명확하게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영성화의 이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며, 그때 너희는 영적으로 가장 강한 자들이 될 것이다.

66. 해로운 것을 물리치고, 불결한 것과 싸우라. 세상의 악덕이 영혼의 감각을 무디게 하여, 영혼이 높은 삶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아두라. 너희가 참된 삶을 사는 법을 배운다면 —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어디에 있든, 어디로

가든, 너희의 존재만으로도 모든 것을 평화의 낙원으로 바꿀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가르침 273

1. 너희는 너무나 깊이 타락하여 영적인 것에서 너무나 멀어졌기에, 영에 속한 것이므로 완전히 자연스러운 것조차 초자연적인 것으로 여긴다. 그리하여 너희는 신성한 것을 초자연적이라고 부르며, 마찬가지로 너희 영에 속한 모든 것을 그렇게 보는데, 이는 오류이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오직 여러분의 감각 범위나 인간 지성의 이해 범위 내에 있는 것만을 보고 인식할 뿐이며, 감각과 이성을 초월한 것을 초자연적인 것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2. 이제 너희는 생명이 담고 있는 진리를 드러내 주는 내 가르침의 핵심에 깊이 들어가, 스스로를 나의 제자로 여기고 머지않아 스승이 되기 시작해야 할 때이다.

3. 제자는 배우는 자이며, 스승은 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이다. 너희도 그러해야 한다. 만일 너희가 단지 배우기만 하고 내 지혜를 마음속에 감추기만 하거나, 내 가르침을 변형시킨다면, 너희는 내가 그 당시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기 위해 그토록 강력히 비난했던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4. 길은 길며, 너희는 어떤 극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깊게 걸어야 한다. 즉, 영적인 것이 너희에게 너무 일상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동시에 광신주의에 빠지지도 말아야 한다.

5. 일단 영적 영혼과 “육체” 사이에 존재해야 할 균형을 이루게 되면, 존재가 얼마나 가벼운지,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평탄한지 알게 될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 너희의 길을 걸어가며, 영혼의 발전을 위해 삶이 제공하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게 될 것이다.

그때 영적 삶의 문턱에 다다르고, 여러분을 품어주었던 세상과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육신에 작별을 고할 시간이 다가올 때, 그 어떤 저항도 있어서는 안 되며, 영혼이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기를 바라지도 말고, 육신의 껍질이 영혼을 더 이상 붙잡아 두어서는 안 됩니다.

6. 영혼이 새로운 안식처로 들어설 때 얼마나 큰 기쁨과 빛을 경험하게 될지, 그리고 지상에서 그와 함께했던 이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평화와 화해를 남기게 될지!

7. 나는 세상에 만연한 분위기가 영성화와 상충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길을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큰 공로가 될 것입니다.

8. 나는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도 그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메시지를 보내주었다.

9. 나의 힘을 빌려 이를 극복하는 법을 배우라. 인간의 궁핍을 초월하기 위해 분투하라. 일단 너희의 삶을 고양시키고 영혼을 해방시켰다면, 다시 침몰하지 말라.

10. 나의 길에는 함정이 없다. 그러나 길가에는 덩불이 무성하고, 그 속에 때로는 교활한 늑대가 숨어 있으므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여 너희가 기습당하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선한 길을 걷고자 하는 이를 넘어뜨리거나 그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숨어 있는 자들을 너희가 기습하게 하라.

11. 나는 인류가 가장 큰 고통의 잔을 마실 때, 내 백성이 다시 세상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싸움의 때가 다가오고 있기에, 나의 사자들, 일꾼들, 군인들, 그리고 예언자들을 땅으로 보내고 있다.

12. 내 백성은 단지 여기, 대변자들을 통해 내 목소리를 들은 이들만이 아니다. 내 백성은 온 땅에 퍼져 나갈 것이며, 그들의 자녀는 내 진리를 증언하는 모든 이, 즉 영혼에 빛의 틈을 열어주는 모든 이, 잡초와 싸우고 제3의 시대를 선포하는 모든 이가 될 것이다.

13. 영적으로 깨어나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사명을 깨닫고 이를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다른 나라들에서 나의 다른 사자들이 일어나면, 그들은 서로를 알아보고 연합하며, 생각의 힘으로 세상을 휩쓴 분열과 불화, 그리고 전쟁을 물리침으로써 영적으로 서로를 지원해야 한다.

14. 염려하지 마라, 백성아. 나는 너희가 오늘까지 쌓아온 공로를 받아들었다. 그러나 첫걸음에서 멈추지 말고, 너희가 이론 첫 번째 업적에 안주하지 마라. 침착하고 확고한 발걸음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너희는 승리를 거둘 것이다.

15. 너희의 공로는 영적 왕국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보상을 거두기 위해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 너희 세상에서도 그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16. 이곳에서 너희 육신은 건강과 힘을 얻게 될 것이며, 영적 삶에서는 빛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17. 지혜를 갈망하며 내게 온 자는 결코 속았다고 느낀 적이 없다. 나는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을 막는 어떤 장애물도 없었다는 것을 보았다. 내가 어떻게 너희의 노력과 희생을 보상하지 않겠느냐? 오직 나만이 너희가 이곳에 와서 내

곁에 머물며 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이 성장해야 했는지 알고 있다.

18. 이제 사람들이 스스로 죄사슬을 끊고, 눈가리개를 벗어던지며, 참된 길을 찾는 때가 왔다.

19. 인간은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 주는 빛을 갈망하며, 또한 자신에게 진정으로 금지된 모든 것을 알기를 갈망한다.

20. 영적으로 인간은 무지한 피조물이다. 그를 둘러싼 셀 수 없이 많은 편견과, 그에게 얹혀 있는 위협과 저주들이 영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이 되어 왔다.

21. 이제 영혼들을 깨우는 것은 오직 나의 빛이며, 그들에게 성찰을 촉구하는 것은 나의 목소리이며, 그들을 굳건하게 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싸우게 하는 것은 나의 힘이다.

22. 인류는 마치 낡고 해진 옷을 벗어던지듯 머지않아 편견에서 벗어나, 오랫동안 자신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장벽 너머로 시선과 이성을 간절히 향하게 될 것이다.

23. 수세기 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려 온 주입된 두려움들도, 영적 왕국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그리스도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사라질 것이며, 또한 —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 인류에게 가르쳐야 할 모든 것을 다 계시하지는 못하셨지만 — 빛과 영감, 영적 계시로 가득 찬 시대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낸다면, 그 두려움들도 마찬가지로 사라질 것이다.

24. 사람들은 나를 통해 무지의 멍에에서 벗어나는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25. 생명의 전제 조건이자 근원이며 기초인 영적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지상에 평화가 깃들고 전쟁이 멈추며, 사람들이 새롭게 변하고 죄가 줄어들기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26.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의 진리를 깨닫지도 따르지도 않는 한, 너희의 지상 삶은 모래 위에 지어진 건물과 같을 것이다.

27. 깨어난 자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 냉담하고 무관심한 자들보다 수가 적다. 이들은 만연한 혼돈을 마주해도 불안해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모든 것을 피상적인 원인으로 돌린다. 그들은 자신의 미약한 이해력에 안주하며 이렇게 말한다.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과 종교를 통해 나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부과한 모든 의무를 다 이행하고 있는데, 굳이 신비를 밝히거나 헤아릴 수 없는 영역을 파헤치려 할

필요가 무엇이겠는가? 이 의무 이행 속에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선의 원리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으로 그들은 스스로를 달래며, 자신이 영적인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28.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이러한 의무 이행은 겉으로만 그럴 듯할 뿐 실상은 아니며, 너희의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행하는 선한 일은 극히 적으니, 이는 너희의 삶이 피상적이고, 영적 깨달음이 미미하며, 너희의 행실이 이기심과 허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29. 너희가 쉽게 속일 수 있는 동료들의 눈에는, 너희가 영적·인간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너희 양심과 너희 아버지 앞에서는 허위로 버틸 수 없을 것이다. 그곳에서는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정체된 상태에 머물게 하는 원인이다.

30. 이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났다. 깨달은 자들이 영성, 영적 은사, 능력, 계시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들은 일어나서 그들이 인류를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 하며, 신앙적 신념에 의구심과 불확실성을 야기한다고 말한다.

31. 빛이 나타나고 진리가 빛나기 위해서는 이 투쟁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는 진리가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과, 내 가르침이 진리를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비록 처음에는 빛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할지라도, 결코 사람들 사이에 분열과 불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32. 모든 사람은 *각자의* 무기를 들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영적인 무기를, 어떤 이들은 이성의 무기를, 또 다른 이들은 물질적인 무기를 들 것이다.

33. 오직 육체적 무기의 힘만을 의지하는 자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승리는 그 성질과 힘이 더 큰 영적 무기를 사용하는 자들의 편으로 기울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34. 제2시대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든 것을 계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성주의는 사람들 사이에서 비밀로 여겨졌던 모든 것을 해명하고 설명해 준다. 영성주의의 도움 없이는 그들은 결코 계시의 핵심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35.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직 어린 양만이 일곱 봉인의 책을 풀어 그 모든 내용을 너희에게 보여 줄 수 있었다.

36. 백성들아, 이 가르침을 실천하라. 세상에 내 말씀의 진리를 보여 줄 때가 왔다. 나는 너희를 부르셨으니, 인류가 그토록 절실히 알아야 할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37.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말씀이 땅의 민족들에게 전해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즉시 영성주의자로 변할 것이라는 말이 아니다. 아니오 — 우선은 영성화가 모든 종교 공동체에 적용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사람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즉 그들 사이에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조화, 일치, 그리고 이해라는 단 하나의 지점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38. 잡초는 뿌리째 뽑힐 것이며, 그 자리에 풍요와 노동, 진보, 그리고 평화의 상징인 밀이 자라날 것이다.

39. 자신의 길을 밝혀줄 빛을 갈망하며 오는 모든 이들을 환영한다.

40. 내 곁에 머물라. 나는 모든 길에 빛을 비추는 등대이다. 이 빛은 새로운 것이 아니니, 인류의 삶이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의 양심 속에서 빛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영적 삶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도록 창조되었기에, “말씀”이 예수 안에서 육신이 되어 그분의 말씀으로 신비의 장막을 찢어내야만 했다.

41. 과연 여러 세대에 걸친 온 인류가 갈보리 산 정상에 올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간 손에 맡기신 그 무한한 사랑을 목상하기라도 했는가? 아니, 인류는 신성한 스승의 빛이 그들에게 드러낸 모든 것을 깨닫고자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연의 신비를 탐구하는 과학의 빛을, 영혼의 위대함보다 세속적인 권력을 더 선호했다.

42. 나의 빛은 단 한 순간도 양심 속에서 빛나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은 아직 미성숙하여 아버지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에게 다가오실 필요가 있었기에, 나는 새로운 시대의 약속을 담은 메시지를 전하는 엘리야의 영을 보내었다.

엘리야는 내가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기 위해 오실 방식에 대한 계시를 세상에 전했으며, 나의 선구자로서 한 사람의 이성 능력을 열어 그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는 또한 환상과 영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며, 인간의 이성 기관을 통한 선포 이후에 영과 영 사이의 대화가 이어질 것임을 너희에게 예고했다.

43. 어떤 이들은 나의 재림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폭로하시고, 성전에서 상인들을 쫓아내시며, 위대하다고

자처하는 자들 앞에 절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44. 고통받는 이들, 의에 대한 굶주림과 갈증을 느끼는 이들, 빛과 고향을 갈망하는 이들, 영혼이 멈추지 않고 전진해야 함을 깨닫는 이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 그들은 모두 기도 속에서 나를 부르며, 고통 속에서 나에게 간구하며, 내가 언제 올지 묻는다. 그들은 인류가 나, 나의 말씀, 나의 치유, 그리고 나의 기적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45. 끝없는 전쟁에 휩싸인 민족들을 보느냐? 내가 가르친 사랑을 가장 단호하게 부정하는 그 전쟁들을 보느냐? 비록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칭하며 나의 최상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를 설교하면서도 서로 적대하는 종교 공동체들을 보느냐?

46. 인간의 권력욕으로 인해 촉발된 이 전쟁들과 신앙적 신념의 차이들로 인해 인류에게 얼마나 많은 비참함과 고통이 닥쳤는지.

47. 나는 이 시대에 너희에게 씨앗 하나를 건네주었으니, 그 씨앗은 이 백성의 마음속에서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르침은 인류를 뒤흔들 것이며, 하나님의 진정한 계시로 믿어질 것이다. 너희 모두—내 사역에서 임무나 사명을 받은 많은 이들이여—내 가르침을 온전한 순수함 그대로 드러낼 의무가 있다.

48. 영성주의는 의식, 전통, 또는 종교적 의식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모든 외형적인 신 숭배 위에서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가르침에 종파나 교회에서 배운 숭배 행위를 섞는 자는 신성모독자가 될 것이다.

49. 너희가 물질주의와 비밀주의라는 베일 뒤에 이 계시의 빛을 숨겨 둔다면, 어떻게 너희 동료 인간들이 그 빛을 경탄할 수 있겠느냐?

50. 영성주의는 종교들의 혼합이 아니며, 그 단순함 속에서 가장 순수하고 완전한 가르침이며, 이 제3의 시대에 인간의 영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빛이다.

51.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이 시대에 나의 첫 번째 씨앗이기 때문이며, 너희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인류가 너희를 거짓이거나 신성모독자라고 비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52. 만일 너희가 광신에 빠져든다면, 그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 지식의 책은 너희 눈앞에 놓여 있었고, 영혼을 밝혀 주었기 때문이다.

53. 각기 다른 길을 통해 이곳에 온 너희여 — 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씨앗을 이어받아 너희 밭에 뿌려라. 스승이 너희에게 맡겨 주신 진리의 본질을 깨달아라.

54. 완전한 가르침을 알고 있다고 해서 스스로를 완전하다고 여기지 마라. 그러나 너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순수함으로 너희의 사명을 다하려 노력한다면, 나는 참된 위로의 한 마디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을 너희의 길로 이끌어 줄 것이다.

55. 너희의 행실이 아무리 순수하고 사랑이 넘치더라도, 너희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그때야말로 너희는 용서와 고귀함, 자비의 모범을 통해, 너희 마음속에 품고 있다고 느끼는 진리를 어떻게 수호해야 하는지 가르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너희는 물질적인 성전을 지키려 해서는 안 되며, 너희의 이름이나 인격을 지키려 해서는 안 되고, 오직 너희 안에 심겨진 진리를 지켜야 한다.

56. 슬픔과 피로를 품고 내게로 오는 수많은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나는 너희가 내 말씀의 본질을 통해 평화와 믿음, 기쁨으로 돌아올 것임을 알고 있다.

57. 너희는 맨발로, 상처 난 발을 이끌고 이곳에 온다. 광활한 사막에서 자갈과 불타는 듯한 뜨거운 모래로부터 너희를 보호해 주던 샌들이 닳아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너희는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그 사랑을 다시금 증명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58. 어떻게 너희는 믿음의 빛을 희미하게 내버려 둘 수 있었느냐? 어떻게 너희는 참된 길에서 그토록 멀리 벗어나, 심지어 너희 안에 영이 있다는 내면의 지식마저 잃어버리게 되었느냐?

59. 오직 나의 신성한 계시만이 너희가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줄 수 있다. 너희는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60. 너희 존재의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갈망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기묘한 갈증이 점점 더 강해졌다. 그 갈망이 두려움으로 변했을 때, 그것은 너희가 나의 새로운 메시지를 받게 될 때가 왔기 때문이었다.

61. 너희를 괴롭혔던 것은 영혼의 굶주림과 갈증이었다 — 진리와 평화에 대한 굶주림, 사랑과 빛에 대한 갈증.

62. 나는 나의 말씀이 수정처럼 맑고 시원한 물과 같기를 원했다. 그 물의 본질에는 영혼을 위한 참되고 영원한 양식이 담겨 있어 — 마치 여러분이 나를 듣기 위해 올 때, 샘을 발견한 지친

여행자처럼, 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간절히 기다리던 물에 몸을 던지듯이, 나에게 온전히 맡기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63. 너희 모두가 영적인 갈증을 안고 온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그 갈증을 느낀 자는 내 말씀으로 간단히 그 갈증을 해소했다. 그러나 나를 거둬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통과 문제가 여전히 변함없다고 불평하는 이들이 많다. 그 이유는 그들이 나의 본질을 찾지 않고 세상의 재물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64. 결코 스스로를 속이지 않도록 이 점을 잘 명심하십시오.

65. 또한 어떤 이들은 필요한 것을 하나도 부족함 없이 누리며, 안락함에 둘러싸여 살아가면서도, 무언가가 그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무언가가 그들을 두렵게 하며, 무언가가 부족함을 느낀다는 사실에도 주목하라. 그들이 갈망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삶 속에 영적인 존재가 함께하는 것이다. 바로 그 빛의 부재가 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내면 깊이 외쳤다.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것, 내가 바랐던 것, 내게 부족했던 것이다!”

반면, 다른 이들은 이곳에 와서 재물과 건강, 애정을 잃었다고 한탄했으나, 그들의 마음속 공허함은 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잃었던 것을 되찾자, 그들은 적어도 언젠가 들었던 그 천상의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않은 채 떠나버렸습니다.

66. 모든 사람이 이 계시를 느끼고 이해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머무르는 반면, 다른 이들은 떠난다. 모든 사람이 나를 갈망하는 것은 아니며,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67.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류와 민족들, 그리고 국가들을 면밀히 관찰하여,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고통스러운 사막으로 만들어 버렸는지 깨달아야 한다. 그곳에서는 타는 듯한 태양이 그들을 짓누르고, 메마름이 그들을 지배하며 지치게 한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쌓여가는 헤아릴 수 없는 갈증을 너희는 눈치채지 못하느냐? 이제 기분 좋은 그늘과 상쾌한 시원함, 끊임없이 맑고 투명한 물이 있는 오아시스가 생겨나고 있으니, 그들이 그곳에서 진리에 대한 갈망과 사랑과 평화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말이다.

68. 많은 이들이 그 샘으로 올 것이며, 그 물을 마시면 너희처럼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것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곳으로 오는 다른 많은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여 내게 등을 돌리고, 이 계시 속에 아주 사소한 진리조차 담겨 있지 않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들은 떠나겠지만, 모든 것은 미리 예견되고 준비되어 있어, 마침내 영혼의 진정한 갈증이 시작될 때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며, 그들은 사막에서 나를 부르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진리를 깨닫게 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나는, 그들이 오만하게도 내 샘물의 물과 내 식탁의 빵을 거절했을 때 이미 그들을 용서해 주었던 자로서, 그들에게 나의 길을 제시할 것이며, 그들이 그 길 위에서 피로를 잊고, 치유받으며, 평안으로 충만해지고, 나의 빛으로 인해 고양되도록 할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가르침 274

1. 모든 시대의 순례자 여러분, 이 은총의 날에 내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내 식탁에 앉기 위해 여정을 잠시 멈추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 너희가 나를 들을 수 있도록, 나는 너희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준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말씀은 평화와 안녕으로 이끄는 길이다.
3. 그러나 단지 물질적인 것을 구하기 위해서만 나를 찾지 마라. 비록 내가 너희를 괴롭히는 모든 악에 대한 치유의 연고를 가지고 있으며, 일의 문을 여는 열쇠를 소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이상으로 나는 영을 위한 무한한 풍요, 지혜의 흐름, 그리고 영적 기쁨의 고갈되지 않는 샘을 가져다준다.

4. 나는 이 가르침의 의미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다는 것을 안다. 그들이 이를 처음 들을 때 놀라게 되는 것은, 내 가르침이 그들의 영적 영혼에게 직접 말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영혼을 찾으며, 그 영혼에게 이 세상 너머의 왕국을 선사하기 위해 그들에게 다가가, 약속된 고향으로 이끄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그러나 자기만을 위해 살고, 오직 자신의 것만을 사랑하며,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세상에서 기대하는 사람은 — 포기, 인내, 희생, 이타심, 자비에 대해 듣게 되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어준다면, 누가 나에게 줄 것인가? 이 생에서 내가 가진 것이 이토록 적은데 — 왜 내가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가?”

5. 나는 그들을 용서한다. 그들은 달리 생각할 수 없었고, 그들의 이기심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한 번 이상 듣고, 내 말씀 속에 담긴 빛의 한 줄기가 그들의 영혼을 비추면, 그 영혼은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듯, 놀라고 혼란스러워하며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누가 나에게 말을 건네었는가?”

6. 그동안 나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 영혼을 어루만지며, 그 마음의 현을 사랑스럽게 울리게 한다. 마침내 오랫동안 그 사람 안에 쌓여 온 영혼의 고통이 독을 무너뜨리고 눈물로 넘쳐흐르게 되는데, 이는 고백과 믿음으로의 각성, 영적 부활, 그리고 빛과 진리, 영원으로 향하는 상승의 시작을 의미한다.

7.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때 내 말씀의 선포회에 왔으나 마음속에 이기심과 물질에 대한 집착, 오만, 그리고 내 영적 가르침을 부정할 논리를 품고 있던 이들은, 이날 내 가르침을 듣자마자 어둠에 휩싸여 이곳에 왔다가, 존재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빛을 목격했던 그날을 즉시 떠올렸다.

8.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제 나의 가장 충실하고 이타적인 일꾼들이 되었다.

9. 백성들아: 나의 말씀은 사람들을 정화시키고 더 나은 삶을 준비하게 할 사랑의 흐름이다.

10. 놀라라: 나는 지금 너희에게, 바로 그 죄인들의 입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할 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11. 너희는 나의 보편적인 구원 계획을 온전히 헤아릴 수 없으나, 너희가 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일부를 알려 주노라.

12. 오직 나만이 세상이 처한 이 시기의 의미를 알고 있다. 그 어떤 인간도 이 시간의 실체를 깨달을 수 없다. 사람들은 태초부터 끊임없이 스스로를 더럽혀 왔으며, 결국 자신의 감성과 영혼을 어둡게 만들고, 병들고 불안하며 슬픈 삶을 스스로 만들어 냈다. 그러나 이제 정화의 시간이 도래했다.

13. 이 신성한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은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며, 기도에 힘쓰고, 악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대신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가 이 시대의 사건들이 지닌 의미를 아는 것은 아니기에, 사람들 사이에는 혼란과 절망, 고통, 증오, 횡행하는 권력욕, 악덕, 범죄, 그리고 온갖 저열한 정욕이 만연해 있습니다.

14. 세상은 나의 말씀을 필요로 하며, 민족과 국가들은 나의 사랑의 가르침을 필요로 한다. 통치자, 과학자, 판사, 목회자, 교사 — 그들 모두는 나의 진리의 빛을 필요로 하며, 바로 그 때문에 내가 이 시대에 와서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 그리고 이성을 비추고자 한다.

15. 너희가 내 영을 위한 선구자가 되어, 내가 지상의 마음과 민족들, 국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면, 너희는 만족감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길을 뚫고 길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 어떤 본보기와 증거를 보여주고자 하는가?

16. 나의 사역이 완전하고, 영원하며, 강력하고, 명료하며, 빛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17. 아직 미성숙한 제자들아, 너희는 더 높은 세계의 영들이 — 너희의 형제자매인 존재들이 —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나를 섬기며 순종하는지 안다면,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 보인 너희의 행동에 대해 깊은 후회를 느낄 것이며, 완전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시는 분께 바치기 위해 서둘러 너희 마음속에 성소를 마련하려 할 것이다.

18. 내 사랑을 너희 마음속에 두어, 사람들의 고통에 민감해지도록 하라. 너희는 용서를 실천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도록 연민을 배워야 한다.

19. 내 말씀이 너희 마음을 뒤흔들게 하여,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뛰게 하라.

20. 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라. 너희가 내 진리의 참된 씨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할 때, 바로 이 가르침들이 싸움에서 너희의 무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21. 이리 오라. 나는 우는 자들에게 위로로 베풀며, 너희도 울고 있으니,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고, 어떤 이는 흐느낌 없이 마음속으로 울고 있다.

22. 나는 너희의 고통을 거두어 평안으로 바꾸노라 — 영혼의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유일한 분인 내가. 나는 너희 영혼의 짐을 위해 오노라 — 너희가 아직 짊어질 수 없는 그 짐을.

23. 오, 사람 속에 육신을 입은 영혼들이여! 너희는 고통과 문제, 시련에 패배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너희는 불행과 역경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 온 것이다.

24. 더 이상 울지도 말고, 잠들지도 마라. 인간의 영적 영혼은 모든 것—시련, 고통, 정욕—과 싸우고 있다.

25. 너희는 삶의 모든 고뇌를 경험해 보았다. 그것이 너희가 원했던 바이다. 그러나 너희의 믿음과 의지, 그리고 노력은 너희를 물질과 고통 위로 끌어올릴 수 있다.

26. 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토록 간단한데! 그러나 너희는 물질로 뒤덮여 있어, 그 의미를 깊이 탐구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 그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다. 언젠가 너희의 영혼이 — 이미 육신의 껍질을 벗은 채 — 기쁨으로 내 말씀을 되뇌며 내 가르침을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것이며, 그 기억에서 너희의 길을 비추는 빛의 흐름이 솟아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영적인 지팡이나 도움이 없던 땅 위를 걸어 다닐 때, 내 가르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을 한탄하게 될 것이다.

27. 너희는 할 수 있을 때마다 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두어라.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 기억에서 사라지고, 너희 마음에서 멀어지고, 너희가 그것을 잊고 외면한다면, 나중에 그것을 찾으려 해도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곳을 떠나버렸다가, 목마름이 괴로워져 다시 찾으려 할 때 물이 증발해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것과 같다.

28. 목마름과 지침 없이 이 삶을 살아가는 법을 알고 싶다면, 깨달음을 얻고 싶다면, 영적인 경지에 이르고 싶다면 — 고통과 혼란을 피하고 싶다면, 나의 가르침을 활용하라. 그것을 너희 존재 속에 지워지지 않게 새겨 넣고, 그것을 너희 삶의 법칙과 기준으로 삼아라.

29. 오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무엇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30. 너희 양심이 너희가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할 때 — 비록 그것이 법칙임에도 불구하고 — 너희는 과연 인간 상태에서 영적 상태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느냐? 공간 속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어 하며,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한다. “나처럼 너희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31.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의 모든 말씀을 깊이 연구한다면, 너희 삶의 길을 밝게 비출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말씀 하나하나에는 정수, 지혜, 영원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32. 내 말씀을 이해하는 자는 마침내 이 세상에 무엇이 왔는지, 그것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33. 이 본질로 마음을 채우는 사람은, 고통을 초월하여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오직 고통과 눈물, 그리고 괴로움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는 결코 말하지 않을 것이다.

34. 인간이 그토록 많은 고통을 겪고 눈물을 흘려온 이 세상은, 많은 이들이 기꺼이 벗어나고 싶어 하는 곳이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이 세상을 사랑으로 채우도록 정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순간 너희 모두에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뿌렸는지 묻는다면 — 너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

35.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해했다고 내게 말하기를 원한다. 바로 그분이 어느 날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분이다. 수 세기에 걸친 지칠 줄 모르는 가르침 끝에 내가 너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음을 깨달아라.

36.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거듭 말하노니, 나를 듣는 법을 배우고, “말씀”이 말씀하실 때 침묵하는 법을 배우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 마음속에 심어진 신성한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수 있다.

37. 나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기를 기다리며 끝없는 인내를 보여 주었다. 너희는 시련을 겪을 때 왜 조금의 인내심도 보이지 않는가? 인내심이 없는 자는 이 속죄의 시기에 인내를 배우게 될 것이라고 너희에게 말하노라. 인내 또한 스승이니, 비록 잠시 동안은 엄하게 가르치더라도 말이다. 오로지 사랑으로만 가르치시는 신성한 스승에게서 배우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

38. 물질주의자에게 시간은 영적인 사람에게와 같지 않다. 한 쪽에게는 정의로 드러나고, 다른 쪽에게는 축복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수세기에 걸친 빛은 언제나 사람들을 비추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이들은 어루만져 주고 모두를 깨우쳤다.

39. 너희는 언제 이 빛이 너희의 영적 영혼을 통해 드러나도록 허락할 것인가? 언제 내가 사슬에서 해방되어 내게로 날아오를 준비가 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40. 여전히 길을 잃은 방랑자들이 많고, 무지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인간들이 많은데, 이는 그들이 영보다 ‘육체’가 더 많고, 진리보다 거짓이 더 많기 때문이다.

41. 그들에게는 물질이 승리자이고 영은 패배자이다. 바로 이 길을 잃은 자들을 내가 영의 잔치, 사랑의 연회에 초대한다. 그곳에서는 나의 천상의 식탁이 모두를 기다리며, 그들을 그토록 많은 괴로움과 외로움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42. 나는 그들에게 나의 음식—빵, 과일, 포도주, 꿀—을 주리니, 이것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따스함, 위로, 평화, 건강, 그리고 지식이다.

43. 너희가 조용히 올려 보내는 기도는 참된 영적 찬송가이며, 그 음색은 의인과 천사들의 음색과 어우러진다.

44. 너희는 죄의 짐을 내 면전으로 가져오고, 너희의 온 삶을 내게 보여준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존재의 깊은 곳에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오직 나만이 아는 고통과 속죄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너희가 그 모든 것에 대해 내게 말하지 않거나, 너희 과거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일들로 인해 내게 간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모든 것 안에 계시며, 내 자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듯이, 내 정의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45. 나의 아버지 같은 사랑을 느끼고, 그 안에서 어둠과 고통, 눈물을 사라지게 하라. 나 안에서 힘을 얻고, 건강과 평화를 되찾아, 강인하게 투쟁의 길로 돌아가라.

46. 이것이 바로 너희가 찾고 있는 말씀이며, 위로를 주고,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으며, 희망으로 가득 채워 주는 말씀이다. 시련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따르는가? 왜 어깨에서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는가? 너희는 내 말씀의 의미 속에서 너희의 모든 고통에 대한 절대적인 이해를 찾기 때문이다.

47. 내가 현재 나의 새로운 계시를 중심으로 모으고 있는 백성을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왜냐하면 ‘제3의 시대’에 부름받은 각 사람

안에 어떤 영이 거하고 있는지, 나보다 더 잘 아는 이는 없기 때문이다.

48. “이스라엘”은 영적인 의미를 지니며, 내가 *너희에게* 이 이름을 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상의 한 민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영들의 세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49. 이 이름은 지상에서 다시 알려지게 될 것이나, 오류가 없이, 영적인 그 진정한 의미 그대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50. 너희는 이 이름의 기원과 의미를 알아야 한다. 너희가 그 민족의 자손이라는 믿음은 절대적이어야 하며, 누구로부터 그리고 왜 이 명칭을 받았는지에 대해 완전히 깨달아야만, 내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가할 공격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51. 너희는 야곱이 꿈속에서 영의 눈으로 보았던 사다리의 비밀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될 영적인 백성이다. 나는 너희가 이미 나의 가르침을 이해할 능력이 있다고 보며, 이를 너희에게 계시하기 위해 너희를 하나로 모았다.

52. 이해하는 능력은 발전과 성숙, 그리고 축적된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53.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계들이 창조되기 전, 그리고 인간이 지상에 나타나기 전부터 너희의 영혼은 이미 존재했다. 그것은 영혼에게 무지의 시대였으며, 준비의 거처에서의 삶이었다 — 영혼이 인간으로 환생하여 지상에 거주할 수 있도록 훈련받던 시기였다.

54. 너희의 이성만으로는 너희 영혼의 과거에 대한 인상이나 기억의 이미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이는 육체가 마치 짙은 베일과 같아서 영혼의 삶 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뇌가 영혼이 과거를 거치며 받아들인 이미지들과 인상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어떤 지성이 인간의 개념과 연관 지어,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는가?

55. 이 모든 이유로 인해, 나는 지금까지 너희가 영적으로 누구인지, 또 너희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알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56. 그렇다면 너희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알 수 있겠느냐? 아니, 나는 너희가 지금 알아야 할 것, 그리고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계시해 주었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이며,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그분께 속해 있으며, 너희의 사명은 무한히 번성하여 모든 이를 이

백성의 공동체로 초대하는 것이며, 너희의 운명은 온 세상에 빛을 전하는 것임을 말해 주었다.

57. 태초에 나는 한 사람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다. 그는 야곱이었으며, 그가 같은 이름을 가진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었다. 이 이름은 영적인 것이었으니, 그 백성이 인류 역사 속에서 마치 영 앞에서 펼쳐진 책과 같게 하려 함이었다.

58. 그 백성은 나의 음성을 듣고, 영 안에 내재된 은사를 드러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 나의 율법을 받았으며, 지극히 큰 시련을 겪었다. 그들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은 이방 민족들 앞에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존재와 율법을 드러내는 것 외에는 없었다.

59. 족장들과 선지자들, 예언자들, 통치자들, 입법자들, 재판관들과 왕들은 나의 사자들이었고, 나의 대변자였으며,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교훈으로, 때로는 정의로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나의 종들과 도구들이었다. 나는 그들을 통해 다른 민족들에게 나의 권능을 증명해 주었다.

60. 이제 수 세기가 지났고, 그 민족의 영광과 심판이 모두 먼 과거의 일이 되었지만, 너희는 그들의 역사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 역사를 세속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로 전환할 때, 너희는 무수히 많은 교훈과 본보기를 얻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마침내 그 이스라엘이 하나의 상징이자 비유임을 깨닫게 될 것이며, 내가 현재 형성하고 있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바로 그 영적인 의미에서의 실현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61. 보라: 당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을 이루고, 믿음과 끈기로 약속의 땅을 정복한 후, 그 자손들을 통해 수도를 세우고 그곳에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 그들은 그곳에 여호와를 기리기 위한 성전을 세웠는데, 그 성전은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의 횃불과 같았다.

62. 약속의 땅에서 쉴 수 있게 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던 그 백성에게, 그들이 거룩하다고 부르던 그 도시에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라고 누가 말했을까?

63. 물질주의, 무지, 광신, 우상 숭배인 “파라오”의 권세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새로운 백성인 너희여, 이제 위대한 사막의 여정을 시작하라. 그러나 너희가 고독과 굶주림, 그리고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던 그때, 갑자기 “구름”이 산 위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그 “구름”에서 신성한 빛의 광선이 뿜어져 나와 너희의 이성적 이해력에 닿자 지혜 그 자체인 말씀이 되었다.

64.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 곧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완전한 법이다. 또한 이는 너희를 양육하고 너희가 새 예루살렘에 도달할 수 있게 해 줄 새로운 만나이기도 하다.

65. 그 도시는 더 이상 이 땅에 없으며,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그 도시는 영적인 세계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언젠가 그곳에 영원히 거하게 되고, 내가 메시아로서 너희에게 올 때, 너희는 더 이상 내게 가시관을 씌우지도, 식초를 마시게 하지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날처럼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날은 수많은 사람들이 겹옷으로 땅을 덮고, 찬송가를 부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날이었다.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스승의 승리의 입성을 기념할 때, 너희는 마음속으로 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66. 이 일이 일단 이루어지면, 나는 더 이상 너희 가운데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67. 너희는 이 계시들의 신성한 의미와, 너희가 그 계시들에 부여했던 세속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있느냐?

68. 지금 나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단지 일시적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말하지 않을 때가 이미 다가오고 있으나, 인류는 나의 현존을 느끼지 못했다.

69. 내가 너희에게 내 말씀을 전하고 너희를 바라보는 그 “산” 위에서, 나는 작별을 앞둔 전날 밤 이렇게 외쳐야 할 것이다. “인류여, 인류여, 네 곁에 누가 계셨는지 알지 못했던 자들아!” 마치 내가 “제2의 시대”에, 죽음을 앞두고 한 산 위에서 도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외쳤던 것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 곁에 있던 선함을 알아보지 못했구나.” 그분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빛이 없었고 진리를 얻기 위해 아직도 많은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였습니다.

70. 만일 ‘첫 번째 시대’에 백성이 소유했던 모든 것이 단지 상징에 그치지 않았더라면, 나의 전능한 정의는 그 도시와 성전, 그리고 전통들을 온전히 보존해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파괴되었으니, 오직 양심 속에 있는 율법만이 계속 빛을 발하여 모든 이가 영의 왕국이 진정으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려 함이었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가르침 275

1. 나는 사랑이니, 이것이 바로 너희가 용서받고 나의 은혜의 선물을 누리는 이유이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는 오직 애정과 선물만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내가 스승으로서도 왔음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결점과 불완전함을 깨닫게 하고, 너희가 어떻게 스스로를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함이다.

2. 나는 너희의 영 안에 함께 있으며, 너희의 마음에 내 빛을 비추어 너희가 현재 받고 있는 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하고, 동시에 너희가 얻은 모든 것이 공로로 얻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또한 나는 너희가 지금까지 받은 것이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전부가 아니며, 오늘 너희가 갈망하는 것 또한 너희의 영적 영혼이 한 번 더 강하게 꽃피게 될 때 그 안에 품게 될 모든 갈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희가 깨닫게 한다.

3. 삶이 주는 시련과 교훈과 함께, 각 교훈의 의미를 설명하고 밝혀 주는 나의 가르침이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깨달음과 경험, 그리고 성장이야말로 여러분에게 마땅히 “제3시대의 나의 신성의 제자”라는 칭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만약 여러분에게 자신의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은 동료 인간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으며, 여러분의 열매는 무엇이 되겠으며, 여러분이 전파하고자 하는 말씀이나 가르침에 대한 증거와 확증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5. 여러분이 일단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을 가질 수 없어 고통받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의 물질주의가 내 제자들의 고양된 모습과 얼마나 대조되는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제자들은 이 생에서 모든

것이 덧없다는 확고한 신념에 기초하여 고귀한 열망과 소망을 품고 있으므로, 큰 만족을 누릴 것입니다.

6. 나의 제자들은 영성의 모범을 통해 세상에 말할 것이다. 즉, 영혼을 세상의 거짓 보물에 묶어두는 대신, 신성에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삶을 통해 말이다.

7. 나는 물질주의자들이 다가올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알게 되면 분노할 것이지만, 그들의 양심은 오직 나의 말씀만이 진리를 말하고 있음을 알려줄 것이다.

8. 사람의 삶에서 모든 것은 덧없습니다. 청춘은 덧없는 허상이고, 명성은 잠시뿐이며, 즐거움은 순간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가르침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것을 성취하려는 이상을 불어넣어 줍니다. 왜냐하면 영의 기쁨과 그에게 주어진 영광은, 일단 얻게 되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9. 백성들아, 너희 삶에 약간의 영성을 불어넣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라, 내가 너희에게 묻노라.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왜 시도해 보지 않는가? 너희가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릴 필요는 없다.

10. 너희가 하는 일에 영적인 숨결을 불어넣기만 하면, 더 이상 단순한 세속적 존재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소명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더 높은 영적 삶의 존재가 될 수 있다.

11. 다시 한 번 말하건대, 나는 너희가 세상에서 맡은 임무를 저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곳에서도 너희에게는 거룩한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세상의 가치를 너희 영혼의 성장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12. 너희는 나의 사역에 대한 지식을 깊이 탐구하고, 나의 말씀을 파악하며, 나의 가르침이 지닌 광범위한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13. 나는 지금 이 영혼들에게 말하고 있다. 나의 빛이 그들을 통해 물질적 육체로 전해질 것이며, 일단 이성과 감각이 깨달음을 얻으면, 그들이 영의 기꺼이 순종하는 도구가 될 것임을 알고 있다.

14.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아, 너희의 육신의 눈을 감고 무한한 공간 속에서 너희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

15. 이 시대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광장이나 거리, 길가, 혹은 계곡의 초원에서 볼 수 있는 인간 예수님이 아니시다. 그것은 모든 영혼과 모든 이성애 현존하는 예수의 영이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쏟아지는 나의 우주적 빛이다.

16. 백성들아, 세상에서 내 가르침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는 것이 너희에게 기쁨이 되지 않겠느냐? 이 눈물의 골짜기가 평화의 땅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사랑으로 일하라. 그러면 너희 영혼에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 제자들아, 너희 영혼 안에서 말이다. 너희는 이 시점에 너희의 거처가 어디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빛의 승리를 영적인 골짜기에서야 비로소 목격하게 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그곳에서 너희는 너희의 행실과 투쟁의 결실을 더욱 소중히 여길 것이다.

17. 너희의 심장이 더 빨리 뛰며, 너희는 내게 말하길 “스승님, 우리 영혼은 언제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라고 한다.

18. 교회 지도자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그들 모두에게,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며, 이 이상을 이루기 위해 너희의 생명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의 모든 수고가 나의 진리에 기초를 두고, 모든 이의 노력이 내가 너희에게 제시한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19. “영성화”, “일체화”, “순종” — 이것이 바로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세울 성소의 견고한 기초이다. 너희가 이를 제대로 실천한다면, 마침내 인류 속에서 나의 사역과 너희의 투쟁이 꽃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20. 내 말씀이 이 대변자들을 통해 선포되기 시작한 이래, 나는 너희에게 영성화를 붙여넣었고, 너희에게 일치를 요구했으며, 너희에게 순종을 가르쳐 왔다.

21. 가장 먼저 온 자들과 가장 마지막에 온 자들 모두, 나의 대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가르침들을 알고 있다.

22. 내 가르침은 너희가 모든 외형적인 신 숭배에서 벗어나, 영적이며 깊고, 진실하며, 고상하고, 순수한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 영성화에 대해 말해 왔다.

23. 내가 너희에게 연합에 대해 자주 말한 것은, 너희가 투쟁할 때 너희의 은사와 힘을 하나로 모으지 않고 각자 따로 행동한다면, 너희의 수고는 결실을 맺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24. 내가 너희에게 ‘순종’에 대해 말한 것은, 너희의 모든 행위가 내 뜻과 같은 완전한 뜻에 복종하게 하고,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 결코 길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내 말씀의 선포가

끝날 때, 너희는 모두 세상에 내 계시의 진리를 증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25. 이 계명들을 따르는 자들은 동료 인간들로부터 믿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계명들을 무시하고, 분열과 불순종, 영성 결핍에 빠져 있는 무리를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자들—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조만간 그들의 기만과 위선이 드러날 것이며, 그들은 가장 큰 시련에 휘말려 심지어 가장 충실한 자들에게조차 버림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26. 너희가 이것을 내 가르침의 승리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아니, 백성아, 너희가 싸움의 끝에 마주하게 될 것은 혼란이 아니다. 그것은 평화와 기쁨, 빛이며, 너희의 하루 일과가 그 정점에 이르게 될 것이다.

27. 이 백성 중 일부가 보여주는 배은망덕과 불순종의 증거를 마주하고도 내 영이 끝없이 무관심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 백성아, 나는 나의 공의를 내릴 것이며, 그 공의로 내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떨게 할 것이니, 마치 그들이 내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자비로 그들을 떨게 했던 것처럼 말이다.

28. 나의 가르침은 이보다 더 명확하고 단순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너희의 기억이 너희를 저버려 그것을 잊게 된다면, 나는 나의 교훈들을 모아 이 제3의 시대에 주어진 나의 말씀의 책을 엮어야 할 이들에게 영감을 주리라. 이 책은 너희가 잊은 모든 것을 상기시켜 줄 것이며, 너희가 시련을 겪을 때 후회로 눈물을 흘리게 할 것이며, 결국에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할 것이다.

29. 왜 때때로 내 말씀이 너희에게 가혹하게 느껴지는가? 그 말씀에는 가혹함이 없으며,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해 품고 있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이 울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다.

30. 내가 이런 어조로 너희에게 말할 때, 재판관의 말씀 뒤에 스승의 임재와 아버지의 본질을 찾아보라. 그러면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31.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고 예언을 할 때, 내가 너희의 미래를 알고 있으며, 내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 자신보다 너희를 더 잘 알고 있음을 알아두라.

32. 침묵 속에서 영적으로 나에게로 올라가는 법을 배우라. 묵상 중에 성령을 통해 나에게 말하면, 너희는 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33. 너희의 지성을 단련하여, 모든 불필요한 생각을 버리게 하고, 영적 대화의 순간에 지성이 한 발 물러서도록 가르쳐라. 그래야 지성이 너희가 집중하고 그 축복받은 순간에 자유로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다.

34. 이러한 영적 준비와 내적 해방을 이룬 영혼은 얼마나 행복한가! 그 영혼의 모든 은사가 드러나고 나타난다! 영감, 계시, 치유력, 내면의 말씀, 그리고 그 밖의 수많은 능력들이 나타나 그 본질과 사명을 보여준다.

35.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영적 기도에 쏟으라. 그러면 곧 그 수련의 결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침을 주고 준비시키기 위해 내 존재를 드러내는 날을 기다리지 마라. 그때가 되면 너희는 매번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며, 영적으로 활력을 되찾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들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6. 매일 잠시나마 이 수행에 전념하십시오. 여러분은 내가 언제나 여러분의 말을 경청하고 여러분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37. 이 시대에 사람들은 진정한 기도를 실천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필요할 때마다 기계적으로 반복할 수 있도록 기도와 간구를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38. 인간은 더 이상 영감을 받아 영혼으로 나에게 말을 건네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모든 이가 알아야 할 영적 언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이는 모든 의식을 버리고, 모든 물질화를 배척하며, 내 존재를 깨닫고 영감의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훈련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9.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면의 성소를 찾기 위해 상징물 앞에서 기도하고 나에게 의식을 바치는 경향을 더 많이 내려놓을수록, 너희는 영적 소통의 은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자라나며, 고양되는지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를 단계적으로 영과 영의 대화로 이끌어 줄 것이며, 이는 사람이 완전하게 기도하는 법을 알게 될 때 일어날 일이다.

40. 이제 너희는, 만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동료 인간들에게 기도에서 완전함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치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기도 속에 존재하는 진리와 힘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41. 설마 눈을 감기만 하면 그 방식이 완전해진다고 그들에게 가르치려는 것이냐? 내면에는 진정한 준비가 전혀 없으면서, 무의미한 행동만을 취하게 함으로써 이웃을 속이려는 것이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백성들아. 너희는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되며, 이웃을 속여서는 더더욱 안 되고, 하물며 너희 아버지를 속여서는 더욱 안 된다.

42. 너희가 기도를 가르친다면, 그것은 너희가 영적 기도의 진리와 힘, 그리고 효력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어야 한다. 너희는 기도를 통해 병자를 치유하고, 불화가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오며, 위험에 처한 자를 구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진정한 믿음을 얻게 될 것이며, 사람들은 너희를 본받아 따르려 할 것이다. 너희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일깨울 것이며, 그들은 너희가 제시하는 증거의 진실함에 놀라게 될 것이다.

43. 잊지 마라. 기도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너희의 믿음이 확고하고 커야 하며, 그리하여 자비가 너희가 나를 향해 승천하는 본질이 되어야 한다.

44. 기적을 이룬 모든 이들, 즉 영적 능력의 증거를 보여준 모든 이들은 그렇게 기도했다. 초창기의 족장들도 그렇게 기도했다: 영에서 영으로. 모세는 광야에서, 다니엘은 사자 굴에서 그렇게 기도했다. 나 또한 예수 안에서, 사람들의 눈앞에서 영적 기도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참된 기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그렇게 행했다.

45.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군중 앞에서 기도하시며, 사람들의 놀라움 속에 떡과 물고기를 배로 늘리셨습니다. 그분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시며, 믿음과 자비에서 우러나온 기도가 건강과 생명을 선사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며, 사람이 아버지와의 교제를 아는 법을 터득할 때 얻게 되는 능력을 그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46. 이 인류는 나의 가르침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들 안의 모든 것은 피상적이고, 거짓이며, 겉치레에 불과하고, 허영에 찬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영적 힘은 무의미하며, 영혼의 힘과 발전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그들은 과학의 품에 안겨 지성을 발전시켜 왔다.

47.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은 과학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강하고 위대하며 강력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성장하고 드러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은 영적 영혼의 힘에 비하면 그 힘과 위대함은 하찮은 것이다.

48. 사람들의 방종과 물질주의가 절정에 달하여 그들이 자신의 기원을 잊게 되었을 때 — 그들의 열정과 쾌락, 그리고 악덕이 넘쳐흐르는 물결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가족, 그리고 이웃에

대한 의무를 모르는 경솔한 존재로 만들었을 때, 바로 그때, 이 말씀이 목마른 사람들의 마음을 위한 수정처럼 맑은 샘물처럼 인류에게 전해졌습니다.

49. 너희는 죄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너희의 삶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정상적이며, 가장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바빌론과 로마가 그들의 모든 타락과 죄를 이 인류에게 전가한 것처럼 보인다.

50. 비록 모순적으로 보일지라도, 지금이야말로 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줄 적절한 때이다.

51. 이교도 로마를 떠올려 보라. 그들은 쾌락에 혐오감을 느끼고, 육체의 쾌락을 누리는 데 지쳐서, 내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을 열었던 것이다.

52. 그 사건들이 다시 반복될 것이며, 너희는 사람들이 진리의 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던 민족들 속에서 내 씨앗이 싹트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53. 지혜와 위로, 그리고 갱신의 약속으로 가득 찬 나의 말씀은, 불결함과 악이 결코 닿지 못했던 마음의 현을 울리게 할 것이다. 생명의 빛과 진리 앞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며, 오랫동안 파괴되었던 도덕이 회복될 것이다.

54. 그 당시 내 가르침으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내 말씀이 가르친 사랑 안에서 구원을 찾았듯이, 이 시대의 유물론자들은 예수께서 생애를 통해 남기신 본보기를 통해 구원의 길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이 시대에 내 영이 사람들에게 쏟아 부은 영적 빛에서 영감을 얻을 것이다. 이 빛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영적 삶에 대한 지식, 영적 영혼의 능력에 대한 계시, 인간이 꿰뚫어 볼 수 없었던 비밀들에 대한 해명이다.

55. 백성아, 내가 너희를 나의 새로운 말씀의 수호자로 삼았다. 오랫동안 나는 너희에게 나를 드러내어, 너희 곁에 계신 것이 바로 영 안에서 내 임재임을 확신하게 하고, 너희가 내 가르침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기록하며, 깊이 성찰할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56.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바로 내 계시가 너희 가운데서 멈출 때, 너희가 그것을 확실하지도, 확신할 수도 없는 덧없는 현상이었다고 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57. 이제 너희는 이 가르침에 대한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나로부터 알게 되었으니,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제자나 추종자로 남겨두지 않고, 스승으로부터 들은 메시지의 해석자, 전령, 그리고 증인으로 남겨두기 때문이다.

58. 너희 중 어떤 이들은 믿음과 힘, 열정으로 가득 차서 하루의 일을 시작할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스스로를 의심하며 싸움 앞에서 떨고 있다. 나는 후자들에 묻노라. 내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다른 민족들이, 그들에게 전해진 증언에 감동받아 너희보다 먼저 일을 시작할 수 있겠느냐?

59. 무엇이 너희를 두렵게 하는가? 너희의 마음이 내게 말하길, “주님, 유물론자들과 불신자들에게 진리를 명백하게 증명할 수 없는 무능력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오해했다. 나는 너희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영적인 것을 회의적인 사람들의 눈앞에서 육체적으로 감지할 수 있게 만들어 그들이 영적인 것을 믿게 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내가 무엇보다도 원했던 것은, 너희가 삶을 정화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너희의 말과 행실로 너희가 고백하는 교리가 참됨을 가장 잘 증명해 주는 것이었다.

60. 모든 것에 대해 과학적인 설명을 찾으려는 사람을 만족시킬 만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매우 어렵게 보일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내가 내 가르침에 담아 둔 위대함은, 너희가 그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과 설명을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61. 설마 내가 너희에게 후진적인 가르침을 전했다고 생각하는가? 내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라. 그러면 그것이 인류의 영적, 지적 발전 모두와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드러났음을 스스로 확신하게 될 것이다.

62.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나는 너희의 과학을 비난하지 않는다. 과학은 인간이 나의 진리를 발견하는 또 다른 길이기 때문이다. 모든 지식 속에서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발견하고, 나의 임재를 느끼며, 나의 법칙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문제 삼는 것은 오직 선한 목적을 위해 창조된 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63. 오늘날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본질과 능력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능숙하다. 여기에서 과학이 인간의 인식 능력에 미친 영향을 보라.

64. 사람들이 아직 자신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만이 존재한다고 믿었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조차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눈이 아는 것에 국한된 신을 상상했다. 그러나 그들의 이성이나 신비를 풀어가는 만큼, 우주도 그들의 눈앞에서 점점 더 넓어졌고, 경탄하는 인간의 지성에게 하나님의 위대함과 전능함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러므로 나는 이 시대에 너희의 발전 단계에 부합하는 가르침을 주어야만 했다.

65.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묻노라. 나의 계시에 담긴 것이 물질적인 지식인가? 아니,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지식은 너희가 보고 오랫동안 탐구해 온 자연 너머의 존재에 관한 것이다. 나의 계시는 영을 모든 것을 발견하고, 인식하며, 이해할 수 있는 삶의 차원으로 이끄는 길을 보여준다.

66.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영적 세계가 자신을 드러내고 너희 삶 속에 현현한다는 것—알려지지 않은 세계와 영역들이 너희에게 자신을 알린다는 것이, 너희에게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이상하게 보이냐? 혹시 너희는 너희의 깨달음이 그 자리에 멈춰 서고, 아버지께서 이미 너희에게 계시해 주신 것 이상으로는 결코 더 이상 계시해 주지 않기를 바라는 것인가?

67. 관습에 얽매어 믿지 말고, 너희 영의 깨달음에 한계를 두지 마라!

68. 오늘 너희는 영적 가르침을 부정하고, 반대하고, 박해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가 내일 진리 앞에 굴복할 것임을 알고 있다.

69. 모든 신성한 계시는 나타날 때마다 반대와 거부를 받았으나, 결국 그 빛은 승리해 왔습니다.

70. 과학적 발견에 있어서도 인류는 마찬가지로 불신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결국 현실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71. 너희는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불신해 왔다. 처음에는 너희의 눈으로 보는 것만 믿었다. 그러나 너희는 발전해 왔고, 이제는 너희의 지성이 발견한 것을 믿게 되었다. 너희의 정신이 언젠가 그 무한한 지식의 영역에 도달하게 된다면, 물질적 우주 너머에 있는 것을 왜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겠는가?

여러분은 미래의 인류가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닫게 될지 아직 모릅니다. 과거 사람들의 영적 지식과 물질적 지식을 오늘날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가올 시대에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될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72.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도록 깨우고, 준비시키며, 앞으로 보게 될 모든 것을 예언적으로 알려줄 적절한 때입니다.

73. 백성들아, 내 오심이 바로 적당한 때에 이루어졌음을 깨달아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가르침 276

1. 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여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마지막 사람들”이 도착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이미 이전에 나의 영적 잔치에 초대받았던 이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현존과 제3시대의 도래를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2. 그러나 그들은 장애물과 편견을 극복하고 이곳으로 왔으며, 대변자의 입술에서 나온 첫 마디만으로도 “스승님, 바로 주님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의 본질을 알아봅니다. 제 영혼이 떨립니다.”라고 말하기에 충분했다.

3. 1950년 나의 계시가 끝날 때까지 나를 듣고 나의 현존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난 후에도 나의 본질은 그들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니라.

4. 현재 나의 목소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으니, 이는 많은 영혼들에게 지상에서의 순례가 끝날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낙담과, 그 지침, 그 슬픔은 그들이 이미 더 높은 고향, 더 나은 세상을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에서 걷는 마지막 여정을 양심의 지시에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이 땅에서의 그들의 마지막 발자취가 이후 세대가 세상에서 각자의 사명을 다하는 데 축복이 될 수 있다.

5. 많은 사람들의 슬픔은, 그들의 긴 여정에서 그늘 아래 쉬어갈 수 있는 울창한 나무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길에서 나무를 발견하긴 했지만, 그 나무들은 시들었고 그 씨앗은 생명이 없었다.

6. 나를 찾고 오랫동안 희망을 품어 온 모든 사람들은 곧 나의 목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달려갈 것이니,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마지막 흔적과 믿음의 마지막 불꽃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7. 나의 영의 역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찾고 있는 그 거대한 나무이며, 그 그늘 아래서 쉬고 그 열매로 양식을 얻고자 하는 바로 그 나무이다.

8. 그들이 마침내 도착하여 배고픔과 갈증을 해소하고 쉴 수 있게 되어 기뻐할 때, 그들의 상상 속에서는 과거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갈 것이다. 사막을 가로지르던 고통스러운 행군, 유혹이 도사리던 어두운 시절, 위험과 악덕, 죽음의 위협으로 가득 찬 심연들 말이다. 그들은 마셨던 모든 쓰라린 잔들을 떠올리며, 험난한 삶의 여정에서 남긴 투쟁의 흔적들을 자신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9. 이곳에서 그들은 평화를 되찾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길을 평탄하게 다져 주고, 마음속에 축제 같은 기쁨을 품고 그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찬송가를 연습하라.

10. 처음에는 그들이 나의 새로운 계시에 대한 제자가 될 것이며, 그 후 그들의 사랑과 열정을 통해 제자가 될 것이며, 그들의 영혼이 진정으로 양분을 얻고 이 본질로 충만해지면, 더 이상 그늘을 찾기 위해 나무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에서나 나의 임재를 느낄 것이며, 그 안에서 그늘과 피난처, 열매, 안식, 그리고 평화를 찾을 것입니다.

11. “마지막” 자들이 “첫 번째” 자들을 굳건한 모습으로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하여 그들이 그 좋은 본보기를 통해 힘을 얻고, 첫걸음부터 순종과 열정, 순결의 길을 걷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2. 너희는 여러 번 나를 스승으로 모셨다. 그러나 내가 심판자로서 나타나면, 너희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그러면 너희는 내 앞에서 순결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순식간에 스스로 가장 사소한 흠까지도 씻어내고 싶어 한다. 나를 상처 입혔다는 후회는 눈물로 이어지고, 너희의 영혼은 기도로 나에게로 향한다.

그때 비로소 너희가 참된 회개의 행위를 이루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이제 그 빛으로 영혼들을 비추시는 신성한 심판자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게 된다.

13. 회개하고 개선과 갱신을 위한 확고한 결심을 품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불결하고 해로운 것들 위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회개와 자기 성찰, 그리고 개선을 위한 결심이 없다면, 너희는 너희 영혼 속에 세워야 할 성소의 기초를 다지 못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앞으로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애쓰다면, 여러분의 양심이 인생의 모든 행실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14. 사람들이 무고한 희생자들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정화를 추구하던 시대는 여러분에게 있어 이미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오랫동안 실천해 온 금식 수행과 잘못 이해된 참회의 무익함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오직 영혼의 갱신과 영성화만이 평화와 빛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5. 나는 “제2의 시대”에 인간으로서 나의 모범을 통해 나의 진리를 설교하였다. 나는 완전한 사랑의 가르침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무고하고 무지한 존재들에 대한 무의미한 제사를 폐지하였다. 너희는 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불렀는데, 이는 그 백성이 전통적인 명절에 나를 제물로 바쳤기 때문이다. 사실, 내 피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 흘려진 것이다. 내 신성한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그 시대와 모든 시대의 인류에게 쏟아져 내렸으니, 인류가 그 본보기와 그 말씀, 그 완전한 삶에서 영감을 받아 구원, 죄의 정화, 그리고 영혼의 고양을 얻게 하려 함이었다.

16. 이제 너희는 내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왔음을 깨닫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본보기로 삼아 공로를 쌓아야 하며, 이를

통해 영원한 평화의 안식처와 빛의 옷, 그리고 고갈되지 않는 평화를 얻어야 한다.

17. 나는 나의 새로운 사도 무리 속에서 강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며, 지식의 빛으로 충만한 제자들을 원한다. 그 지식은 내가 세 시대에 걸쳐 너희에게 베풀어 준 계시를 통해 너희에게 주었다. 나는 너희가 나의 영이나 영적인 어떤 것을 마치 물질적인 것인 양 탐구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가 과학자들의 방식대로 나를 연구하기를 원치 않으니, 그렇게 하면 너희는 크고 비통할 만한 오류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기도를 통해 영혼을 고양시켜, 겸손과 경외심으로 너희 아버지께 여쭙어 보라고 가르쳤다. 그러면 비밀의 보물 창고가 조금 열려,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을 보게 될 것이며, 너희는 영감의 신성한 빛이 너희의 이성 능력에 스며드는 것을 느낄 것이다.

18. 기도는 너희의 질문과 근심, 그리고 빛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너희 영에 계시된 수단이다. 이 대화를 통해 너희는 의심을 떨쳐버리고, 어떤 비밀을 가리고 있는 장막을 찢어낼 수 있다.

19. 기도는 영과 영 사이의 대화의 시작이며, 이는 다가올 시대에 꽃을 피우고 이 인류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오늘 나는 나를 경청하는 이 백성에게 이 모든 것을 계시하였으니, 그들이 영성화의 시대를 여는 선구자가 되게 하려 함이다.

20. 내 영이 그때서야 비로소 모든 사람 위에 진동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진동과 영감, 임재와 빛은 언제나 사람들과 함께해 왔다. 그러나 그들은 내 메시지를 직접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을 뿐이다.

21. 나는 언제나 너희에게 다가가고, 항상 너희에게 말하며, 항상 너희를 찾아왔다. 그러나 너희는 결코 나를 향한 참된 길로 나아오지 않았고, 영의 언어로 나에게 말한 적도 없으며, 내가 진정으로 계신 곳에서 나를 찾은 적도 없다.

22. 내 말씀이 너희의 잘못을 지적할 때, 낙심하지 말라.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사람들이 지은 모든 잘못과 결점을 용서하였으며, 그들의 영 앞에 빛의 시대를 열어주어 그들이 자신의 불완전함을 깨닫게 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정체된 상태에서 벗어나, 오늘까지 꿰뚫어 보지 못했던 내 사역 속에 담긴 진리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23. 내일 너희의 질문에 답해 줄 목소리가 나의 목소리가 되기를 원하느냐?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이성이 대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성은 결코 영의 영역에 들어간 적이 없으니, 너희에게 무엇을 드러내 보일 수 있겠느냐?

영혼이 일어나 내게로 나아가, 내 사랑과 지혜의 문에 두드리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던 경이로운 삶을 찾게 될 것이다.

24. 오, 제자들아, 내 말씀을 깊이 헤아려 보라. 거기서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준 교훈의 정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25. 나는 너희의 친구이다 — 너희가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분 —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그분이다.

26. 너희가 근심을 나에게 털어놓으러 오는 것을 보노니, 내가 너희 마음을 그 근심에서 해방시켜 주리라. 그리고 나는 진실로 이를 허락하리라. 그러나 이는 너희가 악을 표면적으로만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에서 치유해야 한다는 것, 즉 기도와 간구 외에도 성찰과 갱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다.

27. 너희가 고통의 원인을 놓지 않은 채로, 내가 너희를 병에서 고치거나 어떤 고통에서 해방시켜 준다고 해서, 그 안에 무슨 공로가 있겠느냐?

28. 내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을 통해 너희의 시련과 불행의 이유나 근원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너희의 겸손함이 굳건해지도록 간구하라. 그러나 그 전에, 너희의 영혼과 육신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라.

29. 모두 내게로 와서 너희의 고통에서 치유받으라. 너희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켜 건강을 되찾고 구원을 얻게 하도록 하라. 기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다. 그러나 기적을 받기 위해 더 이상 내 옷자락을 만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과 고양된 마음을 통해 내 영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30.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길을 통해 건강을 되찾았는가! 그들은 제때에 고통의 근원을 알아차리고, 승리할 때까지 싸우기 위해 온전한 믿음과 의지를 다했기 때문이다! 또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슬픔과 혼란, 혹은 실망 속에, 자신이 갈망하던 것을 얻지 못한 채 떠나갔는가! 그들은 단지 이러한 모임 장소 중 한 곳에 가거나 단순히 간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모든 것을 얻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의 원인을 밝혀내는 데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고, 찾던 선한 것을 얻지 못한 채 떠나야만 했다.

바로 영적인 빛 없이 살아가는 이들은 자신의 고통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건강이나 평화가 지닌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31.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도마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어, 보고 만져보아야만 믿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제자들 중 가장 믿음이 없던 자에게 허락되었던 그 증거들은 이 시대에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나를 다시는 사람으로 맞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내가 그 본보기를 내 모든 자녀들 앞에 열린 책처럼 남겨 두어, 그들이 이 교훈을 깊이 헤아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32. 내가 세상에 오직 인간으로서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니다. 지금 나는 영적으로 너희 안에서 느껴지게 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내가 사람들에게 무수한 방식으로 나를 드러낼 수 있다는 증거이다. 나는 모든 것을 창조하였고 너희를 알고 있기에, 이 인류의 잠든 영혼을 어떻게 깨울 수 있는지 알고 있다.

33. 그 당시 나의 겸손함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떨리게 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나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허세를 보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제 왕 중의 왕이 왕관 없이 오셨고, 이 땅에 왕좌도 없으심을 보게 되자, 그들의 눈이 뜨이고 진리를 깨달았다.

34.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나는 나의 겸손으로 세상을 뒤흔들 것이니, 나는 새 시대의 도래를 예감한 선구자들의 소박함과 은둔을 선택하여 그들 가운데서 나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써, 너희에게 그 첫 번째 증거를 이미 보여주었다.

35. 인류를 영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내 이름을 악용한 자들아, 그로 인해 인류의 상향 발전을 방해하거나 오류로 이끌었다면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진리를 찾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대열을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 주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준 과학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가난하고 무지한 이들이, 자신들이 가진 모든 과학으로도 이를 수 없는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6. 이 시대의 기적들도 후세대를 위한 증거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기적들은 육체보다는 영혼 안에서 더 많이 실현될 것이다.

37. 그 '두 번째 시대'에 나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었다. 나는 맹인,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 귀머거리, 절름발이, 병어리를 고쳐

주었다. 그들은 모두 육체적으로 병들었으나, 그들의 육체에 이루어진 기적을 통해 그들의 영혼이 부활하였다.

38. 이제 내가 온 것은 무엇보다도 영혼에게 빛을 비추고, 자유를 주며, 믿음을 불태우고, 모든 악에서 치유하여, 그 후에 영혼이 스스로 몸을 강건하게 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39.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가 너희를 점점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만나야 하며, 따라서 나의 가르침도 점점 더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40. 그러므로 세상은 더 이상 내가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모습을 보지도,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지도 못할 것이며, 대신 내 영적 현존을 느끼기 위해 스스로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41. 인류여, 이 시기에 너희를 둘러싼 고통과 비참함, 그리고 혼돈이 너희에게 예측할 수 없는 일로 보이냐? 너희가 놀라는 것은, 내 예언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미리 예견되었고, 모든 것이 예고되었으나, 너희에게는 믿음이 부족했고, 그 결과 이제 너희는 매우 쓰라린 잔을 마시고 있다.

42. 오늘날에도 나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 예언하고 있다. 어떤 예언은 곧 성취될 것이며, 다른 예언은 먼 훗날에야 성취될 것이다. 이 예언을 듣는 이 백성은 그것을 인류에게 알리는 큰 책임을 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 예언들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게 해주는 빛이 담겨 있어, 심연으로 치닫는 그들의 광란의 질주를 멈추게 하기 위함이다.

43. 나의 사자들은 열방에게 다음과 같이 알릴 것이다. 만일 그들이 위대함과 권력을 향한 어리석고 광기 어린 추구를 계속하며, 아직 알지도 못하고 다루는 법도 모르는 그런 힘과 요소들을 이용한다면, 주님께서 창조하신 낙원이었으나 나중에는 인간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눈물의 골짜기가 되었던 이 지구는, 인류의 악행으로 인해 죽음과 침묵의 땅으로 변모될 것임을 알릴 것이다.

44. 너희는 이것을 과연 과학의 성공이나 승리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인류가 평화와 조화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류에게 진정한 승리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인류는 인간적이지 영적인 가장 위대한 성취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는 계명, 즉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45. 다른 나라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민족에게 몰려와, 여러분이 이 시기에 목격한 영적 사건들과, 내가 여러분에게 계시와 예언들에 대해 간절히 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여러 곳에서, 나의 신성한 광선이 서쪽의 한 곳에 내려와 이 시대의 인류에게 말씀하신다는 나의 메시지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때가 되면, 너희는 다른 민족과 나라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찾아오기 위해 몰려드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때 주요 종교 단체의 지도자들은 내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을 것이다.

46. 이제 너희는 내가 왜 너희가 물질주의와 싸우고, 모든 의심과 오류를 없애기를 원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 동료들이 너희에게 왔을 때 환멸이나 실망을 겪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너희를 형제라고 부르기보다는 너희의 적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47. 세상에 만연한 이토록 큰 혼란이 너희에게 고통스럽지 않은가? 이토록 큰 영적 어둠을 마주하며 너희는 고통받지 않는가?

48. 훌륭한 제자가 되라 — 지식은 깊되 가르치는 태도는 겸손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삶이 주는 모든 씨 뿌릴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스스로 스승이라 칭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길에서 행하는 모든 일과 그 과정에서 겪는 시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49. 지금은 성찰할 수 있는 귀중한 순간이니, 일상에서 벗어나 발전의 길로 들어서며 이 사역의 순수함을 진정으로 깨닫도록 하라. 너희 모두가 그 순수함을 깊이 생각해 보거나 이해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너희 가운데서, 의식에 치우친 소수에게는 호감을 줄지 몰라도 대다수를 혼란스럽게 할 만큼 낮은 숭배 형식과 관행들을 목격하고 있다. 그들은 그러한 행동이 미래에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50. 너희는 스승께서 사람들이 그분의 사역을 파괴할까 두려워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백성아, 아버지는 두려워할 것이 없으시니, 그분의 사역은 파괴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사랑하고, 내 사역을 온전한 순수함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떤 종교 공동체에 속해 있든 간에, 형제자매에 대한 연민 없이 이웃을 혼란스럽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상처 입힌 모든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많은 고통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웃에게 빵 대신 돌을, 빛 대신 어둠을, 진리 대신 거짓을 주었기 때문이다.

51. 백성들아, 너희 모두 이 말씀을 받았으니, 너희가 들은 바를 명심하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를 강제로 내게 섬기게 하거나 정해진 길을 따르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기꺼이 나서는 자, 마음속에서 느끼는 사랑을 거스를 수 없는 자, 그 길 위에서 발이 피투성이가 될까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스승을 따르며, 이웃을 통해 나에게 섬기려 준비된 자라.

52. 엘리야는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그들에게 진리의 길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하며, 사람들에게 영성을 보여주고, 혼란과 불의, 악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다.

53.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그들을 양처럼 우리에서 이끌어 내어 내게로 인도하기 위해 미덕과 사랑을 보여준다.

54. 이 제3의 시대에 나는 너희에게 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인간의 이성 능력에 나의 우주적 광선을 비추었다. 그러나 인류는 자신들의 생각과 관념에 따라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아직 나의 신성한 계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시작도 끝도 없는 오직 한 분의 참된 하나님만이 계시며, 그분은 인간에게 신성한 영의 불꽃을 부여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양심의 빛으로서 선과 악을 분별하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다.

55. 선택받은 백성들아: 다양한 신앙 고백과 교리, 여러 교회와 종파에 속한 학자들이 이 영적 가르침의 결실을 탐구하기 위해 학문을 연마하고 있다. 그들은 너희가 현재 의지하고 있는 신이 어떤 성품을 지녔는지 물을 것이다. 너희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떤 질문에도 답할 줄 아는 깨달은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이 일을 옹호하는 법을 알기를 원한다.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너희의 말과 생각과 행실로 나의 진리를 증언하게 될 것이므로, 사람들로부터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56. 너희가 나의 율법을 지키면, 사람들은 너희를 사기꾼으로 몰아가지 않을 것이니, 그들은 너희의 순종을 보고 너희를 자신들의 형제자매로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57. 마음속에 올바른 원칙을 품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성찰하며, 말에서 거짓을 제거하고, 사랑과 연민, 자비로 이웃을

대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서 나의 신성을 느끼게 될 것이며, 너그러운 행동과 선을 행하려는 결심 속에서 자신의 하나님과 닮아 있을 것이다.

58.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이 얼마나 적은가! 이러한 방식으로 나의 율법을 실천한 자들의 수는 적다. 그러나 너희, 곧 선택받은 백성인 너희에게 나는 선을 행하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선한 생각과 기도를 통해 이를 실천할 수 있다. 기도를 통해 너희는 너희의 영적 영혼을 나의 신성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내가 무한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어루만지고, 위로하며, 나의 율법을 따르도록 가르치기 위해 너희의 세상으로 내려온다.

59. 나는 매일 너희 가운데 머물며 미덕을 실천하도록 가르치고, 내 사랑을 너희에게 맡기며, 너희가 어디서나 선을 행하겠다는 결심과 갱신을 다짐하며 높아지도록 너희의 영혼과 이성을 비추어 주었다. 나는 너희가 용서하도록 가르쳤으니, 이는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너희가 빛의 자녀임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여 너희는 선한 본보기를 통해 세상에 진리의 길을 보여 줄 수 있고, 사랑의 행실을 통해 너희가 나의 말씀을 받았음을 증거할 수 있느니라.

60. 사람들은 너희를 비난할 이유가 없을 것이니, 너희가 선을 행하도록 나로부터 영감을 받았음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61. 내 뜻대로 이 영적 사역에 힘써, 인류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고, 그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어두운 길을 밝혀 주도록 하라.

62. 나를 직접 의지하라. 나는 너희 영혼 속으로 들어가, 무한한 연민과 끝없는 사랑으로 너희의 비밀을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목차

가르침 242	구절 번호
영의 길과 소명	2
정의는 전쟁을 근절한다	18
“평화의 왕국”에 대한 예언들	58
진정한 가치	64
가르침 243	구절 번호
하나의 길과 하나의 진리	2
144,000명의 표식 받은 자들	19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	25
영적 무기는 위협적이지 않다	35
1950년 이후의 영적 소통	39
은사들	43
전쟁과 그 원인	46
머지않아 인류는 환생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47
신성한 현현들	50
이 신성한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질 것이다	52

속죄의 길	61
저 세상의 존재들	64
가르침 244	구절 번호
영적 현현, 인간의 이성 능력	3
삼위일체	3
세 가지 시기	8
영과 영 사이의 소통	23
환생	28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지식의 은총	30
영적 성취를 위해 노력하라	34
가나안은 영적 이스라엘의 목표가 아니다	41
상징과 영성	42
가르침 245	구절 번호
영적 및 물질적 삶의 진정한 길	2
사실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18
신성한 완전함에 이르는 길	23
신성한 용서와 우리의 공로	29
윤회의 끝	43
아버지께서는 항상 세상에 나타나셨다	58
가르침 246	구절 번호
영성의 길	1
신성한 가르침의 의미와 종교들의 오류	8
1950년 이후	23
영적 이스라엘의 사명	28
곧 일곱 번째 봉인이 풀릴 것이다	29
엘리아	45
영성과 종교적 신조	52
영적 평화는 물질적 권력의 허세를 물리칠 것이다	61
사랑을 통한 평등	63
가르침 247	구절 번호

제자의 길	4
제2시대에 스승께서 오신 의미	23
십자가와 예수의 십자가 처형의 의미	29
다른 세계의 영들의 해방	40
사랑을 통한 우주의 변혁	46
봉사자들에게 전하는 말씀	50
진정한 영적 기도	52
가르침 248	구절 번호
사상의 투쟁과 영적 계시	1
“적그리스도”는 존재하는가?	11
의심에 대하여	12
세상의 종말은 존재하는가?	13
거짓 그리스도들	14
진노와 신의 심판은 존재하는가?	17
화신의 이유	23
삶의 진정한 의미	28
잘못된 해석들	28
크리스마스	37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관계	57
단 하나의 물질적 삶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60
가르침 249	구절 번호
영 안에서 스승의 귀환	1
구원의 길	21
영과 지성	44
영성의 시대	48
물질화된 이들	63
가르침 250	구절 번호
멕시코의 책임	3
진정한 평화	15
영적인 지혜는 겸손한 자들에게 있다	17
이 제3의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19
이 행성의 운명	37
중대한 사건에 대한 예언	53
양심은 신성한 빛이다	56

믿음이 이를 수 있는 것	66
가르침 251	구절 번호
이 제3시대의 영적 각성	3
선택받은 백성의 사명	10
시련은 적절한 때에 찾아온다	20
부름받은 자와 선택받은 자	34
가르침 252	구절 번호
"영의 것은 하나님께, 물질의 것은 세상에 물질에 속한 것은 세상에 드리라"	3
혼란 속의 준비 기간	14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36
"생명책"의 편찬	45
다윗과 솔로몬이 주는 교훈	58
가르침 253 (1949년 1월 1일)	구절 번호
의와 생명	1
외형적인 종교 의식의 오류	20
성령을 통한 이스라엘의 사명	51
가르침 254 (1949년 1월 1일)	구절 번호
하나님의 의	1
제3시대의 제자의 각성	7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강림	50
새로운 세대를 위한 본보기들	54
가르침 255	구절 번호
하나님의 세 번째 재림과 그분의 증거	1
종교와 숭배는 영성화되어야 한다	16
전통주의와 영성	20
위대한 빛을 지닌 영들이 이 세상에 환생할 것이다	43
"일곱 봉인"의 의미	56
가르침 256	구절 번호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길	2

영적 고통	11
인간의 과학	26
제2시대의 사도들의 본보기	30
영적 기도	63
가르침 257	구절 번호
물질적 삶과 영적 삶	1
제자의 책임	34
세상은 변화될 것이다	57
가르침 258	구절 번호
인류의 각성	4
고통은 길을 잃었음을 알리는 신호다	25
1866년은 제3시대의 시작이다	41
몸과 마음의 목적	72
가르침 259 (종려주일)	구절 번호
물질적인 종려나무 가지는 하나님께 닿지 못한다	16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이 아니다	53
영적인 은사들	56
영적 표식의 의미	60
1950년의 의미	84
가르침 260	구절 번호
우리는 오늘날 여섯 번째 봉인 속에 살고 있다	2
영과 과학	9
이스라엘의 영적 사명	18
많은 이들이 여전히 약속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33
준비된 제자의 권능	37
멕시코는 “새 예루살렘”의 반영이다	40
사상의 투쟁	44
완벽한 영적 소통	57
가르침 261	구절 번호
존재의 목적	5
진정한 기도는 영적인 것이다	21
영성	34
의식과 상징은 사라질 것이다	39

물질적 죽음 너머에도 삶은 존재한다	55
신성한 광선의 소통	59
가르침 262	구절 번호
영적 성취	4
인간은 파괴와 전쟁의 원인이다	26
영적 소통, 진리로 가는 길	34
인간 삶의 목적 중 하나	47
신은 지극한 단순함이다	55
가나안의 결혼식	67
고통과 신의 도움	70
가르침 263	구절 번호
영적 분석을 통한 빛, 진리, 지혜	1
마리아는 어떠한 형태도 없다	30
환생은 기회이다	44
시련 속의 예수님의 모범	49
준비와 성취	62
가르침 264	구절 번호
제3시대의 제자	1
진정한 신성한 성전	9
공부와 명상	15
1950년을 기점으로 제3시대의 계시가 끝난다	32
제3시대의 새로운 신의 강림	35
제자의 갈망	48
완벽을 향한 길	49
아이들의 영적 교육	59
가르침 265	구절 번호
영적 완성	1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22
진화의 법칙과 정제된 종교들	23
전쟁과 재난, 그리고 그 원인	28
영매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38
영적 소통	49
신성한 유산	63
영적 세계의 사명	65
가르침 266	절 번호

영과 물질	5
시련은 유익하다	14
의견에 대한 평정심	33
공덕의 중요성	34
다른 나라에서의 의사소통	41
영성	47
영적 기도	50
과학과 사랑	58
신성한 정의에 관한 예언들	62
가르침 267	구절 번호
생명의 책	4
인류 사이의 사상 투쟁	23
1866년부터 1950년까지	30
“목소리 전달자”	32
정화되는 시련	40
새로운 메시지	59
영적 이스라엘의 책임	66
가르침 268	구절 번호
1950년 이후를 위한 준비	1
모두 구원받을 것이다	21
삶의 이유	28
여섯 번째 봉인의 빛	48
이데올로기의 투쟁	58
마리아는 신성한 표현이다	67
믿음이란 무엇인가?	71
가르침 269	절 번호
모든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1
여섯 번째 봉인이 열렸다	10
모든 악의 근원인 무지	12
주님의 일꾼들	28
하나님은 영들의 이상이다	59
가르침 270	절 번호
영의 빵과 포도주	1
영성주의자의 사명	10
인류의 각성 시대	43
가르침 271	절 번호

영성주의자의 사명과 기회	2
신성한 정의란 무엇인가	18
물질적 진화와 영적 정체	37
영의 삶	43
영매주의는 어떤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가?	51
인간의 전쟁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64
평화의 왕국에 대한 예언	66
가르침 272	절 번호
스승의 일꾼들	1
시험의 이유	7
성령의 제3의 시대	9
우리는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21
배상(補償)의 정의	23
천국과 지옥의 의미	29
물질적 행위와 영적 행위	38
영적 죽음과 육체적 죽음의 관계	46
진정한 영성주의자의 사명	54
가르침 273	절 번호
영과 물질의 균형	5
제3시대의 영적 백성	11
인류는 머지않아 해방될 것이다	20
영적 깨달음의 결여가 초래하는 결과	25
영성주의는 종교나 종파가 아니다	48
가르침 274	절 번호
진정한 가치에 대한 가르침	2
영적 이스라엘의 의미	47
영의 진화	52
가르침 275	절 번호
영원한 가치	2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이다	32
기회의 시간	50
과학적 세계와 신성한 계시	62
가르침 276	절 번호
인류의 평화를 향한 추구	4
영과 영 사이의 소통	17
기도와 갱신	26
겸손	33
치유의 과정	37

예언	41
준비	52

1866-1950년 멕시코의 신성한 가르침 참고 문헌

라이히틀 출판사, D-56329 세인트 고아르, 전화: +49 (0)6741 1720

『진정한 삶의 책』,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 제6권

『제3의 성서』 (스페인어, 영어, 프랑스어판도 있음)

멕시코의 신성한 계시 (간략한 소개)

삶의 문제에 관한 신성한 계시

제3의 시대를 위한 예언들

삶을 위한 도서 서비스, 만프레드 베제, Kirchweg 5, D-88521 에르팅겐

전화: +49 (0)7371 929 66 42, 이메일: manfredbaese@gmx.de

신성한 사랑, 우리 삶과 모든 존재의 기원, 본질, 그리고 목적

El Amor Divino - 우리 삶과 모든 존재의 기원, 본질, 그리고 목적

『진정한 삶의 책』, 제7권, 제8권, 제9권, 제10권, 제11권, 제12권

제3의 성서

유니콘 재단, D-88709 메어스부르크

전화: +49 (0)7532 808162, 이메일: info@unicon-stiftung.de

『진정한 삶의 책』 소개 (무료)

아소시아시온 데 에스투디오스 에스피리투알레스 비다 베르다데라 A.C.

오리노코 54번지 5호, 콜로니아 자카후이츠코, 03550 멕시코 시티

『진정한 삶의 책』, 제1권~제12권

『제3의 성서』
및 멕시코의 이 신성한 계시에 관한 기타 서적들

웹사이트

www.drei-offenbarungen.net
www.reichl-verlag.de
www.unicon-stiftung.de
www.drittes-testament.de
www.drittetestament.wordpress.com (다국어)
www.tercera-era.net (스페인어)
www.144000.net (다국어)
www.dritte-zeit.net